

영 주 소 수 서 원

종 합 정 비 계 획

2014

제 출 문

영주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사]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

연구책임 최병극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9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10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14

I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19
2. 관련계획 및 법규	33

III. 소수서원 현황

1. 소수서원의 개요	51
2. 소수서원의 역사와 문화	52
3. 서원현황	185
4. 관리현황	253
5. 활용현황	262

IV. 기본구상

1. 기본방향	267
2. 기본구상	272

V. 종합정비계획

1. 유적 및 유구정비	279
2. 경관정비	288
3. 주변정비	329
4. 건축물정비	363
5. 동선정비	371
6. Master Plan	373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1. 서원관리계획	377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378
3. 관리현황종합	379
4. 활용계획	384
5. 홍보방안	402

V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409
2. 사업투자계획	412

■ 부록

1. 자문의견서	417
2. 보고회회의록	419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 계획의 배경

-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私學) 교육의 전형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한국 특유의 공간유형과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제향의례와 강학 및 사회교육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수행하고 있는 탁월한 문화유산이다.
- 그 중 영주 소수서원(榮州 紹修書院)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1541년(중종 36)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周世鵬)이 이듬해에 이곳 출신 유학자인 안향(安珦)을 배향하기 위해 사묘(祠廟)를 설립하였다가, 1543년에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설립한 것이 이 서원의 시초로서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존속된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 2012년 1월 10일에 조선시대의 대표적 서원 9개소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 확정됨에 따라 이 서원들의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2. 계획의 목적

- 본 용역에서는 소수서원에 관한 철저한 고증과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소수서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 세계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계획의 범위 및 방법

2-1. 계획의 범위

2-1-1. 공간적 범위

- 영주 소수서원 일원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152-8 (지정구역 면적: 18,657m²)
- 그 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



영주 소수서원 위치도_다음 위성사진(<http://map.daum.net>)

2-1-2. 시간적 범위

- 2013년 09월 05일 ~ 2014년 6월 4일, 준공일 2014년 12월 10일

2-1-3. 내용적 범위

- 연구의 개요
- 환경 및 정비여건 분석
- 사례조사 및 분석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 사업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2-2. 계획의 방법

2-2-1. 문헌조사

- 소수서원 및 관련 선현에 대한 고문헌 및 기록 조사 정리
- 기존 보고서 및 관련 연구내용 조사 정리
- 소수서원 및 관련 선현의 역사적 배경 정리

2-2-2.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 영주시의 일반현황 조사

- 입지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 등

■ 소수서원 현황조사

- 현존 건물에 대한 파악 및 배치, 건물 구조와 양식 조사
- 기존 건물에 관한 도면은 기존 도면을 활용하고, 누락 부분은 간이 실측을 통한 도면 작성
- 토지이용 및 시설물 현황 파악
- 주변의 교통이용과 경관 현황 검토

■ 주변 문화유적자원 조사

- 주변 역사문화환경 및 관광문화환경 등

■ 여건분석

- 현황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문제점 및 잠재력 등을 분석
- 자료분석을 통한 보존, 활용, 개발 등 정비계획 여건분석
- 각종 의견 수렴 및 반영

2-2-3. 기본구상 및 지표설정

■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 관련 계획 :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하고 상위계획에서부터 부처별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 관련 법규 :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지표설정 및 기본구상

- 기본방향 설정
- 기본구상
- 기본구상에 따른 각종 세부계획에 대한 지표설정 및 기본계획안 설정
- 역사문화환경 연계계획 : 주변 역사문화환경,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2-2-4.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 기본도면 작성

■ 토지이용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 소수서원의 정비계획
- 소수서원의 원형고증에 따른 복원 또는 철거 등의 시설물 정비계획
- 동선계획 수립 - 보행자 및 관람동선계획 등
- 시설물 계획 - 충효교육관 이건 등
- 조경 계획 - 소수서원 전면의 죽계천 유지 등
-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최소화하여 계획
-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계획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 및 완전성 제고 방안 제시

-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구역설정에 근거하여 핵심지대(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와 완충지대(경관보호구역-500m)내에 있는 시설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건계획을 수립한다.

2-2-5.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 추진방향 설정

- 사업추진에 따른 전제조건 검토 및 추진방향 설정

■ 활용방안 수립

- 정비 후 나타날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소수서원에 대한 다각도의 활용방안 제시
- 교육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방안 모색

■ 사업추진계획

- 연차별, 단계별 사업추진방안 제시
-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방안 제시

■ 관리운영계획

- 시설물 관리방안 및 운영방안 제시
- 관리 및 운영체계 제시

2-2-6. 기타 사항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충실히 연구에 반영

2-2-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원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집필자 및 감수자를 선정함
- 주변현황, 연혁, 관련인물, 당해 문화재에 관계된 각종 문헌내용, 건축 구조적 특성 및 양식, 조경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고찰내용 등을 수록함

3. 계획의 수행과정 및 연구진

3-1. 계획 진행과정

3-1-1. 계획의 수행과정



3-1-2. 참여연구진



연구진

Ⅱ.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관련계획 및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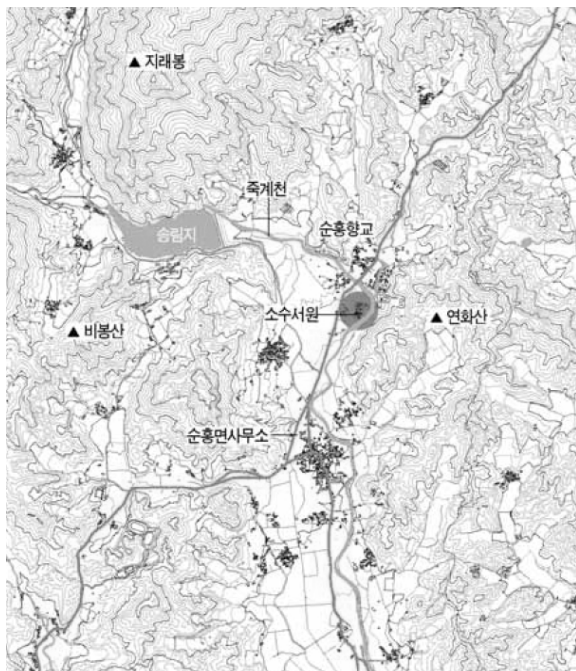
I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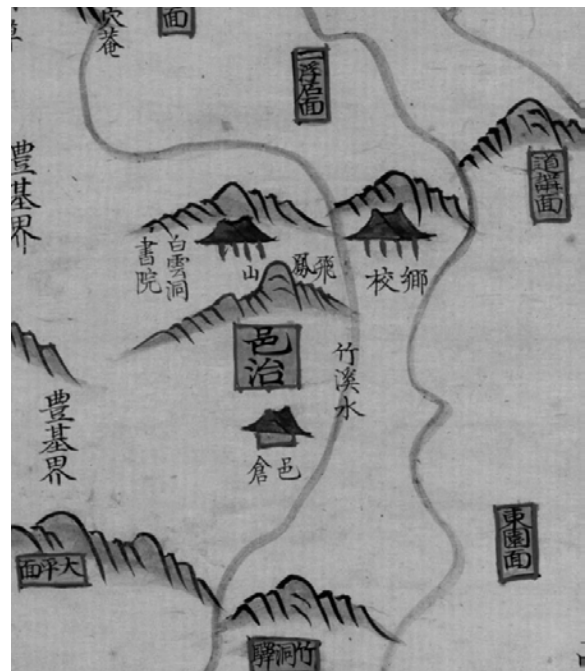
1-1. 자연지리환경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주는 지리적으로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 약 200m로 남북이 길고 동서로는 협소하며,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주봉인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과 죽령을 경계로하여 도솔봉(1,315m)으로 이어진 소백산 산록 고원부지에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남쪽으로는 영주시와 예천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으며, 소·태백권 교통의 중심도시이다.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동북쪽 거북 모양의 영귀봉(靈龜峯) 아래 자리하고 있다. 서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알을 품는 명당자리로 전해진다. 소수서원은 노송이 울창하게 에워싼 소백산 아래 초암계곡에서 발원한 시냇물이자 태백산의 황지와 함께 1,300리 낙동강의 원류를 이루는 죽계수(竹溪水)가 감돌아 흘러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서원의 동쪽에는 죽계수(竹溪水, 現 竹溪川)가 흐르고 있다. '대나무가 많은 시내'라는 뜻인 죽계수는 소백산 국망봉과 비로봉 사이에서 발원해 영주 순흥마을을 거쳐 낙동강 상류로 흘러들어가는 물길로써 건너에 마주보이는 산은 연화봉(蓮花峰)이다. 소수서원이 위치한 순흥(順興)은 소백산과 낙동강 원류인 죽계(竹溪)가 발원하는 지역으로 예부터 경치가 유명한 곳이었다. 소수서원에 배향된 안축은 고려말에 「죽계별곡(竹溪別曲)」이라는 시를 지어 죽령의 남쪽, 영가(永嘉), 지금의 안동의 북쪽, 소백산 앞에 있는 순흥은 '천년 흥망에도 한결같은 풍류'를 이어 온 고장이라 자랑하며 유학의 전통이 내려온 고장임을 밝히고 있다.



소수서원 입지 현황



19세기 순흥부 고지도(廣興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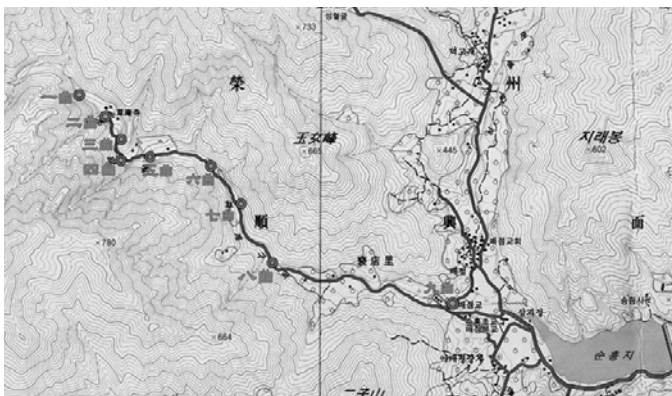
원래 순흥부(順興府) 태평면(太平面)과 내죽면(內竹面) 지역이었으나 1914년 내죽면과 태평면을 병합하여 순흥부의 이름을 따서 순흥면이라 하였다. 면의 서북쪽은 소백산(小白山)·국망봉(國望峰)에 이어지는 험준한 산지이고 동남부에는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였다. 면의 동쪽을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죽계천(竹溪川)이 유역 일대에 넓은 평야를 이룬다. 주요 농산물로는 무·배추·호박·우엉 등의 채소류가 생산되고, 과일로는 포도·배·복숭아가 많이 생산된다.

소백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경지가 소규모로 분포하며 동남쪽으로 하천이 흐른다. 본래 순흥군 내죽면의 지역이므로 내죽리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내죽, 백운동, 원단촌, 속순이, 송역골, 청교마을 등이 있다. 내죽마을은 본리가 시작된 마을로, 지명유래 또한 내죽리의 그것과 같다. 백운동마을은 퇴계 이황이 백운동(白雲洞)이라고 새긴 바위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단촌마을은 내죽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성인단과 소수서원이 있다 하여 칭해진 이름이다. 속순이마을은 백운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배점리 뒤실에서 흘러오는 내가 죽촌에 이르러 죽계천에 합하는 모양이 마치 중국의 산서성에서 발원하여 섬서성에 이르러 황야에 합하는 속수와 같다 하여 그 이름을 따 속순이라 하였다.

“산수가 맑고 높은 광경”으로 표현되었고, 주세붕은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에서 “왼쪽으로는 죽계수가 휘감아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소백산이 높이 솟아 구름과 산과 언덕과 물줄기가 실로 여산(廬山) 못지않다. (중략) 구름이며, 산이며, 언덕이며, 강물 그리고 하얀 구름이 항상 골짜기에 가득하므로 감히 이곳을 일러 ‘백운동’이라 하였고, 감회에 젖어 배회하다가 비로소 사당 건립의 뜻을 갖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곳은 퇴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그윽하고 깊숙하여 구름에 잠긴, 골짜기가 아늑한 곳이며 실제로도 유생들이 노닐고 강독하는 장소로 삼을 만한 곳이다. 소수서원의 동쪽에 흐르는 죽계천의 상류 계곡에는 ‘죽계구곡(竹溪九曲)’이 있다.

소백산 국망봉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죽계의 개울이 산굽이를 돌 때마다 절경을 이루는데 이황이 계곡의 풍취에 심취되어 산수를 즐기면서 아홉 구비를 헤아려 손수 이름 붙이고 서각(書刻)하기를 죽계구곡이라고 했다고 전하나 실제로는 명명자가 주세붕 또는 영조 때 순흥부사였던 신필하(申弼夏)라는 설도 있다.



죽계구곡(竹溪九曲) 위치도



죽계구곡 각자 바위

죽계구곡은 소백산 초암사에서 순흥 배점리에 이르는 약2km 가량의 계곡에 위치하고, 순흥지(順興誌)의 내용에 따르면 1곡은 백운동 취한대(白雲洞翠寒臺)이고 2곡은 금성반석(金成盤石)이며 3곡은 백자담(栢子潭),

4곡은 이화동(梨花洞), 5곡은 목욕담(沐浴潭), 6곡은 청련동애(淸漣東崖), 7곡은 용추비폭(龍湫飛瀑), 8곡은 금당반석(金堂盤石), 9곡은 중봉합류(中峯合流)로 전한다. 그러나 순흥지의 기록과 현재의 위치가 맞지 않는 곳이 많아 구곡의 자세한 위치 파악이 어려우며 별도의 안내판이 없어 접근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죽계별곡 기념비



죽계별곡 1장 각자 바위 모형

현재 소수서원과 죽계천 사이에 조성된 공간에는 『죽계별곡』기념비와 별곡의 5장을 5개의 바위에 각자하여 산책로변에 놓아 소수서원을 찾은 관람객에게 역사문화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수서원 북쪽으로는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이, 동쪽 연화산록에는 소수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어 소수서원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관람 및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소수서원 위성사진(<http://map.daum.net>)

1) 주변 지명(地名)¹⁾

■ 태장리

- 고려 충렬왕, 충숙왕, 충목왕 세분의 안태지(安胎地)가 됨으로 태장(台庄)으로 부르고 있으며, 태는 삼공(三公)을 말하고, 장은 곳을 말한다.

■ 지동리

- 지곡지, 재방지등 마을주변에 못이 많아 못(池)자를 따서 지동(池洞)으로 부르고 있다.

■ 석교리

- 하천건너 지형이 고양이 몸체형이고 고양이가 쥐 있는 곳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600년간 돌다리를 놓고 돌다리로만 건너다니게 한데서 생긴 지명이다.

■ 읍내리

- 순흥면 소재지가 있고, 1909년 행정구역 책정 시 읍내리라고 칭했다.

■ 내죽리

- 속수 : 순흥, 비봉산 밑에 있는 큰 마을을 내죽 1리라고 말한다.
- 송림동 : 개척 당시 마을 입구에 커다란 솔밭이 있었던 것이 연유되어 생긴 지명이다.

■ 청구리

- 본래 순흥부 내죽리의 지역으로써 청뚜들 또는 청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옥계리, 여근리를 청구리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배점리

- 조선 선조때 무쇠쟁이 배순(裴純)이 국상을 당하자 상복을 입고 소백산 위에 올라가서 삼년동안 임금과 나라를 위하여 통곡망배하여 충신(忠臣)정문이 1615년에 내려져서 배충신이라 하고 망배하던 산봉을 국망봉이라 칭하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무쇠점을 주었다. 그 연유로 배점이라 부르게 되었다.

■ 덕현리

- 박동수라는 선비가 약 400여년 전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개척당시 옆고개에서 다래와 머루를 얻어 허기를 면했다하여 덕이 있는 고개라는 뜻에서 덕현리라 칭하게 되었다.

1)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_2013_문화재청

1-2. 인문사회환경

1-2-1. 조선시대 서원

1) 개론



성균관 명륜당



강릉향교

유교를 치국 이념으로 내세워 유교 정치를 펼쳤던 조선왕조의 교육기관으로는 관학(官學)으로서 성균관(成均館), 사부학당(四部學堂), 향교(鄉校) 등이 있었으며, 사학(私學)으로서는 서원(書院), 서당(書堂), 정사(精舍) 등이 있었다. 관학 가운데에 성균관은 후기까지 최고 학부로서의 시설과 권위를 유지하였으나, 사부학당과 향교는 시대에 따라 쇠미해지고²⁾ 사학 교육기관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봉화 가평리계서당



안동 하회검암정사

서원은 기본적으로 유생들이 모여 강당에서 학문하는 강학의 기능과, 사우에 선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모시는 제향의 기능을 갖춘 곳이다. 하지만 서원은 이러한 기능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향촌에 사회 윤리를 보급하고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며 향촌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 정신적 지주가 된 곳이었다. 이와 같이 서원은 도학을 이상으로 삼던 사대부 사림세력들의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형성된

2) 조선 중기 16세기이후 향교는 과거 준비의 장으로 변질되어 교육적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양식 있는 선비들은 관학을 기피하고 우수한 교관들도 향교를 떠나 학문에는 뜻이 없고 벼슬에만 관심 있는 자들만 남게 되었다.

것으로서 성리학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산물이다.³⁾

서원의 명칭은 원래 당나라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정의 도서관 혹은 개인의 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나라 현종 때 궁중에서 서적을 편수하기 위해 설립하였던 여정전서원(麗正殿書院), 집현전서원(集賢殿書院)에서 유래하였다. 당나라 때는 서적만을 편수하였으나 송나라 초기에 조정에서 지방의 사숙(私塾)에 서원의 이름을 사명(賜名)함으로써 교육기관의 명칭이 되어 수양서원(睢陽書院)·석고서원(石鼓書院)·악록서원(嶽麓書院)·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의 4대 서원이 생겼으며, 주자(朱子)가 강론하던 백록동서원이 특히 유명하였다.⁴⁾

한국의 서원은 신라시대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사학교육(私學敎育)과 고려시대부터 발생하여 세워진 사묘제도(祠廟制度)가 결합하여 성립된 사학교육기관으로, 서적을 수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이미 신라 말 고려 초부터 존재하였으나, 소위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조선 초기에 이르러 발생하게 되었다. 조선 태종과 세종의 사학장려책에 힘입어 고려 말 이래로 발전해 온 서재(書齋), 정사(精舍) 등의 사학이 한층 융성하여 유학과 더불어 발전해 나갔다.

사학과 사묘가 각각 발전해 오다가 조선 연산군 이후 지방 사림의 발전과 주자 숭배사상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1542년(중종 37) 풍기 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고려말 성리학자였던 안향(安珦, 1243-1306)의 고향인 순흥에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을 세우고, 그 이듬해에 사당 앞에 학문을 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현재의 소수서원)'을 건립하여 한국 최초의 서원이 성립되었다.



안향 영정



소수서원 전경

이러한 서원은 명종 때까지는 건립상황이 미미한 상태였으나, 17~18세기에 양반관료 사이에서 당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자당(自黨)의 선사(先師), 선배를 경쟁적으로 봉사하면서 서원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후 서원이 남설(濫設)되기 시작하면서 수적 증가에 반비례해 질적 하락을 가져오면서 서원에 대한 폐단과 비판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고종 8년 대원군에 의해 서원철폐령이 내려지게 되어 47개 서원만을 남기고 모두 철폐되었다.

3) 이상해, 『書院』, 悅話堂, 1998, p.7.

4)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6.

미철서원 일람표(47개소)

서원명	지정별	주향인	소재지	건립연대	사액연대
금오서원(金烏書院)	시도기념물60	충절공 길 재(忠節公 吉 再)	경북 선산	1570	1566
남계서원(藍溪書院)	사적499	문헌공 정여창(文獻公 鄭汝昌)	경남 함양	1522	1575
노강서원(鷺江書院)	시도기념물41	문열공 박태보(文烈公 朴太輔)	경기 의정부	1695	1697
노강서원(魯岡書院)	시도유형30	문정공 윤 황(文正公 尹 煌)	충남 논산	1687	1742
노덕서원(老德書院)	-	문충공 이항복(文忠公 李恒福)	함남 북청	1627	1687
덕봉서원(德峰書院)	시도유형8	문정공 오두인(文貞公 吳斗寅)	경기 안성	1695	1700
도동서원(道東書院)	사적488	문경공 김굉필(文敬公 金宏弼)	대구 달성	1605	1607
소수서원(陶山書院)	사적170	문순공 이 황(文純公 李 滉)	경북 안동	1574	1575
돈암서원(豚巖書院)	사적383	문원공 김장생(文元公 金長生)	충남 논산	1634	1660
무성서원(武城書院)	사적166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	전북 정읍	1615	1696
문회서원(文會書院)	-	문성공 이 이(文成公 李 珥)	황해 연백	1599	1628
병산서원(屏山書院)	사적260	문충공 류성룡(文忠公 柳成龍)	경북 안동	1613	1863
봉양서원(鳳陽書院)	-	문순공 박세채(文純公 朴世采)	황해 은율	1695	1696
사충서원(四忠書院)	-	충헌공 김창집(忠獻公 金昌集)	경기 하남	1725	1726
서악서원(西岳書院)	시도기념물19	홍유후 설 충(弘儒侯 薛 聰)	경북 경주	1561	1623
소수서원(紹修書院)	사적55	문성공 안 향(文成公 安 珦)	경북 영주	1543	1550
송양서원(松陽書院)	-	문충공 정몽주(文忠公 鄭夢周)	경기 개성	1573	1575
심곡서원(深谷書院)	-	문정공 조광조(文正公 趙光祖)	경기 개성	1650	1650
옥동서원(玉洞書院)	시도기념물52	익성공 황 희(翼成公 黃 喜)	경북 상주	1714	1789
옥산서원(玉山書院)	사적154	문원공 이언적(文元公 李彦迪)	경북 경주	1573	1574
용연서원(龍淵書院)	시도유형70	문익공 이덕형(文翼公 李德馨)	경기 포천	1691	1752
우저서원(牛渚書院)	시도유형10	문열공 조 헌(文烈公 趙 憲)	경기 김포	1648	1675
창절서원(彰節書院)	시도유형27	충정공 박팽년(忠正公 朴彭年)	강원 영월	1685	1699
충렬서원(忠烈書院)	-	충렬공 홍명구(忠烈公 洪命耆)	강원 김화	1650	1652
파산서원(坡山書院)	문화재자료10	문간공 성 혼(文簡公 成 渾)	경기 파주	1568	1650
필암서원(筆巖書院)	사적242	문정공 김인후(文正公 金麟厚)	전남 장성	1590	1662
흥암서원(興巖書院)	시도기념물61	문정공 송준길(文正公 宋浚吉)	경북 상주	1702	1705
강한사(江漢祠)	-	문정공 송시열(文正公 宋時烈)	경기 여주	1785	1785
기공사(紀功祠)	-	장렬공 권 울(莊烈公 權 慄)	경기 고양	1841	1841
무열사(武烈祠)	-	상 서 석 성 (尙 書 石 星)	평남 평양	1603	1709
삼충사(三忠祠)	-	무향후 제갈량(武侯侯 諸葛亮)	평남 영유	-	-
수충사(酬忠祠)	-	서산대사 휴정(西山大師 休靜)	평북 영변	-	-
창렬사(彰烈祠)	-	문정공 윤 집 (文貞公 尹 集)	충남 부여	1717	1721
충렬사(忠烈祠)	-	문충공 김상용(文忠公 金常容)	인천 강화	1642	1658
충렬사(忠烈祠)	-	충렬공 송상현(忠烈公 宋象賢)	부산 동래	1606	1624
충렬사(忠烈祠)	-	충무공 이순신(忠武公 李舜臣)	경남 통영	1614	1723
충렬사(忠烈祠)	-	충민공 임경업(忠愍公 林慶業)	충북 충주	1697	1727
충민사(忠敏祠)	-	충장공 남이흥(忠莊公 南以興)	평남 안주	1681	1682
태사사(太師祠)	-	장절공 신승겸(壯節公 申崇謙)	황해 평산	고려	조선정조
포충사(褒忠祠)	-	충렬공 고경명(忠烈公 高敬命)	전남 광주	1601	1603
포충사(褒忠祠)	-	충강공 이술원(忠武公 李述原)	강원 철원	1665	1668
포충사(褒忠祠)	-	충무공 김응하(忠武公 金應河)	경남 거창	1738	1738
표절사(表節祠)	-	충렬공 정 시(忠烈公 鄭 蓄)	평북 정주	-	-
표충사(表忠祠)	-	충민공 이봉상(忠愍公 李鳳詳)	충북 청주	1731	1736
현절사(賢節祠)	-	문정공 김상헌(文正公 金常憲)	경기 광주	1688	1693
청성묘(淸聖廟)	-	청혜후 백 이(淸惠侯 伯 夷)	황해 해주	1691	1701

조선시대 건립 기록이 남아있는 서원은 935곳인데, 그 중 경상도가 352곳(37.6%), 전라도가 194곳(20.7%), 충청도가 111(11.9%), 경기도가 83(8.9%) 등으로 경상도의 건립 서원수가 월등히 많다⁵⁾. 이는 퇴계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학문적 발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세붕이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이래, 초창기 이황(李滉)은 서원 건립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이황은 향교(鄕校)와 국학(國學)은 나라의 제도와 규정에 얽매이고 과거(科擧)와의 관련에서 올바른 학문에 심잠(心潛)할 수 없는 반면, 서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세주의나 공리주의(功利主義)를 떠나 순수한 학문연구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원제도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서원을 통해 성리학의 토착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적지않은 서원이 이황과의 관련 속에서 건립되고 명명되었다.

이러한 서원의 건립에는 크게 인적 환경요소와 지리적 환경요소 2가지의 장소성이 나타난다.⁶⁾ 첫째, 인적 환경요소에 의한 서원의 입지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구지로 한정되거나, 주향자 자신이 세운 강학장소가 서원이 되기도 한다. 둘째, 지리적 환경요소에 의한 서원의 입지는 전반적으로 은둔적 성향이 강하고, 풍수지리상 풍광이 빼어난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부분의 서원은 주향자와 관련이 있는 산기슭이나 중턱에 배산임수(背山臨水) 혹은 배산임야(背山臨野)하여 입지하고 있다.

이들 서원중에는 옥산서원, 남계서원처럼 조선시대 서원건축 배치의 전형(典型)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가 하면, 필암서원, 흥암서원처럼 전형적인 배치 형식을 변화시켜 새롭게 구성한 예, 수림서원, 죽정서원처럼 전형에서 벗어난 배치를 보이는 예도 있다. 또 많은 서원들은 병산서원, 도동서원처럼 서원을 앗힐 땅과 그 주변 자연경관을 잘 이해하며 해석하여, 그 속에 자연과 어울리는 탁월한 건축공간을 엮어내고 있다.

전형적인 배치 형식		전형에서 변화된 배치 형식	
			
옥산서원	남계서원	필암서원	흥암서원
전형에서 벗어난 배치 형식		주변 경관에 부합된 배치 형식	
			
수림서원	죽정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조선시대 서원의 배치

5) 최미경, 「영남지방 書院樓의 건축계획」,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36.

6) 옥선호, 「서원건축의 立地와 向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동서논문집, 2002, p.376.

이들 서원은 주변 자연환경의 중요한 한 부분을 구성하며, 동시에 주변환경이 서원의 한 부분이나 중요한 특징으로 작용되게 한다. 건축은 그것이 들어서는 터, 즉 장소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면이다. 그 중에는 소수서원, 목계서원, 화양서원처럼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연상케 하는 입지를 갖춘 계곡이나 강을 낀 곳을 찾아 세운 서원도 있다. 이러한 서원들은 모두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세계와 자연관을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둘러싼 산천경계가 어떻게 건축 공간미학으로 재구성되어 되살아날 수 있는가를 보여, 한국 서원건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⁷⁾

서원은 관학인 향교와는 달리 읍내에 위치하여 번잡한 곳이 아니라 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았다.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風月)을 가까이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해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이는 유생들이 산수가 수려하고 조용한 곳에서 학문을 닦음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 서원과 사찰⁸⁾

소수서원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서원으로써, 서원건설의 시초를 제공하였으며 서원건설의 본보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특히 입지선정의 기준점이 되면서 절터가 가진 장점을 활용코자 하는 시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소수서원뿐만 아니라 영봉서원(迎鳳書院)과 도봉서원(道峰書院) 그리고 옥산서원(玉山書院), 노강서원(鷺江書院), 임고서원(臨臯書院), 청성서원(靑城書院) 등도 사찰 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도 송대(宋代)의 4대 서원중에 하나인 송양서원(嵩陽書院)조차도 송양사(嵩陽寺)라는 절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좋은 입지의 부족은 폐사(廢寺) 터만을 사용하는 극히 정당한 방법만이 있었는지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 서원들이 사찰 터를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찰에서 강학을 시작한 예도 있기 때문이다.

소수서원의 예에서 보듯이 이미 확보된 길지의 사찰 터는 다양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 입지관과 환경관을 통해 사상적 배경이 어떻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되었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 이상해, 『書院』, 悅話堂, 1998, p.9.

8) 박정해, 紹修書院 立地環境과 風水

1-2-2. 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⁹⁾

조선시대 서원은 복잡한 성격변화를 거치면서 400여 년을 존속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으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향촌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사설기관으로서 성현들을 모시는 사당 또는 사묘의 역할과 더불어 향약 등의 향촌 질서를 정하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역할, 단순한 교육이 아닌 학문 연구와 발전을 선도했다.

유교문화는 인물과 사상, 철학과 정신, 학문과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신사적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가치는 유형의 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서 생활하며 향유했던 사람과 정신, 그리고 문화적 시스템에 있다. 이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이자 복합적인 가치로서, 서원문화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서원은 향촌 지성들의 집회소로서 다양하고 중첩적인 기능들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서원의 문화유산적 가치는 인물사와 고건축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서원 본연의 교육적 기능보다도 전통제례, 또는 원론적 유학의 본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이 지녔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교육적 기능이 중심이다. 서원의 고유 기능은 역시 지방교육의 상징적 기구로 강학(講學)과 장수(藏修)를 근본으로 삼은 사학기구였다. 그리고 각 서원은 저마다 교육의 방식과 운영의 모습들이 약간씩 다르며, 이는 서원별로 특별한 교육방침이 엄연히 존재했던 개성적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지역별 학맥의 개성적인 특성은 서원의 운영과 교육방침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또 서원은 조선시대 각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상징적 기구로, 서원 내에서 젊은 인재들과 그들의 선배들은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형성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집회소를 꾸리기도 하였다. 집회소로서 서원의 기능은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이나 서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수많은 명칭의 각종 조직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지성들 간의 유대와 결속력의 토대는 자연과 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 유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서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조선 초기 소학의 보급과 향약 실시 등의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왔다. 사족활동의 거점은 바로 서원이었고,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면이다. 이처럼 서원에서의 교육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는 향촌사회의 교화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서의 보존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데, 경서(經書)를 기본으로 유가(儒家), 역사(歷史), 전기(傳記) 등 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소장 된 도서 외에 각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등의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었다. 또한 서원의 운영과 관련 된 실무적인 고문서 자료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 장서의 관리와 점검은 서원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다.

9) 『서원 보존정비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0, p.10-12.

한편 여러 서원에서는 경쟁적으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서원이 도서의 보존기능에 더하여 서적의 출판과 배포라는 새로운 기능을 겸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상당량 소실 된 서적에 대한 보강과, 추배 된 제향인물에 대한 유고(遺稿)나 문집 등을 간행해야 하는 사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원은 유교문화의 대표적 공간임과 동시에 유학자 개인에게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인(仁)과 '천리절문(天理節文)'의 예(禮)를 실천하는 장소였다. 서원에서 유학자들은 배우며 쉬고 노닐며 축적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세계관·자연관을 체득 인식하고자 했다. 이에 적합하도록 서원 입지를 선정하고, 경관과 장소를 조성하였다.

서원의 입지는 대체로 연고(선현의 강학처, 유허지, 씨족마을)가 있으면서도 배산임수에 천석(泉石)이 있는 경승지를 선택하였다. 자연전망을 통해서 천인합일을 체득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서원 전면에 생기 있는 안(案)을 설정하였으며, 경사 있는 지면지형은 상승감을 주는 진입로로 활용하였다. 누문과 강당에서 보이는 자연전망을 확보하고 주위 자연환경과의 조화(형국)를 각별히 중시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으며, 예의 실천 장소로 서원 내부공간을 만들고자, 위계에 따른 당하계하의 차별, 비움과 채움의 장소, 오행의 순서, 우회로 활용 등으로 장소경관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서원문화는 한국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이 집약된 문화유산이며,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며,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리하여 서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역사, 교육, 제향, 건축, 기록, 경관 등)들이 존재하며, 의례,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던 거점이었다. 서원은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것이다.

1-3. 역사문화적 환경

주세붕은 제향(祭享)공간인 사묘(祠廟)를 세워 성리학을 처음 도입하고 연구한 성리학자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을 배향하고, 원생들로 하여금 흠모하는 마음과 존현숭배의 마음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향교에 있던 학사(學舍)를 사묘 동쪽에 이건(移建) 하여 강학공간을 마련하였다. 주세붕은 제향과 강학공간을 갖추고,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란 이름으로 1543년(중종 38)에 창건하였다.



소수서원 전경

주세붕은 서원을 통하여 사림을 교육하고, 사림의 중심기구로 삼아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배경은 당시 순흥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안향의 고향인 풍기군은 조선 초 기천현(基川縣) 지역이었으나 1450년(문종 원년) 속현인 은풍현에 문종의 태를 안치하면서 기천현과 은풍현(殷豐縣)이 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풍기군으로 승격한 지역이었다. 이런 가운데 1456년(세조 2) 순흥으로 유배 왔던 세종의 다섯째 아들 금성대군(金城大君)과 순흥부사 이보흠(李甫欽, ?~1457)의 단종 복위 밀모 사건으로 1457년(세조 3)에 순흥부(順興府)가 폐지되고, 순흥향교도 폐쇄 되었다.

순흥부 폐지는 금성대군의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던 순흥부 지역을 난적의 당여(黨與)로 여겨 단순히 반란에 가담한 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순흥부 지역을 풍기와 봉화, 영천군에 합속시켜 순흥부를 말소시켰다. 이것은 순흥부민 모두에게 살던 고향을 없애버리는 가혹한 처벌이었다. 1530년대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풍기군은 풍속이강하고 사나움을 숭상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순흥부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과 백성들에 의해 풍기군이 점차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순흥부가 폐지되고 풍기군에 합속된지 2년이 지나도록 교관(敎官)이 없었다. 조정은 옛 순흥부 지역에 대해 무관심했고, 순흥부민들은 그만큼 조정에 불만이 많았음은 물론 더욱더 교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순흥지역에 대한 처사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 분위기 속에서 주세붕은 풍기군에 부임한 즉시 이미 피폐되어 관학의 기능을 잃어가던 향교를 복구하려 노력하였다. 그래서 부임 이듬해인 1542년 안향이 어린 시절 노닐면서 공부하였던 곳으로 전해오는 옛 숙수사(宿水寺) 자리에 그를 배향하는 회헌사당을 건립하고, 그 다음해인 1543년 사당 동쪽에 강학당을 마련하여 서원의 골격을 갖춘 다음 1457년 순흥향교가 폐지되면서 서울의 대종가로 옮겨졌던 안향의 영정을 모셔와 사당에 봉안한 것이다.

그러나 서원을 창건하고자 했던 당시에 이 지역에는 대기근과 한발이 들어 민생의 고통은 가중되었으며, 서원 건립에 대한 지역인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당시 지역주민들이 서원 창건을 반대한 이유는 안향은 중앙과 지방에 이미 배향되어 있고, 교육을 위해서는 이미 학교가 있으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주세붕은 불가피한 유교 학문 수업의 필요성을 거론하여 교화가 기근을 처리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성현을 본받지 않으면 향원의 행적을 따르게 될 것이니 반드시 성현을 본받아 그 행적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서원 건립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갔다.

마침내 풍기군에 중국의 주자가 세운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모방한 백운동서원이 건립되었고, 고려에 성리학을 도입한 순흥 출신의 안향을 서원에 배향하게 되었다. 주세붕이 순흥에 안향을 봉행하는 사묘와 유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서재를 동시에 세운 것은 선현을 존송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유교적 윤리를 가르쳐 풍기 사람들을 교화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었던 것이다.

주세붕은 임백령(林百齡, ?~1546), 이언적(李彦迪, 1491~1553) 등의 도움을 받아 제향과 교육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서책을 구입하여 서원 문고를 설치하는 등 서원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세붕 자신도 종종 서원에 들러 고을의 선비들과 어울려 성리학의 강론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당시 풍기 사람 모두가 서원 건립에 반대하였던 것은 아니었기에 주세붕은 그들을 통해 서원을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려 노력하였다.

소수서원의 사액으로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면서, 조정에 의하여 서원이 성리학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는 계기가 된다. 사액을 내려 국가가 서원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서원이 갖는 중요한 기능인 선현의 봉사(奉祀)와 교화(敎化) 사업을 조정이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다.

퇴계는 백운동서원이 조정으로부터 소수서원으로 사액을 받게 함으로써, 서원이 관립 교육기관인 향교에 대응하며 공인된 교육기관으로써 왕명에 의하여 성리학의 정통성을 인정받게 하였고, 군수 또는 관찰사의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액(賜額)을 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퇴계는 도학을 천명하고 밝히는 구체적인 실천도장으로써 서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서원의 존재 이유를 제시했으며, 동시에 서원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이는

수학(受學)규칙, 거재(居齋)규칙, 교수실천요강, 독서법 등을 규정한 원규(院規)를 만들어 훗날 세워지는 다른 서원 운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퇴계는 우리나라의 서원이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정착·보급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동일한 사람을 서원 여러 곳에 배향하는 첩설(疊設)이 횡행하였다. 특히 면역(免役)의 특권을 이용해 군정(軍政)을 회피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빈번했다. 또한 처음에는 고을의 수령이 서원의 원장이 되어 제사를 주관하였지만, 점차 직계 후손들이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함으로써 학파를 형성하며 봉당을 이루어 당쟁의 근거지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에 들어 그 폐단이 더 심화되었고, 흥선대원군은 유교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국가 재정과 군역, 당쟁의 폐단이 서원이라고 생각하고 집권 직후부터 서원에 대한 개혁을 지속하여 1871년(고종 8년) 첩폐령을 내렸다. 첩설의 폐단은 영조 때도 횡행하여, 1727년(영조 3년) 삼남에 어사를 파견하여 증축한 서원을 조사하고 한 사람을 여러 곳에 첩설한 서원에 대해서 모두 훼철하라고 명하였다. 1864년(고종 1년)에는 이미 사사로이 세운 서원에 대해서는 첩폐 명령을 내렸고, 1871년(고종 8년)에는 한 사람은 한 서원에 배향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외의 중첩되는 서원은 첩폐하게 하였다. 사액서원이라고 할지라도 중복되는 것은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첩폐하였다.

처음에 사액서원은 고을의 수령이 원장이 되어 주관함으로써 제사를 지냈으나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직계 후손들이 주관을 하며, 봉당을 만들어 백성들에게도 위세를 부리고, 폐를 끼치게 되었다. 흥선대원군은 사액서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서원들을 조사하여 서원을 헐고, 신주를 묻어 버리게 하였다. 결국, 1871년(고종 8년) 서원첩폐령으로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수백여 개의 서원이 훼철되었다. 이중 소수서원은 훼철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에 속하게 되었다.

2. 관련계획 및 법규

2-1. 관련계획 검토

2-1-1. 도시계획 검토

1)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 의해 세워진 계획으로서, 6대 기본 추진 전략아래에서 권역별·시도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발전방향은, '산업과 문화, 첨단과 전통,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역'이라는 대전제 아래 제시되고 있는데, 이 중 소수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목표는 '문화세기를 선도하는 민족고유의 문화 관광산업육성'이다.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소수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을 세계유교문화의 성지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져있다.
- 또한, 개방형 문화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문화교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은, 소수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작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국토형성의 기본골격_국토해양부

2) 2008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본 계획은 2008년 경상북도 건설도시 방재국에서 세운 계획으로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도 단위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시키며,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로 세워진 것이다.
- 계획은 향후 12년간 경상북도 행정구역 전체에 걸친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전략 가운데 '한국 속의 문화관광지대 조성'은 소수서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을 포함한다.
- 경상북도는 소수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북부지역을 유교문화권으로 지정하여 이에 어울리는 거시적차원의 복합적 관광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책은 관광중심지 재정비 및 관광명소 발굴·육성, 지역밀착형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안내시설 및 홍보서비스 체계 정비이며, 소수서원은 기지정된 문화재로서 재정비, 보완의 대상이 된다.

계획의 비전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경북건설
기본목표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균형발전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 환경 열려있고 신뢰하는 교류·협력
추진전략	세계경제의 전면적인 개방화와 자유화 각종 권한의 지방 분산화 산업의 지식 기반화와 정보화의 진전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의식의 대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된 21세기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전략지역으로 육성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이념과 기초

3) 영주비전 2020 4차년도 계획¹⁰⁾

목 표	과 제 명	비 고
격조 높은 역사 문화 도 시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소수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머 물 러 가 는 글 로 벌 관 광 도 시	문화관광형 축제·행사 활성화	
	전통문화 체험단지 조성	

① 비 전

- 격조 높은 문화관광 도시 조성
 - 1천만이 머물러 가는 국제적 관광도시 건설
 - 유·불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세계적 역사도시로 부각

② 목 표

- 격조 높은 역사문화도시
 - 문화·예술 기반 시설확충 및 문화융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 유교문화및선비정신의세계화와유불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등재로 인문정신문화진흥
 -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육성으로 살기좋은문화
- 머물러가는 글로벌 관광도시
 - 격조 높은 공연·전시 및 관광·휴양·레저기반시설확충으로머물러가는국제적관광도시건설
 - 특색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관광객유치증대
- 활기찬 체험 관광도시
 - 유·불 문화유산의 완벽한 유지보수
 - 숨어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 및 재현

③ 추진전략

- 문화융성을 통한 고품격 문화·예술도시 조성
 - 시민 모두가 격조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각자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시민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조성

10) 영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yeongju.go.kr>

- 차별화된 축제로의 발전
 - 다양한 지역축제를 발굴하여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 및 특산품과 연계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영주의 대표축제로 육성
- 체류하는 관광도시의 조성
 - 지역관광자원을 다양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테마별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사계절 관광레저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관광도시로 조성
- 유·불 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국민 인성함양 교육의 메카로 육성
 - 유·불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우리지역만의 소중한 전통자원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선비정신과 한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 인성함양 교육의 메카로 육성
- 건강한 스포츠 도시의 조성
 - 건강한 시민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참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백산자락길 문화탐방로 등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소수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서원의 역사·문화 및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하여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 확산
 -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국격(國格)과 지역문화의 품격을 높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1. 4. :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발족
 - 2011. 12. : 문화재청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2012. 3. : 관계기관 합동 MOU 체결
 - 2012. 4.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추진단 발족
 - 2012. 8.~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추진중
 - 2013. 9. :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 2013. 11. 26 : 2015년 등재신청서 제출 추진대상 확정
 - 2015. 1. : 등재신청서 제출
 - 2015. 2~8. : 국내외 관계전문가 및 ICOMOS 현지실사
 - 2016. 6.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 결정

- 기대효과
 - 국격과 지역문화의 품격 상승에 따른 고품격 도시 영주 건설
 -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 필요성 및 목적
 - 소수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유교전문 대표 박물관이나 전시공간 및 수장고가 협소하여 유교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전달이 부족
 - 수장고 및 전시환경 개선으로 기증·기탁 사업의 지속성 유지
- 기대효과
 - 영주의 역사·문화 및 유교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전시로 "선비의 고장"인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유교문화 이해 증진
 - 관광수요의 지속적 창출에 따른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자원별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이후	비고
계	4,800	220	2,405	2,175	
국 비	1,920		1,050	870	
도 비	863		472	391	
시 비	2,017	220	883	914	



조감도

■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영주시 순흥면·단산면(소수서원 인근)
 - 사 업 량 : 960,974㎡
 - 사업기간 : 2010 ~ 2015
 - 사 업 비 : 156,525백만원 (국비 78,662 도비 10,600 시비 37,261 기타 30,002)
- 필요성 및 목적
 - 생생한 유·불 문화자원과 유교문화관광개발 사업으로 구축한 한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한국문화의 산업화 도모
 - 전통문화의 보고인 영주시를 한국문화 세계화의 거점으로 육성 및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
- 기대효과
 - 산재되어 있는 한(韓)문화자원을 집적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한국문화의 대표적 명소로 개발, 글로벌 코리아 기반구축
 - 한문화 자원 개발을 통하여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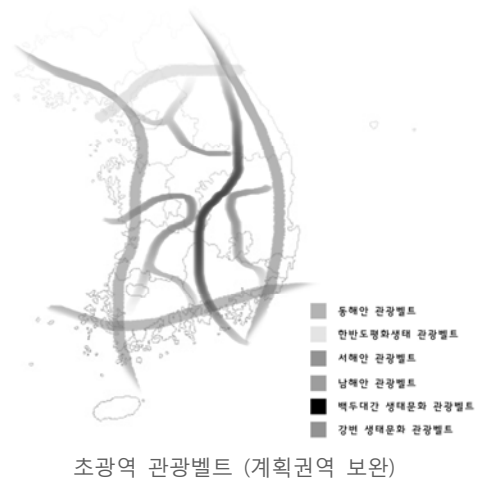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14년	2015년 이후	비고
계	156,525	35,948	11,006	109,571	
국 비	78,662	17,688	5,000	55,974	
도 비	10,600	2,778	643	7,179	
시 비	37,261	15,482	5,383	16,416	
기타	30,002			30,002	

2-1-2. 관광계획 및 관련사업 검토

1) 201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 이 계획은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산업국이 세운 계획으로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한국의 관광정책이 지향해야할 기본 목표와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으로 설정하고, 대구·경북관광권의 경우 '3대 문화 역사관광의 거점'으로 3대문화권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컨텐츠를 육성, 백두대간 및 동해안을 연계한 녹색관광을 실현하며, MICE산업 및 지역산업 연계형 산업관광 육성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2) 2000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2000-2010)

- 이 계획은 200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 북부에서 2000년부터 2010까지 실시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이다. 본래 2011년에 재수립 되어야 하였으나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2000년 계획을 살펴보면 경북북부 지방을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전통적인 유교문화자원을 탁월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발굴·보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경북북부지방에 집중분포된 유교문화자원과 자연경관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새로운 관광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축적과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소수서원 인근 지역을 소수서원과 유사한 유교생활문화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추후 소수서원 주변 환경이 급격한 도시화 등 대상지를 위해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2012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

- 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중앙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12 ~ 2021)』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경북이 지닌 신라, 유교, 가야 등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동해안, 낙동강 등이 어우러진 녹색자원, 화랑, 선비(양반), 새마을, 불교문화 등 한국정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 경북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역으로 한국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Korea in korea라는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경북관광의 비전을 '전통과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국 대표 문화관광지대'로 설정하였다. 4대 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명품 관광자원개발, 누구나 공감하는 관광브랜드 창조,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일자리 창출, 문화·생태 융합형 Fun 콘텐츠 발굴로 설정하였다. 이는 소수서원이 가진 역사·문화적 관광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 경북 새천년 만들기-21세기 신경북 비전(1995 ~ 2020년)

■ 다시 찾고 싶은 『관광경북』 구현

-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3대 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구축
- 전통문화유산의 전승·보전에 주력
-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을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
- 경북의 정체성 정립과 향토문화 사랑운동을 전개

추진과제	추진실적
숙박휴양거점 조성	조성계획승인 및 시행허가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영주시구의 시행중인 사업은 조성공사 추진과 기반조성공사 완료로 원활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편의 시설사업 등 공공분야의 기반시설의 원활한 투자로 숙박시설, 상가 등 민자유치가 활발
문화관광루트개발	시·군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관광자원을 선정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진입도로, 주차장 및 화장실, 탐방로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과 교통접근성 향상에 기여
중점정비	전통마을중점 정비, 유교문화자원 정비, 전통가옥 정비, 청송덕천마을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
관광지개발	휴양단지 조성, 마을정비개발, 박물관건립, 공원조성 등 중점정비사업과 연계된 관광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투자진행
문화자원 정비보수	유교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유형의 유교·불교·역사문화자원에 중심으로 서원이나 향교의 정비·보수사업과 각종 성역화, 공원화 사업을 비롯, 각종 유적지를 보수·정비
안내센터설치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숙박휴양거점, 집중지역, 터미널, 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설치
지역축제활성화 및 연계도로망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주요 지역축제의 신규발굴 및 개최하고 있는 축제 중 발전유망 축제확대를 위해 추진 중이고, 접근 교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계도로망 사업추진

경상북도 관광개발 추진실적

2-2. 관련법규

- 서원의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 해결은 해당 법 제도를 근거로 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법령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참조하도록 한다. 참조해야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토지이용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 문화재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2-2-1. 토지이용 관련법규

1) 토지이용 관련법규에 의한 보존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p>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p> <p>[별표 22] <개정 2009.7.16></p> <p>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p> <p>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p> <p>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p> <p>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시설;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p>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p>

2)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영주시 도시계획조 례 제28조	제28조 (용도지역안에 서의 건축제한)	<p>영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07. 03. 02, 개정 2011.08.05></p> <p>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p> <p>영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2</p> <p>【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8조 제21호 관련)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단서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 08. 05></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1. 08. 05></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1. 08. 05></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p> <p><개정 2011. 08. 05></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개정 2011. 08. 05></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11. 08. 05></p>

2-2-2. 문화재 관련법규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존 관리

영주 소수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 유지를 중심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주체의 설정, 역할과 권한, 각종 규제 등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리 방법과 수단을 기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1.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보존 관리

영주 소수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p>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제20조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의 수립)	<p>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자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p>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p>
	제42조 (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영주 소수서원은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법

관련법	조항	내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재수리등 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 등으로 인하여 지정 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문화재수리등 의 계획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문화재 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문화재의 소유자(「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문화재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보호 또는 동산문화재 분야의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2-2-3. 문화유산 운영 관련법규

1) 영주시 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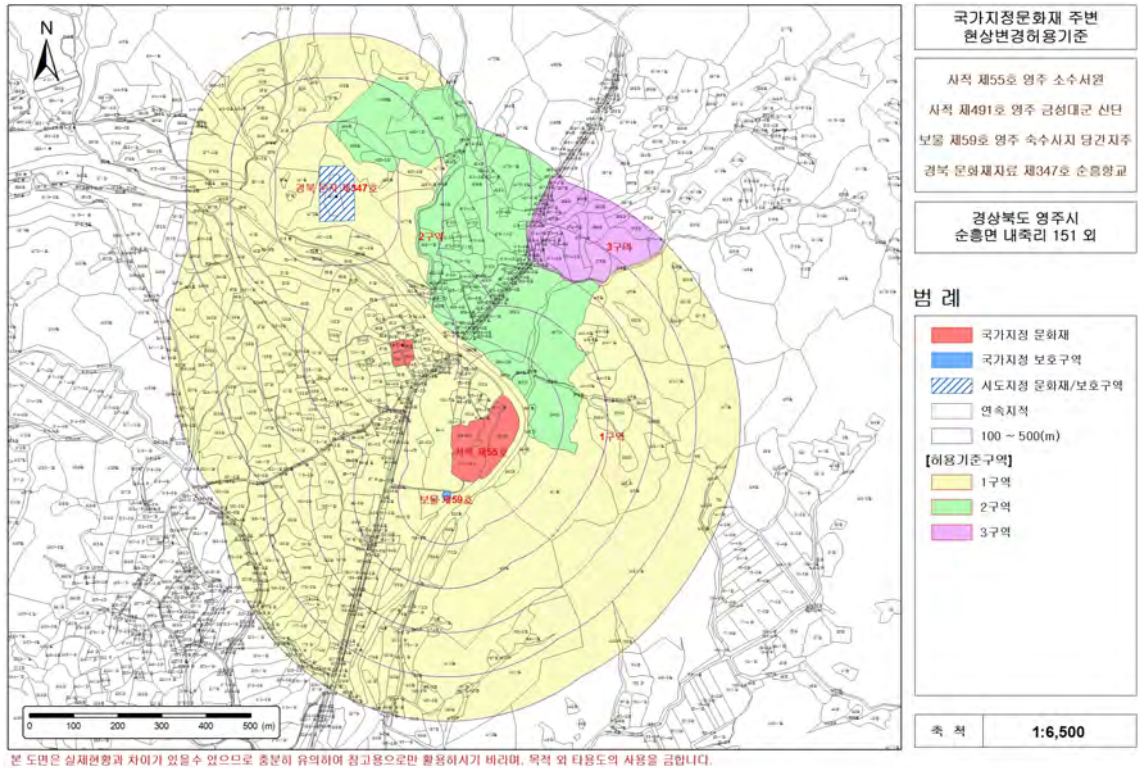
영주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

영주시 순흥 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관련법	조항	내용
영주시 순흥 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사용허가)	유적권내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1.6.10>
	제11조 (관람 또는 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유적권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유적권 내외의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없이 조명·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개정 2011.6.10>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적권 내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10>

2) 현상변경허용기준

- 현상변경허용기준은 개별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소수서원은 반경 500m 범위까지 영향범위를 가진다.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조항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평지붕, 원색의 건축재 지양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시 별도 심의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Ⅲ. 소수서원 현황

1. 소수서원의 개요
2. 소수서원의 역사와 문화
3. 서원현황
4. 관리현황
5. 활용현황



2. 소수서원의 역사와 문화

2-1. 소수서원의 연혁과 배향인물

1) 서원 건립의 배경과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書院)이자, 사액(賜額)서원이다. 사액은 임금이 사당(祠堂), 서원,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새겨 편액을 내리던 것으로, 조선시대 서원의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조선중기 이후에 보급된 일종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유생을 강학(講學)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선현(先賢)을 제향(祭享)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재지사족들이 활동하는 향촌자치운영기구였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래 유학을 정치 및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삼고 인재 양성과 교화(敎化)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통치 이념인 유학을 민간에게 보급하고 확고히 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였으며,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국초부터 즉 '학교는 교화의 근본이자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기르는 곳이다.' 라고 하여 각 교육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하였고, 이를 확립하기 위해 조선시대 대표적인 공립 교육 기관인 성균관과 향교를 건립하였다. 그 가운데 성균관은 관료 양성을 위한 국립 최고의 고등 교육 기관이었고 향교는 지방의 대표적인 관학 교육 기관이었다.



『三峯集』 朝鮮徑國典 上 禮典 學校條

그러나 획일적인 교육과 관학적 교육 제도 속에서 지방의 문화는 균일한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고, 조선왕조 집권 세력의 노력도 효율적이지 못하여 관학은 점점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향교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극도로 황폐화되어 그 기능이 급격히 축소되고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관학적(官學的) 교육제도들은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점점 국가가 필요로 하였던 교화적 성격보다는 관리 등용의 관문 혹은 과거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예비지식을 습득하는 장소 즉, 관리 양성 기구들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기강의 해이와 과거제도의 문란 등의 사회적 폐단을 불러왔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드러내었고 점차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한계성을 드러냈다.

물론 15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관학의 부진으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시정책을 강구하거나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대개 미봉책에 불과하여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더욱이 연산군의 비정(秕政) 아래 관학의 쇠퇴는 물론 유풍(儒風)의 붕괴까지 초래하게 되면서 교육에 관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반정(反正)으로 연산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중종은 혼란을 수습하고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가장 먼저 황폐해진 교육 시설의 부흥을 위해 학교 교육을 크게 강화하였다. 하지만 공신계열이 주도한 교학진흥책은 관리등용 기구로서 관학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관학은 더욱 황폐해져 갔다. 이에 조광조를 위시한 신진사류들은 고식적(姑息的)이고 제도적인 관학 위주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다 근본적인 교학 진흥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사림에 의해 생겨난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이었고, 이렇게 건립된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서원이었던 것이다.

서원은 제향과 강학의 기능만을 생각한다면, 당시 관학(官學)이었던 향교(鄕校)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향교가 제향의 중심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聖賢)이었던 것에 반해 서원은 선현을 제향하였다는 점, 즉 서원이 위치한 고을과 연고가 있는 선현이 제향 된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었다. 설립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 즉 사림이라는 점, 그리고 설립의 동기와 배경이 관학과 다르다는 점 등에서 향교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현한 서원은 1543년(중종 38) 이후 지방 사립 교육기관으로서 향촌민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국가적인 승인을 받음으로써 점점 관학의 교육적 기능까지 대신하게 되었다. 서원은 1543년(중종 38) 풍기군수(豊基郡守)였던 주세붕(周世鵬)에 의해 처음으로 경상도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이 창건된 이래, 지금까지 전국의 각 고을에 수 개소에 달하는 서원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원의 시초가 되는 백운동서원은 1541년(중종 36) 7월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 1543년(중종 38)에 평소 흠모하던 회헌(晦軒) 안향(安珦)의 사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안향의 연고지인 풍기군은 조선 초기까지 기천현(基川縣) 지역이었으나, 1450년(문종 1) 속현(屬縣)인 은풍현(殷豊縣)에 문종의 태를 안치하면서 기천현과 은풍현이 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풍기군으로 승격한 지역이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소백산이 국경 역할을 하면서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의 힘이

부딪히던 곳이었고, 고려 태조 왕건과 후백제 견훤이 결전을 벌였던 장소였다. 그런데 이 지역은 1457년(세조 3) 금성대군(錦城大君) 역모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중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어떠한 교화적 움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와중에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관학의 본의를 상실해가던 향교를 대신할 사립교육기관이자 교화 기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백운동서원은 주세붕 부임 2년 뒤인 1543년(중종 38)에 건립되었는데, 이때 경상도 감영(慶尙道 監營), 풍기의 사림, 관속(官屬)들의 협조가 있었다.

백운동서원이 건립된 장소는 숙수사(宿水寺) 옛터로, 안향이 어린 시절 학문을 수학하던 곳이다. 우선 주세붕은 1542년(중종 37) 숙수사 자리에 안향을 배향하는 회헌사당(晦軒祠堂)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안향의 영정을 모셔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원래 숙수사는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에 소재하였는데, 1456년(세조 2) 순흥으로 유배 왔던 세종의 다섯째 아들 금성대군(金城大君)과 순흥부사(順興府使) 이보흠(李甫欽)이 이듬해 단종복위를 시도하다 관노(官奴)의 밀고로 관련자가 처벌되었고, 순흥부가 영천군(榮川郡), 봉화현(奉化縣), 풍기군(豊基郡)으로 분할된 상태였다. 또한 이때 순흥향교(順興鄕校)도 폐쇄되었는데, 이전까지 순흥향교에 봉안되어 있던 안향의 영정은 한양의 순흥안씨 대종가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에 주세붕이 1543년 회헌사당 동쪽에 학사(學舍)를 지어 서원의 골격을 갖추었고, 안향의 영정을 한양 순흥안씨 대종가에서 옮겨와 서원의 사당에 봉안한 뒤, 이를 백운동서원이라 이름 지었던 것이다.

주세붕이 이렇게 서원을 건립하였던 이유는 풍기지역의 교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었기에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죽계지(竹溪志)』의 서문인 「죽계지서(竹溪志序)」에 따르면, 서원 건립에 반대하는 이의 주장과 이에 반박하는 주세붕의 의견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먼저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이가 “심하도다. 그대의 세상물정에 어두움이며. 향교를 옮긴 것은 그렇다 해도 문성공의 사당과 서원을 세우는 일은 그만둘 수 없었는가? 문성공은 이미 국학(國學)에 종사 되어 고을마다 사당이 있는데 어찌하여 굳이 사당을 세우며, 이미 학교가 있는데 어찌 꼭 따로 서원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흥년을 당하였으니 그럴 시기가 아니며, 낮은 지위에 있으니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사당과 서원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너무 지나친 데에 가깝지 않겠는가?”라 했다고 한다. 즉 향교에 이미 안향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별도의 사묘가 필요치 않고, 향교가 있으니 서원이라는 교육 기관도 필요하지 않으며, 기근에 서원을 세우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주세붕은 “글쎄. 내가 보건대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을 다스린 1년 사이에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중수하였고, 또한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의 사당과 다섯 분 선생의 사당, 그리고 세 분 선생의 사당을 세웠고, 또한 유둔전(劉屯田)을 위하여 장절정(壯節亭)을 지었다. 그 당시엔 금(金)나라가 중국을 함락하여 천하가 피비린내로 가득하였고, 남강지방은 계속된 큰 흉년으로 벼슬을 팔아 곡식으로 바꿔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 교육이란 반드시 현인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되므로 사당을 세워 덕 있는 이를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하는 것이니, 실로 교육은 난리를 막고 기근을 구제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다.”라 하며, 서원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반대자들을 설득하였다. 주자가 남강의 수령으로 있을 때 한 일을 예로 들면서 교화가 기근을 처리하는 일보다 시급하고

성현을 본받지 않으면 향원의 행적을 따르게 될 것이니 반드시 성현을 본받아 그 행적을 따라야 한다고 뜻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풍기군에 중국의 주자가 세운 백록동서원을 모방한 백운동서원이 건립되었고, 고려에 성리학을 도입한 순흥 출신의 안향을 서원에 배향하게 된 것이다. 주세붕이 순흥에 안향을 봉행하는 사묘와 유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서재를 동시에 세운 것은 선현을 존송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동시에 교육을 통해 유교적 윤리를 가르쳐 풍기 사람들을 교화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었다. 다행히 서원의 설립은 주세붕의 의도처럼 풍기 지방의 교화에 영향을 미쳐 유교 윤리가 보급되었기에 이르렀고 향촌민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원생들을 과거에 급제 시키는데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주세붕은 경상도관찰사였던 임백령(林百齡), 이언적(李彦迪) 등의 도움을 받아 제향과 교육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서책을 구입하여 서원 문고를 설치하는 등 서원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세붕 자신도 종종 서원에 들러 고을의 선비들과 어울려 성리학의 강론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당시 풍기 사람 모두가 서원 건립에 반대하였던 것은 아니었기에 주세붕은 그들을 통해 서원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기반을 갖추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서원은 풍기 사람의 향촌 교화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보였다. 주세붕이 풍기 사람들에게 소수서원의 운영을 맡기고 풍기 사람의 자제들을 원생으로 뽑도록 하였지만 설립 당시 원생 수 10명 가운데 풍기 사람은 1명뿐이었다. 원장을 풍기 사람으로 삼고 실제 사람들을 운영에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여전히 원생들이 다른 군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은 소수서원이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 사람들과 안향의 후손을 제외한 대다수 풍기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주세붕에 이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안향의 11대손 안현(安瑗)이 소수서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확립하면서 소수서원의 진흥책 역할을 하여, 소수서원은 곧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된다. 그는 주로 소수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데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세붕이 세운 서원의 운영방침을 보완하여 서원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545년(명종 1)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안현은 경상도 각 고을에 협조를 요청하여 서원에서 일할 노비와 제수에 쓰일 식량, 어염 등을 확보하고 서원에 필요한 물자들을 수시로 분정(分定)하여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였다. 또한 서원 운영 규정을 정하고 서원의 원장 임원 문제, 원생의 정원 수, 제향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이렇게 토대가 마련된 소수서원은 당시 30결 곧 9만평에 이르는 전답을 보유할 수 있었고, 어장과 염분, 보미(寶米)도 운영할 수 있었다. 안현의 이러한 노력으로 소수서원은 사액서원으로 인정받을 때 조정으로부터 전례에 의한 서적과 편액은 하사받았으나, 전토와 노비는 새로이 하사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이 튼튼하였다. 그는 서원의 설립자인 주세붕과 서원이 사액 받는 데 절대적인 공을 세운 이황(李滉)을 연결하는 중개자이자 소수서원이 사액서원으로 발전하는데 공을 세운 숨은 공로자라고 할 수 있다.

2)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사액(賜額)

안현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한 소수서원은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노력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이황은 주세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서원의 기반 확충에 주력하였으며, 나아가 국가로부터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게 된 것이다. 1548년(명종 3)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은 소수서원의 격을 높이고 공인화하며, 나라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부임한 이후 다음해인 1549년(명종 4) 당시 경상도관찰사인 심통원(沈通源)에게 소수서원이 사람의 교육과 풍속의 교화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라에 도움이 됨으로 사액서원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청원하였다.

이황의 건의를 받은 심통원이 다시 이를 조정에 건의하였고, 이 문제를 두고 의논이 있었다. 『명종실록(明宗實錄)』에 수록된 1550년 경술(庚戌) 2월 11일 기사에 따르면, 이때 영의정(領議政) 이기(李芑), 좌의정(左議政) 심연원(沈連源), 우의정(右議政) 상진(尙震), 예조판서(禮曹判書) 윤개(尹潑), 예조참의(禮曹參議) 서고(徐固)가 아래와 같이 아뢰었다.

“풍기의 백운동서원은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주세붕이 창립한 것인데, 그 터는 바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본래의 이름은 향(珦)이지만 어휘(御諱)를 피해 유(裕)라 한 것이다] 살던 곳이고, 그 제도와 규모는 대개 주문공(朱文公)이 세운 백록동을 모방한 것입니다. 무릇 학령(學令)을 세우고 서적(書籍)을 비치하며, 전량(田糧)과 공급의 도구를 다 갖추어서 인재를 성취시킬 만합니다. 이황이[이황이 풍기군수로 있을 때 주세붕의 뜻을 훌륭히 여기고, 오래 전승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연을 갖추어 계문(啓聞)하였기 때문에 삼공과 해조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편액(扁額)과 서적, 토지, 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다 따라줄 수는 없으나 편액과 서적 등 2~3건만이라도 특명으로 내려 보낸다면, 먼 곳의 유생들이 반드시 고무 감격하여 흥기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주세붕이 마련해준 것이 부족하지 않으니, 그대로 놓아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장획(臧獲)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환(使喚)할 사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생이 글 읽기로는 고요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관찰사와 수령이 학업을 권장하려고 교령(敎令)을 번거롭게 내려 단속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스럽지 못하여 장수유식(藏修游息)의 도(道)에 어긋날까 염려되니, 동요시키지 않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대신(大臣)과 중신(重臣)들은 의견으로 모아 새로 건립된 서원의 기능을 높이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생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서적과 함께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을 내려줄 것도 청하였다. 여기서 ‘소수(紹修)’라는 말은 “이미 무너진 교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하였음(既廢之學紹而修之)”에서 인용한 것으로, 당시 대제학(大提學)이었던 신광한(申光漢)이 지었고, 명종이 윤허하여 내린 이름이다. 즉 자기 내적 수양을 통하여 유학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니,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종복위 모의사건으로 순흥에 폐지된 학교를 다시 세워, 단절된 도학을 잇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로써 소수서원은 왕명에 의해 성리학 교육에 관한 정통성을 인정받았고, 군수나 관찰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액을 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되, 감독은 받지 않게 되었다.



소수서원 편액

그뿐만 아니라 퇴계는 도학을 천명하고 밝히는 구체적인 실천 도장으로서 서원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서원 특유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이는 수학(受學) 규칙, 거재(居齋) 규칙, 교수실천요강, 독서법 등을 규정한 원규(院規)를 만들어 훗날 세워지는 다른 서원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발전함으로써 백운동서원 시절과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다.

사액 받은 소수서원은 나라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서원의 사회적 지위가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원에 딸린 토지에 대한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소속 노비들은 면역의 특권이 내려졌다. 또한 처음 입학 정원이 10명이었던 것에 반해 사액 이후에는 30명으로 늘어나며 더욱 발전 할 수 있었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사설교육기관으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허락 받았다. 또한 점차 풍기 사람들이 서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또 하나의 향촌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3) 서원철폐령과 소수서원의 현재

소수서원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에도 훼철(毀撤)되지 않은 47개소 서원 중 하나였다. 소수서원을 필두로 서원 건립이 사람들과 위정자들에 의해 장려되자 선조 대부터는 건립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여기에는 교육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방관들도 쉽게 간섭할 수 없는 자치 기구였기 때문에 각 고을의 사족들은 경쟁적으로 서원을 건립해 나갔던 것이다. 더구나 17세기 정치적으로 봉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각 봉당은 자파 확보를 위해 서원 건립을 제각기 장려하였고, 이는 서원의 남설(濫設)과 첩설(疊設)을 일으켰다. 18~19세기에 접어서는 조상추숭사업의 일환으로 각 문중이 서원 건립을 주도하며, 남설과 첩설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조선후기 서원은 점차 정치·사회적 폐해를 드러내게 되었고, 국가에서 서원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른 것이다.

흥선대원군은 1864년(고종 1)부터 1871년(고종 8)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서원철폐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47개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서원과 사우(祠宇)가 훼철되기에 이르렀다. 소수서원은 이때 훼철되지 않은 47개소 서원 중 하나였다. 문묘에 배향된 안향의 위패를 배향하는 대표적인 서원이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였기 때문에 훼철을 피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그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주 소수서원은 역사적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 외에도 소수서원에는 많은 종류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보 제111호 안향초상(安珦肖像), 보물 제717호 주세붕초상(周世鵬肖像), 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榮州 宿水寺址 幢竿支柱), 보물 제485호 대성지성문선왕전좌도(大成至聖文宣王殿坐圖), 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榮州 紹修書院 文成公廟),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0호 명종어필'소수서원'현판(明宗御筆'紹修書院'懸板),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1호 소수서원소장판목(紹修書院所藏板木) 등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한편, 현재 소수서원은 옛 서원이 가지고 있던 교육과 제향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선의 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관광지로서 많은 성장을 하였는데, 그 결과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 소수서원의 서원 경내에 서원 건물 이외에도 고직사와 유물관, 그리고 충효교육관과 순흥문화유적관리소가 자리하게 되었다. 소수서원의 경역은 1982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친 정비 사업으로, 1982년에는 원래 소수서원 경역 북쪽에 지금의 사료관인 유물관을 건립하였고, 그 서쪽에 서원관리를 위한 고직사를 지어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였다. 1991년에는 유물관의 북쪽에 지금 관리사무소로 변한 사료전시관과 충효교육관을 건립하였다. 그 결과 소수서원은 원래의 소수서원 일곽과 유물관, 고직사 일곽, 그리고 사료전시관·충효교육관 일곽 등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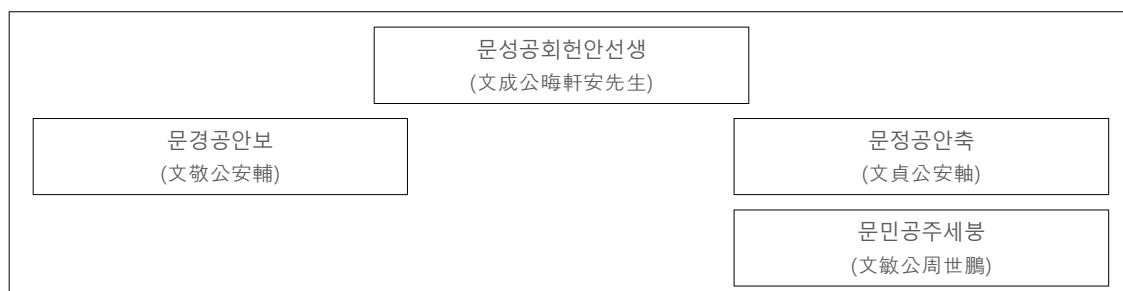
사료전시관에서는 서원의 양대 기능인 강학과 제향을 주제로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우선 '강학'과 '제향'의 모습을 '디오라마'로 제작하여 그 내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사당에 봉안된 안향, 안축(安軸), 안보(安輔), 주세붕에 대한 설명과 서원의 발생, 운영, 교육, 제향, 사회적 기능 등 당시 서원의 역할에 대한 도판을 제작,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서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와 서원 원장 등 각 직책을 맡았던 원임들의 인사기록인 「원임제명목」, 수학한 원생들의 이름을 적은 「입원록(入院錄)」, 서원 방문 인사들의 방명록인 「심원록(尋院錄)」 등의 소수서원 관련 유물 16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4) 배향인물

일종의 사립대학이며 유학 경전이라는 전문 분야를 공부했던 서원은 공부하는 곳임과 더불어 선현을 받들어 모시는 공간이기도 했다. 조선에 서원을 처음 세웠다고도 할 수 있는 주세붕周世鵬은 “사묘祠廟가 없으면 서원이 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서원의 자격 요건으로 사당을 내세웠다. 물론 서원의 사당에는 아무나 신위를 봉안할 수 없었는데 그 자격 요건은 유학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대유학자이거나 나라를 위해 충절을 바친 선현들로 그 수도 많아야 10여명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특정한 인물을 봉안하고 모셨던 것은 그들의 학덕과 위대한 유훈들을 하나의 모범으로 받들며 후학을 계도하고 학문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자신들의 학적 정통성을 과시하고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소수서원의 사당에는 모두 네 사람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고려후기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을 전한 안향(安珦)을 비롯해, 안향의 재종손으로 고려후기 관료이자 학자였던 안축(安軸)과 안보(安輔) 형제, 그리고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주세붕(周世鵬)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중 안향의 위패는 백운동서원 건립 이전부터 회헌사당(晦軒祠堂)에 봉안되어 있었으며, 안축과 안보의 위패는 안향과 같은 순흥안씨(順興安氏) 가문 출신의 명현(名賢)이라 하여 1544년(중종 39)에 추가 배향되었다. 마지막으로 주세붕의 위패가 1633년(인조 11) 추가로 배향되어 지금까지 네 명의 위패가 모셔지고 있다.

위패의 봉안 형식은 일반적인 소목식(昭穆式)이다. 소목식은 문묘나 향교, 그리고 일반 서원에서 많이 쓰는 위패 봉안 방식으로, 주향이 되는 정위(正位)를 묘우의 중앙에 모시고, 배향위 또는 종향위는 서열에 따라 좌우에 위패를 교차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수서원은 정위인 안향의 위패가 사당 중앙에 모셔지고, 좌우에 안축, 안보, 그리고 주세붕 순으로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제향도 이 순서에 따라 지낸다.



제향 위차도

①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안향(1243~1306)은 고려후기에 활약한 문신이자 학자로,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을 도입한 인물이다. 안향의 본관은 순흥(順興), 자(字)는 사온(士蘊), 호는 회헌(晦軒),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안향은 안유(安裕)라고도 불리는데, 유(裕)는 안향의 어릴 적 초명이다. 조선 5대 국왕 문종(文宗)의 이름이 향(珦)인 까닭에 피휘(避諱)하기 위해, 뒤에 다시 안유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안향의 호인 회헌은 주자(朱子)를 흠모하는 뜻을 담아 주자의 호인 회암(晦庵)을 모방한 것이다.

안향은 1243년(고종 30) 흥주(興州)의 죽계(竹溪) 상평리(上坪里)에서 출생하였다. 이곳은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군 풍기면으로 편재된 곳이다. 안향의 부친 안부(安孚)는 1244년(고종 31) 문과에 급제하여 밀직부사(密直副使)를 역임한 후 판도판서(版圖判書)로 치사한 인물로, 후에 수태사문하시중(守太師門下侍中)으로 추봉되었다. 조부 안영유(安永儒)는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추봉된 인물이며, 증조부 안자미(安子美)는 신호위상호군(神號衛上護軍)에 추봉된 인물로 순흥안씨의 시조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안향의 모친인 순정군부인(順政君夫人) 강주우씨(剛州禹氏)는 예빈시 동정(禮賓寺 同正) 우성윤(禹成允)의 딸이다.



회헌 안향 초상

안향은 1260년(원종 1) 18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郎)으로 관직에 나아갔다. 1270년(원종 11) 삼별초의 난이 일어나자 안향은 강화도에 억류되었다. 그러나 삼별초군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탈출하여 당시 국왕이었던 원종의 신임을 얻어 1272년 감찰어사(監察御使)에 올랐다. 그 후 판도사좌랑(版圖司左郎), 감찰시어사(監察侍御史), 국자사업(國子司業) 등의 내직과 상주판관(尙州判官)과 같은 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1275년(충렬왕 1) 상주판관으로 부임했을 때에는 백성을 현혹시키는 무당을 엄중히 다스려 민풍(民風)을 쇠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외에도 안향은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 좌부승지(左副承旨), 좌승지(左承旨)를 역임하였고, 과거 시험을 관장하는 동지공거(同知貢舉)와 정동행성(征東行省)의 관직인 원외랑(員外郎)을 제수받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좌우사낭중(左右司郎中)이 되었고 고려유학제거(高麗儒學提舉)에 이르렀다.

1289년(충렬왕 15) 안향은 왕과 왕후를 호종하여 원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안향은 성리서인 『주자전서(朱子全書)』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에 감명을 손수 베껴 이듬해 3월 고려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입된 성리학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때 주자의 성리학에 빠져들어 안향은 자신의 호를 회헌이라 짓기도 하였다. 1297년(충렬왕 23) 다시 왕을 호종하여 원나라에 간 안향은 공자와 주자의 화상(畵像)을 그려와 자신의 후원에 정사(精舍)를 짓고 모시며, 성리학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1298년 원나라에 의해 충렬왕이 물러가고 충선왕이 즉위하자, 관제가 크게 변하였다. 이때 안향은 집현전 태학사 겸 참지기무동경유수계림부윤(集賢殿 太學士 兼 參知機務東京留守鷄林府尹)에 이어, 첨의참리수문전대학사감수국사(僉議參理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에 임명되었다. 충선왕 즉위 때에도 안향은 왕을 호종하여 원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공자의 문묘에 참배하였고, 그곳 학관들과 성리학을 토론하였다. 당시 문답한 학관들은 안향의 이론이 주자의 성리학에 어긋남이 없어, 안향을 일러 '동방의 주자'라고 칭송했다고 한다.

귀국 후 안향은 고려에서 각종 유교적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303년(충렬왕 29)에는 국학학정(國學學正) 김문정(金文鼎)을 중국 강남(江南)에 보내 공자와 70제자의 화상, 그리고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祭器)·악기(樂器)·육경(六經)·제자(諸子)·사서(史書)·주자서 등을 구해오도록 했다. 1304년 6월 국학(國學)의 대성전이 완성되자 중국에서 구해온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들의 화상을 모시고, 문묘의 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 한편, 안향은 대성전이 중수될 즈음에 국학을 양성하기 위해 일종의 육영 재단이라 할 수 있는 양현고(養賢庫)를 활성화시켰다. 왕에게 건의해 문무백관으로 하여금 6품 이상은 은 1근, 7품 이하는 포(布)를 내게 하여, 이것을 양현고에 귀속시켜 인재 양성이 충당하였던 것이다.

고려후기 성리학 도입과 장려에 힘썼던 안향은 1306년(충렬왕 32) 9월 64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사후 안향은 성리학의 도입과 실천에 대한 공적이 인정받아 1318년(충숙왕 5) 화상이 모사되었는데, 이때의 화상은 1298년 안향이 원나라에 갔을 때 원나라의 학관들이 안향을 '동방의 주자'라 하여 화공에게 그리게 한 것을 모사한 것이다. 이 초상화는 현재 소수서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고려 때 그린 것으로 이제현(李齊賢)의 초상화와 더불어 가장 오래된 그림의 하나로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1962년 12월 20일 국보 111호로 지정되었다. 이어 1319년에는 개경 문묘의 동무(東廡) 2위에 배향되었다. 1542년(중종 37)에는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이 지금의 영주군 순흥면 내죽리(內竹里)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그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이듬해 8월, 송나라 주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모방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안향을 배향한 백운동서원은 1549년(명종 4) 풍기군수 이황(李滉)의 건의에 따라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사액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외에도 1643년(인조 21) 장단의 유생들이 봉암산(鳳岑山) 아래에 세운 임강서원(臨江書院)과 곡성의 회헌영당(晦軒影堂) 등에 배향되었다.

② 문정공(文貞公) 안축(安軸)

안축(1282~1348)은 고려후기 때 활약한 문신이자 학자다.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당지(當之), 호는 근재(謹齋), 시호는 문정(文貞)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의 순흥인 흥녕현(興寧縣) 죽계에서 출생하였다. 부친 안석(安碩), 조부 안희서(安希譔), 증조부 안득재(安得財)는 모두 고을의 향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이중 안석은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나중에 밀직부사제학(密直副使提學)에 추증되었다고 한다. 증조부 안득재의 부친인 안영화(安永和)는 안영유(安永儒)와 형제



사헌정

관계로 안영유의 손자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 전래한 인물로 알려진 안향이다. 안축의 모친 흥녕안씨(興寧安氏)는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안성기(安成器)의 딸이다. 안축의 형제로는 안보(安輔)와 안집(安輯)이 있는데, 이중 안보는 소수서원에 함께 배향되어 있다.

안축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하기를 좋아하였으며, 문장에 탁월한 재질을 보였다고 한다. 충숙왕 연간 문과에 급제한 안축은 이후 금주사록(金州司錄), 사헌규정(司憲糾正), 단양부주부(丹陽府注簿)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324년(충숙왕 11)에는 원나라 제과(制科)에 급제해 요양로 개주판관(遼陽路蓋州判官)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나 부임하지는 않았다. 원나라에 머무는 동안 안축은 억류되어 있던 충숙왕의 죄가 없다는 상소문을 원나라 황제에게 올리기도 하였다.

고려로 돌아온 안축은 성균악정(成均樂正), 우사간대부(右司諫大夫)를 거쳐 충혜왕 때에는 강원도존무사(江原道存撫使)로 임명되었다. 강원도존무사 재임 시절 안축은 『관동와주(關東瓦注)』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문집에는 임금에서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사랑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332년 충숙왕이 복위하자 안축은 충혜왕의 총애를 받았다 하여 한동안 파면 당하였다가, 전법판서(典法判書)로 복직되었으나, 당시 실세인 내시의 뜻을 거슬렀다 하여 다시 파면되기도 하였다. 1339년 이번에는 충혜왕이 복위하자 안축은 다시 복직하여 전법판서와 감찰대부(監察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안축은 관직 생활 중 뛰어난 문장력을 발휘하였기에 악정(樂正)으로부터 감찰대부에 이르기까지 고려의 각종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이 그의 손에 작성되었다. 이후에도 교검교평리(校檢校評理),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판정지도감사(判整治都監事) 등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는데,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재임 시절에는 민지(閔漬)가 지은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이제현(李齊賢) 등과 함께 중수하였으며, 충렬왕·충선왕·충숙왕의 실록편찬에 참여해 실록을 수정하였다.

1348년(충목왕 4) 안축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544년(중종 39) 동생 안보와 함께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안축은 경기체가 문학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죽계별곡(竹溪別曲)」이 있다. 저서로는 『관동와주(關東瓦注)』와 『근재집(謹齋集)』이 전한다.

③ 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

안보(1302~1357)는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원지(員之),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부친은 안석(安碩)이며, 형이 고려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안축이다.

안보는 일찍이 부친을 여의고 형인 안축한테서 글을 배웠다고 한다. 19세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경주사록(慶州司錄)에 임명되었다. 이후 춘추관수찬(春秋館修撰)을 거쳐 편수관(編修官)에 임명되었고, 1344년(충혜왕 복위 5) 원나라에 가서 제과(制科)에 급제한 뒤, 요양행중서성조마(遼陽行中書省照磨)로 임명되어 승발가각고(承發架閣庫)를 겸임했다고 한다. 이때 안보는 “이미 벼슬을 받은 이상 직무를 보지 않는 것은 공손하지 못한 일이나 지금의 벼슬인 조마(照磨)의 직책이 문서만 관리할 뿐 다른 사무가 없어 성(省)으로 가서 부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성으로 가 부임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성의 관리들이 그의 재능을 높게 평가했다고 한다.

원나라에서의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안보는 모친 봉양을 명분으로 관직을 그만두고 다시 고려로 돌아왔다. 이후 양광도안렴사(楊廣道按廉使), 교주도안렴사(交州道按廉使)를 역임하였고, 1352년(공민왕 1) 밀직제학(密直提學)에 임명되었다. 1355년(공민왕 4)에는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임명 되었는데, 노모의 봉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다. 그러자 공민왕은 고향인 흥녕 근처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안보를 동경유수(東京留守)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안보는 1357년(공민왕 6)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 학문을 좋아했으며 재리에 관심을 두지 않아, 죽은 후 집에는 한 섬의 양식도 쌓아 둔 것이 없었다고 한다. 1544년(중종 39) 형인 안축과 함께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④ 문민공(文敏公) 주세붕(周世鵬)

주세붕(1495~1554)은 조선전기 문신이자 학자로,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愼齋), 남고(南臯), 무릉도인(武陵道人), 손옹(巽翁)이다. 주세붕은 현재 경상남도 함안군에 편입된 경상도 함안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은 주문보(周文輔), 조부는 주장손(周長孫)이며, 모친 창원황씨(昌原黃氏)는 황근중(黃謹中)의 딸이다. 원래 주세붕의 선대는 합천(陝川)에 우거하였으나, 부친 주문보가 만년에 칠원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주세붕이 칠원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주세붕은 어릴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모친인 창원황씨가 병석에 눕자 직접 목욕시키고 머리를 벗겨주는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또한 총명하고 명석하여 나이 6세에 이미 『소학(小學)』을 배우기 시작했고, 10세에 『사서(四書)』를 두루 읽었다. 1522년(중종 17)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면서 벼슬에 나아가기 시작한 주세붕은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를 거쳐,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이 되었다.



신재 주세붕 초상

1526년(중종 21)에는 홍문관정자(弘文館正字)에 부임하였고, 곧 이어 저작(著作), 부수찬(副修撰)에 올랐으며, 공조좌랑(工曹佐郎), 병조좌랑(兵曹佐郎),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러나 중종 연간 김안로(金安老) 일파가 득세하자, 모친 봉양을 이유로 1537년(중종 32) 고향인 칠원 인근의 곤양군수(昆陽郡守)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듬해 검시관(檢屍官)으로 남형을 한 상관을 비호했다는 죄목으로 파직 당하였다.

1541년(중종 36)에 다시 관직에 복귀한 주세붕은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 예빈시정(禮賓寺正)을 거쳐, 그해 여름 풍기군수(豐基郡守)에 제수되었다. 풍기군수 재임 시절 주세붕은 유학 장려와 교화에 힘썼다. 마을마다 방을 내려 오륜을 행하는 방도로 『소학』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책자로 반포하였고, 당시 피폐하여 향촌민의 교육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향교를 관아 근처로 이건하기도 했다. 또한 일종의 사립교육기관인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이곳에 설립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주세붕은 이 서원에 고려 후기 성리학을 도입하였던 순흥 출신의 안향(安珦)을 배향하였으며, 이어 순흥안씨 출신의 고려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안축(安軸)과 안보(安輔)를 배향하였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서적을 구입하는 한편, 경제적 기반이 되는 서원전(書院田)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주세붕은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임명되었고, 이후 홍문관의 응교(應敎)·전한(典翰)·직제학(直提學), 이어 도승지(都承旨)에 올랐으며, 1548년(명종 3)에는 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이듬해인 1549년(명종 4)에는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부임하였는데, 이곳에도 백운동서원과 같은 예로 해주(海州)에 수양서원(首陽書院)을 건립하였다. 그 뒤에도 대사성(大司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냈으나, 병으로 사직을 요청하여 물러난 후, 1554년(명종 9)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언에 따라 주세붕은 고향인 칠원 선영(先塋)에 안장되었고, 1633년(인조 11)에 소수서원을 건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수서원에 배향되었다. 소수서원 이외에도 주세붕의 위패는 해주 양근서원(楊根書院), 칠원 덕연서원(德淵書院), 홍주 문성사(文成祠), 칠원 남고사(南臯祠), 합천 도연사(道淵祠)에 배향되어 있다. 1677년(숙종 3)에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추증되었으며, 1828년(순조 28)에는 문민(文敏)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주세붕의 저서로는 『죽계지(竹溪志)』, 『해동명신언행록(海東名臣言行錄)』, 『진헌심도(進獻心圖)』가 전해지며, 문집으로는 『무릉잡고(武陵雜稿)』가 있다. 그 외 경기체가 한글 가사인 「도동곡(道東曲)」, 「육현가(六賢歌)」, 「엄연곡(儼然曲)」, 「태평곡(太平曲)」 등이 전한다.

5) 배출인물

① 월천(月川) 조목(趙穆)

- 1524~1606, 본관 횡성橫城, 예안 출신
- 1552년(명종 7) 생원시에 합격 하여 공조좌랑 봉화현감. 군자감 주부를 역임하다 스스로 벼슬을 사양하고 평생 스승 이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퇴계의 팔고제(八高弟) 중의 한 사람이다. 15세 때에 이황의 문하에 들어감. 퇴계 사후에는 문집 발간 등 추모사업과 도산서원 건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 저서 : 『월천집(月川集)』, 『곤지잡록(困知雜錄)』
- 배향 : 예안 도산서원 상덕사(尙德祠), 예천(醴泉) 정산서원(鼎山書院), 봉화 문암서원(文巖書院)

② 송간(松澗) 황응규(黃應奎)

- 1518~1598, 본관 창원昌原, 풍기 출신
- 1569년(선조 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의금부도사, 선산부사, 동지돈령부사를 역임하였다. 임진왜란 때 노령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고 향군대장을 역임했다. 주세붕, 이황의 문인이며, 초서(草書)를 잘 썼다. 소수서원 학구재(學求齋)를 지어 헌납하였다.
- 저서 : 『송간고(松澗稿)』

③ 백담(栢潭) 구봉령(具鳳齡)

- 1526~1586, 본관 능성(陵城), 안동 출신
- 1546년(명종 1)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호조좌랑, 직제학, 대사성, 형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암행어사로 황해도, 충청도 등지에 나가 흉년과 구황(救荒)으로 어지럽던 민심을 수습하고, 당쟁시에는 중립을 지키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545년 이황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 만년에 정사(精舍)를 세워 후학들과 사(經史)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시문에 뛰어나 기대승과 비견되었고, 「혼천의기(渾天儀記)」를 짓는 등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 저서 : 『백담문집(栢潭文集)』
- 배향 : 용산서원(龍山書院)

④ 약포(藥圃) 정탁(鄭琢)

- 1526~1605, 본관 청주(淸州), 예천 출신
- 1558년(명종 1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조참판, 대사헌, 좌의정,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때 선조를 의주로 호종하였고, 이순신 · 광재우 · 김덕령 등 명장을 발탁하였다.
- 저서 : 『약포집(藥圃集)』,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
- 배향 : 예천 도정서원(道正書院)

⑤ 격암(格菴) 남사고(南師古)

- 생몰년 미상(명종), 본관 영양(英陽), 울진 출신
- 지리학, 풍수·천문·점성(占星), 관상술(觀相術)에 통달하였으며 동인과 서인 분당(分黨)과 임진왜란을 예언하였다.

⑥ 초간(草澗) 권문해(權文海)

- 1534~1591, 본관 예천(醴泉), 예천 출신
- 1560년(명종 1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좌부승지, 관찰사, 사간을 역임한바 있고, 우리나라 고금 문적(文籍)을 널리 참고하여 만든 백과사전『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의 저자이다.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 유성룡, 김성일 등과 교우하였다.
- 저서 :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초간집(草澗集)』
- 배향 : 예천 봉산서원(鳳山書院)

⑦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 1538~1593, 본관 의성(義城), 안동 출신
- 1568년(선조 원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제학. 경상도우병사를 역임하였다. 1590년 통신부사로 일본에 갔다가 1591년에 돌아왔다. 임진왜란때 경상도우병사로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순직하였다. 이황의 문인이며 학봉의 5형제, 극일(克一) 약봉(藥峯), 수일(守一) 구봉(龜峯), 명일(明一) 운암(雲巖), 복일(復一) 남악(南岳) 모두 소수서원에서 수학하였다.
- 저서 : 『학봉집(鶴峰集)』, 『해사록(海槎錄)』
- 배향 : 안동 임천서원(臨川書院), 안동 호계서원(虎溪書院), 영양 영산서원(英山書院), 의성 빙계서원(氷溪書院)

⑧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

- 1530~1604, 본관 봉화(奉化), 봉화 출신
- 1561년(명종 16)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집경전 참봉, 장례원 사평, 봉화 현감을 지냈다. 정묘재란때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많은 선비들이 호응해서 참가하고 지방민들은 군량미를 헌납했다. 처음 김진(金進)에게 글을 배웠고, 뒤에 이황의 문하에 들어가서 수학하였다.
- 저서 : 『성재집(惺齋集)』
- 배향 : 예안 동계정사(東溪精舍)

⑨ 백암(栢巖) 김륵(金玞)

- 1540~1616, 본관 선성(宣城), 영주 출신
- 1576년(선조 9) 문과에 급제. 홍문관수찬, 사헌부대사헌, 안동부사를 지냈다. 임진왜란에 경상우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정유재란에는 영남안집사(嶺南安集使)로 활약하였다. 이황의 문인이며 1584년 영월군수로 있을 때 노산군(단종)의 묘를 배알하고 처음으로 '노산군'이라는 호칭을 신주에 써서 모셨다.
- 저서 : 『백암문집(栢巖文集)』
- 배향 : 영천 구산서원(龜山書院)

⑩ 남천(南川) 권두문(權斗文)

- 1543~1617, 본관 안동(安東), 영주 출신
- 1572년(선조 5)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예천·영천·청도군수를 지냈다. 임진왜란에는 창평군수로 재임하면서 관동지방 방어에 공을 세웠다.
- 저서 : 『남천집(南川集)』

⑪ 성오대(省吾臺) 이개립(李介立)

- 1546~1625, 본관 경주(慶州), 영주 출신
- 1567년(명종 22) 진사에 합격, 산음현감을 지냈다. 임진왜란때 의병 궐기를, 정유재란에는 향병(鄉兵) 대장으로 활약하였다. 김성일(金誠一)의 문인이다. 1586년(선조 19)에 효행으로 천거되어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하여 사퇴하고, 1591년 장현광(張顯光)과 함께 유일(遺逸: 학문과 덕행이 높아서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중요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선비)로 천거되어 참봉이 되었다.

⑫ 물암(勿巖) 김릉(金隆)

- 1525~1594, 본관 함창(咸昌), 영주 출신
- 이황(李滉)의 문하에서『소학』·『가례』·『태극도설』·『통서(通書)』 등을 수학하였으며, 『중용』·『대학』등 경서와 산법(算法),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임진왜란때는 격문을 지어 여러 고을에 돌려 기병할 것을 호소하였다. 좌승지에 추승 되었다.
- 저서 : 『물암집(勿巖集)』, 『삼서강록(三書講錄)』
- 배향 : 영풍 삼봉서원(三峯書院)

⑬ 서현(西峴) 김구정(金九鼎)

- 1551~1638, 본관 함창(咸昌), 풍기 출신
- 1582년(선조 15) 문과급제, 의성현감, 영해부사를 역임하고, 대구부사 만년에 소수서원 원장으로 추대되어 후학을 지도하였다.

⑭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 1554~1637, 본관 인동(仁同), 인동 출신
- 1576년(선조 9년) 재능과 행실이 뛰어나 조정에 천거되었다. 공조좌랑, 의성현감, 형조참판을 지냈으며,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일생을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였다. 선조·광해군·인조 때의 성리학자로 17세기 은거(隱居) 선비 중의 한 사람이었음.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처를 옮겼는데 자신의 호 여헌(旅軒)도 이러한 생활을 반영하였다. 53세 때에 입암정사를 짓고 학문을 하고, 휴식하는 장소로 삼았다. 1601년에는 고향 근처에 부지암정사를 지었다.
- 저서 : 『여헌집(旅軒集)』
- 배향 : 인동 동락서원(東洛書院), 성주 천곡서원(川谷書院), 서산 여헌영당(旅軒影堂), 청송 송학서원(松鶴書院), 영천 임고서원(臨臯書院), 의성 빙계서원(氷溪書院)

⑮ 취사(炊沙) 이여빈(李汝蘋)

- 1556~1631, 본관 우계(羽溪)
- 1591년(선조 24)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1605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벽사도찰방(碧沙道察訪)으로 나갔으나 1년만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610년(광해군 2) 성균관전적으로 등용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과 이이첨(李爾瞻)이 국정을 문란하게 하므로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정인홍 등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하자 이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고, 그 뒤 벼슬을 단념하고 감곡(鑑谷)에 은거하여 후진 교육에 힘을 쏟았다. 1614년 옥사가 일어나 이첨과 정인홍이 폐비를 주장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옳지 못함을 상소하고 7일동안 합문(閤門)앞에 엎드려서 간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서 : 『취사문집(炊沙文集)』 6권
- 배향 : 도계서원(道溪書院)

⑯ 망와(忘窩) 김영조(金榮祖)

- 1577~1648, 본관 풍산(豊山)
- 1601년(선조 34)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612년(광해군 4)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를 거쳐 전직에 승진하였으나, 당시 혼란한 정치를 보고 10여 년간 은거생활을 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후 복관되어 정언, 지평, 부수찬·장령, 대사헌, 대사성, 대사간·부제학,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여섯 차례나 어사로 나갔다. 1633년에는 세자책봉을 주청하기 위해 주청사(奏請使) 한인급(韓仁及)과 함께 부사로 중국에 다녀왔다.
- 저서 : 『망와집』
- 배향 : 영천 구산정사(龜山精舍)

⑰ 단곡(丹谷) 곽진(郭璣)

- 1568~1633, 본관 현풍(玄風)
- 권우(權宇)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25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성일(金誠一)의 초유문(招諭文)을 읽고 그의 둘째형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화왕산성(火旺山城)에 들어가 왜적과 싸웠다. 1601년(선조 34)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과거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면서 단공산(丹公山)에 작은 암자를 짓고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주서절요(朱書節要)』 등을 취하여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잠심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아들 영(璵)이 권신 이이첨(李爾瞻)을 주참 하자고 상소하였다가 투옥되어 죽자, 1621년에는 그 자신이 영남유생을 대표하여 이이첨을 탄핵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시문에 능했으며, 장현광·이준·정경세 등과 사우관계를 맺었다. 퇴계 이황이 당시 신분사회임에도 귀천을 가리지 않고 평민교육을 실천하여 무쇠장이(鐵工人) 배순(裴純)을 제자로 삼은 사실이 유일하게 그의 저서에 전해온다.
- 저서 : 『단곡문집(丹谷文集)』 3책
- 배향 : 백고리사(白皐里祠)

2-2. 소수서원의 인적 구성과 경제적 기반

2-2-1. 소수서원의 인적 구성

1) 원임(院任)의 직임(職任)과 원장(院長)의 구성

서원의 원임직 구성은 기본적으로 원장(院長)-유사(有司) 체제로 확립되어 있었으나, 지역·당색 또는 각 서원의 제반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서원제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원장제가 정착되지 않고 다만 서원 업무를 총괄하는 유사직만이 있었다. 소수서원의 경우 설립 4년 후인 1547년에 작성된 사문입의(斯文立議)에 의하면 원장 1인을 상정하여 원종의 대소사를 관장하도록 하고, 또한 원이(院貳) 1인을 택해서 원장과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원임사록(院任事錄)』(1542~1718)을 보면 원장·원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퇴계가 유사로 지칭했던 김종문(金仲文, 1542~1553), 안구(安駒, 1557~1560) 등이 기재되어 있다. 『운원잡록(雲院雜錄)』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원장·유사를 이 『원임사록』과 비교해 보면 원장만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볼 때 백운동서원 건립 당시에는 서원 조직에 있어서 원장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풍기군수 주세붕과 유사가 모든 서원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주세붕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주 서원에 머물면서 유생과 더불어 경의(經義)를 강론하는 등 서원의 실질적인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김종문, 안구 등 초기 유사는 원생의 강학을 제외한 경리 및 원생 모집 등 서원업무를 맡고 있었다.

초기 서원보급 운동을 주도하였던 이황도 주세붕의 뒤를 이어 풍기군수에 부임하여 소수서원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원장직은 상정하지 않았다. 그는 서원의 제반업무는 지방관과 군내 제향인들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특히 서원 운영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 등은 지방관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퇴계는 실제로 백운동서원규와 더불어 영남서원의 효시가 되었던 이산서원규(伊山書院規)를 제정하면서 원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서원업무를 총괄하는 직임으로 '상·하유사'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서원내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별도로 강장(講長)격인 산장(山長)·동주(洞主)를 초빙하는데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초창기 서원에는 원장직이 아직 없었으나 이후 서원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원장-유사'체제로 그 직무가 분화되어 갔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임의 자격, 직임, 임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소수서원 원규(院規)에는 원장은 유학에 종사하고 덕망이 있는 인물 1인을 원장으로 하고 또다른 1인을 택하여 원이(院貳) 즉 유사로 하다고 하였다. 원장은 비록 지극한 정성이 있다고 해도 멀리 있으면 평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므로 5리 이내의 인물로 한정하였다. 원규에도 원장의 직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이 다만 서원의 일을 원이와 공동 주관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서원들의 사례를 통해 대체로 원장의 직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서원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감독권이다. 서원전의 관리, 노비를 포함한 피역인에 대한 신공(身貢)수납 및 감독, 존본취식(存本取息=殖利), 심원(尋院)·유생에 대한 공궤, 서책 또는 각종 서원

소용품에 대한 관리 등은 유사(有司)의 책임하에 있었지만, 반드시 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신·구 상유사 교대시에는『전장기(傳掌記)』에서도 나타나듯이 반드시 전임자가 원종의 규모 곡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고서원의 사례와 같이 원장·유사는 원저(院儲)의 증보(增補)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둘째, 유생의 입원(入院) 및 교육에 대한 감독 및 의무이다. 유생의 입원 절차는 각 서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최종 결정은 원장의 권한에 속한다. 유생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먼저 원장이 이를 규찰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장은 유생에 대한 강학 등 교육활동의 실질적 책임자였다. 유생에 대한 강학은 강장(講長)·훈장(訓長)의 직임에서 담당하였으나 원장이 총책임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원장은 경내 또는 인근 고을의 도학에 밝고 높이 숭상할 만한 선비를 강장으로 맞아들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셋째, 유사 및 원속(院屬)들에 대한 임명·감독·처벌 등의 권한이다. 서원의 임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유사(有司)는 원장과 원유가 동의하여 선출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먼저 원장이 다스리도록 하였다. 또한 원속하전(院屬下典)의 처벌도 유사(有司)가 원장에게 상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알묘례(謁廟禮), 춘추향례(春秋享禮)시 도집례(都執禮)로 천출(薦出)되었다. 이처럼 원장이 서원의 일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한다면, 서원의 대소사를 운영해 나가는 담당자는 유사(有司)이다.

유사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사문통검(斯文統檢) 및 유생공계, 원곡분급(院穀分給), 문서검열, 세입·세출 등 주로 재정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구성은 각 서원의 제반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한편, 서원중수·문집간행·추배(追配) 등 서원에 중대사가 있을 때는 그 직임에 따라 별유사(別有司), 별고유사(別庫有司), 수리소유사(修理所有司), 단소유사(壇所有司), 봉안(奉安)·위판(位版)·제기(祭器)·상초유사(床草有司) 등이 다양하게 임명되었다.

유사는 원생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없지는 않았다. 실례로 1556년(명종 11) 초 백운동서원 유사 김중문(金仲文)의 유생 구타사건을 계기로 유사와 유생 간에 분쟁이 일어나 한때 유생들이 공원(空院)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현전하는 소수서원 자료 가운데 원장·유사의 명단이 모두 남은 것은 없으며, 다만 원장의 명단을 적은『원임사록』이 남아있다. 이를 통해 원장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책은 1542년부터 1718년까지 172년 동안 재임하였던 소수서원 원장의 명단을 수록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모두 181명이 재임했으니, 평균 1년씩 재직한 것이다. 그 가운데 중임(重任)했던 원장을 제외하면 107명이 된다. 이를 보면 1인당 약 20개월 정도를 역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소수서원에는 원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원 원장의 임기는 1년 혹은 2년으로 하되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초대원장 김중문은 중종때 진사로 소수서원을 창건할 때 공이 많았다. 퇴계는 감사를 통해 그를 조정에 알려져 동주첩(洞主帖)을 내리고, 1542년부터 1553년까지 12년간 초대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원의 기틀을 닦았다. 2대 원장 권응참(權應參)은 1540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44년 소수서원에 입원하여 수학했으며, 1554년부터 1556년까지 3년간 원장으로 재임하였고, 14년 뒤에 7대 원장으로

1568~1570년까지 재임하여 모두 6년간 원장으로 있었다. 이들 외에도 20대 원장을 지낸 권준신(權俊臣)은 1605·1614·1618~1619·1623·1627·1629~1631년에 원장을 재임하였다. 안옥(安頊)은 풍기에 거주하였는데 1613년에 생원시 입격하고 1633년에 문과에 급제 후인 1621·1622·1625·1635·1641년에 원장을 지냈으며, 그의 부친 안응일(安應一)은 1597~1599, 1612년에 원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곽구(郭玖)는 네 번 원장을 역임했으며, 그의 부친 곽율(郭嶽)은 두 번을 역임하였다. 창원황씨 황수억(黃壽嶷)은 소수서원에 수학하지는 않았지만, 문과급제 이후인 18세기 초에 여섯 번 원장을 재임하였다. 이상과 같이 재임과 연임이 있기도 했지만, 1년 사이 여러 명의 원장이 바뀐 경우도 있었다. 1697년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 5명이 부임하였으며, 1684년과 1685년에는 각 4명의 원장이 부임하였다.

이처럼 원장이나 유사 등의 원임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가급적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임 중에 부정이 있어 벌을 받거나, 건강 혹은 집안의 흥사내지 애사(장례)로 인해 상복을 입게 되면 춘추향사의 주관과 같은 원내의 직임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임단자를 서원에 제출하였다.

107명의 원장들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69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순흥 12명, 영천(榮川) 10명, 풍기 38명, 안동·칠곡 1명, 예천 2명, 서울 4명, 춘천 1명 이었다. 이를 보면 소수서원 인근의 풍기, 순흥, 영천지역 사림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원규에서 서원인근 5리 이내에 사는 순흥의 김중문에게 원장을 맡겼던 전통이 이어져 원장은 업무의 효율을 따져서 가능한 관내의 인사로 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혹, 서울·춘천과 같이 관외의 인물을 원장으로 선출하였는데, 그들 모두 영천, 풍기와 일정한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다. 원장, 특히 사액서원의 원장은 사림의 영수로서 해당 고을 유림을 대표하는 자였다. 그러므로 명망있는 양반사족이어야 선임될 수 있었다. 본관을 확인할 수 없는 11명을 제외한 96명의 원장 가문을 분석해 보면 풍기 거주의 창원황씨 15명, 순흥 거주의 순흥안씨 10명, 영천·풍기 거주 무안박씨 9명, 풍기거주 의성김씨·현풍곽씨, 풍기·영천·예천거주의 안동권씨가 각 6명의 원장을 배출하였다. 다음으로 평해황씨, 대구서씨, 우계이씨, 남양홍씨가 각 4명의 원장을 배출하였는데, 모두 풍기, 순흥에 거주하였다.

이외에도 2명내지 1명의 원장을 배출한 가문을 보면 영천민씨(영주), 화원서씨(순흥), 창녕성씨(순흥), 경주손씨(영주)가 각 2명을, 봉화금씨(영주), 강릉김씨(영주), 의령남씨(영주), 예안김씨(영주), 현풍김씨(풍기), 나주박씨(영주), 창원안씨, 전주류씨, 광주이씨(칠곡), 전의이씨(풍기), 풍기진씨(풍기), 청주한씨(풍기), 양천허씨(풍기) 각 1명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순흥, 풍기, 영천(영주) 거주의 창원황씨, 무안박씨, 순흥안씨, 현풍곽씨, 안동권씨, 의성김씨, 평해황씨, 우계이씨, 남양홍씨가 소수서원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간에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조손(祖孫), 부자, 구생(舅甥), 매제(妹弟), 종형제(從兄弟)가 원장을 역임한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원장 107명 가운데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47명이며, 문과 급제자도 13명이 있었다. 두 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자들도 10명된다. 이 중 중복되는 자를 제외하면 원장으로서 사마시나 문과에 급제한 자는 50명이며, 나머지 원장은 유학(幼學)이었다. 특히 후대로 갈수록 원장의 유학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이는 소수서원뿐만 아니라 모든 서원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또한

서원 원생들 가운데 원장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17세기 후반까지는 보편적 현상이었다. 소수서원도 1619년까지는 모든 원장이 소수서원 원생출신이었으며, 이후 비 원생출신이 조금씩 나타나다가 1690년대 이후부터는 원장은 모두 소수서원 출신들이 아니게 되었다.

2) 원생(院生)

조선후기 서원이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에서 피교육자로서의 원생(院生)은 서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요소였다. 이들은 17세기 중반이후 피역인들이 원생으로 투숙하면서부터 유생(儒生) 등으로 불렸다. 이외에 원유(院儒)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수서원 원규를 보면 원생의 입원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무릇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사마(司馬)가 태학(太學)에 들어오는 것과 같이하고, 그 다음은 초시입격자로 한다. 비록 입격하지 못하였어도 일심(一心)으로 향학(向學)하고, 조행(操行)이 있어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유사(有司)가 사문(斯文)에 아뢰고 받아들인다.

이 원규는 주세붕 당시 제정된 것으로 사마(생원·진사)또는 사마시의 초시입격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고, 향학열이 높고 조행이 있으나 초시입격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사문의 승인을 얻어 입원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초기 백운동서원은 원생의 수준에서 본다면 중앙의 관학인 성균관과 동일선상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향촌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입원록(入院錄)』에는 『죽계지』 사마조에 등재된 이승건(李承健), 이계(李契), 권응참(權應參), 이극검(李克儉), 황응규(黃應奎) 등이 기재되어 있다.

소수서원 『입원록』을 통해 원생의 입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소수서원『입원록』은 현재 2책이 전해지는데 제1책은 1543년부터 1696년까지 153년 동안 소수서원에 입원한 유생 735명의 명부로서 도산서원에 『유원록(遊院錄)』이란 책명으로 보관되어 있다. 제2책은 1790년(정조 14)부터 1888년(고종 25)까지 98년간의 입원생 1,791명의 명부로서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다.

원규에 보면 “별도로 입원록을 비치하여, 서원에 들어오는 모든 선비들에게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직접 기록하게 하고, 또한 그가 들어온 연월일을 기록한다”고 규정하였다. 『입원록』을 작성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개 성명을 기록하는 것이 어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는가. 뒤에 찾아온 이가 성명을 열람하면서 아무개는 수신(修身)을 위한 학문을 하였고, 아무개는 출세를 위한 학문을 하였고, 아무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아무개는 죽어서도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출세를 하고 못함이야 본래 다르지만, 현우(賢愚)의 차이 또한 현격하다. 아. 어찌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찌 힘쓰지 않으랴

즉, 서원 원생들이 『입원록』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서원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유생의 정원은 얼마나 될까? 소수서원의 유생 정원은 10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원생의 정원이 아닌 상주(常住)유생에 대한 것이다. 원생수와 상주 유생의 수는 의미가 다르기에 상주 유생만을 가지고 원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원생이 오랜 기간 서원에 상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인근 유생일 경우 대체로 3-5일씩 반복해서 머무는 것이 상례(常例)였으며, 다른 지역 유생은 몇 달씩 머물렀다고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서원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유생 수를 규제할 이유는 없었다. 퇴계가 지은 「이산서원 원규」나 「도산서원 원규」에서 유생의 수를 '정액이 없다(無定額)'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원생안에 기재된 모든 유생을 원유(院儒)라는 범위에 넣을 수 있다. 이는 여타 서원에서도 원생에 대한 규정은 없고 상주 원생 수에 대한 규정만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유원록(1543-1696)』에 있는 735명의 입원생들은 평균 한 해에 5명이 입학하였으며, 1550년대에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지역은 제주도,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입원하였는데, 영남이 610명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들은 313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대과 합격자는 99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한다. 생원진사시 합격자는 1550년부터 1610년까지 평균 매년 3~4명씩 합격하였고, 문과는 1560년대부터 1600년까지 평균 1~2명이 급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650년대 이후 입학생이 거의 없어지면서 급제자 역시 감소하였다.

『입원록(1790~1888)』 제2책은 99년 동안의 입원생 1,805명을 대상으로 입원 연도를 분석한 결과 입원생은 한 해에 대략 10명이었지만 많을 때에는 26여 명에 달하였다. '취인'이라 하여 한 해에 68명에서 369명까지 대규모로 입원하기도 했다. 이들 원생들은 영남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출신인데 특히 안동, 영주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과거 합격자는 1,805명 가운데 생원진사시가 143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고, 이중 78명이 사마시에 입격한 후 서원에 입원하였다. 문과 급제자는 61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한데, 이 중 42명이 문과에 급제한 후 입원하였다. 이렇게 볼 때 18~19세기 이르면 당시 선비들에게 소수서원은 과거 준비기관으로서의 의미는 다소 퇴색하고, 서원 입원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고 파악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입원생의 대부분이 유학(幼學)층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원규가 대체로 철저히 지켜졌던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런 현상은 입원생을 사마시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던 당시 향촌사회의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향촌사회의 사정은 생원진사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사람의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이다.

초창기 서원보급 운동을 주도하였던 퇴계는 「이산서원원규」를 제정하면서 백운동서원과 마찬가지로 입원자격을 엄격히 하였지만 생원진사를 우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서원이 과거 준비기관이 아닌 참다운 수기와 학문의 실천도장이라는 퇴계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유생들의 현실적인 관심사인 과거공부를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 유생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였으며, 실제로 입원생 중에는 입원한지 수년 후에 생진 또는 문과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유생이라도 입격자를 더 우대하였다. 「이산서원 원중입약」에는 거접(居接)때에 입격자는 무상으로 하고, 비입격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차이를 두었다. 이렇게 볼 때 초기에는 서원 입원생을 입격과 학행의 두 기준으로 선발하였다가 점차 학행을 우선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갔다. 선조조 이후 향촌사회에서 서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 도에 서원이 많지 않았던 초창기와는 달리 입원생들의 기준이 학행 위주로 바뀌어 갔다고 보인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입격을 입원의 기준으로 삼았던 서원에서는 입격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있어나게 되었다. 일례로 퇴계의 제자 박승임(朴承任)은 성주(星州) 영봉서원(迎鳳書院)을 건립하는 성주목사 노경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과거는 위기지학과 상반되는 것으로 입원생을 과거 입격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선비를 천하게 대하는 것이니 학행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정구(鄭逋)도 입원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서원의 입격지규(入格之規)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향촌사회 사족들의 일생의 관심사였던 과거에 관심에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19세기까지도 입원생을 선발할 때는 입격천(入格薦)이라 하여 사마시 입격자는 바로 입록(入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서원 유생의 입원은 원칙적으로 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20세 미만인 자라도 이미 사마에 입격한 자에게는 입원을 허락하였다. 16~17세기에 작성된 소수서원『입원록』을 보면 생몰년이 확인되는 238명 중 20세 미만인 자는 25명으로 전체의 11%에 해당하며, 5명이 사마시에 입격한 자였다. 20대는 160명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하는데 서원의 중추를 이루었다. 그러나 생원·진사라 하더라도 중인·서얼에게는 입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실제 「백운동서원원규」에는 입원생에 대한 신분적 규제 조항은 명시된 것이 없는데, 이것은 당시 서원이 양반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규가 작성되었던 16세기 중반에는 중인·서얼의 입록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중서층들의 경제적 성장과 또한 중앙정부의 서얼 허통 조치의 분위기 속에서 점차 이들도 전통적인 양반들만의 명단인 '입원록', '원임록'에의 입록을 요구하게 되자, 소수서원『입원록』에서는 매 권의 앞장에 '중인·서얼은 비록 대·소과에 합격하더라도 함부로 입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원 자격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같은 규정은 『심원록(尋院錄)』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는데, 특히 영남 남인계 서원에서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2-2-2. 소수서원의 경제적 기반

1541년 주세붕은 풍기군수로 부임한 즉시 피폐해진 향교를 경상도 관찰사와 풍기의 사림 및 관속들의 협조를 얻어 향교를 관아 가까운 곳으로 옮겨 세우고 안향의 사묘를 백운동 죽계변 숙수사(宿水寺) 옛터에 먼저 건립하고 다음해에 안향 후손의 후의로 서울의 대종가에 보관되어 있던 안향의 유상(遺像)을 가져와 사묘에 봉안하였으며 그 사묘 옆에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사묘와 서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당시 경상감사였던 임백령(林百齡)이 지급한 어염(魚鹽)에서 마련하고 또 후임감사 이언적(李彦迪)의 염곽시조(鹽藿施措)와 군내의 진사 황빈(黃彬)의 납조(納租) 75석(石)의 도움으로 보미(寶米) 약간과 학전(學田)을 마련하여 향사와 양사(養士)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였으며, 정지작업을 할 때 땅을 파면서 얻은 동기(銅器) 300여 근으로 서책을 사서 서원의 장서로 삼게 됨으로써 서원의 체제를 완성하였다.

주세붕의 뒤를 이어 명종 원년(1545)부터 2년까지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한 안향의 11대손 안현(安炫)의 노력으로 백운동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안현은 주로 물질적인 지원과 주세붕이 세운 운영방침을 보완하여 서원이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감사직이 바뀌어 귀경할 때, 자신이 취한 조치를 영속화하기 위해 사문입의(斯文立議)를 만들어 감사 통독(通讀)하에 전반적인 사묘, 서원의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놓았다. 19조로 된 이 사문입의는 주세붕의 뜻을 이어 서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생 수의 정액, 공양절차, 원장의 택차(擇差)를 규정한 것 외에 서원 재정과 경리 관계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결국 백운동서원은 창건자인 주세붕의 지극한 정성과 후손 안현의 노력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후 이항의 건의에 의하여 사액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적인 공인을 받게 되었다. 당시 퇴계는 서적, 편액을 내려 서원의 격을 국학에 준하게 높이는 한편,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아 서원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처럼 소수서원은 지방관과 향촌사림 및 국가의 조력으로 초창기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1) 서원전(書院田)

소수서원의 서원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확대되어 갔다. 소수서원 전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1767년(영조 43)에 작성된 『전답안(田畵案)』1책이 있다. 이 책에는 1767년까지의 전답규모를 정리하고 이어서 1780년과 1795년까지 추가로 확보된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16세기 중반 소수서원 설립 당시의 전답규모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전답안』에는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약 19결 정도로 확대되고 있고 다시 18세기 말에는 6결 정도가 증가되어 약 25결로 나타난다. 이 시기 이러한 서원전의 확대는 신추전답질(新推田畵秩)과 매득(買得)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신추전답질은 이때까지 서원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서원전을 이 전답안을 작성시에 추쇄한 것인데, 소수서원의 경우 그 규모가 약 3결 70부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서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인다. 이 시기 각 서원마다 서원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임사의 불법과 태만으로 서원전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서원전 확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원 자체 경제력에 의한 매득이었다고 본다. 실제 소수서원에서 추가로 확보한 서원전도 모두 매득에 의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19결의 전답내에는 설립이후 계속된 매득전답이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 「행이등록(行移騰錄)」에서 보면 매득전 13부 9속, 답 29부 5속이 나타나며, 그 이전에도 서원전 매득이 있었다고 한다. 백운동서원은 이 밖에도 초창기에 이미 청어기 3기 및 염분등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수입 또한 상당하여 그 여재(餘財)로 전답을 매득하였다.

소수서원 전답은 인근 풍기·영천(영주)·안동에도 다수 소재하고 있었으나 절대 다수는 본읍(순흥)에 집중되어 있다. 다른 서원에서도 서원전은 원처 전답보다는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확보, 확대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서원에 따라서는 서원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었던 인사들에 의해 타관 위전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서원전의 확대는 그 서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였으며, 서원전의 분포지역은 그 서원의 영향력 행사의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서원측은 서원전 확대를 위한 매득의 경우 조세부담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원거리 지역보다는 근처 지역을 선호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서원은 서원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이매(移買) 혹은 상환(相換) 등을 통하여 서원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지역에 전답을 집중시켜 나갔다.

다른 지역에 있는 서원전은 관리가 쉽지 않다보니 17세기 이래로 경작자가 세를 내지 않고 도망하는 현상이 증가하였으며, 이런 현상은 근처전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서원측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작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즉, 서원전의 분급은 경작하여 조세를 얼마나 잘 납부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었다. 이외의 폐단은 서원과 관련있는 원유들의 농간으로 인한 폐해였다. 소수서원『운원잡록(雲院雜錄)』의 원중입의(院中立議)에 보면 1614년(광해군 6) 원둔전(院屯田)을 원유가 천점(擅占)하여 경식(耕食)하였음이 나타난다. 이에 소수서원에서는 입의가 발의된 후부터 천점하는 자들은 엄중히 그 죄를 처벌하겠다고 명시하였다.

18세기 중반의 소수서원 서원전 25결은 비슷한 시기 경주 옥산서원의 32결, 예안 도산서원의 25결, 함양 남계서원 18결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들과 비슷한 규모이며, 그 외의 17세기 후반이후 남설기에 건립된 대부분의 서원·사우에 비해서는 큰 규모에 해당된다. 이러한 서원전은 18세기 이후 토지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편으로는 서원경제의 한 축이었던 노비의 도망이 일반화되고 또한 그 추쇄가 어려워지는 등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면서 서원경제에 있어서 노비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해갔다. 따라서 서원측은 서원전 확대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노비를 속량·방매하여 서원전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대가 내려올수록 서원전이 확대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서원전 확대가 소작료 증대로 이어져서 서원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소수서원의 경우 임사(任司)들의 태만으로 서원전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이들이 불법으로 천점하여 경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더하여 소작인들의 항조(抗租)와 이들의 경제적 몰락에 따른 도망 등은 서원전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서원전에 대한 수세(收稅)는 각 서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16세기 말 1두에 5승을 취하던 것을 다른 서원의 사례에 따라 3승으로 감하여 거두었다.

2) 서원노비(書院奴婢)

서원노비는 서원전과 함께 서원경제를 이루는 양대 재산이었다. 이들은 서원내 각종 잡역 및 서원전의 경작 등 생산분야에 종사하거나 또는 신공 납부의 경제적 의무가 있었다. 이들 원노비의 서원내 경제적 비중은 각 서원의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8세기 이후부터는 크게 감소되었다고 보인다.

원노비는 서원이 창설·보급되는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사역을 내리는 경우 서책·전답과 함께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제향자의 내·외손, 문도들의 기부 및 관노비의 급속(給屬)·매득(買得)·납상(納上)·생산(生産) 등의 형태를 통해 확보·확대되었다. 이중에서도 서원 설립초기의 원노비 확보에는 특히 관노비 또는 속공노비의 획급 등 관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백운동서원은 풍기군 소속 시노비(寺奴婢) 5구(노 2, 비 3)가 설립 3년 후에 이속되는 등 지방관인 주세봉·안현을 통한 관노비의 급속, 범죄인 처자의 압량위천(壓良爲賤) 등 관의 조치로 설립 초기에는 원직 6인, 노비 18구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관의 조치는 초창기 서원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소수서원의 경우 『노비안(奴婢案)』과 같은 자료가 없기에 노비의 정확한 인원이나 그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타 서원에 남은 노비안을 살펴보면 비슷한 규모와 위상을 가진 서원들이 가졌던 노비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노비의 규모는 설립초기에는 대체로 10~20여 구 정도로 나타나며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각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의 경우 18세기 중반을 기준해서 보면 약 100~200여 구 정도로 나타난다. 신분제 해체 현상이 뚜렷하였던 18세기 초·중반까지 이러한 원노비의 증가추세에는 지방관의 속공노비 획급·매득 등도 일정하게 작용하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산에 의한 노비의 자연증가였다.

각 서원의 형편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로 18세기 중·후반으로 가면서 노비 도망 및 미추(未推)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노비의 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오면 노비의 방매(放賣)·방량(放良)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 조선왕조의 사회·경제적 변동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서원재정 상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3) 원속(院屬)

원속은 서원 소속을 줄인 말로서 서원 재정을 위한 인적 재원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원노비 외에 모입(募入)·투탁(投託)·양속인(仰屬人)으로 표현되는 양인·하전(下典)·수직군(守直軍)·장인(匠人)·보인(保人)·원생(院生) 등 광범위한 원속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원속은 서원의 경제력 확대를 위한 한 방편으로 일찍부터 경제적 기반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원속은 피역(避役)을 목적으로 서원에 투속한 자로서 그 대가로 서원수직 또는 원내의 제반 잡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그 역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서원 측에서는 이들 원속의 경제적 부담도 신역의 대가라는 점에서 노비와 마찬가지로 신공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속, 즉 모입·투탁인들에 대한 잡역의 면제는 전적으로 소재지 지방관에게 달려 있었다. 따라서 각 서원 원속의 규모는 이들 서원의 향내·도내 및 중앙에서의 영향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도산·옥산·도동서원 등 문묘종사대현을 봉사하는 서원은 당시 국가에서 다소 폐단이 있더라도 모입자를 물침(勿侵)하도록 하라는 국왕의 적극적인 비호 속에 원속을 크게 증대시켜 나갔다.

4) 기부(寄附)와 부조(扶助)

서원 경제에 있어서 전답·노비·원속 등과 함께 중요한 것이 국가 또는 관료(지방관), 사림들에 의한 서책·어염 등 서원 소용의 각종 현물기부이다. 서원에서 소용되는 잡물은 속점(屬店)·속사(屬寺) 또는 원속 등을 통하여 서원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지방관의 기부와 부조가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현물의 기부와 부조는 시대별로 또는 각 서원의 중앙과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반화되어 있었으며, 특히 서원 중수·백일장·추향(追享) 등 서원에 중대사가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 크게 일조하였다.

서원 소용의 현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염(魚鹽)이라 할 수 있는데 백운동서원은 설립과 동시에 지방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서원 자체의 경제력으로 어기(魚基=어장)와 염분(鹽盆=소금가마)을 확보하고 있었다. 『소수서원등록』과 『운원잡록』에 의하면 백운동서원은 유생들의 공궤를 위하여 웅천군(熊川郡) 제포(濟浦)에 우수사(右水使) 정윤성(鄭允誠)이 영납(永納)한 어기(魚基) 3소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어획물은 김해·밀양·청도·하양·의성·안동 등의 도로를 통하여 1546년(명종 1) 11월에 300관, 1·2월에 2,200관을 수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이 제포 어장에서 1년에 수송되는 어물은 2,520동음(冬音)인데 서원유생 10명이 1년간 소요하는 어물은 불과 720동음에 지나지 않고 있어 그 경제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백운동서원은 수속(收贖) 목면(木綿) 100필로 영덕관(盈德官)내 수철염분(水鐵鹽盆) 2좌(坐)를 확보하고 있었다. 수철염분 2좌의 생산염석은 서원의 1년 소용량을 계산하여 수송하도록 하고, 그 여분이 있으면 염석 혹은 관목(官木)으로 봉상하도록 하고, 다시 여분이 있으면 본군(순흥군)에 저적(儲積)하든가 또는 전례에 따라 전답을 매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염간(鹽干)으로부터는 사례에 따라 현물(염석) 또는 목면을 징수하여 서원에 수송하도록 하였다. 백운동서원은 어염 이외에 유생공궤에 필요한 각종 현물을 인근 지방관으로부터 공여(供與)받았다. 지방관의 현물공여 상황은 『소수서원등록』과 『운원잡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상도관찰사 안현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실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라고 하여 인재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서원소용의 각종 현물을 도내 각 읍에 분정하였는데 당시 흥학(興學)과 관련하여 지방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이와 같이 백운동서원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다는데서 건립 당시부터 지방관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는 안현이 조직한 「잡물분정행이등록(雜物分定行移騰錄)」을 1건은 순흥군에 1건은 백운동서원에 두도록 한데서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상기 2책을 보면 서원 소재지 감사나 지방관의 서원에 대한 현물 공여는 하나의 상식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지역적 범위는 서원의 영향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소수서원의 경우

『운원잡록』에 따르면 경기·충청가사를 비롯하여 의성·단양·영천(永川)·영덕·예천 등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후기로 가면서 서원 인근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방관들이 기부 또는 부조한 물품은 어염을 비롯하여 백미·장태(醬太)·등유(燈油)·의류(衣類)·지(紙)·주(酒)·생치(生雉)·계(鷄)·태(太)·미(米)·장지(壯紙)·송연(松煙)·고모필(羔毛筆)·유연묵(油煙墨) 등 서원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망라하였다.

또한 서원은 유생의 교육기관이었으므로 서적의 구입도 중요한 문제였다. 서적은 사액과 동시에 국가에서 하사하는 것이 식례였고 이후에도 국가에서 인간(印刊)되는 책은 주요 서원에 반사(頒賜)하는 것이 관례였다. 백운동서원은 설립이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원장·지방관의 희사도 많았다. 백운동서원은 『죽계지』편찬 당시에 500여 권의 서적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유생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유생공궤에 필수품인 어염은 서원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위 소수서원의 예에서와 같이 지방관에 의해 획급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2-3. 소수서원의 정치·사회적 기능

2-3-1. 소수서원의 사액(賜額)과 퇴계의 서원보급운동

1541년(중종 36) 7월에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다음해에 본향 출신 성리학자인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사묘를 설치하고 향교를 군의 북쪽에 이건하였으며, 1543년 8월에 사당 동쪽에 서원을 설립하고 송나라 주자가 중건하여 강학하던 백록동서원의 이름을 본떠서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이후 백운동서원은 1548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조정에서 사액을 청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명칭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 소수서원에는 주향자인 안향 외에 1544년 안축(安軸)과 안보(安輔)가 추가로 배향되었고, 1633년에 이 서원 창건자인 주세붕이 추가 배향되었다. 이후 대원군의 훼철령에도 남게 된 47개 원사 중 하나가 되었다.

1537년(중종 32) 권신 김안로의 실각과 함께 조광조 계열의 재서용이 이루어지면서 도학정치의 부활론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이언적은 추천제의 부활과 현량과 출신의 서용을 청하였고, 김인후는 소학과 향약의 장려를 주장하였다. 한편 정사습(正士習)을 위한 교학 진흥책으로 대사성 정순봉은 의리학의 강명(講明)을 위해 택사(擇師)의 필요성을, 대사간 심광언은 학교를 통한 교화와 인군의 궁행심득을 주장하였으며 행부사과 어득강은 중국에서의 대유(大儒)에 의한 강학의 성행을 지적하고 그 토대로서 정사(精舍)나 서원(書院)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정사나 서원이 없어서 지방 유생들이 학문을 배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세종조 이후 관학이 급격하게 쇠미한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교학진흥책이 모색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 때, 주세붕이 풍기의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문묘를 알성해 보니 '대들보와 기둥은 허물어져 장차 위패를 누를 것 같고 학사, 명륜당도 없고 마실 우물, 목욕할 개울도 없어 소임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하여 피폐된 향교를 복구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관학이 피폐되고 향교가 퇴락한 것을 목도하고 사묘를 세우고, 서원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주세붕은 『죽계지』서문에서 교화는 어지러움을 수습하고 굶주림을 구하는 것보다 급한 것이며 이것은 반드시 존현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므로 서원과 사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사묘를 세워 덕을 숭상하고, 서원을 세워 학문을 돈독히 한다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안향을 제향하는 사묘와 유생의 교육을 위한 서재를 세웠던 것이다. 이를 통해 선현을 존경하려는 목적과 교육을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곳에서 선비들로 하여금 덕을 닦고 공부하게 한다면 사문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강력하게 드러내었다.

그런데 서원이 건립되자 풍기의 사리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반발하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들은 안향은 향교에 모셔져 있으므로 별도의 사묘가 불필요하고, 또한 향교가 있으므로 서원은 불필요하며 기근이 심하니 서원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원을 건립하는 것이 공명심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풍기사림들은 유향소와 사마소를 자신들의 집결소로 삼고 그들 중심의 향촌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향촌 기구는 자신들의 세력과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세붕은 주자가 남강군지사로 있을 때 금나라가 중원을 함락시키고 천하를 피와 고기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해를 이어 기근이 들었으나 백록동서원을 건립하고 사우를 세웠음을 들어서 교화가 기근을 구하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현(聖賢)을 본받지 않으면 향원(鄉原)의 행적을 따르게 될 것이니 반드시 성현의 행적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원 건립에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었으니 진사 황빈과 전훈도 안철보 같은 인물과 풍기에 사는 안향의 후손들이었다.

한편 당시 정권 담당자인 훈구파도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까지 사림의 향촌자치적 성격을 띤 서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없었다. 향촌민 또한 서원설립이 노동력 동원 등 자신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백운동서원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의 신설은 될 수 있으면 한유(閑遊)한 사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송유억불의 이중효과를 노리겠다는 국가의 정책적인 의도에 부합하여 당시 폐사화되어 있었던 숙수사 폐지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조선에서 서원제도는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에 의해 출현되었지만 이후 서원을 조선사회에 보급·정착시키고 그 성격을 규정하여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퇴계 이황이었다. 당시 퇴계는 조광조의 도학정치론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조하고 그 자신이 이를 열렬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퇴계는 조광조 등의 선배사류들과는 다르게 군주보다는 재지사림에 보다 치중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는 향촌의 선비들에게 주자학적 정치이념과 학문체제를 훈도하고 수련시킴으로써 장차 향촌사회를 주도하게끔 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교학체제의 확립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것이 지방사학으로서 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퇴계가 풍기군수로 내려왔을 때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청하여 서원에 대한 국가의 공인을 받았고 이후 그의 문인들과 함께 서원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퇴계의 '서원십영시'에 의하면 9개 서원이 나타나는데 이중 해주·강릉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영남지방의 서원들이었다. 명종 말년까지 건립된 서원이 20개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반수 이상에 퇴계가 관여하고 있었다. 퇴계는 서원이라는 새로운 학제를 통하여 종래의 과거와 관련한 출세주의·공리주의가 아닌 참다운 성리학이 토착화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 시기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림의 사습과 사풍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결국 조선의 서원은 퇴계에 의해서 사림의 학적기반으로 정착되었고 이후 보급·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2-3-2. 소수서원 파격(罷格)논쟁

서원 입원생의 자격 기준으로 입격자를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서원에 영향을 미쳤던 소수서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해 이 기준의 폐지(罷格)와 복구(復格)가 반복되었다. 소수서원의 이 분쟁에는 입격과 비입격 유생뿐만 아니라 배향자인 안향의 후손인 순흥안씨와 여타 남인계 인사 간의 갈등이 얹혀 있었다. 소수서원은 주세붕이 작성해 놓은 유생 입원에 관한 원규를 사마시 입격자 이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황이 작성한 이산서원원규 이후 대부분의 서원에서 입원 자격이 학행 위주로 바뀌어가면서 소수서원 주변에서도 파격하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유생자격에 대해 처음 개정을 제기한 사람은 유성룡의 문인인 풍기군수 이준(李埈)이었다. 이때의 파격 주장에는 안향의 후손과 입격자들만으로 운영되는 소수서원에 다른 양반사족들도 참여시켜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남인계 관료로서의 의도가 있었다. 여기에는 서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서원 유생으로 참여하려는 사족들의 욕구도 개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선현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서원 측의 반론으로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원규 개정 요구는 계속되었지만 번번이 좌절되다가 1689년(숙종 15)에 남인이 집권하는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계기로 파격이 이루어졌다.

당시 남인계 유생은 퇴계를 배향하는 옥양서원(郁陽書院)에 참여하고 있었고 소수서원은 서인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파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후 1694년(숙종 20)의 갑술환국(甲戌換局)이후 남인의 실각을 계기로 1696년(숙종 22)에 입격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옛 원규를 복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입격론자와 파격론자 사이에 상서(上書)·통문(通文) 등을 통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는데, 결국 서인정권하에서 감사가 입격을 인정하는 관문(關文)을 보냄으로써 논쟁이 마무리 되었다. 이를 계기로 파격에 앞장섰던 인사를 호란지배(好亂之輩)로 규정하여 유적(儒籍)에서 삭제하는 유벌(儒罰)을 내렸다.

이후에도 파격론자들은 파격의 여론을 불러 일으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경상도 각 교원(校院)에서도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안동을 비롯한 순흥 주변 고을의 교원들이 강력하게 파격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1719년(숙종 45)에 서원 당중회의(堂中會議)에서 파격을 결정하였다. 이때의 파격 결정은 양반사족들의 보수화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이 시기 신분제 변동에 따라 양반사족들의 향촌지배권이 점차 약화되어가면서 양반사족들은 향촌기구와 조직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순흥의 양반사족들은 이 고을의 수원(首院)인 소수서원의 입원생이 되기를 원하였고 따라서 입격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서원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시기 들어 대부분의 고을에 서원이 설립되면서 소수서원도 전국의 유생 또는 경상도 유생을 대상으로 하였던 초창기와 다르게 순흥 내지 인근 고을 유생들만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축소되어 입격자만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고 말았던 것이다.

2-4. 소수서원의 교육·문화적 기능

2-4-1. 소수서원의 교육 기능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관학이 피폐되고 향교(鄕校)가 퇴락한 것을 목도하고 기근(饑饉)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입사입원(立祠立院)을 우선한 것은 존현(尊賢)을 통하여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여 고을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다. 그는 서원의 창건뿐만 아니라 유생들에게 공궤할 보미(寶米)와 학전(學田)을 마련하여 서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튼튼한 재정을 확보하고 장서(藏書)까지 마련하는 등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손색없이 갖추었다. 그리고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謄錄)』에는 주세붕이 서원을 창건할 때에 스스로 일을 감독하고 서원이 준공되자 몸소 묘정(廟廷)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서원에 머물면서 유생들과 더불어 경의(經義)를 강론했다고 한다. 이처럼 실천궁행하고 정성을 다함으로써 고을의 풍속이 교화되고 4~5년 만에 입원자(入院者)가 명사(名士)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科擧)에 많이 급제하여 사람들이 “이 서원에 들어오면 문득 급제(及第)한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소수서원 초기에는 과거 합격자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순수한 사림의 장수지처(藏修之處)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뜻을 두고 교화와 흥학(興學)이라는 서원의 창건목적에 달성한 의의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소수서원은 관학을 대신하여 4,0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한 영남 인재 양성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학봉 김성일의 5형제가 이곳에서 수학하였고 겸암 류운용은 두 번이나 풍기군수를 지내면서 소수서원의 학풍을 진작시키는데 힘썼다. 그 결과 소수서원 『입원록(入院錄)』에 실려 있는 인물은 조목, 황응규, 구봉령, 권문해, 정탁, 김용, 남치고, 김성일, 금난수, 김륵, 권호문 등으로 퇴계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이고 그 후 장현광, 권두문, 이개립, 김구정, 이여빈, 곽진, 김영조 등이 이곳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소수서원이 안향과 같은 학덕이 뛰어난 거국적인 인물을 모시고 이를 귀감삼아 선비들이 독서와 수신처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사액을 받아 국가의 공인을 받게 되면서 연이어 남계서원, 임고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도산서원, 충렬서원, 필암서원 등처럼 문묘종사 대현들을 제향하는 서원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소수서원은 그 전범이 되었다.

소수서원의 유생 정원은 10명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원생의 정원이 아닌 상주(常住)유생에 대한 것이다. 원생이 오랜 기간 서원에 상주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인근 유생일 경우 대체로 3-5일씩 반복해서 머무는 것이 상례(常例)였으며, 다른 지역 유생은 몇 달씩 머물렀다고 보인다. 이처럼 서원에 거재(居齋)하는 동안 이들 유생은 제술(製述)과 통독(通讀)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은 서원의 초창기에는 과거 준비, 의리 탐구, 백성 교화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재정의 열악과 함께 17세기 이후 서원이 당쟁의 기지로 활용되고 도학과 명분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원 교육은 점차 침체되어 갔다. 이는 소수서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1732년(영조 8) 경상감사 조현명(趙顯命)의 「권학절목(勸學節目)」을 계기로 서원 교육은 다시 소생하는 기미를 보여 서원마다 거재(居齋), 강회(講會)를 개설하고 순제(旬題)와 백일장(白日場)도 기회가

당은 대로 실행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주 중단되고 있었지만 양반들은 나라의 교육 정책에 부응하고 강상윤리를 재확립하고, 천주교나 동학 등을 배척하기 위해서 서원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소수서원도 중단되었던 교육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료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거재잡록(居齋雜錄)』(1761~1780), 『거재록(居齋錄)』(1780~1793)과 19세기 교육의 모습을 알려주는 『소수서원강소잡록(紹修書院講所雜錄)』(1826~1828)이 있다. 이들 자료는 1794년부터 1825년까지 30년 동안의 기록이 없지만 『소수서원강소잡록』에 1759년의 원중완의(院中完議)와 1815년의 순제(旬題) 2회의 방목(榜目)이 있어 대체적인 대세를 알 수 있다. 이들 자료에 나오는 소수서원 교육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소수서원의 교육과정(1761~1828) -1

번호	연대	일자	교육활동	참가인원	상벌	비고
1	1761	11.24-12.13	거재(居齋)	재유(齋儒) 25 동몽(童蒙) 1		(하루참석)최저5, 최고 21
2	1762	여름	순제(旬題)	33(실인원 32)	관지(官紙) 지필(紙筆)	
3	1762	10.15-11.29	거재	재유 27, 동몽 6		최저 4, 최고 11
4	1763	여름	순제	36	백지(白紙) 지필(紙筆)	최저 2, 최고 19
5	1763	11.02-12.03	거재	재유 29, 동몽 8		최저 2, 최고 19
6	1764	5.1	순제	24	종이(紙)	
7	1764	7.19-20	백일장(白日場)	26		
8	1765	7.22	백일장, 고풍(古風)	33(고풍 10)	백지(白紙) 황필(黃筆)	
9	1766	7월	순제	15		
10	1766	7.22-7.26	거접(居接)	유생 30	관지 백지	공생(貢生) 우범중(禹範中)
11	1766	10.15-12.113	거재	재유 38, 동몽 13		최저 3, 최고 27
12	1767	2.5-7.30	순제	50	백지	
13	1767	윤7월	백일장, 고풍	30 (고풍 5)	백지	
14	1769	7.26	백일장, 고풍	37 (고풍 10)	지필묵	
15	1770	7.6	백일장	52		

소수서원의 교육과정(1761~1828) -2

번호	연대	일자	교육활동	참가인원	상벌	비고
16	1771	4.29	백일장	38		
17	1772	1.17-1.26	거접	유생 15-60		
18	1778	5월	순제	19	필목	관출제(官出題)
19	1780	8.29	순제	(명단불분명)	종이	
20	1780	10.20-12.08	거재	재유 67 동몽 11 심원(尋院) 48(실인원 106)		최저 2, 최고 32
21	1789	10.10-10.16	통독(通讀)			최저 26, 최고 100여 명
22	1790	10.27-11.28	거재	재유 74 동몽 14 심원 53		최저 9, 최고 44
23	1793	11.15-12.17	거재	재유 62 동몽 13 심원 36		최저 4, 최고 40
24	1815	3월	순제	51		
25	1815	8월	순제	52		
26	1826	4.3	순제	106		부사 출제
27	1826	5.14	백일장	175(실인원 115)		부사 출제
28	1826	5.25-4.3	순제	75	지선초(紙扇草)	
29	1826	11.26-11.30	강학	유생 31, 심원 17 방목(榜目)29 (실인원 53)		
30	1827	3.14-3.19	거접	유생 487 (실인원 272)		
31	1827	12.07-12.17	거재	재유 66, 심원 21 방목 38 (실인원 94)		
32	1828	4.22	백일장	215		

1749년(영조 25)에 원장이 서원에서의 교육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개탄하고, 고을 장노들과 의논하여 서원 재정에서 별도로 교육에 쓸 것을 떼어 놓았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학규를 복구하여 유생들을 불러 모아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속 이어가지 못하다가 1759년(영조 35)에 원임과 유생들이 서원에 모여 논의한 끝에 서원 초기에 하였던 사시거재(四時居齋)는 재정 형편상 어려우니 겨울과 여름 사이에 거재 한번, 문회(文會=강회) 한번만을 하기로 하고, 수입에서 50석을 떼어 별고(別庫)를 만들어 교육재정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양사청(養士廳) 내지 강소(講所)라는 기구를 두고 양사청유사라는 별도의 원임을 두었다. 그리하여 별고에 모은 재정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판단하여 1761년(영조 37) 겨울에 원임과 유생들이 모여 당회를 열고 거재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중단이 거듭되기는 했지만 교육활동은 위 표에서와 같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소수서원 교육활동은 1761년 재개된 이후 1772년까지 거의 매년 이어져 오다가 연거푸 흉년을 겪으면서 재정이 어려워져 이후부터 드문드문 교육이 개설되었다. 따라서 원임들이 앞장서서 재정을 마련하고 가능한 교육을 재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재정적 여유가 있는 해에는 교육과정을 연거푸 개설하였다. 1766년 한해에만 순제, 거접, 거재를 그리고 1826년에는 순제 2번, 백일장, 강회(講會)를 개최할 정도로 교육에 열의를 보였다.

각 교육과정의 개설 시기를 보면 거재·강회는 가을(7·8·9월), 겨울(10·11·12월)에 거접·백일장·순제는 봄(1·2·3월), 여름(4·5·6월)에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던 것 같다. 1826년 가을 향사때에 원임과 강임(講任)들이 백일장이나 순제 대신 11월에 거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각 면(面)에 보낸 통문에서 '가을 겨울에는 거재와 통독을, 봄과 여름에는 백일장과 거접을 연다'라고 한 그대로인 셈이다. 날씨가 추울 때는 집안에서 경전을 읽고 따듯할 때는 집밖에서 글짓기를 하던 옛날의 공부 방법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결국 소수서원에서의 교육은 가을, 겨울에는 독서 위주의 거재와 강회를 봄, 여름에는 글짓기에 치중하는 백일장, 순제와 거접 등을 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재의 순서는 가을 향사때 원임들과 유생들이 모여 유회를 열고 서원 재정 형편에 따라 개설여부를 결정한 후 각 면의 문중과 개인들에게 통문이나 회문(回文)을 돌려 거재 일자를 통보하였다. 거재에 앞서 원임과 유생들은 서원에서 당회(堂會)를 열고 「거재절목(居齋節目)」을 작성하였다. 1761년에 작성된 절목은 이후 거재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시(四時)에 거재하고 10인을 향시 공궤한다는 것이 서원을 건립했을 때부터의 규칙이다. 근래에 본원의 재력이 탕잔하니 단지 삼동거재(三冬居齋)만 열기로 한다. 공궤하는 액수는 옛 규칙을 준수하여 10명씩 돌아가며 입재하고 삭망에 교체한다.

향학(向學)하는 재유는 다른 고을, 본 고을을 불문하고 모두 입재를 허락한다. 입재하는 날에 회원이 많으면 연소자가 연장자에게 양보하고 가까운 곳의 사람이 먼 곳의 사람에게 양보하여 10명의 액수를 채운다. 이것이 서로 양보하는 예의이다. 만약 액수가 넘으면 편안히 공궤하는 것이 계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정밀함을 잃게 된다. 타관, 본관을 막론하고 정원 뒤에 도착한 사람들은 각자 되돌아가서 차례가 되면 들어온다.

전에는 사시거재가 원칙이었지만 재정 때문에 삼동거재라 하여 겨울에만 하기로 했으나, 서원에 와서 공부하는 재생은 예전처럼 10명을 정원으로 하고 거재기간은 대개는 보름 간격으로 윤번

교체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거재의 기간이나 재유의 정원은 그때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였다. 거재의 자격은 서원 유생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관심이 있는 모든 양반 유생들에게 개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순흥 뿐만 아니라 인근 풍기, 봉화, 영주 등의 유생들도 거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재생들의 나이는 16세 이상이 원칙이었는데 40세 이상의 노유(老儒)들도 있었고, 강독과 제술에 능한 15세 이하의 동몽(童蒙)들도 거재에 참석이 가능하였다.

일례로 『소수서원강소잡록(紹修書院講所雜錄)』에는 1827년 12월 7일부터 17일까지의 거재(居齋)활동에 대한 기록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강록일기(講錄日記)」가 들어 있다. 동일한 기간에 작성된 동일한 인물들의 활동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거재록』은 거재의 준비 및 시행예정 통지(12월 1일)에서부터 파회(12월 17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인원의 출입상황과 과객(過客)의 유숙(留宿) 사실까지 적고 있다. 이는 시부(詩賦) 제술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방목도 비교적 충실히 적혀 있다. 이에 비해서 「강록일기」는 경전 강독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우천·대설(大雪) 관계로 상당수의 유생들이 개강일(12월 7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강독모임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자대전(朱子大全)』에서 「옥산강의」나 「창주정사유학문」같은 글을 골라 통독하다가, 11일부터 17일 파회하기까지 『중용』의 서문부터 16장까지 각 장을 통독(通讀)한 다음 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토론한 내용을 상세히 적고 있다.

거재록과 강록일기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재기간 동안 유생의 출입이 더러 있었는데, 중도에 거재를 그만 두는 경우,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 아주 뒤늦게 오는 경우 등이 있었고,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12일에는 80여 명의 유생이 거재했다. 거재 기간 동안 아침식사 후 상읍례(相揖禮)와 경독(敬讀)이라 불리는 「백록동규(白鹿洞規)」, 「경재잠(敬齋箴)」,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낭독의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 강독활동을 하며, 오후에 사부 제술, 저녁 식사 후 다시 사부 제술 등의 순서로 하루 일과가 진행되었다.

즉 거의 제술고과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재록」과 『중용』에 대한 「강독일기」즉 전적으로 강학활동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문건이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인물들의 교육활동 기록으로 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거재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은 제술 및 강경 병행의 교육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점은 1826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거행된 거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제술과 강학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오전에 강학하과 이후에 제술로 이어지는 순서는 조선후기 향교·서원의 일반적인 교육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828년 작성된 합천향교의 「향교강학여거접완정」을 보면 소수서원에서 실행된 사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학 후에 제술로 이어지는 순서는 동일하며, 저녁식사 후에는 밤늦게까지 경전 독서와 시부 음송함으로써 강학과 제술의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2-4-2. 소수서원의 문화사적 기능

1) 소수서원의 출판문화

조선시대 출판문화는 국가의 교서관을 비롯하여 지방의 관아와 서원, 사우 등에서 책이 출판되고 이후 각 지역에 보급되는 체제였다. 소수서원이 풍기를 중심으로 한 영남, 나아가 전국적인 명망과 위세를 지닌 서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서적간행도 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었던 만큼 적지 않은 책판이 이곳에서 제작되어 간행되었었다. 소수서원의 책판 제작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고사촬요(攷事撮要)』가 있다. 이 책자는 조선 최초의 책판 목록이 수록되어 있어 임진왜란 이전 출판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죽계지(竹溪誌)』가 수록되어 있는데, 풍기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전하는 119판의 죽계지는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이듬해인 1544년에 편찬하여 1547년(명종 2)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회암사(晦庵祠)와 서원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내용은 <안씨행록>, <존현록>, <학전록>, <장서록>, <잡록>, <별록>으로 안향의 후손인 안석(安碩), 안축(安軸), 안집(安輯)의 행록, 주자의 백록동서원에 관한 글, 백운동서원의 설립과 그 토지 및 장서를 수록한 것이다.

사육신(死六臣)의 시문을 모은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도 소수서원에서 간행한 것이지만 1730년(영조 6) 편찬 『경상도책판(慶尙道冊板)』과 1740년(영조 16) 편찬 『책판치부책(冊板置簿冊)』, 1760년 편찬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에는 순흥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책판이 소재한 고을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현재 성선생유고서문 등 극히 일부인 5판만 전해지고 있으며, 연대미상의 「서책목록」에는 육선생유고판목 아래에 '신해십이월이십일일이송우창절사상 견잡록'이라 기록되어 있다. 창절사(彰節祠)는 영월에 있는 육신사(六臣祠)를 1709년(숙종 35)에 창절사로 사액한 것이다. 따라서 남아있는 5판은 창절사로 이관할 때 착오로 이관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762년(영조 38)에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수서원책록(紹修書院冊錄)』의 권말에는 수량을 밝히지 않은 책판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죽계지』·『육선생유고』·『추원록』·『문성공신도비(文成公神道碑)』·『홍하의초서(洪荷衣草書)』·『악무목필적(岳武穆筆籍)』·『연비어약(鵞飛魚躍)』·『학구성현(學求聖賢)』이 있다고 하였고, 『어계집(漁溪集)』과 『주서간보(朱書刊補)』는 사주(沙州)에 있어서 찾아오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79년에 간행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책판목록총람(韓國冊板目錄總覽)』에는 『죽계지』·『가례언해』·『추원록』 등이 서원 소재지인 순흥 수장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일부가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수서원에서 제작한 책판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책판 중 남아 있는 것은 소수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보관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31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엄격한 서책관리와 도서관적 기능

1544년(중종 39)에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던 신재 주세붕은 학전(學田)과 보미(寶米)를 세워 서원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유생의 학문을 위해 장서(藏書)를 구입하였다. 당시 주세붕이 구입한 장서에 대해 『중종실록』에는 '경서뿐만 아니라 정주학 서적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퇴계가 사액을 요청한 글에서는 '경사자집이 백천권'이라고 하였다.¹¹⁾ 설립초기의 서적으로 주세붕이 구입한 서적은 「백운동서원장서록」(『죽계지』권4)을 보면 모두 43종 525책이다. 1547년(명종 2) 2월에 작성된 「순흥문성공묘백운동서원사문입의」(『소수서원등록』)에는 주세붕이 구입한 『죽계지』외 서적 525권과 새로 구비한 49권을 등록하여 서원 밖으로 가져갈 수 없게 하고 표지가 손상되면 군(郡)에서 수보하며, 완질 여부를 연말에 보고하여 망실이 없게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후 사액이 되기 전까지 자체 구입과 관찰사의 기부 등으로 6년 만에 100여 책이 증대되었다.

1550년(명종 5) 풍기군수 이항이 관찰사 심통원을 통해 건의하여 사액서원으로 승격함에 따라 서적 반사(頒賜)의 혜택을 받아 그 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사액 시 하사받은 서적이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성리대전(性理大全)』이다. 1552년(명종 7) 3월에 설경(說經) 안수(安璩)가 조정에서 서적을 인출할 때는 소수서원에도 반사해줄 것을 요청하자 새로 인출한 『강목(綱目)』과 『사문유취(事文類聚)』를 특명으로 하사하였다. 이와 같은 하사본 외에도 감영간본, 지방관청 간본의 기증도 이어졌을 것이며, 사가의 판본, 타 서원 간본의 기증과 자체 간행본도 있었을 것이므로 서적은 더욱 증대되었다.

소수서원 장서의 증가 추이 -1

연도	권수	비고
중종 39(1544)	43종 525책	주세붕 구입
명종 2(1547)	634책	소수서원등록
명종 5(1550)	637책	소수서원등록
명종 5(1550)	사서오경, 성리대전 추가	사액
명종 7(1552)	강목, 사문유취 추가	내사
선조 35(1602)	107종 1,678책	소수서원서책치부
효종 4(1653)	122종	원중서책치부
숙종 23(1697)	143종(21종 증가)	추록
숙종 24(1698)	168종, 책판 7종(25종 증가)	서책목록
영조 37(1761)	182종, 책판 7종(14종 증가)	추록
영조 38(1762)	209종, 책판 7종(27종 증가)	소수서원책록
정조 9(1785)	236종, 책판 7종(27종 증가)	추록
정조 20(1796)	163종(73종 감소)	병진팔월삼십일수정소수서원책도록
순조 10(1810)	202종, 책판 3종(39종 증가)	추록

11) 이하 서술은 배현숙, 「소수서원 소장과 간행 서적고」 『서지학연구』 31, 2005를 참고하였다.

소수서원 장서의 증가 추이 -2

연도	권수	비고
고종 12(1875)	181종(21종 감소)	을해칠월삼일포쇄서책현존목록
고종 28(1891)	197종(16종 증가)	추록
1917	129종, 책판 6종(68종 감소)	정사칠월일현존서책목록
1951	94종, 574책(35종 감소)	신묘오월십육일서책인수현존목록
1969	141종, 563책(47종 증가)	이춘희, 『조선조의 교육문고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1984.
1997	30종 145책, 책판 4종(111종 감소)	남권희, 『소수서원소장 고서 및 고문서 해제』, 소수서원 1998.

위의 표와 같이 18세기 중반이래로 서적의 종수가 감소하는 것은 점검하면서 대출되었다가 회수되지 못한 서적을 망실서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양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69년 이춘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낙질본이 많은 141종 563책만 전래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1966년에 석판으로 간행한 『변정록(辨整錄)』도 수록되었으므로 1951년 이후에도 서적은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서적의 반 이상이 문집이었고, 나머지는 경서 및 역사서로 완질본은 거의 없으며 파손된 책이 많았다. 1602년 「소수서원서책치부」에 수록된 서적은 32종 243책만 수장하고 있어서 약 85%를 분실한 셈이다. 더구나 임란이전 내사본(內賜本)은 21종 663책이었는데, 1969년의 조사에서는 4종 123책만 남아있었다.

소수서원에서는 원규(院規)에 규정하는 바는 근사(謹祀), 예현(禮賢), 수우(修宇), 비름(備廩), 점서(點書)이다. 즉 제사와 의례, 건물과 재정관리 및 서적의 관리를 언급한 것이다. 특히 서적은 점검하지 않으면 산실(散失)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소수서원 원규에는 읍재(邑宰)의 자제들이 서원의 서책을 함부로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서적을 멋대로 한다면 반드시 연줄로 인하여 흠치게되는 폐단이 있게 되어, 결국은 유실되기 때문이다. 「순흥문성공묘백운동서원사문입의」14조에는 서적은 모두 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서적을 원문(院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생들이 서적을 열독(閱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원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밖으로의 반출은 엄금되었다. 이에 서적마다 앞면에 '내독원중 물출원문(來讀院中 勿出院門)'이라 묵서(墨書)한 것이다. 그러나 서적의 반출금지 원규가 있음에도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임으로 보인다. 서목(書目) 곳곳에 대출자와 대출일자를 기록한 곳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결국 망실되었음을 표기한 곳도 도처에 나타난다. 결국 이러한 사정으로 소수서원 장서는 점차 망실되어 초창기 서적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순흥문성공묘백운동서원사문입의」에는 서적의 표지가 손상되면 군에서 수보하고 완질여부를 연말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장서점검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원규」에서는 장서점검은 치재일(致齋日)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재일에 장서를 거풍시키고 점검함과 아울러 건물과 담장을 살펴보고, 회계·미곡·집기도 살펴보도록 규정한 것이다. 수희일(受禧日)에는 여러

사문들이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규정하였다. 사마유사(司馬有司)는 절기마다 반드시 검속하고, 원중유사(院中有司)는 매달 반드시 검속할 것을 규정하였다. 치재일에는 많은 원임, 유사와 유생이 입회할 수 있으므로 서적의 분실을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규에 서원의 장서는 연 1회 포서(曝書)와 점검(點檢)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소수서원에서는 「서목」을 작성하여 책을 관리하였다. 이것은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 전장기(傳掌記)와 장서점검을 위해 편성한 장서점검목록의 2종이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임원이 교체되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토지, 노비, 서적에 대한 전장기를 작성하였는데, 현재 4책이 전해진다. 여기에는 서적에 대하여 '전과 같다', '서목에 있다'라고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전장기는 서적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1951년에 작성된 「신묘오월십육일서책인수현존목록」은 서적의 인수인계 목록이다. 이 책에는 모두 94종 574책이 수록되어 있는데, 권말에 한국전쟁으로 서원의 건물과 비품을 파괴하고 서적을 전부 다른 곳으로 운반하여 사용한 것을 복귀한 후 「을해년책목록」에 따라 남아있는 책자를 조사하여 인수인계 한다는 박인종(朴寅鍾)의 후기가 있다. 이를 보면 1917년의 「서책목록」을 제외하고 직전의 서목은 1875년(고종 12)의 「을해칠월삼일포쇄서책현존목록」으로 보인다. 이 당시 181종의 서적에서 전쟁이후 94종으로 줄었던 것이다.

2-3. 소수서원의 제향 의식

소수서원의 정기적인 의례는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알묘(謁廟)하는 향알(香謁), 매년 정월 초 5일에 행하는 정알(正謁), 그리고 음력 3월과 9월의 초정일(初丁日)에 지내는 춘추 향사로 구분된다.

1) 향알(香謁)

음력 매월 초하루에 알묘하는 것을 향알 또는 분향례라 한다. 매월 삭망 전날 재유사(齋有司)는 입원하여 삭망날 이른 아침에 의관(유건과 도포)을 정제하고 봉향, 봉로 한 사람씩을 앞세워 묘정에 나아가 관세위에 손을 씻고 계간에 나아가 세 번 향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그리고 묘우 안에 들어가 신위를 봉심(奉審)한다.

2) 정알(正謁)

매년 정월 초 5일에 알묘하는 것을 정알(正謁) 또는 정조알묘례(正朝謁廟禮)라 한다. 이는 새해를 맞이하여 배향 선현께 인사를 드리는 의례로서 삭망 분향례보다는 절차가 좀 더 복잡하다. 정월 초 4일 원장과 재유사(三任) 및 향중의 여러 유림들이 입원하여 초5일 이른 아침에 행한다. 원장은 당상에서 남향하여 서고, 재유사와 참례자들은 북쪽을 향하여 묘정의 동서에 연치순(年齒順)으로 도열하여 선 뒤 읍례(揖禮)를 한다. 이를 정읍례(庭揖禮)라 하며 조사(曹司)가 재유사 앞에 나아가 읍하고 뵈면, 재유사가 집례를 추천한다. 다시 조사는 알자 앞에 나아가 서로 상읍례를 한 뒤 제자리에 돌아가면 집례가 묘우로 가서 홀기를 창한다. 위차에 따라 예를 마치고 모두가 강당에 돌아와 원장과 연장자들이 동벽에서 서향하여 서고, 집례 이하는 동향 상하로 서서 읍례를 한 뒤 물러난다.

3) 춘추향사례(春秋享祀禮)

춘추 향사일은 각 서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국학인 성균관과 향교의 문묘 석전일이 종래에 2월과 8월 초정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원에서는 그 이후 중정일이나 하정일 또는 3월과 9월의 정일에 행하게 된다. 소수서원 향사는 음력 3월과 9월 초정일에 거행한다. 다만 제일이 국기일과 겹치거나 다른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정일로 미루어 행한다. 2008년 추향은 9월 초정일(양 10. 4) 새벽 0시에 행하였다.

2-3-1. 향사준비

원장과 각 유사들은 3일 전에 입재하여야 하며 헌관 이하 제집사 및 참례자는 이를 전에 입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전일 입재를 한다. 모든 제관들은 미시(未時, 오후 2시)까지 입원하여 시도기(時到記)에 등재하고 신시(申時, 오후 4시)에 입재 알묘를 한다. 제관들은 일단 한번 입재를 하면 파재할 때까지 서원 밖을 나갈 수 없고 원장과 재유사의 지시에 따라 향례에 대한 습의를 한다.

1) 개좌(開座)

서원의 모든 의식과 절차는 개좌(開座)로 시작하여 파좌(罷座)로 끝이 난다. 서원에서의 모든 예절과 회의는 집례의 명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도사령(都司令)의 “개좌 아뢰오” 삼창으로 헌관 이하 모든 제관들은 강당에 모여 재계의식에 들어간다. 도사령은 옛날에 하인 또는 노복이었지만 지금은 도감이 대신하고 있다. 삼헌관을 비롯하여 축과 집례는 북쪽에서 남향하여 서립하고 동서 양쪽에 재유사와 도감을 선두로 하여 그 아래로 연치 순으로 서로 마주 보며 도열해 선다. 도감이 다시 “상음례 합시다”하고 외치면 모두 읊을 하며 상견례를 행한 후 착석한다. 도감이 원장 앞에 나아가 입재 인원현황을 보고하고 유고로 부득이 입재하지 못한 헌관을 천망해 줄 것을 계청한다. 원장은 제헌관과 좌중의 의견을 들어 서석호씨를 종헌관으로 선임하고 즉석에서 망기(望記)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입재入齋



망기확인

2) 경독(敬讀)

재계의 첫 순서는 경독으로부터 시작된다. 경독은 옛날 서원의 유생들이 심성 함양을 위하여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학의 핵심을 요약한 잠언(箴言)들을 낭송하던 강회이다. 성독을 잘하는 유생이 앞에 나와서 백록동서원규(鹿洞書院規)와 사물잠(四勿箴), 경재잠(敬齋箴),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차례로 경독하고 제관들은 모두 읊을 하고 서서 계청한다. 백록동원규는 중국 송나라 때 주자가 백록동서원의 문도들에게 교시한 것으로 조선시대에 향교와 서원 등에서 차용한 학칙과 같은 것이다.

■ 백운동서원규(白鹿洞書院規)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우오교지목
堯舜使契爲司徒敬敷五教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而其所以學之之序
요순사설위사도경부오교즉차시아 학자학차이이 이기소이학지지서

亦有五焉 其別如左
역유오언 기별여좌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爲學之序
박학지 심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우위학지서
學問思辨四者所以窮理也 若夫篤行之事則自修身以至於處事接物
학문사변사자소이궁리야 약부독행지사즉자수신이지우처사접물
亦各有要 其別如左
역각유요 기별여좌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慾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언충신 행독경 징분질욕 천선개과 우수신지요
正其義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右處事之要
정기의 불모기리 명기도 불계기공 우처사지요
己所不欲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기소불욕물시어인 행유부득 반구저기 우접물지요

부자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군신 사이에는 의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위의 글은 다섯 가지 가르침의 조목이다. 요순(堯舜)이 설(契)을 사도(司徒)로 삼아 다섯 가지 가르침을 경건히 베풀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이를 배우는 것일 뿐이며, 배우는 순서 또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 그 구별이 다음과 같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 글은 학문을 하는 순서이며,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논변하는 것은 이치를 궁구하는 방법이다. 독실히 행하는 일에서는 수신(修身)에서부터 처사(處事)·접물(接物)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조목이 있으니, 그 구별이 다음과 같다.

말은 충신하고 행실은 독실하고 경건해야 한다. 분노를 참고 욕심을 막고, 선한 데로 옮겨가며 허물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이는 수신(修身)의 요점이다.

의를 바로잡고 사욕을 피하지 말아야 하며, 도를 밝히고 공로는 헤아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처사(處事)의 요점이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미루지 말며, 행하여 얻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하라. 이는 사람을 접할 때의 요점이다.

■ 사물잠(四勿箴) - 이천선생(伊川先生)

顏淵問克己復禮之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안연 문극기복례지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四者身之用也 由乎中而應乎外 制於外所以養其中也
 사자신지용야 유희중이응호외 제어외소이양기중야
 顏淵事斯語所以進於聖人 後之學聖人者宜服膺而勿失也 因箴以自警
 안연 사사어소이진어성인 후지학성인자의복응이물실야 인잠이자경

안연이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는 조목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하시니, 이 네 가지는 몸의 작용이라 속에서 말미암아 밖으로 응하나니 바깥을 제어하는 것은 그 안을 기르는 방법이다. 안연이 이 말을 섬긴 것은 성인으로 나아가는 까닭이다. 후세에 성인을 배우려는 사람은 마땅히 가슴속에 간직하여 잃어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잠을 지어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 시잠(視箴)

心兮本虛 (심해본허) 마음이란 본래 허명하여
 應物無迹 (응물무적) 사물에 응함에 자취가 없다
 操之有要 (조지유요) 붙잡아 간직하는데 요체가 있으니
 視爲之則 (시위지칙) 보는 것이 그 기준이 되니라
 蔽交於前 (폐교어전) 눈앞에서 가리게 되면
 其中則遷 (기중즉천) 그 속마음이 곧 옮겨가니
 制之於外 (제지어외) 밖에서 제어하여
 以安其內 (이안기내) 속을 편안케 하라
 克己復禮 (극기복례) 사욕을 극복하고 천리를 회복하여
 久而誠矣 (구이성의) 오래 지속하면 참되게 되리라

■ 청잠(聽箴)

人有秉彝 (인유병이) 사람이 떳떳한 윤리를 가진 것은
 本乎天性 (본호천성) 천성에 근본한 것이나
 知誘物化 (지유물화) 앎에 이끌리고 외물에 따라 변화되어
 遂亡其正 (수망기정) 드디어 그 바른 것을 잃어버린다
 卓彼先覺 (탁피선각) 우뚝한 저 선각자는
 知止有定 (지지유정) 지선에 머물러 뜻을 정하였으니
 閑邪存誠 (한사존성) 사특함을 막고 진실을 보존하여
 非禮勿聽 (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 언잠(言箴)

人心之動 (인심지동)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因言以宣 (인언이선) 말을 통하여 드러나나니
發禁躁忘 (발금조망) 조금하고 망령된 것을 금하여야
內斯靜專 (내사정전) 마음이 조용하고 전일하리라
矧是樞機 (신시추기) 하물며 이것은 몸의 기틀이라서
興戎出好 (흥융출호) 전쟁도 일으키고 평화도 이룬다
吉凶榮辱 (길흉영욕) 길흉과 영욕이
惟其所召 (유기소소) 모두 말이 불러오는 것
傷易則誕 (상이즉탄) 지나치게 쉽게 하면 허탄하고
煩傷則支 (번상즉지) 지나치게 번잡하면 지리하며
已肆物忤 (기사물오) 내가 방자하면 남도 거스르고
出悖來違 (출패내위) 가는 것이 패려하면 오는 것이 어기니
非法不道 (비법부도) 법언(法言)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欽哉訓辭 (흠재훈사) 성현의 가르침을 공경하라

■ 동잠(動箴)

哲人知機 (철인지기) 철인은 기미를 알아
誠之於思 (성지어사) 생각을 진실하게 가지고
志士勵行 (지사려행) 지사는 행실을 힘써
守之於爲 (수지어위) 실천하는 데에서 지키나니
順理則裕 (순리즉유) 이치에 순응하면 편안하고
從欲惟危 (종욕유위) 사욕을 쫓으면 오직 위태하다
造次克念 (조차극념) 잠시라도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戰兢自持 (전경자지)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잘 간직하라
習與性成 (습여성성)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으로 이루어져
聖賢同歸 (현성동귀) 성현과 같은 경지에 돌아가리라

■ 경재잠(敬齋箴) - 회암선생(晦庵先生)

正其衣冠 (정기의관) 의관을 정제하고
尊其瞻視 (존기침시) 보고 듣는 것을 존엄하게 하고
潛心以居 (잠심이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對越上帝 (대월상제) 상제를 대하듯이 하라
足容必重 (족용필중) 발걸음은 중후하게 하고
手容必恭 (수용필공) 손놀림은 공손하며
擇地而蹈 (택지이도) 길에서는 땅을 가려서 밟아
折旋蟻封 (절선의봉) 개미집이 있으면 돌아서 가라
出門如賓 (출문여빈) 집밖에 나가서는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

承事如祭 (승사여제) 일을 맡아서 할 때는 제사를 모시듯이 하여
 戰戰兢兢 (전전긍긍) 언제나 전전긍긍하여
 罔敢或易 (망감혹이) 혹시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守口如瓶 (수구여병) 입은 병처럼 닫아 다물고
 防意如城 (방의여성) 사사로운 뜻은 성을 쌓듯이 막으라
 洞洞屬屬 (통통촉촉) 성실하고 전일(專一)하게 하여
 罔敢或輕 (망감혹경) 혹시라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니
 不東以西 (부동이서) 동쪽으로 간다고 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고
 不南以北 (불남이북) 남쪽으로 간다고 하고 북쪽으로 가지 말라
 當事而存 (당사이존) 일을 당하여 정성을 다하여
 靡他其適 (미타기적) 다른 일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弗貳以二 (불이이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弗參以三 (불삼이삼) 세 갈래로 갈라져서는 안 되니
 惟心惟一 (유심유일) 오직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萬變是監 (만변시감) 만물의 변화를 살펴야 하리라
 從事於斯 (종사어사) 여기에 늘 종사하는 것을
 是曰持敬 (시왈지경) '경건함을 유지한다[持敬]' 라고 하니
 動靜弗違 (동정불위) 동정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表裏交正 (표리교정) 겉과 속을 바르게 하라
 須臾有間 (수유유간) 잠깐 사이라도 틈이 생기면
 私欲萬端 (사욕만단) 온갖 욕망이 일어나니
 不火而熱 (불화이열) 불이 아니어도 뜨거워지고
 不冰而寒 (불빙이한) 얼음처럼 차갑게 되어
 毫釐有差 (호리유차) 털끝만큼의 착오에서
 天壤易處 (천양역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리라
 三綱旣淪 (삼강기륜) 삼강의 윤리가 타락하고
 九法亦斁 (구법역두) 구법 또한 이지러지니
 於乎小子 (오호소자) 소자들이여
 念哉敬哉 (염재경재) 생각하고 공경하라
 墨卿司戒 (묵경사계) 묵경墨卿이 경계를 맡아
 敢告靈臺 (감고영대) 감히 영대[靈臺]에 고하노라

■ 심잠(心箴) - 범준(范浚)

茫茫堪輿 (망망감여) 아득한 하늘과 땅
 俯仰無垠 (부앙무은) 굽어보고 우러러봄에 끝이 없네
 人於其間 (인어기간)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渺然有身 (묘연유신) 작은 몸을 두고 있으니
 是身之微 (시신지미) 이 몸의 미미함이란

太倉稊米 (태창제미) 창고의 낱알 정도인데
 參爲三才 (삼위삼재) 끼여서 삼재가 됨은
 曰有心爾 (왈유심이) 오직 마음 때문이라네
 往古來今 (왕고래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孰無此心 (숙무차심) 누구인들 마음이 없었겠는가만
 心爲形役 (심위형역) 마음이 형체의 부림을 다하여
 乃獸乃禽 (내수내금) 마침내 금수같이 되는 법
 惟口耳目 (유구이목) 입과 귀와 눈과
 手足動靜 (수족동정) 수족과 동정이
 投間抵隙 (투간저극) 틈을 헤집고 파고들어
 爲厥心病 (위궐심병) 마음의 병을 만든다네
 一心之微 (일심지미) 은미한 마음 하나를
 衆欲攻之 (중욕공지) 여러 욕망들이 공격하니
 其與存者 (기여존자) 남아 보존되는 것이
 嗚呼幾希 (오호기희) 아, 얼마나 되겠는가
 君子存誠 (군자존성) 군자는 지성[至誠]을 보존하여
 克念克敬 (극념극경) 늘 염려하고 경건하나니
 天君泰然 (천군태연) 마음이 태연하면
 百體從令 (백체종령) 온 몸이 그 명을 따르리라

■ 속흥야매잠(夙興夜寐箴) - 진남당(陳南塘)

鷄鳴而寤 (계명이오) 닭이 울어 잠을 깨면
 思慮漸馳 (사려점치) 생각이 점차 치달리게 되니
 盍於其間 (합어기간) 어찌 그 사이에
 澹以整之 (담이정지) 조용히 정돈하지 않겠는가
 或省舊愆 (혹성구건) 전날의 허물을 반성하기도 하고
 或紬新得 (혹주신득) 새로운 이치를 사색하여
 次第條理 (차제조리) 차례로 조리를 세우며
 瞭然默識 (요연묵지) 명료하게 속으로 이해하라
 本旣立矣 (본기입의) 근본이 세워지고 나면
 昧爽乃興 (매상내흥) 새벽에 일찍 일어나
 盥櫛衣冠 (관즐의관)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갖추고
 端坐斂形 (단좌엄형) 단정히 앉아 몸을 가다듬은 다음
 提掇此心 (제철차심) 이 마음 이끌기를
 皦如出日 (교여출일) 솟아오르는 해와 같이 밝게 하라
 嚴肅整齊 (엄숙정제) 엄숙히 정제하고
 虛明靜一 (허명정일) 마음을 허명정일하게 가지라
 乃啓方冊 (내계방책) 이때 책을 펼쳐놓고

對越聖賢 (대월성현) 성현들을 대하게 되면
 夫子在坐 (부자재좌) 공자께서 자리에 계시고
 顏曾後先 (안증후선) 안자와 증자가 앞뒤에 있으리라
 聖師所言 (성사소언) 성현이 하신 말씀을
 親切敬聽 (친절경청) 친절하고 경건하게 듣고
 弟子問辨 (제자문변) 제자들의 문변을 가지고
 反覆參訂 (반복참정) 반복하여 참고하여 바로 잡으라
 事至斯應 (사지사응) 일이 생기면 곧 대응하여
 則驗于爲 (즉험유위) 행하여 시험하여 보라
 明命赫然 (명명혁연) 천명은 밝고 막은 것
 常目在之 (상목재지) 항상 눈으로 응시하고
 事應既已 (사응기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我則如故 (아즉여고) 자신은 본연으로 돌아가
 方寸湛然 (방촌담연)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고
 凝神息慮 (응신식려) 정신을 모으고 잡념을 버려야한다
 動靜循環 (동정순환) 동정이 순환하는 중에도
 惟心是監 (유심시감) 마음만은 이것을 볼 것이니
 靜存動察 (정존동찰) 고요할 때 보존하고 움직일 때 살피
 勿貳勿參 (물이물삼) 마음이 두세 갈래로 흩어지지 않게 하리
 讀書之餘 (독서지여) 독서하는 여가에
 間以游泳 (간이유영) 간간이 음미하여
 發舒精神 (발서정신) 정신을 발양하여
 休養情性 (휴양정성) 성정을 길러야한다
 日暮人倦 (일모인권) 날이 저물고 권태가 일 때
 昏氣易乘 (훈기이승) 혼미한 기운이 쉽게 업습하니
 齋莊正齊 (재장정제) 장중히 가다듬어
 振拔精明 (진발정명) 밝은 정신을 떨쳐야한다
 夜久斯寢 (야구사침) 밤이 으스스하여 잠자리에 들되
 齊手斂足 (제수엄족) 수족을 가지런히 모으고
 不作思惟 (부작사유) 잡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心神歸宿 (심신귀숙) 심신이 돌아와 쉬게 하라
 養以夜氣 (양이야기) 야기로써 길러 나가
 貞則復元 (정즉복원) 바르면 본원을 회복하리라
 念茲在茲 (염자재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日夕乾乾 (일석건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힘쓰라

3) 집사분정(執事分定)

경독이 끝난 후에 향사에 봉무 할 제집사 분정을 한다. 도감이 강당 정면 벽에 걸려있는 분정판을 내려 헌관 앞에 놓는다. 분정판에는 지난 번 춘향시의 헌관 이하 제집사의 명단이 부착되어 있다. 분정판은 목판으로 제작되어 있고 매 향사 시마다 한지에 묵서하여 분정판에 전번 것과 교체하여 부착, 다음 향사시까지 게시해 둔다.

도기록을 참조하여 출신 문종과 연령, 학덕과 인품을 고려하여 각소임의 책임자를 선임하여 분정판에 열기한다. 분정이 완료되면 도감은 분정판을 들고 먼저 초헌관에게 보여드린 후 좌중을 한 바퀴 돌며 분정에 오류가 없는지를 열람하게 함과 아울러 각자의 소임을 주지시킨 후 다시 원 위치에 게시한다. 이제 이 명단은 6개월 후 다음 향사 시까지 붙어 있게 된다.

戊子九月初六日									
文成公秋享時執事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祝者	贊者	謁引者	司尊	奉香	奉爵	奠爵
金東仁	權應鳳	徐錫祐	金炳鍊	黃永洙	洪思萬	徐錫台	金浩喆	金善郁	金善愚
金善基	徐鍾一	朴淵化	安炳佑	權相泰	朴鍾燮	徐錫永	安震聲	徐錫元	金三基
金光植	權寧鳳	李甲善	安清夫	黃永滿	安載宣	李弘善	金光昊	周永秀	安泰榮
李文鉉	崔順權	裴善周	徐憲康	梁鎮潮	都盛煥	徐明正			

집사분정執事分定



분정판



분정기 작성

4) 제축(制祝)

축은 지필묵을 준비하여 초헌관을 모시고 묘우[문성공묘(文成公廟)]에 들어가 축문을 써서 축판에 넣어 향안 위에 올려놓는다. 축문은 초헌례 때 정위인 회헌 선생께 향사를 올리게 된 연유를 고하는 것으로 선현과 후학이 제향을 통하여 상호 교감하는 문건이다. 회헌 선생이 처음 주자학을 들여오으로써 이 땅에 교학진흥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음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維歲次戊子九月壬申朔初六日丁丑
後學 成均館典學 義城金東仁 敢昭告于
先師 文成公晦軒安先生 伏以
尊信斯道 闡教吾東 功存學校 百世儒宗
茲值上丁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明薦以
文貞公安氏 文敬公安氏 文敏公周氏 配尚
饗

維歲次戊子九月壬申朔初六日丁丑
義城金東仁 謹啓
先師 文成公晦軒安先生 伏以尊信斯道
闡教吾東 功存學校 百世儒宗 茲值
上丁 謹以 牲幣醴齊 粢盛庶品 式陳
明薦以 文貞公安氏 文敬公安氏 文敏公周氏 配尚
饗

축문

• 축문내용

무자년 9월(초하루의 간지는 임신) 초6일(정축일) 후학 성균관 전교 의성 김동인은 선사이신 문성공 회헌 안선생께 감히 고하나이다. 앞드려 생각건대 선생께서는 사도(유학)를 높이 신봉하시고 우리나라 교학진흥의 선구자로 그 공이 교육기관에 길이 남아 백세의 유종으로 추앙되어 이에 상정일을 맞아 희생과 폐백과 술과 서적을 드리웁고 문정공 안씨, 문경공 안씨, 문민공 주씨를 배향하오니 흠향해 주시옵소서.



축문작성



축문작성

5) 봉준(封尊)

봉준은 향사에 올리게 될 술을 술 향아리에 담아 봉입(封入)하는 의식이다. 봉준은 전사청에서 행한다. 헌관과 재유사가 전사청에 정좌하면 도감이 술병(청주)을 따서 원위와 배위의 준(尊: 술향아리)에 차례로 담아서 봉한다. 정위와 배위 3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준에 술을 채우고 봉하는데, 봉함지에 '정위', '차위', '삼위', '사위'를 써서 정위와 배향위를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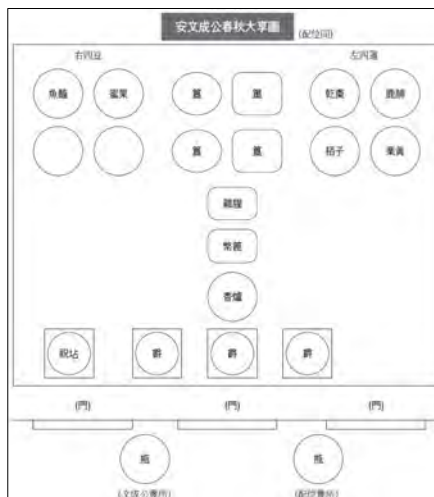
제주를 준尊에 따를 때에는 상읍相揖을 하여 예를 갖추



근봉謹封

6) 진설(陳設)

준비된 제수를 소정의 제기에 담는 것을 실찬(實饌)이라 하고, 실찬한 제기를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차리는 것을 진설이라 한다. 진설 담당 집사들이 제수를 종류별로 정돈한 다음 원위와 배향위를 구분하여 실찬한다. 변에는 미나리와 무를 함께 담아 한 그릇, 밤, 대추, 호두를 함께 담아 한 그릇, 배와 사과를 각각 한 그릇에 담아 4변으로 한다. 두에는 상어와 조기, 방어를 각각 한 그릇에 담고, 명태와 대구포를 한 그릇에 담는 돼지머리를 올리고 배위에는 육괴 두의 사이에 놓으며 보게 앞에 희생을



주세붕 진설도



원위 진설

2-3-2. 향사(享祀)

소수서원의 향사는 자정이 지나서 봉행된다. 제관들은 의관을 정재하고 강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정이 되면 도감이 “행사 아뢰오” 삼창하여 행사시작을 알린다. 알자와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묘정 문밖에 서면 뒤를 이어 제집사 및 제관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마주보며 상읍례를 행한다. 집례가 먼저 재배하고 묘우 당상에 올라 창홀하여 행사가 시작된다. 찬인은 축과 제집사를 인도하여 묘정 계간배위에 들어가 재배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은 후 각자 봉무할 자리에 들어간다. 이어서 알자와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재배한다.

1) 상향례(上香禮)

상향례는 초헌관에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의례이다.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문성공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아 삼상향과 전폐례를 행한다. 축이 폐백을 들어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두 손으로 받들어 헌폐하고 집사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린다. 다음에 3배위의 신위전에 같은 방법으로 삼상향과 전폐례를 행한다. 순서는 소목의 위치에 따라 먼저 동벽의 문정공위(안축)로부터 다음에 서벽의 문경공위(안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동벽의 문민공위(주세붕)에게 차례로 예를 올린다. 상향례가 모두 끝나면 초헌관은 자리에 돌아간다. 헌관이 묘우에 출입할 때는 중문으로 들어가 동문으로 나온다.



삼상향



문민공위 헌폐

2) 초헌례(初獻禮)

초헌례는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정위 준소에 나아가 사준이 술을 따르는 것을 감작(監爵)한 후 문성공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전작이 사준으로부터 작을 받아 헌관에게 드리면 초헌관은 두 손으로 공경히 받들어 헌작한 후 전작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린다. 작을 올리는 위치는 제상의 앞쪽에 작점(爵站)이 마련되어 있다. 초헌의 작은 서쪽 제1점에 올려놓는다.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축이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하는 동안 제관들은 모두 부복한다.

축문 낭독이 끝나면 도동곡(道東曲)을 낭송하는 '악정(樂正)'순서이다. 악원 2인이 묘정 중앙에 나와 도동곡의 초헌 악장을 창하는데 악원은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합창한다. 비록 악곡은 전해오지 않지만 옛날 선비들이 경전을 성독하는 가락으로 노래하며 그 내용이 도학의 연원(淵源)과 성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제향 분위기를 더욱 엄숙하게 한다.

伏羲神農 黃帝堯舜 (再唱) 偉- 繼天立極 景幾何如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偉- 주거니 받거니 聖인의 心法이 다른 잇분니이다
禹湯文武 皐伊周召 (再唱) 偉- 君臣이 相得 景幾何如

도동곡은 젊어서부터 도동곡을 불렀던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묘정에서 마주서서 부르게 하였는데 그것은 예로부터 부르던 원음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헌작 때에 삼헌관이 바뀌듯이 도동곡을 부르는 유생도 헌관이 바뀔 때마다 장로를 제외한 젊은 유생 3인으로 바뀌어 부르게 하였으므로 도동곡을 부르는 유생은 모두 4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도동곡을 전수하여 부를 수 있는 젊은 유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성이 좋고 도동곡 가창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부른다. 이 날은 서석원·이갑선 두 분이 맡아서 하였다.

도동곡이 끝나면 초헌관은 일어나 배위 준소인 문정공준소로 가서 감작(監爵)하고 신위전에 나아가 전작한다.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문경공, 문민공 신위전에 헌작을 마치면 자리로 돌아간다.



감작(監爵)



악정(樂正, 도동곡 초헌악정 낭송)

3) 아헌례(亞獻禮)

아헌례는 신위께 두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로 행례절차는 초헌례와 같다. 다만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두번째 점에 올리며 도동곡의 악장이 바뀌는 것만 다르다.

下土 茫茫커늘 上帝是憂 ㅎ샤 圩頂大人을 洙泗으 ㅎㅣ 느리오시니
 偉- 萬古淵源이 그출뉘업스샷다
 顏生四勿 曾氏三省 仰高鑽堅 瞻前忽後 偉- 學聖忘勞 景幾何如
 率 ㅎ리 天命之性 養 ㅎ리 浩然之氣 (再唱) 偉- 至誠無息이아本니이다
 光風霽月 瑞日祥雲 (再唱) 偉 그쳐딘 긴늘 얻데 ㅎ아니으신고



감작



관세



부복

4) 종헌례(終獻禮)

종헌례는 신위께 세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로 행례절차는 아헌례와 같다. 다만 작을 세번째 점에 올리며 도동곡의 악장의 내용이 다르다. 종헌례가 끝나면 헌관은 함께 재배한다.

人欲이 橫流 ㅎ야 浩浩滔天일스ㅣ 一千五百年에 晦翁이 나샷다
 敬으로 本를세어 大防을 맹그라시니 偉- 繼往開來아 仲尼나 다르시리잇거
 三韓 千萬古애 眞儒를 느리오시니 小白이 廬山이오 竹溪이 濂水로다
 興學衛道는 小分네 이리어니와 尊禮晦菴이 그 功이 크샷다
 偉- 吾道東來 景幾何如



헌작



헌작

5)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음복수조례는 신이 흠향한 음식을 초헌관이 맛보는 의례이다. 음복위는 묘우의 당상 동문 앞에 마련한다.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끓어얹으면 집사가 문성공 준소에 가서 복주福酒를 뜨고 축은 신위전의 조육(胙肉)을 가지고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간다. 집사가 작을 헌관에게 드리면 헌관은 받아 다 마시고 작을 돌려준다. 다시 집사가 조육을 헌관에게 드리면 초헌관은 수조한 후 자리에 돌아간다. 복을 받은 감사의 예[수희지례(受禧之禮)]로 헌관 이하 모두 함께 재배한다.

6) 철변두(撤邊豆)

철변두는 제상의 제물을 거두는 의례인데, 축이 변과 두를 조금씩 옮겨놓는 것으로 같음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신위에 대한 모든 의례는 끝났으므로 참례자 모두 재배하여 송신의 예를 올린다.



음복수조례



철변두

7) 망예례(望瘞禮)

망예례는 신위께 올린 축문을 땅에 묻는 의식이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축문을 묻는 예감(瘞坎)은 보통 사당의 서편에 구덩이를 마련하여 놓는데 소수서원에서는 묘우의 서편이 협소하여 옹기 항아리로 대신하고 있다. 축은 축판을 들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축문을 묻는 예가 끝나면 알자는 초헌관 좌측에 나아가 예필(禮畢)을 고한다. 이로써 모든 향사의 예가 끝나고 알자와 찬인은 헌관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축과 제집사들은 배위로 내려와 재배하고, 마지막으로 집례가 재배한다. 집사들은 사당에 들어가 합독하고 철찬한다.



망예례



신위합독

8) 음복례(飮福禮)

파제일 아침 7시경 강당에서 음복례가 시작된다. 향사는 음복례가 끝나야 모든 제례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관들은 음복례 전에 서원문을 나설 수가 없다. 도감이 “개좌 아뢰오”를 삼창하면 모든 제관은 강당에 헌관과 축집(축과 집례)을 중심을 둘러서서 상음례를 행하고 좌정한다. 도감이 축집 앞에 나아가 행사 때에 실례가 있었는지 살펴달라고 아뢴다. 실례 여부를 추책한 후에 제사 공사를 파한다.

음복례는 먼저 초헌관의 작주로 순배(巡杯)를 하고 이어서 아헌관 종헌관이 차례로 순배를 한다. 술잔을 드는 데도 예를 갖추어 잔을 입에 대기 전에 좌읍을 하고 술잔을 들며, 석잔 이상은 마시지 못한다. 음복례가 끝난 후 당회(堂會)를 개최하여 차기 원장을 천명한 후 모든 행사를 파좌(罷座)하였다.



제사공사



순배

2-3-3.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서원향사에 쓰는 제기와 제물은 국가전례인 향교의 석전(釋奠)의 예에 준하여 올린다. 국가전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되어 제사의 위격(位格)에 따라 차리는 제물의 종류 및 품수(品數)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전(禮典)에 규정된 제기의 종류와 그에 담는 제수의 종류와 품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변·두(簋·豆)

변(簋)은 마른 제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豆)는 물기 있는 제수를 담는 그릇으로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차린다. 국가 대사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에는 10변 10두, 소사에는 8변 8두 이하를 차리는 것으로 품수에 차등을 둔다. 조선시대 관학(官學)인 향교 석전은 소사의 예에 해당하므로 8변 8두를 차리는데, 사학(私學)인 서원은 6변 6두, 4변 4두 또는 2변 2두 등으로 낮추어 진설한다. 소수서원에서는 4변 4두의 법식으로 진설한다.

소수서원은 창건 당시 신재 주세봉 군수가 정한 '안문성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와 퇴계 이황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정한 '안문성공춘추향도(安文成公春秋享圖)'가 전래되어 오고 있다.

신재의 진설도에는 백자(栢子)·건조(乾棗)·울황(栗黃)·녹포(鹿脯)를 4변으로 하고, 구저(韭菹)·밀과(密果)·청저(靑菹)·어해(魚醢)를 4두로 도해되어 있다. 후에 퇴계는 좌변에서 울황 대신에 어수를, 우두에서 밀과를 녹해로 대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현재 소수서원 의례집에는 퇴계의 진설법을 따르는 것으로 좌변(左簋)에 건조(乾棗), 어수(魚鱗), 백자(栢子), 녹포(鹿脯)를, 우두(右豆)에 구저(韭菹), 녹해(鹿醢), 청저(靑菹), 어해(魚醢)의 진설로 도해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진설내용은 찬품과 배열방식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좌변(左簋)에는 근저(芹菹: 미나리와 밤, 배, 사과 등) 과일류를 1열로 놓고 우두(右豆)에는 상어, 조기, 방어 및 어포(명태와 대구포) 등 어물을 1열로 진설하고 있다. 그리고 4변 4두와는 별도로 제상의 중앙에 녹해를 따로 올리는 등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변(簋)



두(豆)

2) 보·궤(簋·簋)

보궤는 동으로 만든 제기인데, 모양은 보는 네모나고 궤는 둥글다. 보(簋)에는 도(稻: 쌀)와 량(梁: 기장)을 담고, 궤(簋)에는 서(黍: 수수)와 직(稷: 피쌀)을 담는다. 보와 궤는 항상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다. 향교 석전에서는 2보 2궤를 갖추어 도·량·서·직을 차리는데 서원 향사에는 보통 1보 1궤에 도와 서 두 가지를 올린다. 소수서원에서는 신재와 퇴계의 향례도에는 모두 2보 2궤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은 보에 쌀을 담고 궤에 기장을 담아 1보 1궤를 진설한다. 언제부터 보궤의 수가 감소되었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보(簋)·궤(簋)

3) 조(俎)

조(俎)는 소, 양, 돼지 등의 희생(犧牲)을 담는 제기이다. 현재 성균관 석전 대제에는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牛腥)·양성(羊腥)·시성(豕腥)의 삼생(三牲)을 쓰고, 향교 석전에는 양성(羊腥)과 시성(豕腥) 두 가지를 쓰는데, 서원에서는 희생은 한 가지만 올린다. 소수서원의 신재와 퇴계의 향례도에는 계성(雞腥)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향교 석전에 준하여 시성(豕腥)을 올리고 있다. 이 역시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조(俎)

옛날에는 희생을 서원에서 직접 잡아서 제수를 마련하였는데 도축하기 전에 헌관과 집사들이 예를 갖추어 희생의 흠결 여부를 살피는 성생례를 행하였다. 서원 정문 입구에 성생단이 남아 있고 성생 홀기가 전해오고 있다. 지금은 서원에서 직접 도축을 하기가 어려워 시내 정육점에 의뢰하여 희생을 준비한다.

4) 비(篚)

비(篚)는 신위에게 드리는 예물인 폐백(幣帛)을 담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이다. 폐백은 원래 흰 모시[저포(苧布)]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보통 흰 면포나 한지를 사용하고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한지를 접어 근봉하여 폐백으로 사용한다.



폐백(幣帛)

5) 작(爵)

헌작 때 사용하는 동(銅)으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위와 3배위에 모두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셋씩 준비한다.

6) 점(玷)

축판(祝版)이나 작(爵)을 올려놓기 위하여 유기로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받침이다. 축판을 올려놓는 것은 축점(祝玷),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爵玷)이라고 한다.

7) 준(尊)

준(尊)은 제향 때 올리는 술을 담는 용기이다. 향교석전에는 초헌·아헌·종헌에 각각 희준(犧尊)·상준(象尊)·산뢰(山罍) 등 다른 것을 사용하며 제주(祭酒)도 각기 다르다. 희준은 소의 모양을 한 것으로 초헌용의 예제(醴齊)를 담고, 상준(象尊)은 코끼리 모양을 한 것으로 아헌용의 양제(盎齊)를 담으며 산뢰(山罍)는 산의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종헌용의 청주(淸酒)를 담는다. 소수서원에서는 산뢰 한 가지만 정위와 배위의 신위별로 각각 따로 준비한다.



준(尊)

8) 작(勺)

헌작이나 관세 때에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와 같은 기구이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를 조각하여 용작(龍勺)이라고도 한다.

9) 맥(幕)

술 향아리를 덮는 덮개인데, 소수서원에서는 한지로 근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0) 향로(香爐)

유기로 만든 향을 사르는 예기이다.



향로(香爐)

11) 향합(香盒)

유기로 만든 향을 담는 예기이다. 재유사와 도감은 향사에 사용하게 될 제기를 점검하고 세척하는 척기(滌器)의식을 행한다. 제기는 제기고에서 미리 꺼내어 잘 씻고 닦은 후 묘우 안에 잘 정돈해 놓는다. 향례 전에 제기의 종류와 명칭, 예찬의 실찬(實饌) 방법과 각 소임의 역할 및 봉무요령에 대하여 교육한다.



향합(香盒)

2-3-4. 소수서원 향사의 특징

1) 도동곡(道東曲)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인 소수서원은 향례절차에 있어 다른 서원과는 상이한 특징이 있는데 초헌·아헌·종헌에 전작할 때마다 도동곡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며 행사하는 점이다. 도동곡은 신재 주세붕이 직접 지은 것으로서 유학의 연원과 그 실천, 그리고 공자·주자 등의 도학을 칭송하고, 도학이 안향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사는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의 초·중·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와 악이 조화를 이루는 제례악으로 제정되었으나 곡은 일실되고 가사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서원 향사에는 소수서원에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려지는 제례악이다.

향사 시에 도동곡을 부를 때에는 젊어서부터 도동곡을 불렀던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묘정에서 마주서서 같이 부르며 하고 있는데 곡의 원음을 잃지 않고 후세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헌작 시에 삼헌관이 바뀌듯이 도동곡을 부르는 유생도 헌관이 바뀔 때마다 장로를 제외한 젊은 유생 3인으로 교체하여 도동곡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4명이 된다. 종묘대제와 문묘 석전에서 제례악이 연주됨으로써 예악의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의례를 더욱 장엄하게 하는 효과에 비추어볼 때 악곡이 일실되고 소수서원 창건 이후 다른 서원에 확산, 계승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도동곡은 초헌·아헌·종헌 시에 헌관이 원위인 문성공 신위께 헌작하고 난 후에 부르며 그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헌(初獻)

伏羲神農 黃帝堯舜(再唱) 偉- 繼天立極 景幾何如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偉- 주거니 받거니 聖人の 心法이 다른 잇분니이다

禹湯文武 皐伊周召 (再唱) 偉 - 君臣이 相得 景幾何如

복희伏羲 · 신농神農 · 황제黃帝 · 요순堯舜이 하늘을 이어 법을 세우시니,

그 광경 어떠한고.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야만

실로 중中을 잡을 수 있다는 말로 주고받는 성인의 심법心法이란 이것뿐이다.

우禹 · 탕湯 · 문왕文王 · 무왕武王과 고요皐陶 · 이윤伊尹 ·周公周公 · 소공召公, 군

신이 서로 만나시니, 그 광경 어떠한고.

■ 아헌(亞獻)

下土 茫茫커늘 上帝是憂호샤 玆頂大人을 洙泗호호ㅣ 누리오시니

偉- 萬古淵源이 그출뉘엿스샷다

顔生四勿 曾氏三省 仰高鑽堅 瞻前忽後 偉- 學聖忘勞 景幾何如

率호리 天命之性 養호리 浩然之氣 (再唱) 偉- 至誠無息이아本니이다

光風霽月 瑞日祥雲 (再唱) 偉 그쳐딘 진늘 언데 호아니호신고

하토下土가 아득하니 상제께서 이를 걱정하사 우정대인玆頂大人 : 공자를 수사洙泗 위에 내리시니, 만고연원이 그치지 아니하다. 안연顔淵의 사물四勿과 증자曾子の 삼성三省이여, 우리러 봄에 더욱 높고 뚫으려 함에 더욱 견고하며 앞에 보이는 듯하다가 문득 위에 있도다. 성인을 배우며 수고로움을 잊으셨으니, 그 광경 어떠한고. 따라야할 것은 하늘이 명한 성性이며, 함양해야 할 것은 호연浩然한 기운, 지성무식至誠無息이 근본이니라.

광풍제월光風霽月 서일상운瑞日祥雲, 도통이 끊어진 지나긴 날에 어떻게 아셨을까?

■ 종헌(終獻)

人欲이 橫流호야 浩浩滔天일스ㅣ 一千五百年에 晦翁이 나샷다

敬오로 본늘세어 大防을 맹그라시니 偉- 繼往開來아 仲尼나 다르시리잇거

三韓 千萬古애 眞儒를누리오시니 小白이 廬山이오 竹溪이 濂水로다

興學衛道는 小分네 이리어니와 尊禮晦菴이 그 功이 크샷다

偉- 吾道東來 景幾何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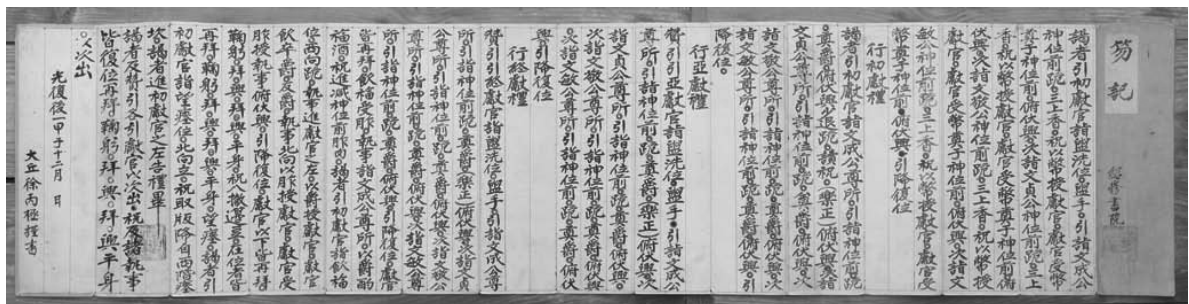
사람 욕심 건잡을 수 없어 하늘까지 뒤엎었도다. 1천 5백년만에 주자께서 태어나 시어 경敬으로 근본세워 큰 언덕 만드시고 옛 성인 이으시고 후학을 열어 주셨도다. 아, 공자와 다를 바 있으랴!

삼한 천만년에 진유를 내리시니, 소백산이 여산廬山이요, 죽계수竹溪水가 염수濂水로다. 학교를 일으키고 도를 보위함은 작은 일이겠지만 주자를 높이 모신 그 공이 크시어 우리나라에도 도가 전하여졌으니, 그 광경 어떠한고. (죽계는 소백산에서 나오고, 염계는 여산에서 나온다)

2) 홀기와 의례절차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으로서 향례에 대한 의례절차를 적은 가장 오래된 홀기를 보존하고 있다. 창건 당시 신재 주세붕 군수가 제정한 수필(手筆) 홀기와 나중에 퇴계 이항이 이를 수정, 보완한 홀기는 서원 향사의례 절차의 시원적인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퇴계가 보완한 서원의 향사는 관학인 향교의 석전을 기준으로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앞의 신재 홀기를 수정하는 사유와 의례절차의 의미를 고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교 석전이나 서원향사의 가장 표준적인 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석전의(釋奠儀)에서 수조 후 사배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 절[수희배(受禧拜)]이고, 철변두 후의 사배는 제례를 마치는 절[제필예(祭畢禮)]”이라고 정의하며 헌관 이하 참례자 모두가 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참례가 모두가 절하는 것은 영신례(迎新禮)와 음복수조례, 그리고 송신례(送神禮) 때 세 번이 된다. 이 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나 『태학지(太學志)』에 규정된 바와 같다. 지금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향교나 서원향사 절차에서 음복수조 후에는 헌관만 절하는 것으로 잘못 행례하는 곳이 많이 있다. 소수서원에서는 이 홀기의 원형대로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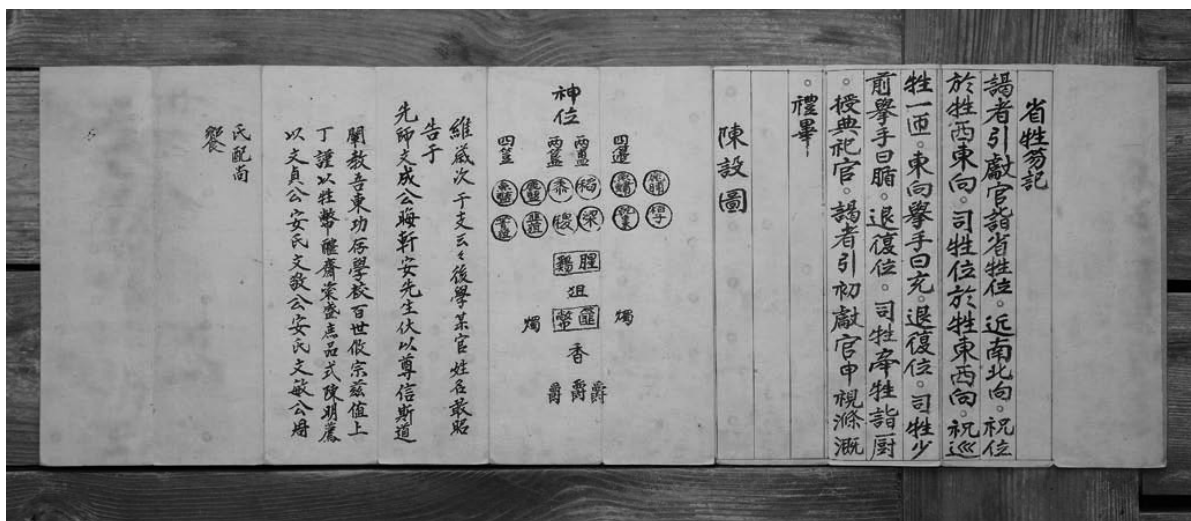
소수서원 홀기

3) 제물과 진설

진설도 역시 신재가 제정해 놓은 ‘안문선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와 퇴계 이항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정해놓은 ‘안문성공춘추향도(安文成公春秋享圖)’가 지금까지 전래되어오고 있다. 신재의 진설도에는 신위의 좌측에 백자(栢子)·건조(乾棗)·율황(栗黃)·녹포(鹿脯)를 4변으로 하고, 우측에 구저(韭菹)·밀과(密果)·청저(靑菹)·어해(魚醢)의 4두로 진설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퇴계가 학궁의 제사에 밀과를 쓰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여 밀과 대신에 녹해(鹿醢)를 쓰도록 하였고, 변에도 과일 중 한 가지를 어수(魚鱸)로 대신 쓰도록 하여 건조·어수·백자·녹포를 4변으로, 구저·녹해·청저·어해를 4두로 하도록 변경하였다. 변두의 배열 역시 석전의 법식에 준하여 2열 2행으로 도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진설은 찬품의 내용과 배열법에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좌변(左邊)에는 근저(芹菹)와 밤, 배, 사과 등 과일류를 놓고 우두(右豆)에는 상어, 조기, 방어 및 어포(명태와 대구포) 등 어물을 진설하고 있다. 찬품은 국가전례와 가례제사의 품목을 혼용하고 있는 듯 하며, 배열방식도

1열로 진설하는 등 변형된 모습이다. 더욱 특이한 사항은 4번 4두와 별도로 녹해를 제상의 중앙에 따로 진설하고 있다. 변두가 포과(脯果)와 해저(醢苴)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선현의 향례도가 있는데도 언제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다.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형대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물 진설도

2-4. 자료 현황

2-4-1. 관찬기록 속의 소수서원

조선왕조의 관찬 기록 가운데, 소수서원을 망라한 자료의 집적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의 DB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중종실록』 권95, 36년(1541) 5월 22일

주세붕(周世鵬)을 풍기 군수(豐基郡守)에 제수하였다.【옛 순흥부(順興府)이다.】

사신은 논한다. 풍기는 안향(安珦)의 고향인데, 주세붕이 안향의 옛집 터에 사우(祠宇)를 세워 봄·가을에 제사하고 이름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하였다. 좌우에 학교를 세워 유생이 거처하는 곳으로 하고, 약간의 곡식을 저축하여 밀천은 간직하고 이식을 받아서, 고을 안의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준수한 자가 모여 먹고 배우게 하였다. 당초 터를 닦을 때에 땅을 파다가 구리 그릇 3백여 근을 얻어 경사(京師)에서 책을 사다 두었는데, 경서(經書)뿐만 아니라 무릇 정·주(程朱)의 서적도 없는 것이 없었으며, 권과(勸課)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전에 형으로서 아우를 송사하여 그 재물을 빼앗으려는 백성이 있었는데, 주세붕이 그 백성을 시켜 제 아우를 업고 종일 돌을 돌게 하되, 게을리하면 독촉하고 앓으면 꾸짖었다. 몹시 지치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불러 묻기를 ‘너는 이 아우가 어려서 업어 기를 때에도 다투어 빼앗을 생각을 가졌었느냐?’ 하니, 그 백성이 크게 깨달아 부끄럽게 여기고 물러갔다. 또 생원(生員) 이극온(李克溫)이 제 아우를 송사하여 다툰 일이 있었는데, 주세붕이 흰 종이 한 폭에 왼쪽에는 이(理)자를 쓰고 오른쪽에는 욕(欲)자를 써서 이극온에게 주고 찬찬히 타이르기를 ‘네가 곧거든 이 자 아래에 이름을 적고 너에게 욕심이 있었거든 욕 자 아래에 적으라.’ 하니, 이극온이 붓을 잡고 낮을 붉히며 머뭇거리고 결단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주세붕이 소리를 돋우어 ‘너는 생원인데 어찌 이와 욕을 분별할 줄 모르겠느냐, 빨리 적으라.’ 하니, 이극온이 곧 욕 자 아래에 적고서 간다는 말도 없이 달아났다. 주세붕이 5년 동안 벼슬을 살았는데, 정사를 행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험뜯고 비웃었으나, 성신(誠信)이 점점 젖어들어서 오래되자 교화되니, 전일 험뜯고 비웃던 자들이 다 감복하였다. 주세붕은 유가(儒家)의 찌끼(滓)만을 겨우 알아서 오활하게 처사하였는데도 사람들이 감화되는 것이 이러하였으니, 풍속이 경박한 죄는 백성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丁未/以周世鵬爲豐基【古之順興府也】郡守

史臣曰 豐基 安珣之鄉 世鵬 於珣之舊居 爲建祠宇 春秋享之 名曰 白雲洞書院 左右有序 以爲儒生棲息之所 儲穀若干 存本取利 使郡中凡民俊秀者 聚食而學焉 當初開基時 掘地得銅器三百餘斤 貿書冊於京師 而藏之 非徒經書 凡程朱之書 無不在焉 勸課不怠 嘗有民 以兄訟弟 謀奪其財 鵬 令民負其弟 終日巡于庭 倦則督 坐則責 至於困極 招其民問曰 爾當此弟年幼負鞠之 時亦有爭奪之念乎 民大悟 慙而退 又有生員李克溫 訟其弟爭之 鵬於白紙一幅 左書理字 右書欲字付克溫徐解之曰 爾若直 着名于理字下 爾有欲心 欲字下着之 溫秉筆板面 遲回難斷 鵬厲聲曰 爾爲生員 豈不知理欲之分乎 其速着 溫卽於欲字下着之 不告而遁 鵬五年居官 行政類此 其初 人皆訕笑 誠信漸洽 久而乃化 前日之訕笑者 皆服之 鵬僅得儒家之糟粕 迂疎而處之 人之見化若是 風漓俗薄之罪 其不在民也審矣

■ 『명종실록』 권10, 5년(1550) 2월 11일

영의정 이기, 좌의정 심연원, 우의정 상진, 예조 판서 윤개, 예조 참의 서고(徐固)가 의논드렸다.

“풍기(豐基)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은 황해도 관찰사 주세봉(周世鵬)이 창립한 것인데, 【주세봉이 풍기 군수(豐基郡守)로 있을 때 이 서원을 창립하였다.】 그 터는 바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가【본래 이름은 향(珣)이었는데, 어휘(御諱)를 피하여 유라 하였다.】 살던 곳이고, 그 제도와 규모는 대개 주문공(朱文公)이 세운 백록동(白鹿洞)을 모방한 것입니다. 무릇 학령(學令)을 세우고 서적(書籍)을 비치하며, 전량(田糧)과 공급의 도구를 다 갖추어서 인재를 성취시킬 만합니다. 이황(李滉)이【이황이 풍기 군수로 있을 때 주세봉의 뜻을 훌륭히 여기고, 오래 전승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언을 갖추어 계문하였기 때문에 삼공과 해조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편액(扁額)과 서적·토지·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다 따라줄 수는 없으나 편액과 서적 등 2~3건만이라도 특명으로 내려 보낸다면, 먼 곳의 유생들이 반드시 고무 감격하여 흥기할 것입니다. 토지의 경우는 주세봉이 마련해준 것이 부족하지 않으니, 그대로 놓아두고 고치지 않는다면 비록 장획(臧獲)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환(使喚)할 사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유생이 글 읽기로는 고요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감사와 수령이 학업을 권장하려고 교령(敎令)을 번거롭게 내려 단속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스럽지 못하여 장수유식(藏修游息)의 도(道)에 어긋날까 염려되니, 동요시키지 않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領議政李芑 左議政沈連源 右議政尙震 禮曹判書尹漑 禮曹參議徐固議 豐基白雲洞書院黃海道觀察使周世鵬所創立【世鵬豐基郡守時創此書院】其基乃文成公安裕【名珣避諱稱裕】所居之洞其制度規模蓋倣朱文公白鹿洞之規也 凡所以立學令置書籍田糧供給之具無不該盡可以成就人才也 李滉【作宰豐基嘉世鵬之志恐傳守難久(移)〔稱〕病將歸具辭啓聞故命議三公 該曹】之請賜扁額書籍 土田 臧獲不可盡從而扁額及書籍二三件特命下送則遠方儒生必鼓舞欣感而興起也 土田則周世鵬措置不爲不足仍而不改雖不給臧獲使喚之人出於其中 且儒生讀書貴寂寞之境 若監司 守令欲爲勸課煩其敎令而檢束之則人不自由恐乖藏修游藝之道莫若勿撓之而已

■ 『명종실록』 권10, 5년(1550) 3월 15일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서적을 더 주도록 명하였다.

命加給白雲洞書院書籍

■ 『명종실록』 권16, 9년(1554) 6월 14일

경상도 관찰사 정언각(鄭彦慤)이 장계(狀啓)하기를,

“신은 지난해 9월 명을 받고 내려와 순행차 영천(永川)에 도착하니 한고을의 부로(父老)와 유생(儒生)들이 모두 모여 신에게 고하기를 ‘고을 북쪽 10리쯤에 부래산(浮來山)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있는 고허(古墟)는 바로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가 성장하고 공부한 곳이다. 가묘(家廟)를 세우고 서원(書院)을 지어 풍속을 돈독하게 하고 후생(後生)을 격려하려고 소원해온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감사가 내려 왔으니 어찌 이 일의 성취를 꾀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그렇다면 이 시골이 안씨(安氏)의 죽계(竹溪)에 비해 부끄러울 게 없고 실제로 성치(聖治)에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흉년이 들어 재정이 부족한데 어찌 이런 화려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부로들은 모두 ‘우리들이 각기 자재를 내어 웬만큼 모았으니, 마땅히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하겠다. 다만 바라는 바는 조정에 계달(啓達)하여 풍기(豐基)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예(例)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문충공의 문장과 도학(道學), 덕업(德業)과 문망(聞望)은 결코 문성공(文成公)에 지지 않으며 또한 충렬(忠烈)은 더하다. 그런데도 지금껏 가묘와 제향(祭享)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한 고을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실로 한 도의 결점이다.’ 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신이 다시 순행하여 군에 이르니 품관(品官)과 유생들이 모두 힘을 내어 가묘를 완성시키고 서원을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군수 이의(李義)가 청정(淸呈)하기를 ‘문충공 정몽주 가묘와 서원을 건립하는 유사(有司)인 생원(生員) 김응생(金生), 유학(幼學) 정원량(鄭元良), 진사(進士) 노수(盧遂) 등이, 가묘의 춘추 제향(春秋祭享)과 유생들을 먹일 미면(米餼)과 읽을 서책 및 지공(支供)할 노비(奴婢) 등의 출처가 없으니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전해 보내서 시행하게 해달라고 정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었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향유(鄉儒)들이 각기 자재(資材)를 내어 선현(先賢)을 위하려고 사우(祀宇)를 건립하고 서원을 설치하고서 또 학전(學田)과 노비를 모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예에 따라 수호하고 지급하게 해주기를 청했으니 학교를 비보(裨補)하려는 뜻이 가상합니다. 그리고 정몽주의 문장과 절행(節行)은 안유(安裕)에 못지 않습니다. 사전(祀典)과 학규(學規)는 나라 제도에 있어 막대한 일이니 정언각의 계청(啓請)에 응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여 정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문충공은 동방 이학(東方理學)의 시조이니 그의 문장과 충렬은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만하다. 이제 사우를 세우고 서원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慶尙道觀察使鄭彥慤狀啓曰

臣前年九月 受命下來 巡到永川 一鄉父老及儒生等 全數聚會 告臣曰 ‘郡北十里許有浮來山 山下有古墟 卽文忠公鄭夢周生長藏修之處 立家廟構書院 敦風化勵後生之願 不日不月 今監司下界 盍謀所以成之 臣曰 然則斯鄉無愧於安氏之竹溪 而實有補於聖治之萬一 奈此時屈舉羸何 父老等咸曰 我民各出資材 其數若干 當不煩民力而爲之 但所望啓達朝廷 **依豐基紹修書院例施行矣** 文忠公文章道學 德業聞望 當不讓於文成公而忠列則又加焉 至今無家廟祭享之所 豈徒爲一鄉之羞 實是一道之欠事 今三月間 臣再巡到郡 品官儒生等 咸出力 家廟已成 書院方構 而郡守李義牒呈云 文忠公鄭夢周家廟及書院營建有司生員金應生幼學鄭元良進士盧遂等呈狀 家廟春秋祭享及儒生供饋米[麪] 所讀書冊 支供奴婢 出處無由 **依紹修書院例** 轉達施行 禮曹啓曰 鄉儒等各出資財 欲爲先賢 建祀宇置書院 又請學田奴婢 **悉依白雲洞書院之例** 使之守護支給 其裨補學校之意 有足嘉尚矣 鄭夢周 文章節行 無讓安裕 祀典 學規在國制莫大之舉 鄭彥慤啓請應否 收議大臣定奪 依允

■ 『명종실록』 권11, 6년(1551) 4월 30일

전교하기를,

“봉은사(奉恩寺)는 성종 대왕의 능침을 수호하는 절로 보우(普雨)가 직무를 능히 감당할 만하다고 여겼으므로 주지로 삼았다. 그 경연에서나 상소·차자 가운데 이를 말한 자가 많고 **소수서원(紹修書院) 유생들의 상소에 ‘전하께서는 보우를 높이고 자전은 불교를 숭상함으로써 풍년들게 하려고 한다.’** 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근거없는 말이다. 봉은사의 주지는 중들이 다 경쟁하는 것이어서 많은 유언(流言)을 만들어 내고 있다. 만약 그 말을 믿고 죄준다면 뒷폐단이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사한 사람의 술책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였다. 이는 함경 어사(咸鏡御史) 왕희걸(王希傑)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하교(下敎)한 것이다.

傳曰：奉恩寺乃成宗大王陵寢寺 故以普雨爲住持 取其能於任事也 經筵之上 疏筭之中 多有言者 **紹修書院儒生等疏曰 殿下尊普雨 慈殿崇佛教 欲致豐年 云 此皆無根之言也** 奉恩寺住持僧 皆爭競多發流言 若信而罪之 則非徒不無後弊 反陷於奸細人術中也 蓋因咸鏡御史王希傑書啓而下敎也

■ 『명종실록』 권13, 7년(1552) 3월 28일

상이 주강에 나아갔다. 설경(說經) 안수(安璲)가 아뢰었다.

“경상도 풍기군(豊基郡)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있는데, 이는 고려 사람 안유(安裕)가【안유(安裕)의 초명은 향(珦)이며 죽계인(竹溪人)으로 학행(學行)이 있었습니다. 죽계는 지금 풍기군에 속해 있습니다.

동지사(同知事) 주세붕(周世鵬)이 그 고을 군수로 있을 때 그곳에 사당을 세우고 또 그 곁에 서원을 지어 유생들로 하여금 모여서 학문을 닦게 하였으며, 그가 살던 고장입니다. 도내의 유생들이 모두 모여들어 마치 주문공(朱文公)의 백록동(白鹿洞)과 같습니다. 그런데 뜻 있는 선비들이 제반 서책을 박람하고자 하나 궁벽한 시골이라 서책이 귀하여 선비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책을 간행할 때 한 질씩 반사(頒賜)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서원의 명칭이 옛날에는 없었다. 남당(南唐) 때 이발(李渤)이 은거했던 여산(廬山) 백록동에다가 학궁(學宮)을 창건하고 스승과 생도를 두어 가르쳤는데, 송조(宋朝)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다. 그러나 중엽까지는 아직 성하지 못하여 천하에 오직 네 군데의 서원이 있을 뿐이었다. 도강(渡江) 후부터는 전쟁으로 몹시 어수선한 때를 당하고 있었어도 민(閩)·절(浙)·호(湖)·상(湘) 사이에 사문(斯文)이 크게 흥기하고 사학(士學)이 날로 번창하였으므로 전해가며 서로 본받아 곳곳에 서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호원(胡元)이 찬탈하고 나서도 오히려 여기에 먼저 힘써야 할 것을 알아 더욱 많이 수거(修舉)하였다. 대개 은거하여 지조를 지키는 선비와, 도를 강론하고 학업을 닦는 무리와, 번잡한 곳을 피하고 성시(城市)를 멀리하는 자와, 한가함을 생각하여 조용한 곳으로 가는 자와, 성현을 배워 그 도를 구하는 자와, 의리를 궁구하여 덕행을 쌓는 자가 모두 서원에서 득력(得力)하여 현재(賢才)가 배출, 성대하게 쓰여 지고 있으니, 인재를 양성하는 도리에 있어 어찌 도움이 적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한 걸 같이 중국의 제도를 따라 서울에는 성균(成均)·사학(四學)을 두었고 외방에는 향교를 두었으니 참으로 아름답다 하겠다. 그러나 유독 서원의 설치에 대해서는 전에 들어보지 못하였었으니, 이는 실로 커다란 흠전(欠典)이 아닐 수 없다. 지난번 군수 주세붕이 개연히 여기에 뜻을 두어 사람들의 조소와 비방을 무릅쓰고 선현이 은거하던 옛 땅에 처음으로 서원을 세웠으니, 옛날 학문을 일으키던 의의에도 부합됨은 물론 옛 군자에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 뒤에 군수 이황(李滉)이 더욱 심력을 다하면서 ‘일이 왕명(王命)을 거치지 않고 이름이 국승(國乘)에 기재되지 않으면 사방의 관청(觀聽)을 용동시키고 대중의 의혹을 풀어 일국의 모범이 되게 할 수 없고 끝내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고 여겨 곧 방백(方伯)에게 알리고 조정에 상문(上聞)함으로써 광채를 더욱 빛나게 하고 규모를 더욱 원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로는 백록(白鹿)·고정(考亭)을 짝하고 아래로는 남계(藍溪)·경현(景賢)의 축조가 있어, 선정(先正)이 있던 청수(淸修)한 땅을 다투어 흠모하게 함으로써 학자들이 의귀하게 하였으니, 문(文)을 높이는 성조(聖朝)의 교화를 천양한 것이 어찌 적겠는가. 그러나 교화를 높이고 인재를 기르는 그 근본은 오직 임금에게 달려 있다. 진실로 어진 이를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기는 정성이 있지 않거나, 또 몸소 실천하고 마음속으로 체득하여 미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서적의 반사나 편액(扁額)의 하사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태한 데 이르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다.

庚戌/上御書講 說經安璉曰 **慶尙道豐基郡 有紹修書院** 高麗人安裕之故居也【裕 初名珣 竹溪人 有學行 竹溪 今屬豐基郡 同知事周世鵬爲郡守(日) [時] 立祠其地 又起書院於其側 令儒生聚學焉】一道儒生濟濟相聚 如朱文公之白鹿洞 有志之士欲博覽諸書 而窮鄉下邑 簡策稀罕 必貽有志之嘆 請於印冊之時 各頒一件

【史臣曰 書院之名 古未有也 南唐之世 就李渤舊隱廬山白鹿洞 創立學宮 置師生以教之 宋朝因之 其在中葉 猶未盛 天下只有四書院 渡江而來 雖當百戰搶攘之日 而閩浙湖湘之間 斯文大興 士學日盛 轉相效慕 處處增置 胡元竊據 猶知先務 益有修舉 蓋隱居求志之士 講道肄業之儔 厭煩囂而遠城市 思寬閑而就寂寞 學聖賢而求其道 閱義理而蓄其德者 率皆得力於書院 賢才輩出 蔚爲世用 其於作成之道 豈少補哉 我東方教學之規 一遵華制 內有成均四學 別有鄉校 可謂美矣 而獨書院之設 前未有聞 此實大欠缺也 頃者郡守周世鵬 慨然有意於此 冒衆笑排群謗 卽先賢舊居而首建焉 其副古興學之意 無讓於古君子 而後郡守李滉 尤眷眷焉盡其心 以爲事不經宣命 名不載國乘 則無以聳四方之觀聽 定衆人之疑怪 爲一國之效法 而終必至於衰墜 乃白諸方伯 聞諸朝廷 賞飾其光彩 悠遠其規模 上有以儷白鹿考亭之美 下有以啓藍溪(敬賢) [景賢] 之作 使先正清修之地 爭相欣慕 學者有歸 其所以闡揚聖朝右文之化者 豈淺淺乎 然崇教化育人材 其本在於一人 苟非有好賢樂善之誠 而又有躬行心得以推之 書籍之頒 扁額之賜 特爲一文具而已 其不至於怠忽而陵替也難矣】

■ 『명종실록』 권13, 7년(1552) 4월 25일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영경연사 심연원(沈連源)이 아뢰기를,

“**풍기(豐基)** 땅에 있는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유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전에 경연관의 아람에 의해 이미 사서 오경(四書五經)을 하사하였는데, 지금 부족한 것은 『강목(綱目)』과 『사문유취(事文類聚)』이니, 나라에 여분이 있으면 특별으로 하사하게 하소서. 그러면 학문하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유일 및 염리(廉吏)에 관한 일은, 팔도가 다 보고해온 뒤에 시행하려고 한다. 정원은 일일이 치부하였다가 다 보고해온 다음 초계(抄啓)하라. 소수서원에 책을 하사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領經筵事沈連源曰 自古人君之德 史氏之所贊者 不過曰 ‘從諫如流 **豐基地紹修書院 儒士多聚焉** 前以經筵官所啓 已賜四書五經 而所乏者 **『綱目』及『事文類聚』**耳 若國有餘藏 特命賜之 則有益於藏修學問矣 答曰 遺逸及廉吏事 欲待八道畢報而施行 政院宜一一置簿 待畢來抄啓可也 紹修書院給冊事 如啓

■ 『명종실록』 권16, 9년(1554) 6월 14일

경상도 관찰사 정언각(鄭彦慤)이 장계(狀啓)하기를,

“신은 지난해 9월, 명을 받고 내려와 순행차 영천(永川)에 도착하니 한고을의 부로(父老)와 유생(儒生)들이 모두 모여 신에게 고하기를 ‘고을 북쪽 10리쯤에 부래산(浮來山)이 있는데 그 산밑에 있는 고허(古墟)는 바로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가 성장하고 공부한 곳이다. 가묘(家廟)를 세우고 서원(書院)을 지어 풍속을 돈독하게 하고 후생(後生)을 격려하려고 소원해온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 감사가 내려 왔으니 어찌 이 일의 성취를 꾀하지 않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은 ‘그렇다면 이 시골이 안씨(安氏)의 죽계(竹溪)에 비해 부끄러울 게 없고 실제로 성치(聖治)에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흉년이 들어 재정이 부족한데 어찌 이런 화려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부로들은 모두 ‘우리들이 각기 자재를 내어 웬만큼 모았으니, 마땅히 민력(民力)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하겠다. 다만 바라는 바는 **조정에 계달(啓達)하여 풍기(豐基)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예(例)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문충공의 문장과 도학(道學), 덕업(德業)과 문망(聞望)은 결코 문성공(文成公)에 지지 않으며 또한 충렬(忠烈)은 더하다. 그런데도 지금껏 가묘와 제향(祭享)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한 고을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실로 한 도의 결점이다.’ 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신이 다시 순행하여 군에 이르니 품관(品官)과 유생들이 모두 힘을 내어 가묘를 완성시키고 서원을 짓고 있는 중이었는데 군수 이의(李義)가 첩정(牒呈)하기를 ‘문충공 정몽주 가묘와 서원을 건립하는 유사(有司)인 생원(生員) 김응생(金應生), 유학(幼學) 정원량(鄭元良), 진사(進士) 노수(盧遂) 등이, 가묘의 춘추 제향(春秋祭享)과 유생들을 먹일 미면(米飧)과 읽을 서책 및 지공(支供)할 노비(奴婢) 등의 출처가 없으니 소수서원의 예에 따라 전해 보내서 시행하게 해달라고 정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는데, 예조가 아뢰기를,

“**향유(鄉儒)들이 각기 자재(資材)를 내어 선현(先賢)을 위하여 사우(祀宇)를 건립하고 서원을 설치하고서 또 학전(學田)과 노비를 모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의 예에 따라 수호하고 지급하게 해주기를 청했으니 학교를 비보(裨補)하려는 뜻이 가상합니다.** 그리고 정몽주의 문장과 절행(節行)은 안유(安裕)에 못지않습니다. 사전(祀典)과 학규(學規)는 나라 제도에 있어 막대한 일이니 정언각의 계청(啓請)에 응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여 정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문충공은 동방 이학(東方理學)의 시조이니 그의 문장과 충렬은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만하다. 이제 사우를 세우고 서원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慶尙道觀察使鄭彦慤狀啓曰 臣前年九月 受命下來 巡到永川 一鄉父老及儒生等 全數聚會 告臣曰：郡北十里許 有浮來山 山下有古墟 卽文忠公鄭夢周生長藏修之處 立家廟構書院 敦風化勵後生之願 不日不月 今監司下界 盍謀所以成之 臣曰：然則斯鄉無愧於安氏之竹溪 而實有補於聖治之萬一 奈此時屈舉羸何 父老等咸曰 我民各出資材 其數若干 當不煩民力而爲之 但所望啓達朝廷 依豐基紹修書院例施行矣 文忠公文章道

學 德業聞望 當不讓於文成公 而忠烈則又加焉 至今無家廟祭享之所 豈徒爲一鄉之羞
實是一道之欠事 今三月間 臣再巡到郡 品官儒生等 咸出力 家廟已成 書院方構 而郡
守李義牒呈云 文忠公鄭夢周家廟及書院營建有司生員金應生幼學鄭元良進士盧遂等呈
狀 家廟春秋祭享及儒生供饋米 [麪] 所讀書冊 支供奴婢 出處無由 依紹修書院例 轉
達施行

禮曹啓曰: 鄉儒等各出資財 欲爲先賢 建祀宇置書院 又請學田奴婢 悉依白雲洞書院之
例 使之守護支給 其裨補學校之意 有足嘉尚矣 鄭夢周 文章節行 無讓安裕 祀典 學規
在國制莫大之舉 鄭彦慤啓請應否 收議大臣定奪 依允

【史臣曰: 文忠公爲東方理學之祖 而文章忠烈 足以師表後世 今立祀宇置書院 宜矣】

■ 『명종실록』 권17, 9년(1554) 7월 11일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좌의정 상진(尙震), 우의정 윤개(尹漑)가 의계(議啓)하였다.

“정몽주(鄭夢周)의 도덕과 절행(節行)을 살펴보니, 안유(安裕)만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생장(生長)한 곳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도들이 학업을 익히게 하여 풍화가 도타와지도록 장려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니,
편액(扁額)을 하사하고 서책·노비·전결(田結)을 내리는 일들을 해조로 하여금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예에 의해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領議政沈連源左議政尙震 右議政尹漑議啓曰 謹按鄭夢周道德節行 無讓於安裕 於其生
長之地 建立書院 使學徒藏修 敦勵風化 甚是美事 宜宣賜扁額 頒降書冊 奴婢 田結等
事 令該曹 依紹修書院例 磨鍊施行何如

■ 『명종실록』 권17, 9년(1554) 11월 2일

예조가 아뢰기를,

“정몽주(鄭夢周)의 도덕과 절행은 안유(安裕)에게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가 생장한 곳에 서원을 세워 학도들이
학문을 닦게 하고 풍화가 두터워지게 장려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므로, 편액을 하사하고
서책·노비·전결(田結)을 하사하는 일들을 한결같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예에 의해 시행하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노비와 전결은 본도 감사의 계본에 따라 이미 해사에 이문(移文)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서책은 소수서원의
예대로 사서·오경 1질을 문무루(文武樓)에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내려보내고, 『강목(綱目)』 및 『사문유취(事文類聚)』는
남아 있는 것이 1질뿐이어서 내려주기가 곤란하니 이 밖의 교서관이 사온 책 중에서 『소미통감(少微通鑑)』·
『통감속편(通鑑續編)』을 1질씩 내려보내되 책마다 첫째 권에 연월일과 ‘내사임고서원(內賜臨臯書院)’이라고 써서
내려 도타이 장려하는 뜻을 보이고 편액은 ‘임고서원(臨臯書院)’ 4글자를 큰 글자로 쓰되 아래쪽에 연월일과
‘선사(宣賜)’ 등의 글자를 함께 새겨서, 공사(公事)를 보는 사람 편에 부쳐 그 도의 감사에게 교할(交割)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정몽주의 충절은 완악한 사람을 감격시키고 야박한 사람을 두터워지게 할 수
있으므로 뒷사람들의 사표(師表)가 될 것이다. 서책을 하사하고 편액을 큰 글자로 써서 내린 것은
충절을 장려하여 후학들을 흥기시키는 훌륭한 뜻이다.

禮曹啓曰 鄭夢周道德節行 無讓於安裕 其於生長之地 建立書院 藏修學徒 敦勵風化 大是美事 宣賜扁額 頒降書冊奴婢田結等事 一依紹修書院例施行事 傳教 奴婢田結 則因本道監司啓本 已移文該司處置矣 書冊 依紹修書院例 四書五經各一件 以文武樓所藏帙賜送 而『綱目』及『事文類聚』 則餘在只一件 賜給爲難 以外 校書館貿易冊內『少微通鑑』『通鑑續編』 各一件賜送 每書初卷 題其年月日 內賜(林阜書院) [臨阜書院] 以示敦獎之意 扁額則 (林阜書院) [臨阜書院] 四字 大字書寫 下端具刻年月日宣賜等字 順付公幹人 同道監司處交割何如 上從之

【史臣曰 夢周之忠節 可以激頑敦薄 而作後人之師表也 其所以宣賜書冊 大書扁額者 褒獎忠節 興起後學之盛心也】

■ 『명종실록』 권20, 11년(1561) 1월 18일

예조의 공사(公事)【풍기 군수(豊基郡守) 한기(韓琦)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소속된 전지를 빼앗아 사찰에 준 사건이다.】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공사를 보건대 사실이 이와 같다면 풍기 군수를 어찌 추고만 하고 말겠는가. 본도 관찰사에게 빨리 그 진상을 조사하여 치계하게 하라.”

以禮曹公事, 【豊基郡守韓琦, 奪白雲洞書院所屬之田, 付與寺刹事】 傳于政院曰: “觀此公事, 實若至此, 則豊基郡守, 豈止於推考而已乎 使本道觀察使, 作急審驗馳啓可也”

■ 『명종실록』 권33, 21년(1566) 6월 15일

정여창의 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경상도 함양 진사 강익 등의 장고

어쨌든 오늘날의 사우 건립은 실로 선조(先朝)의 유명(遺命)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조정에 품달하지 않고 변조한다면 전일의 가묘(家廟)와 다를 게 없어 제사지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저 임고(臨臯)【임고는 영천군(永川郡)의 별호이고 임고 서원(臨臯書院)은 곧 정 문충공(鄭文忠公夢周)의 사당이다.】와 소수(紹修)【곧 풍기군(豊基郡)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니, 안문성공항(安文成公瓊)의 사당이다.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서원이 없었는데 주세붕(周世鵬)이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있으면서 비로소 이 서원을 건립하였다. 사당을 세워 문성공을 제사지내고 재실을 두어 학자들을 거처시켰으며 서적(書籍)과 전민(田民)을 모두 갖추었다. 그는 또 황해도 감사로 있을 때 최 문헌공(崔文憲公) 충(冲)을 위하여 해주(海州)에 서원을 세우고 이름을 문헌당(文獻堂)이라 하였는데, 규모가 한결같이 백운동서원과 같았으므로 원근의 학자들이 많이 취학하였으니 혜택을 준 공로가 여간 많지 않다. 이후로 성주(星州)·강릉(江陵) 같은 고을에서 이를 본받아 서원을 세운 곳이 펍 많았다고 한다.】 두 서원은 모두가 한때 옛 어진이를 추모하는 자의 마음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조정의 명이 있거나 또는 사전(祀典)에 실린 것도 아닌데 역시 모두 사액(賜額)하고 반경(頒經)하였으며 겸하여 장획(臧獲)과 토전(土田)을 하사하였으니 은전(恩典)이 지극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우는 선조의 유지(遺旨)에 의해 세워진 것인데 총명(寵命)의 하사가 어찌 저 두 서원의 밑에 놓일 수 있겠습니까.

第以今之建祠，實因先朝遺命，然若不稟朝命，而徑自變置，則無異於前日之家廟，而同於無祀矣 被臨皋【永川郡別號也 臨皋書院，卽鄭文忠公夢周祠也】紹修【卽豐基郡白雲洞書院安文成公珣之祠也 我國古無書院，周世鵬爲豐基郡守，始起此院，立廟以祠文成，置齋以居學者，書籍田民，無不具焉 又爲黃海監司爲崔文憲公冲立書院於海州，名曰文獻堂而規模一如白雲故事，遠近學者，多就之 嘉惠之功，有足多者 自後若星州江陵效此，立院之處頗多云】二院，皆出於一時慕古者之作，非有朝廷之命，祀典之載，而亦皆賜額頒經，兼之臧獲土田，恩典極矣 況此有祠，出於先朝之遺旨，則寵命之賜，豈在於二院之下乎’

■ 『선조수정실록』 권17, 16년(1583) 9월 1일

황해도 유생 등이 상소하여 이이·성혼을 변론하다.

황해도(黃海道) 유생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리고 이이의 집 옆에 정사(精舍)가 있는데, 이는 학도들이 재물을 모아 창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럿이 모여 생활하며 수업하는데 제공할 물자가 없으므로 그 당시 감사가 선세(船稅)로 거둬들인 어염(魚鹽)을 지급하여 아침, 저녁으로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풍기(豐基) 백운동(白雲洞)의 법규를 모방한 것입니다.** 어찌 선비를 기르는 물건을 가지고 이이가 스스로 점유했다고 무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배의 세금을 함부로 점유했다는 말도 터무니없다 하겠습니까.

黃海道儒生等上疏

且珥之家側 有精舍焉 乃學徒鳩材創立者 群居受業 供億無資 故其時監司 給之以營船魚鹽 以爲朝夕之供 此 **倣於豐基白雲洞之規也** 豈可以養賢之物 誣珥以自占乎 然則冒占舡稅之說 亦出於誣罔

■ 『선조수정실록』 권29, 28년(1595) 7월 1일

전교하기를,

“문폐(文弊)가 너무 심하니, 긴요하지 않은 서원(書院)은 우선 혁파하라.”

하였다. 서원의 설립은 명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세붕(周世鵬)이 풍기 군수(豐基郡守)로 있으면서 죽계(竹溪)에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설하여 선현(先賢)인 안유(安裕)를 제사지냈고, 그 뒤 이황(李滉)이 풍기 군수가 되어 조정에 사액(賜額)과 반서(頒書)를 청하였다. 당시에는 자못 사자(士子)의 강업(講業)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잇따라 설립된 것이 국내에 겨우 10여 군데에 불과했다. 당시 이황이 김종직(金宗直)을 제사지내려 하자 문인 중에 부당하다고 의혹을 가지는 자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존사(尊祀)된 자도 적었으며, 서원만 있고 제사지내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내에서 마구 본받아 ‘우리 고을에도 제사지낼 만한 현인이 있다.’고 군이 청하면서 연달아 서원을 세우고 사우(祠宇)를 세웠다. 그러나 이때는 그래도 그다지 폐단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상교(上敎)가 이미 이와 같았던 것이다. 지금은 서원이 없는 고을이 없고, 제사를 받는 자도 하찮은 사람이 많다. 유적(儒籍)이

역(役)을 도피하는 소굴이 되어 현송(絃誦)의 미풍이 땅을 쓴 듯이 없어졌으니, 문폐를 운위할 것도 못 된다 하겠다.

傳敎 文弊太勝 各州郡不關緊書院 姑爲革罷 書院之設 自明廟朝始 周世鵬守叟基郡 創竹溪白雲書院 祠祀先賢安裕 李滉繼守 請于朝 賜額頒書 當時頗有士子講業之效 繼而作者 國內僅十餘所 滉欲祠金宗直 門人或疑其不合 其時尊祀者亦鮮 或有院無祠 其後國內慕效 強稱吾鄉有某賢可祀 續續立院立祠 此時猶未太濫 而上教已如此矣 今則無邑不院 而所祀者多輒人 儒籍爲逃役之藪 (弦) [絃] 誦之風掃地 又不得以文弊論矣

■ 『광해군일기』 권106, 8년(1616) 8월 12일

소수서원에 하사한 『강목』의 자판으로 다시 찍어낼 수 있는지를 묻다 전교하였다.

“홍문관에 저장되어 있는 소수서원(紹修書院)에 하사한 『강목(綱目)』은 자판(字板)이 매우 좋은데, 주조한 활자로 찍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도 찍어낼 수 있는가? 교인 도감(校印都監)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

傳曰：“弘文館藏置紹修書院內賜『綱目』，字板甚好，以鑄字印出 今亦可能印出乎 令校印都監議處”

■ 『현종실록』 권8, 5년(1664) 3월 3일

상참 후 능행, 유황, 강도 방어, 서원, 중추부 절수 등에 관해 논의하다.

중보·두표가 양호(兩湖)의 유생들이 청한 황산(黃山)의 서원 청액(請額) 건에 대하여, 그것을 허락할 것을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서원이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인가?”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시작은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부터 시작이 되었고, 때는 인종조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인가?”

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서원은 혹 선현이 장기간 지내던 곳이나 혹은 그가 살던 고을에다 설립하여 선비들이 수양하는 곳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

“서원 사액을 겹으로 하사하지 않는 것은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래서 한 말이다. 서원은 한 군데면 족하지 겹으로 설립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서원을 많이 설립해야만 유풍(儒風)이 흥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비들이 하늘같이 앙모하는 이로는 선성(先聖) 같은 이가 없으니, 향교에 모여 독서하는 것이 좋지 하필 서원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도를 중히 여기는 길이겠는가? 내 생각은 사악하기가 어려워 그러는 것은 아니다.”

重普 斗杓請許兩湖儒生 黃山書院請額事 上曰 書院創於何時 積曰 始自白雲洞書院
事在仁宗朝矣 上曰 欲何爲而設 斗杓曰 書院則或設於先賢經歷之地 或於所居之鄉 以
爲士子藏修之所矣 佐明曰 院額之不爲疊賜 欲禁其弊也 上曰 予之言爲此也 書院則一
處足矣 至於疊設 不可也 若廣設書院 則儒風興起 不然則儒風不振乎 士子之慕仰如天
者 宜莫如先聖 則聚於鄉校 而讀書可也 何必入於書院而後 乃爲崇儒重道乎 予意非難
於賜額而然也

■ 『숙종실록』 권6, 3년(1677) 3월 13일

대신과 비국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했다.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기를,
“고 유신(儒臣) 주세붕(周世鵬)은 곧 중종(中宗)·인종(仁宗)·명종(明宗) 3대 조정의 명신(名臣)이고 경술(經術)과
효행(孝行)을 유림들이 추앙하는 바인데, 벼슬이 종2품에 그쳤기 때문에 시호를 내리는 전례(典禮)가 없었습니다.
명신에 있어서는 상례에 구애할 것 없이 특별히 시호를 내리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병조 판서 김석주(金錫胄)가 아뢰기를,

“주세붕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하여 우리 나라에 서원이 있게 된 것이 이에서 비롯되었고, 그의
학문과 행동도 사람들이 추앙하는 바입니다.”

하고, 승지 목창명(睦昌明)과 교리(校理) 권환(權煥) 등이 또한 같은 말로 아뢰었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지화(鄭知和)·허목(許穆)이 모두들 시호를 내려 숭장(崇獎)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며, 의논대로 시행하도록 명했다. 그 뒤에 권대운이 또 아뢰기를,
“이미 시호는 내리게 되었으니, 증직(贈職)도 해야 합니다.”

하니, 정경(正卿)으로 증직하도록 명하였다.

引見大臣 備局諸臣 左議政權大運曰 故儒臣周世鵬乃中 仁 明三朝名臣 經術孝行 儒
林所仰 而官止從二品 故無賜諡之典 名臣則不必拘於常例 別爲賜諡似宜 兵曹判書金
錫胄曰 世鵬創白雲洞書院 我國之有書院始此 其學問行誼 士林之所推仰也 承旨睦昌
明 校理權煥等亦同白之 上命議大臣 鄭知和 許穆皆以賜諡崇獎爲宜 命依議施行 其後
大運又言 旣已賜諡 亦宜贈職 命贈正卿

■ 『영조실록』 권47, 14년(1738) 7월 28일

양취도 사건과 김상헌 서원 문제를 거론한 지평 조중직을 파직하다.

“고 상신(相臣) 김상헌(金尙憲)의 충절(忠節)은 해와 별처럼 빛나므로, 상재지향(桑梓之鄉)에 사우를 건립한 것은
진실로 사림(士林)들의 정론(正論)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일종의 괴귀(怪鬼) 같은 무리가 충의(忠義)를
원수처럼 보아 방자하게 허물어버리고, 또 따라서 명리(命吏)를 능멸하여 모욕하고는 편당들과 결탁하여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수창한 자를 징치(懲治)하는 것은 진실로 사악(邪惡)을 배척하여 정의(正義)를 부지하는

성익(聖意)인데, 병조 판서 박문수(朴文秀)는 난민을 도와 공의(公議)와 각축(角逐)하여 대현(大賢)을 존송하는 사류(士流)들은 배격하여 무욕(誣辱)하고 절의(節義)를 멸시하는 흉도(凶徒)는 사정을 끼고 영호하였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신이 길에서 영남의 새 방백 윤양래(尹陽來)를 만났더니, 윤양래가 말하기를, '서원(書院)은 곧 내가 평생 생각하던 것과 어긋난다. **그래서 일찍이 순흥(順興)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서 아주 가까운 곳까지 갔었지만,** 그 서원에 입향(入享)된 사람이 곧 우리 동방에 서원을 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서원을 찾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 이 무슨 말입니까? 돌아보건대, 오늘날 영남의 풍속이 퇴패(頹敗)한 날에 이와 같이 무식한 사람에게 선화(宣化)하는 직임을 맡길 수 없으니, 청컨대 경상 감사 윤양래를 파직하소서. 안음현감(安陰縣監) 황욱(黃昱)과 태천 현감(泰川縣監) 김범갑(金范甲)은 흉론(凶論)을 수창하여 어진 이를 무함하고 올바른 사람을 해친 자들입니다. 명교(名敎)에 죄를 얻어 사류(士類)에 낄 수 없으니, 아울러 사판(仕版)에서 삭제해 버리소서. 전 지평 정옥(鄭玉)은 한때의 규계(規戒)에 유감을 품고 다른 사람의 부형에게 노여움을 옮겨서 방자한 뜻으로 모욕하였고, 또 소명(召命)을 받고 오는 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종[奴]을 추쇄(推刷)하였으니, 청컨대 대적(臺籍)에서 삭제하소서."

하였다. 홍치상(洪致祥)에 관한 일은 정계(停啓)했는데, 임금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책망하여 윤허하지 않고, 이어 곧 하교하기를,

"시골 유생들이 서로 싸우고 방자한 뜻으로 영호했으니, 특별히 조중직을 파직하도록 하라."

故相臣金尙憲忠節 炳若日星 建祠於桑梓之鄉 宣出士林之正論 彼一種怪鬼之輩 仇視忠義 恣意毀破 又從以凌侮命吏 結黨閉城 懲治首倡 實是斥邪扶正之聖意 而兵曹判書朴文秀右袒亂民 角戰公議 尊尙大賢之士流 則排擊誣辱 蔑視節義之凶徒 則挾私營護 請罷職 臣道遇嶺南新伯尹陽來 則陽來曰 書院卽吾平生所赤憎 **故曾到順興白雲洞書院密邇之地** 而其院入享之人 卽東方書院創建者 故不肯尋院 云 噫! 此何言也 顧今嶺俗頹敗之日 如此無識之人 不可畀以宣化之任 請慶尙監司尹陽來罷職 安陰縣監黃昱泰川縣監金范甲首倡凶論 誣賢毒正之人 得罪名敎 不齒士類 請竝刊去仕版 前持平鄭玉懷憾於一時規警 移怒人之父兄 恣意謬辱 且其承召之行 爲人推奴 請削去臺籍 洪致祥事停啓 上責之以過當 不允 尋下敎曰 鄉儒相關 恣意營護 特罷重稷職

■ 『정조실록』 권47, 21년(1797) 7월 14일

장령 박도상(朴道翔)이 상소하기를,

"둘째는 서원(書院)의 폐단입니다. 국조(國朝)의 전례(典禮)에는 애당초 서원에 관한 정제(定制)가 없습니다. 대개 **순흥(順興)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서원 창설의 시초**인데 그 일은 『오례의(五禮儀)』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례의』에는 본디 서원 향사(享祠)에 관한 예절이 언급되지 않았고, 『대전통편(大典通編)』 안에도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비록 조령 이남으로 말하더라도 한 고을 안에 혹 6, 7개의 서원을 설치하였으니 그것부터가 폐단이 없을 수가 없는데 제수(祭需) 역시 애초에 작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犧生)은 돼지[剛鬣]를 쓰고 밥은 2궤(簋)를 사용하여 대개 문묘(文廟) 무향(無享)의 예절과 비등하게 하면서 봄과 가을에는 반드시 비폐(篚幣)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묘(文廟)의 석채(釋菜)로 말하더라도 다만 오성(五聖)의 위패(位牌)에 폐백을 사용하고 십철(十哲) 이하에게는 폐백을 올리는 예절이 없습니다. 무릇 팔도의 서원에서 향사(享祀)하는 것을 보건대 8백 여 곳에서 봄과 가을로 올리는 포와 폐백을 계산하면 그 수효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조절하여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예(禮)에

이르기를 ‘여러 제수(祭羞)를 마련할 때는 희생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돼지를 쓸 경우에는 비록 우포(牛脯)를 쓰더라도 반드시 녹포(鹿脯)라고 해야 하는 것이니 이는 또한 희생을 넘지 않는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서원 제향의 희생에 돼지를 쓰면서도 문득 소 몇 마리를 잡아 선비들에게 공급하는 물자로 삼으니 경중(輕重)이 도치(倒置)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이 뒤로는 서원의 제향에 소를 잡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리고 제향(祭享)에 필요한 포는 향교의 석채(釋菜) 때에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제향에 임해 나누어 보내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또 한 서원의 노비의 수효가 혹 50, 60명에 이르기도 하고 혹 30, 40명에 이르기도 하는데, 간사한 백성이 역(役)을 피하여 간혹 투속(投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적당히 헤아려 수효를 정함으로써 바로잡아 구제하는 하나의 단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其二曰 書院之弊 國朝典禮 初無書院定制 蓋順興白雲洞書院 爲書院創設之首 而事在『五禮儀』已成之後 『五禮儀』本不及書院祀享之禮 『大典通編』中 亦無指一定式 雖以嶺以南言之 一邑之內 或設六七書院 已不能無弊 俎豆之數 初無酌定 然而牲用剛鬣 飯用二簋 概視文廟廡享之禮 而春秋必用筐幣 雖以文廟釋菜言之 只於五聖位用幣十哲以下 未有獻幣之禮 凡八路院享八百餘處 春秋脯幣會減 厥數夥然 此等處 宜所節損 禮曰：庶羞不越牲 牲用剛鬣 則雖用牛脯 必曰鹿脯 概亦不越牲之義也 今院享牲用剛鬣 而輒殺數牛 以爲供士之需 可謂輕重倒置 此後院享 勿許宰牛 祭享脯脩 令於鄉校釋菜時 預先備待 臨享分送 恐合事宜 且一書院奴婢之數 或至五六十 或至三四十 奸民逃役 間多投屬 此亦量宜定數 爲矯揉之一端

■ 『고종실록』 권8, 8년(1871) 3월 20일

전국의 서원 중에서 47개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철폐하다.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 중첩하여 세운 서원(書院)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신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大院君) 앞에 나아가 품의(稟議)한 결과, 「성묘(聖廟)의 동쪽과 서쪽에 배향하는 제현(諸賢)과 충절(忠節)과 대의(大義)를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판을 떼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교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액(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한 뒤 각도(各道)에 행회(行會)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경기(京畿)의 개성(開城) 숭양서원(崇陽書院), 용인(龍仁) 심곡서원(深谷書院), 파주(坡州) 파산서원(坡山書院), 여주(驪州) 강한사(江漢祠), 강화(江華) 충렬사(忠烈祠), 광주(廣州) 현절사(顯節祠), 김포(金浦) 우저서원(牛渚書院), 포천(抱川) 용연서원(龍淵書院), 과천(果川) 사충서원(四忠書院), 양성(陽城) 덕봉서원(德峰書院), 과천(果川) 노강서원(鷺江書院), 고양(高陽) 기공사(紀功祠), 충청도(忠淸道)의 연산(連山) 돈암서원(遯巖書院), 홍산(鴻山) 창렬사(彰烈祠), 청주(淸州) 표충사(表忠祠), 노성(魯城) 노강서원(魯岡書院), 충주(忠州) 충렬사(忠烈祠), 전라도(全羅道)의 태인(泰仁) 무성서원(武城書院), 광주(光州) 포충사(褒忠祠), 장성(長城) 필암서원(筆巖書院), 경상도(慶尙道) 경주(慶州) 서악서원(西嶽書院), 선산(善山) 금오서원(金烏書院),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 예안(禮安) 도산서원(陶山書院), 상주(尙州) 옥동서원(玉洞書院), 안동(安東) 병산서원(屏山書院), **순흥(順興) 소수서원(紹修書院)**, 현풍(玄風) 도동서원(道東書院),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상주(尙州) 흥암서원(興巖書院), 동래(東萊) 충렬사(忠烈祠),

진주(晉州) 창렬사(彰烈祠), 고성(固城) 충렬사(忠烈祠), 거창(居昌) 포충사(褒忠祠), 강원도(江原道) 영월(寧越) 창절서원(彰節書院), 철원(鐵原) 포충사(褒忠祠), 금화(金化) 충렬서원(忠烈書院),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 청성묘(淸聖廟),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 장연(長淵) 봉양서원(鳳陽書院), 함경도(咸鏡道) 북청(北靑) 노덕서원(老德書院), 평안도(平安道) 영유(永柔) 삼충사(三忠祠), 안주(安州) 충민사(忠愍祠), 영변(寧邊) 수충사(酬忠祠), 평양(平壤) 무열사(武烈祠), 정주(定州) 표절사(表節祠)이다.】

禮曹以 書院疊享毀撤事 謹依兩度下教 臣秉昌進詣大院君前稟議 則以爲聖廟東西廡配食諸賢及忠節 大義卓然炳烺 實合百歲崇奉之四十七院外 竝爲撤享撤額之意 奉承教意已賜額常存處 四十七院 謹茲別單書入 待啓下 行會各道” 啓 【京畿 開城崇陽書院 龍仁深谷書院 坡州坡山書院 驪州江漢祠 江華忠烈祠 廣州顯節祠 金浦牛渚書院 抱川龍淵書院 果川四忠書院 陽城德峰書院 果川驚江書院 高陽紀功祠 忠淸道 連山遯巖書院 鴻山彰烈祠 淸州表忠祠 魯城魯岡書院 忠州忠烈祠 全羅道 泰仁武城書院 光州褒忠祠 長城筆巖書院 慶尙道 慶州西嶽書院 善山金烏書院 咸陽藍溪書院 禮安陶山書院 尙州玉洞書院 安東屏山書院 **順興紹修書院** 玄風道峰書院 慶州 玉山書院 尙州興巖書院 東萊忠烈祠 晉州彰烈祠 固城忠烈祠 居昌褒忠祠 江原道 寧越彰節書院 鐵原褒忠祠 金化忠烈書院 黃海道 海州淸聖廟 白川文會書院 長淵鳳陽書院 咸鏡道 北靑老德書院 平安道 永柔三忠祠 安州忠愍祠 寧邊酬忠祠 平壤武烈祠 定州表節祠】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숙종 2년 3월 11일(계사)

교원(校院)에 소속되었다가 빼앗긴 노비를 환속(還屬)시켜줄 것을 청하는 안동(安東)의 유학(幼學) 김한벽(金漢璧) 등의 상소

慶尙道安東幼學金漢璧等疏曰 蓋我成廟朝 賜奴婢土田於楓岳書堂 **明廟之於紹修書院** 宣廟之於川谷吳山書院 亦皆有特賜之舉 何莫非我先王右文興學之盛典 而非獨我朝爲然

■ 숙종 3년 3월 14일(경인)

어제 인견(引見)할 때에 오시수(吳始壽) 등이 입시하여 능행시(陵幸時) 사용할 도로에 관한 일, 영남각도(嶺南各道) 제용감납정포가(濟用監納正布價)를 정하는 문제 등을 논의함

兵曹判書金錫胄曰 周世鵬學行 非但見重於一時 而創建白雲洞書院 以爲縫掖後學之所 **我東之有書院 始此** 其有功於斯文 甚大矣左副承旨睦昌明曰 德淵書院 乃爲享周世鵬之所 而前仍儒疏陳請 亦旣賜額矣上曰 贈職贈諡等事 相議于時任及原任大臣處 可也 戶曹判書吳始壽所啓 右參贊尹鏞處 曾有月廩 令倉官輸送之教 故使之每朔輸送 則固辭不受 已至於三朔 而事體與大臣有別 旣不敢循例草記 亦不可每每輸送 後朔月廩 何以處之乎 左相權大運曰 以月廩爲名 故不敢安而受之 若以周急爲名 特令輸送 則似無可辭之義 而萬機之中 亦難每每命送 使該曹間朔周急 則似好矣上曰 以周急之義 間月

輸送 可也又所啓 本曹職務 最爲煩劇 郎廳可合之人 固難多得 雖得稱職之人 亦因數遞 事多虛疏今後則必以廉謹著名之人擇差 亦勿遷動 何如 左議政曰 臣曾經是任 備知戶曹及郎廳數易之弊 誠如吳始壽之所達不可不擇差久任 故自前戶曹判書 或薦其可合之人 而銓曹多不施行 又從而數遞 多事之地 誠爲可慮自今以後 竝令銓曹 必擇本曹之自辟而差除 其中能於舉職者 則勿爲數遞事 奉承傳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 영조 14년 7월 29일(기묘)

持平趙重稷啓曰 請逆坦拏籍 臣來自嶺南 適遇新伯尹陽來於驛館 語及安東之變怪 臣以爲目今以書院改建事 士論方張云爾 則陽來遽答曰 書院 卽吾平生所赤憎 故曾到順興 白雲洞書院密邇之地 而其院入享之人 卽東方書院創建者 故心甚憎之 而不肯尋院云噫 此何言也 概故儒賢周世鵬 倣朱子白鹿洞舊規 創立文成公安裕書院於白雲洞 而其後先正臣文純公李滉 又以世鵬配享焉我東方三百年儒化之興 實基於此 則書院之有補於世教 顧如何哉

■ 영조 22년 3월 27일(계사)

上曰 白雲洞書院 誰有見者乎 鞏良曰 臣見之矣上曰 比道峯尤勝耶 鞏良曰 別無勝者而景致好矣上曰 東西廡三門皆有之乎 鞏良曰 然矣上曰 便是小學校也儒生輩常守齋乎 鞏良曰 書院亦有齋任·色掌 而守齋者 齋生也上曰 黨習之生 由於其中矣然故予謂書院不緊矣鄉人之現身無他 以其中扶抑 而轉爲黨論也鞏良曰 然矣其中不知妙理 自然如此 而爲黨論者 亦有之矣上曰 右相過爲固執也承旨以偕來去 而因坐矣鞏良曰 承旨去而久留 則難便之事多矣上曰 承旨難便 則官屬豈不難便乎 近來此事 實爲大弊也鞏良曰 官屬之弊實多矣諸臣以次退出

■ 정조 즉위년 9월 26일(갑오)

忠清道儒生進士臣金奎五

凡祠院之享 本以尙德 德在可尙 斯享已矣 宜無間於御額與否 是以順興紹修書院 卽文成公安裕之祠 明宗大王 蓋嘗手書額號 而仁祖癸酉 以故參判臣周世鵬 配之紹修之外 亦有如此例者 此可見御額之重 本無所妨於追配之典也夫世鵬之於安裕 本非親炙之人 特以創是院之後賢 禮無拘於躋祔 況尙夏以文正之嫡統 其體用之全 造詣之深 兼有創院之功者耶

■ 정조 21년 7월 14일(신사)

掌令朴道翔疏曰 其二曰 書院之弊 大抵創建院宇 爲士子藏修之所 講劇義理 淬礪名行者 法意甚盛 而第於國朝典禮 初無書院定制蓋順興白雲洞書院 爲書院創設之首 而事在五禮儀已成之後 五禮儀本不及書院祀享之禮 大典通編中 亦無指一定式雖以嶺以南言之 一邑之內 或設六七書院 已不能無弊 俎豆之數 初無酌定 然而牲用剛鬣 飯用二簋 概視文廟廡享之禮 而春秋必用篚幣 雖以文廟釋菜言之 只於五聖位用幣 十哲以下未有獻幣之禮 凡八路院享八百餘處 春秋脯幣會減 厥數夥然 此等處 宜在節損禮曰 庶

羞不越牲 牲用剛鬣 則雖用牛脯 必曰鹿脯 概亦不越牲之義也今院享 牲用剛鬣而輒殺數牛 以爲供士之需 可謂輕重倒置此後院享 勿許宰牛 祭享脯脩 令於鄉校釋菜時 預先備待 臨享分送 恐合事宜書院奴婢 宜有定數 而一院奴婢之散在各邑者 或至五六千 或至三四千 奸民逃役 間多投屬 每當簽丁 往復紛紜 此亦量宜定數 凡此數件 作爲成憲添載通編 恐或爲矯救之一端也

■ 정조 22년 10월 15일(을사)

順興府使姜忱疏曰 伏以臣之疎迂僂侗 百不猶人之狀 卽我聖明所俯燭也前後拂拭 偏蒙造化 外內踐歷 隨處僨誤 分憂於湖縣也 以禁松事 至登繡啓 待罪於北邑也 以御乘事 致勤淑問 雖荷天鑑孔昭 郵罰不加 至今追思 惶汗洽背迺於千萬夢想之外 忽伏奉嶺邑除旨 臣忭悅感激 蒼皇赴任 今纔四箇月矣跨朔亢旱 民情遑急 秋事判歉 接濟沒策 殫竭心力 罔知攸措至於晚種之課農 代播之勸耕 身先襤褸 跡緣畎畝 思所以一半分仰體我聖上恤民之盛念 而其奈年紀漸邁 膂力已愆 吏術空疎 時措茫昧 夙宵憂懼謹何是俟得伏見道臣知委去七月二十三日賓對時所下傳教 若曰 道內侍從文守令 各其該邑及蔭武諸邑民隱之入聞者 許令後先疏陳 限以冬春 無敢一人不言臣奉讀未半 感涕先零身在大嶺半千里之外 而如傷惻但之溫音 如復承聆於咫尺香案之前 臣仰認德音 俯激微衷 不揆僭妄 敢將一邑之弊癥 條列而冒陳 惟聖上少垂察焉順興爲邑 處太白·小白之下 據竹嶺·鳥嶺之間 三道之交界 一路之咽喉 拱阨之形 關防之勢 不可與他邑比也粵我太宗朝 設置興州大都護府 東西二百里 南北百餘里 地方廣闊 民物殷盛 山川明麗 名勝輩出 歸稱名鄉一自革而復設之後 境界之分屬於傍近郡邑者 未盡推還 壤地狹小 民戶零殘 昔之廣闊者 縮而爲十餘社 古之殷盛者 耗而爲數千戶 賦役煩重 弊癥滋起 不成模樣 莫可支吾目今曠乾之餘 稼穡卒痒 災荒之狀 調恤之策 自有道臣陳聞 臣不必疊床覩縷 而邑弊之不可不變通者有三 曰還弊也 曰軍弊也 曰募弊也以言乎還弊 則近來還弊 何邑不然 而本邑則以其殘邑 還上各穀 合爲二萬二千四百九十石零 分半分留 而其中小米爲一千五百六十石零 皮粟爲二千五百石零 合爲四千六十餘石以皮粟代正租 以小米代大米 未知創自何時 而每當歉歲 或因朝令 或因邑例 必以代捧 而土俗貴租不貴粟 雖至窮至殘之類 必飯稻粳 不食脫粟且各營門作錢之時 皮粟與小米 則初不舉論故耗上生耗 數至於此 以之留庫而徒充石數 以至糶民而皆不願受頃在壬癸大無之歲 論報上司 以錢代捧 輸納於密陽漕倉·柴谷南倉 而其後所捧 比壬癸倍蓰 殆近五千餘石一民戶所受 將過二十餘石萬一旱損·蟲損 田農失稔 則以粟代租 徵捧或易 而以租代粟 官民俱病 此實本邑前頭之巨弊 而以錢代捧 厥有法禁 臣不敢直爲仰請 伏願分付道臣 以爲及今區處焉以言乎軍弊 則禁御正軍及資保·騎步兵·別騎兵·砲保·御保·禁保·別破陣保·醫生保·束伍軍·烽燧軍·選武軍·水軍及武學其他雜名色之以布則一疋 以錢則二兩之役 爲一千五百五十七名 而本邑乙卯式年元戶二千四百十四戶內 除班戶三班下屬·校院生及校院守護軍·驛吏奴·寺奴等雜項 則實民戶爲八百七十七 以八百七十餘之民戶 應一千五百五十餘之軍額 故一人而兼數人之役者 太半皆是而至於御保二名 禁保一名 束伍二名 馬軍一名合六名 歲壬子 自榮川來 水軍三名 歲甲寅 自比安來 而水軍·武學合九十九名 則是屬於東萊水營者 而亦納一匹·布者也東萊之於本邑 相距爲六百三十餘里 以布以錢 輸送有弊 道里絕遠 緩急無恃臣以爲下詢廟堂 水

軍·武學額數 移送於該營傍近諸邑 而榮川·比安所來之九名軍額 亦爲還送於各其邑俾本邑之軍額充代 稍有裕焉至若內奴一名 寺奴十二名 物故已久 而無以充代 或徵於其族 或徵於其鄰 而謂之里布巫女十四名 半爲虛錄 而難於懸頓 或斂於各村 或斂於各面 而謂之面錢此等之弊 雖曰微細 亦係民隱 不忍立視 伏願竝令該曹 特爲蠲減且兵曹所管騎步兵賈布 一年五等 逐等上納 故徵捧陸續 民無休息之時 來往頻煩 吏多反弄之患 每致過限 以至生梗 亦願亟令該曹 依榮川例 以春秋兩等爲限焉以言乎蓼弊 則本邑貢蓼 春等八錢四分 秋等七錢八分 合爲一兩六錢二分 而一錢價四十兩 合爲六百四十八兩其外草藥材及清蜜 亦以價錢 而爲七十九兩 若營納藥材及情債雜費三百三十兩零 則不在此中矣道內列邑之大於本邑 雄於本邑者 所貢之蓼 或不滿於一兩之數 獨於本邑其所分定 若是夥多意者當初 謂以太山之下 地之宜產而然 而挽近以來 山皆童濯 無人入採 春秋封進 必以錢貿 價本上下 則大同會減蓼價米五石六斗 清價米五石 保人錢二百兩而已 而進上及營納藥材之所入錢 合爲一千一百餘兩 故必以下吏之稍饒者 差出醫檢 使之擔當 一經之後 蕩敗無餘且所謂保人錢云者 非軍布也 非戶役也而曰以蓼價 年年徵斂於哀彼生民 此何名色 此何規例 其在任土之宜 獻芹之誠 莫重御用 何敢爲增減變通之計 而第伏念 道內之邑巨官腴之處 以錢以分 約略分送 則御供如前 而邑力少紓 伏願下詢大臣而處之凡此三條之外 百弊千瘼 指不勝擣 而有所更張 則每患撐東歪西如欲變通 則無異拖泥合水 苟求其源 專在於邑小民窮 官瘠吏殘之致臣謹按順興誌 當丙子本邑之革廢也 分裂疆土 屬諸旁邑 人民殆將靡遺 鷄犬亦至不寧今其舊民遺裔 語到當時事 至有歔唏掩抑者及其癸亥復設也 廨宇僦於民舍 吏隸借於他官 凡百草創 不成模樣其時道臣權是經 因聖教 聚會豐基·榮川等邑倅於安東巡到所 以分屬四邑之地皆令還屬於本邑 而安東適值遞易 未及相議及夫新倅來到之後 營關邑牒 累次督還 稱以病不視務 終不施行 而安東之春陽·奈城·才山·開骨等四面 皆以順興地 載於輿地勝覽·嶺南地理誌及永嘉誌·**紹修書院竹溪誌** 明白無疑 故備堂之覆奏 道臣之狀請 非止一再 而只緣安東則雄府名官 順興則殘邑冷蔭 莫敢生意 尚未推還蓋此四面 距安東則或百餘里 或百五六十里 命令有所不通 轉輸亦多爲弊 而若順興 則遠不過五六十里 近或至二三十里 里社相接 煙戶無別揆之以道里之遠近 幅員之大小 較之以形勢之便否 民情之利害 雖非本邑舊疆 其在正境界均賦役之道 固宜損彼益此 而況其地誌所載 雜記之所出 如彼其班班者乎 雖以本道事言之 晉州之岳湯 永川之瓦村 皆以河東·河陽褊小祇殘之故 特許割給 則今此還其舊土 屬此殘邑 有何持難之事乎 本邑特湖·嶺間一小縣 而以其官則都護府使 以其地則嶺南初界 故凡干卜定之物 責應之役 有倍於他民不堪命 官不成樣 譬如僬僥而追夸父之步 嫫母而效西子之粧 寧不哀且矜哉 今若推彼四面 附之本邑 則在安東 無異九牛之一毛 在順興 便同涸鱗之萬斛地方稍廣 民力頗殷 則彼還弊也·軍弊也·蓼弊也及其他許多民瘼 特其轉移間事今臣見職 便是傳舍之過客 何敢忘其僭越 有此煩縷 而目見其難支之弊 懼深受芻 誠切貢蕘 冒死陳籲伏願聖明 下詢廟堂而處焉臣於邑弊陳達之餘 何敢以他說贅及 而表忠扶綱 大關風教 事在本邑 不忍終默 敢此尾陳焉嗚呼 順興 卽錦城大君貞愍公瑜之立殯成仁之地也以王室懿親 義重君臣 隔嶺相望 忠憤結轡 非不知天命有歸 而盡忠所事 其樹立之與日星爭光 無間於六臣 若言其處地 則尤有別焉往在壬戌 因道臣沈聖希狀聞 特命立碑於棘籬畢命之所謂之錦城壇 每歲春秋仲丁 官備祭需 祀於壇下猗歟 我聖祖 顯忠敦親 扶樹風聲之盛烈

可以永有辭於千秋第其壇墟空曠 上無庇蓋 三尺螭頭 埋沒於莓苔剝落之中 或於將事之夜 風雨驟至 則屏卓翻仆 醢豆傾覆 芬苾未卒 儀節不成 庶幾來格之靈 臨饗而飄散 百年其餒之鬼 遶壇而彷徨言念及此 寧不盡傷 大抵壇壝碑碣 所以紀蹟 非所以妥噫 彼貞愍 荐棘於此 殉節於此 丹衷不泯 碧血空埋 宿草荒燐 其所托些 必不在越州清縣 而惟是邦是依也明矣今若謂新設疊設之具有禁令 則壇下之齋舍祀廳 創設已久 儼成廟貌 則不可以新設言也六臣賡享之祀院 非止一二處 則獨於是壇 亦不可以疊設言也 且伏況白雲洞紹修書院 相距步武之間 道學忠烈 祠屋鄰近 其不有光於崇儒獎節之盛德大業乎伏願亟命禮部 收議大臣 俾建數間祀宇 以慰其幾百年幽鬱之魂焉 臣於丙子年間事 未嘗不悲惋 待罪茲土 尤增感慨 煩瀆至此 罪合萬死臣無任云云答曰 省疏具悉所陳者 皆有依據 附陳尤是其中穀物之弊 責在道臣 與軍丁事 令廟堂草記 稟處虛錄奴貢事 問于各該司 一體草記騎步兵五等之依榮川例作為兩等事 特為依施蔘保錢事 劃屬面事 令道臣從長論理狀聞附陳事 令該曹 稟處

■ 고종 10년 9월 14일(기미)

자경전에 강관 조병창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였다
“서원은 안 문성공의 서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언제 창건된 것인가”

하자 이만형이 아뢰기를,

“현재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순흥(順興)에 있는데 이것이 아조(我朝)에서 처음으로 창건한 서원입니다. 주세붕(周世鵬)이 풍기 군수(豊基郡守)로 있을 때 처음 설치하였는데 신의 선조가 그 군(郡)에 뒤이어 가서 서원의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시 가르침을 밝히고 학문을 높인 것은 지금까지도 전하여 칭송받고 있습니다.”하였다.

上曰 書院 安文成公書院 爲始 而何時創建耶 晚滢曰 卽今紹修 在順興地 而我朝始創之院也 周世鵬 以豊基郡守 始設 而臣之先祖 繼至其郡 竣書院之事 而當時明教崇學 至今傳誦矣

■ 고종 20년 10월 12일(기미)

문충공 유성룡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경상도 진사 이재철 등의 상소
“우리나라 순흥(順興)의 소수서원(紹修書院)은 문민공(文敏公) 주세붕(周世鵬)이 창건하고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발전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유궁(儒宮 서원(書院))과 학당(學堂)이 서로 계속하여 일어나서 울연히 수사(洙泗)와 엄직(淹稷)의 기풍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철폐된 뒤로는 선비는 도를 강할 곳을 잃어버리고 시골에는 덕을 높이는 풍속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慶尙道進士李在哲等疏曰

我東順興之紹修書院 周文敏創之 李文純修之 自是以後 儒宮學堂 相繼而起 蔚然有洙·泗淹稷之風矣 一自撤罷之後 士失講道之所 鄉無尊德之俗 可不爲寒心哉

■ 고종 20년 12월 1일(정미)

선현의 사원을 다시 세울 것을 청하는 경상도 생원 김경락 등의 상소

경상도 생원 김경락(金景洛) 등이 상소하기를

“멀리 훌륭한 시대에 소수서원(紹修書院)에 사액(賜額)을 내린 이후로 공자를 모신 사(祠)와 기자(箕子)를 모신 묘(廟)가 있듯이 서원과 향사(鄉祠)가 곳곳마다 서로 줄을 이었습니다. 간혹 조정에서 덕을 높이고 공을 보답하기 위해 훌륭한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학과 충절이 백세토록 세상에 모범이 될 만하기 때문에 사액서원을 건립하는 것이며 간혹은 마을의 선생을 제사(祭社)하는 의례(義例)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문행(文行)과 충신(忠信)이 한 지방을 풍동(風動)시켜 힘쓰게 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향사(鄉祠)를 지었던 것입니다.”

慶尙道生員金景洛等疏曰,

粵自盛際 紹修頒額之後 闕里有祠 箕聖有廟 而書院鄉祠 在在相望 或出於朝家崇報之盛典 則道學忠節之可以師表乎百世 而額院之所以建也 或出於鄉先生祭社之義例 則文行忠信之可以風勵乎一方 而鄉祠之所以作也

■ 고종 22년 6월 9일(병자)

여명을 거역하고 서류(庶類)의 소통을 허가하지 않은 도산서원의 이만도 등을 탄핵하는 안동 유생 김진우 등의 상소

경상도 안동(安東) 유생(儒生) 김진우(金晉祐) 등이 상소하기를,

“그런데 영남 한 구역은 철문보다 더욱 견고하게 잘못된 습속에 얽매어 이른바 서류들을 버려진 물건으로 치부하여 서원(書院)에 들어가지 못하게 배척하고 향임(鄉任)에도 끼지 못하게 내칩니다. 이 때문에 지난가을 경주(慶州) 유생인 진사 이능모(李能模)가 원통한 사정을 하소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어진 성상께서 이를 민망히 여기시어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윤음(綸音)을 흠뻑 내리시어 비지(批旨)에서 ‘억울한 사정을 풀어 주는 일이 있어야 하겠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조처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도신 조강하(趙康夏)가 성상의 비지를 받들고 기꺼이 여러 고을에 감결(甘結)을 내려 신칙하기를 ‘서류(庶類)의 신분으로서 안에서는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지내기도 하고 밖에서는 수사(水使)와 병사(兵使)가 줄을 이었다. 심지어 종묘(宗廟)의 제사에 함께 제관(祭官)에 의망되고 문묘(文廟)의 제사에는 다 같이 헌관과 집례의 반열에 참가하니 조정에서는 차별이 없고 학교에서도 막힘이 없다. 그런데 어째서 경상도 한 지역은 좁은 소견에 가리워 그들을 막는 데만 골몰하는가. 향교(鄉校)와 서원(書院)의 직임을 주지 않고 조상의 사당에서 내쫓으며 신유(新儒)와 구유(舊儒)라고 부르면서 백대(百代)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통한 마음을 품게 하니 화기(和氣)를 손상시키기에 꼭 알맞다. 또 순일하신 임금의 말씀에 어찌 감히 만분의 일이라도 잘 받들어 널리 퍼지 않겠는가. 억울한 것을 풀어 주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선비가 말하는 서원과 향교의 직임에 제한을 없애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다. 만약 혹 구유라고 거들먹거리며 말쑥을 부리는 폐단을

답습할 경우에는 이름을 적어서 보고하여 특별히 조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안동(安東)의 병산서원(屏山書院) **순흥(順興)의 소수서원(紹修書院)** 상주(尙州)의 옥봉서원(玉峯書院) 선산(善山)의 월암서원(月菴書院)은 한 도에서 모범이 되는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성지를 받들고 아울러 도신의 감결을 함께 가지고 달려가 전유하였더니 경주의 옥산서원에서는 서류(庶類)의 소통을 허가하였는데 유독 예안의 도산서원만은 임금의 명에 아랑곳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윤리를 무시하고 상도(常道)를 해치는 변고가 자주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 참의 이만도(李晩燾)와 유학(幼學) 이만응(李晩鷹)은 앞장서서 임금의 명을 막자고 선동하여 서류들이 사사로운 원한을 풀 것이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씨(李氏)들을 서원 뜰에 모아 놓고서 그 서자(庶子) 중에 향렬이 높은 몇 사람을 잡아다가 뜰 아래에 결박하여 굶어앉히고서 불기를 치며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고는 ‘물허서류(勿許庶類)’라는 네 글자를 크게 써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본읍의 현감 이학연(李鶴淵)은 백 리의 고을을 위임받은 관리로서 조정의 지시를 봉행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무슨 배은망덕한 심정을 가졌기에 교지를 받들고 간 신유(新儒)들을 잡아 가두고 형리(刑吏)를 시켜 조령(朝令)이라는 두 글자를 먹으로 지워 버리게 하고는 세 차례 엄한 형신을 가하고서 몇 달 동안 단단히 가두어 놓고 있으니 아 통분할 일입니다. 교화를 거역하고 임금의 명령을 막은 무리들이 예로부터 많았지만 이 무리들처럼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인륜을 문란하게 한 자들이 어디 있겠으며 국법으로 헤아려 보건대 어떤 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난날 나라에서 서열을 금고(禁錮)할 때 애초에 향당(鄉黨)의 직임까지 막지는 않았는데 향당의 사람들이 막은 것이 어찌 그리 쉬웠으며 오늘날 청직(淸職)에 서용하고 또 엄한 성상의 하교가 내려졌건만 유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렵단 말입니까. 지금 위에서는 소통되지만 아래에서는 소통되지 않고 큰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원통함은 소통되기 이전보다 더욱 큼니다. 말하는 자들이 ‘조정의 반열에서 이미 소통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향당과 서원에 대해 연연해하는가.’라고 한다면 이는 옳지 않습니다. 향교와 서원은 예의(禮義)를 권면하는 곳이고 향당은 관부(官府)의 정사를 돕는 곳입니다. 예의를 익히고 정교(政敎)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훗날 조정에 수용될 인재의 터전이니 어찌 소임이 작다 하여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묘조(正廟朝)의 비답에 ‘유임(儒任)과 향임(鄉任)은 자신의 경륜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은 참으로 작은 일까지 통촉하신 것입니다. 무릇 어떤 집의 부모가 한 이불 속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강한 아이가 약한 아이를 깨물고 약한 아이가 발길질을 당한다면 그 부모 된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신 등은 바로 우리 전하 품속의 약한 자식들입니다. 능욕당하는 것으로 치자면 깨물리고 발길질당하는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니니 어찌 군부(君父) 앞에 호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굵어살피시어 빨리 의금부로 하여금 명(命)을 거역한 죄를 다스리게 하고 특별히 엄한 교지를 내려 각도에 행회(行會)하여 향당과 향교 서원의 여러 임무를 빨리 맡아 볼 수 있게 하여 번듯이 사람들 속에 끼여 전하의 은택을 영원히 칭송하게 하소서. 지극히 축원하며 더없이 기원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상소의 내용대로라면 놀랄 만한 폐습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겠다.” 하였다.

至若嶺南一區 謬於習俗 鐵限愈固 所謂庶類云 看作棄物 擯不與俎豆禮讓之所 鄉黨任

職之間 所以昨秋慶州儒生進士臣李能模之鳴冤者也 仁天閔下 一視赤子 恩綸霑下 批旨內若曰 宜有疏鬱之政 令道臣詳查措處 繼之道臣趙康夏 奉承聖旨 甘飭列邑 而有曰 內而清顯歷揚 外而相鉞相望 以至宗廟之享 竝擬祝司之任 太學之祀 同參獻執之列 無間於朝著 流通於儒宮 而夫何嶠南一域 蔽於見聞 泥於防限 校院之任焉而不與之 祖先〈之〉廟焉而擯斥之 名之曰 新舊 百世而不改 使斯人含冤齋鬱 適足干和 又云一哉王言 曷敢不對揚萬一 而措處疏鬱 莫先於儒任之通行 如或有稱以舊儒 襲謬行闢之弊 指名馳報 以爲別般措處云云 而禮安之陶山 慶州之玉山 安東之屏山 順興之紹修 尚州之玉峰 善山之月菴 卽一道之首善 故敬奉聖旨 兼將道臣甘飭 馳往傳諭 則慶州·玉山許以疎通 而惟獨禮安·陶山 非但不有君命 蔑倫敗常之變 因此層生 前參議臣李晚燾 幼學臣李晚鷹 倡爲防命之計 兼售逞私之說 大會諸李於院庭 捉致其庶族之行尊者幾人 縛跪庭下 杖之笞之 視同奴隸 大書勿許庶類四字揭付壁上 本邑縣監李鶴淵 渠以寄命百里之臣 固當奉行朝令不暇 而有何梟獍之腸 捉致奉旨之新儒 使刑吏 墨削朝令二字 嚴刑三次 牢囚數月 噫嘻痛矣 梗化防命之徒 從古何限 而豈有如此輩之違越君命 壞亂人紀者乎 揆以王章 合置何辟 在昔錮官之日 初無枳鄉之事目 而鄉人之禁錄 何其易也 見今署清之日 又有聖教之嚴明 而儒林之通錄 何其難也 今則通於上 而未通於下 伸於大 而未伸於小 其冤尤倍於未通之前矣 說之者曰 朝著旣通 何必呶呶於鄉黨校院云爾 而此則不然 校院者 禮義相先之地也 鄉黨者 官府贊政之所也 習禮義學政教 爲他日立朝需用之資 則其可以任小而忽之哉 此誠正廟朝批旨若曰 儒任鄉任 足可爲薄試之階者 實淵鑑之燭於微細也 夫人家父母 同養赤子於一被之內 强者噬弱弱者被蹴 則爲父母者 亦豈安於心哉 臣等卽我殿下被中之弱子也 其爲陵轢 不啻噬蹴而已 則曷不號訴於君父之前乎 伏願殿下 俯垂鑑諒 亟令王府 以正其梗逆成命之罪 特下嚴旨 行會各道校院 鄉黨之諸任 斯速通行 獲參人類 歌詠聖澤之地 千萬至祝 不勝大願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 苟如疏辭 悖習可駭 令道臣一一詳查登聞

3) 일성록(日省錄)

■ 정조 8년(1784) 6월 5일(무자)

성정각(誠正閣)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예판(禮判)은 앞으로 나아오라.” 하고 내가 이르기를,

“어제 유생의 상소에서 청한 단산서원(丹山書院)에 사액(賜額)하는 일은 과연 어떠한가?” 하니 엄숙(嚴濩)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저번에 이미 여러 곳에 대해 허락해 주었으니 곳곳마다 윤희해 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근래 원우(院宇)들은 무덤이 있던 곳이라 하기도 하고 노년에 퇴거(退居)한 곳이라 하기도 하여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없으니 그 사이에 양정(良丁)을 잃게 되는 폐단도 없지 않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우탁의 서원을 안동(安東)에서 청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엄숙이 아뢰기를,

“들으니 무덤이 있던 곳이고 간혹 와서 거처하기도 하던 곳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서원을 창건하는 것은 주세붕(周世鵬) 때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니

엄숙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주세붕이 풍기 군수(豐基郡守)로 있을 때 처음 만들었는데 그 뒤로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따라 행하여 지금은 한 고을의 원우가 거의 10여 곳에 이릅니다.” 하고

김익은 아뢰기를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과 똑같이 하였으니 어찌 훌륭하고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만 본원의 폐단이 갖가지로 막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단산서원에 사액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땅할지 경들은 하나로 결론을 지어 아뢰라.” 하니

정존겸은 아뢰기를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이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조금 전에 예판이 아뢴 바가 옳습니다.” 하고

김익은 아뢰기를 “우재주(禹祭酒)는 실로 명성이 있으니 서원의 사액을 어떤 곳은 허락하고 어떤 곳은 허락하지 않는 데 있어 취사선택이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만 무덤이 있던 곳이 실로 이 서원뿐이라면 윤희해 주더라도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우리 조정의 선정(先正)이 노년에 퇴거한 곳으로서 사액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 될 곳이 있다면 한 결 같이 윤희하지 않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유학(儒學)을 존송하는 데 관계되는 일이니 다시 이치를 따져 초기(草記)하라.” 하였다.

2-4-2. 문헌 속의 소수서원

1) 시부(詩賦)

① 사(辭)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죽계사(竹溪辭) 3장(三章)	죽계지(竹溪誌):행록후(行錄後)	주세붕	
도동곡(道東曲) 9장(九章)	죽계지(竹溪誌):행록후(行錄後)	주세붕	

② 부(賦)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에서 주문공의<백록동부>에 차운함	죽계지(竹溪誌)	주세붕	
소수서원 시판의 주신재<백록동부에 차운함>부에 삼가 차운함	죽계선생문집 권1 (竹溪先生文集 卷1)	안희(安熹)	
백록동부에 차운함 [次白鹿洞賦]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壬辰 9월 24일
백운동부(白雲洞賦)	단곡선생문집 권1 (丹谷先生文集 卷1)	곽진(郭{山+晉})	
죽계부(竹溪賦)	연방세고 권4 약봉선생문집 (聯芳世稿 권4 : (藥峯先生文集)	김극일(金克一)	

③ 주세붕(周世鵬)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경렴정(景濂亭)	무릉잡고 권2 경렴정시판 (武陵雜稿 卷2 景濂亭詩板)	주세붕	
경렴정(景濂亭)	무릉잡고 권3 경렴정시판 (武陵雜稿 卷3 景濂亭詩板)	주세붕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무릉잡고 권3 (武陵雜稿 卷3)	주세붕	
백운동에서 우연히 읊음	무릉잡고 권3 원집 (武陵雜稿 卷3 原集)	주세붕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서원의 선비들에게 답함	운원잡록(雲院雜錄)	주세붕	
새 달력에 써서 백운동 선비들에게 보냄	무릉잡고 권3 원집 (武陵雜稿 卷3 原集)	주세붕	
백운동에서 박정자 승임에게 드림	무릉잡고 권2 원집 (武陵雜稿 卷2 原集)	주세붕	
백운동 원장 김중문에게 드림	무릉잡고 권3 별집 (武陵雜稿 卷3 別集)	주세붕	
이전 운자를 가지고 지어 원종의 선비들에게 보냄 3수	무릉잡고 권3 별집 (武陵雜稿 卷3 別集)	주세붕	

④ 이황(李滉)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차운함	경렴정시판 (景濂亭詩板)	이황	1610년
죽계서원	퇴계선생문집 권4 (退溪先生文集 卷4)	이황	
백운동서원 제생들에게 기유년(1549) 풍기읍에 부임한 뒤	시판(詩板)	이황	1549년
학궁시에 차운함	회헌실기 권5 (晦軒實記 卷5)	이황	
주경유가 보내온 시에 답함	퇴계선생문집 권1 (退溪先生文集 卷1)	이황	
죽계 남쪽 물가에 바위가 우뚝하게 서 있는데, 그 위를 평평하게 하여 대(臺)를 만들고 잣나무· 소나무·대나무를 심고 '취한대(翠寒臺)' 라 하였다. 시 한 수를 지어 함께 오른 벗들에게 보여주다.	운원잡록(雲院雜錄)	이황	1549년

⑤ 숙수사(宿水寺)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순흥 숙수사 누각에서	동문선 권14 (東文選 卷14)	노여 (魯瑬)	

⑥ 강회(講會)·거재(居齋)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학과 일로 서원에서 머물다가 헤어지면서 회포를 읊음	봉성세고 권2 (鳳城世稿 卷2)	금양순(琴養純)	
학과 일로 서원에 들어왔는데, 서형이 먼저 와서 내가 시를 읊기를 기다리므로 화답함	봉성세고 권9 (鳳城世稿 卷9)	금양순(琴養純)	
소수서원 강회에서 차운함	암계공유고 부록 (巖溪公遺稿 附錄)	김낙용(金落鏞)	
무신년에 백운동서원 제생들을 모아 강의를 들으면서 읊어 벗들에게 보임	정산선생문집 권1 (貞山先生文集 卷1)	김동진(金東鎭)	
소수서원 강회 이튿날 향음주례를 거행하고 운자를 내어 각각 읊음	白愚文集 卷1 (백우문집 권1)	김재로(金載璐)	
소수서원 강회 시에 차운함	모계문집 권1 (某溪文集 卷1)	김홍락(金鴻洛)	
소수서원 강회에서 2수	석강문집 부록 (石缸文集 附錄)	김훈(金堧)	
권주보의<백운동 서재 모임>시에 화답함	일포집 권1 (逸圃集 卷1)	박시원(朴時源)	
백운동서원에서 거재할 때 권사천 어른의 시에 차운함 신유년	남애집 권1 (南厓集 卷1)	서간발(徐幹發)	
백운동서원 서재에서 김백령 어른의 시에 차운함	남애집 권5 (南厓集 卷5)	서간발(徐幹發)	
입재하는 날 읊어 군자들에게 올림	구천문집 권9 (龜川文集 卷9)	서성렬(徐成烈)	
백운동서원 거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친구들이 계부에게 올린 시에 차운함	구천문집 권2 (龜川文集 卷2)	서성렬(徐成烈)	
근자에 들으니, 백운동서원의 학자금이 고갈되고 부채만 쌓여, 한 고을 사우들로서 애쓰지 않은 이가 없지만 강학을 계속할 자금이 없어 마침내 손을 쓰기가 어려웠는데, 홍노운(洪老雲) 어른이 마침 강임을 맡아 백방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힘을 다하여 보조하여 본소에 내려오던 빚 3백여 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니 참으로 선비다운 일이다. 드디어 읊시 한 수를 지어 그 사실을 기록하다.	운재유고 권10 (耘齋遺稿 卷10)	서재우(徐在愚)	
소수서원에서 거재할 때 삼가 우천 정공의 시에 차운함	오산문집 권1 (梧山文集 卷1)	서창재(徐昌載)	庚子冬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 강회 익일 향약을 행할 때의 운자로 읊음	송사문집 권1 (松史文集 卷1)	송해익(宋海翼)	
백운동서원 강학 향음주례에서 차운함	죽하유고 권1 (竹下遺稿 卷1)	안두연(安斗演)	
삼가 소수서원 강학 시에 차운함	괴촌유고(槐村遺稿)	안상봉(安相鳳)	
밤새도록 서재에서 증전(曾傳)을 통독하고 창으로 먼동이 틀 때에 감회에 젖어 한 수 읊음	사암세고(沙庵世稿)	이관도(李寬燾)	
백운동서원 강회 때에 성신녕(成新寧), 감곡의 진사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함	신촌문집 권1 (新村文集 卷1)	이기룡(李基隆)	
관아 서재에서 회포와 함께 면학의 뜻을 서술하여 백운동 문회의 여러분께 보냄	운원잡록(雲院雜錄)	이준(李峻)	1613년
백운동서원 서재에서 여러 선비들에게 지어 보임	우천선생문집 권2 (牛川先生文集 卷2)	정옥(鄭玉)	
성회숙의 <백운동서원 거재>시에 차운함	춘추유고(春秋遺稿)	정이간(鄭易簡)	
삼가 재중에 올림	잡록d(雜錄d)	정중원(鄭重元)	
백운동서원 강회에 초대받고 참석하지 못하여 운자를 듣고 삼가 화답함	강소잡록(講所雜錄)	조병상(趙秉相)	
삼가 갑술년 11월 일 장진사의<서재 유생들에게 공부를 권면함>시에 차운하여 군자들에게 올림	소수서원입원록 (紹修書院入院錄)	황경(黃敬)	
졸작 4운 2수를 지어 재중에 화답을 구함	잡록k(雜錄k)	권미보(權美甫) 외	
강회 수창록	강소잡록(講所雜錄)	이가순(李家淳) 외	
삼가 백록동강회(白鹿洞講會)의 시에 차운함	강소잡록(講所雜錄)	강운(姜標) 외	
백운동서원 서재에 유숙하며 읊음	강소잡록(講所雜錄)	이백용(李伯用) 외	

⑦ 백운동(白雲洞)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白雲洞)	입재선생문집 권1 (立齋先生文集 卷1)	강재항(姜再恒)	
금언강(琴彦康)의<숙백운동(宿白需同)>시에 차운하여 선비들과 수창함	태촌선생문집 권1 (泰村先生文集 卷1)	고상안(高尚顔)	
영월군 서생 엄신에게 지어 줌 서문과 함께	단곡선생문집 권1 (丹谷先生文集 卷1)	곽진(郭山晉)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죽계 사또 채중미와 이이달이 편지를 보내 불러 백운동에서 모였기에, 지어 좌중에 보임	창설재선생문집 권3 (蒼雪齋先生文集 卷3)	권두경(權斗經)	
또 백운동에서 자고 새벽에 눈을 바라보며	창설재선생문집 권6 (蒼雪齋先生文集 卷6)	권두경(權斗經)	
백운동에서 묵으며 비오는 소리를 듣고	창설재선생문집 권6 (蒼雪齋先生文集 卷6)	권두경(權斗經)	
백운동에서 회암선생의 백록동 시에 차운함	이재집 권1 (頤齋集 卷1)	권연하(權璉夏)	
백운동에서 이현령(李玄齡)의 시에 차운함	평암선생문집 권1 (平庵先生文集 卷1)	권정침(權正忱)	
백운동에서 시판의 시에 차운함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백운동에서 성근원(成謹元)·신녕김공의(新寧金公)과 함께 《무릉집(武陵集)》의 시에 차운함	봉성세고 권9 (鳳城世稿 卷9)	금필항(琴必恒)	
백운동에서 지어 제군들에게 보여줌	정산선생문집속집 권1 (貞山先生文集續集 卷1)	김동진(金東鎭)	
다시 백운동을 찾아서	백남선생문집 권1 (白南先生文集 卷1)	김시빈(金始鎭)	
백운동에서 호재의 시에 차운함	유일재선생실기 권1 (惟一齋先生實記 卷1)	김언기(金彦璣)	
백운동	노원집만록 권2 (魯園集漫錄 卷2)	김철수(金喆銖)	
백운동에서 묵으며	대관재문집 권1 (大觀齋先生文集 卷1)	김회진(金晦鎭)	
백운동 선비들과 이별하며	운원잡록(雲院雜錄)	노홍중(盧弘中)	1605년
백운동 7월 16일 모임에서 장로의 시에 차운함	구천문집 권1 (龜川文集 卷1)	서성렬(徐成烈)	
삼가 백운동 기로회 시에 차운함	동사유고 권4 (東沙遺稿 卷4)	서재무(徐在懋)	
백운동 세 글자를 운자로 나누어 읊음	동거집 권1 (東渠集 卷1)	송정환(宋鼎鎭)	
백운동에서 모임의 시에 차운함	구계선생문집 권1 (鷗溪先生文集 卷1)	신완(申完)	
재차 백운동에 들어와서	죽운유고 권1 (竹雲遺稿 卷1)	안병대(安秉大)	
백운동에서 유숙할 때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청산유고 권1 (聽山遺稿 卷1)	안술연(安琬淵)	
백운동에서 김학사 어른·김상사매수 어른 이주서 어른과 시판의 시에 차운함	죽남문집 권1 (竹南文集 卷1)	안치묵(安致默)	
백운동 도중에서	호고설선생문집 권1 (好古謫先生文集 卷1)	유휘문(柳徽文)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 동유록의 시에 차운함	남천문집 권1 (南川文集 卷1)	이도묵(李道默)	
백운동서원 계회 자리에서 조태공·문장선과 함께 번민을 떨치며	남천문집 권1 (南川文集 卷1)	이도묵(李道默)	
백운동	신암문집 권1 (愼庵文集 卷1)	이만각(李晩愨)	
백운동	광뢰문집 권1 (廣賴文集 卷1)	이야순(李野淳)	壬午
백운동에서 우연히 읊음	개곡집 권1 (開谷集 卷1)	이이송(李爾松)	戊子
백운동에서 놀며	이류재문집 권1 (二柳齋文集 卷1)	이중수(李中洙)	甲辰
백운동	몽양재선생문집 권1 (蒙養齋先生文集 卷1)	이화익(李華翊)	
백운동에서 장로의 시에 차운함	우천선생문집 권1 (牛川先生文集 卷1)	정옥(鄭玉)	
삼가 퇴계선생의 백운동 시에 차운함	수구재집 권1 (守口齋集 卷1)	주맹헌(周孟獻)	
백운동에서	지암선생문집 권1 (止菴先生文集 卷1)	황영조(黃永祖)	
백운동에서 감회에 젖어	오선실기 (五汕實紀)	황종락(黃鍾樂)	

⑧ 소수서원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소수서원에서 제공들과 수창함	정사재집 권1 (靜思齋集 卷1)	강도희(姜道熙)	
소수서원 열 경치를 읊음	면우선생문집 권1 (僊宇先生文集 卷1)	곽종석(郭鍾錫)	
삼가 창석정에 드림	단곡집 권1(丹谷集 卷1)	곽진(郭山晉)	
제생들에게 보임	단곡집 권1(丹谷集 卷1)	곽진(郭山晉)	
백운동서원을 찾은 수재들을 보내며	단곡집 권1(丹谷集 卷1)	곽진(郭山晉)	
백운동서원 서재에서 이군수에게 드림	단곡집 권1(丹谷集 卷1)	곽진(郭山晉)	
백운동서원 벽에 걸린 상국 조사수(趙士秀)의 시에 차운함	단곡집 권1(丹谷集 卷1)	곽진(郭山晉)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서현(西峴) 어른이 백운동서원 원장이 되었다가 세모에 소임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섭섭함을 이기지 못하여 한 수 지어 올리다.	단곡집 권2(丹谷集 卷2)	곽진(郭山晉)	
백운동서원 연회석에서 지어 청풍자정윤목에게 드림	단곡집 권2(丹谷集 卷2)	곽진(郭山晉)	
서재의 제생들이 다 떠나고 문(文)·허(許) 세 아동만 남아서 새해를 맞이함	단곡집 권2(丹谷集 卷2)	곽진(郭山晉)	
이여흠의 백운동 서창에 보내 아울러 함께 지내는 벗들에게 보임	단곡집 권2(丹谷集 卷2)	곽진(郭山晉)	
이수응 김순도 김순우 벗들과 소백산을 유람하면서 백운동서원에서 묵음	사상세고 권1 (砂上世稿 卷1)	권태춘(權泰春)	
백운동서원에서 남경상의 세 절구 시에 차운함	성재선생문집 권1 (惺齋先生文集 卷1)	금난수(琴蘭秀)	
정유년 7월 보름날 영사의 모임을 마치고 백운동으로 들어가 여러 친구들과 달구경을 하며 시를 지었는데, 가은 성공이 병인년에 지은<기망에 경험정에서 놀며> 시 운자로 읊음	봉성세고 권10 (鳳城世稿 卷10)	금상렬(琴尙烈)	
문회 일로 백운동에 와서 묵었는데, 서상사가 먼저 주선생의 <축융봉>시 운자로 청하므로 줄렬함 을 잊고 지어 올림	봉성세고 권9 (鳳城世稿 卷9)	금양순(琴養純)	
작별하면서 <축융봉 하산>시에 차운함	봉성세고 권9 (鳳城世稿 卷9)	금양순(琴養純)	
백운동서원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어 주경유에게 올림	봉성세고 권1 (鳳城世稿 卷1)	금원정(琴元貞)	
백운동서원에서 복고(復古)와 파격(破格) 논쟁으로 40년 이래로 글 읽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지 금에 동주가 제생들의 윤차강독을 주창하여 어느새 직하(稷下)의 풍류를 이루었기에 기뻐서 지음.	문소세고 권21 (聞韶世稿 卷21)	김경찬(金景濂)	
행정축(行正軸) 가운데서 서애(西厓)의 시에 차운함	학봉유고 권1 (鶴峯遺稿 卷1)	김성일(金誠一)	
소수서원	성암문집 권1 (誠庵文集 卷1)	김세영(金世榮)	
백운동서원을 참배하고	죽하집 권2 (竹下集 卷2)	김익(金燧)	
백운동서원에서 벗들과 수창함	소암일고 권1 (小巖逸稿 卷1)	김준용(金駿鏞)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기해년(1599, 선조32) 맹춘 16일에 감사 한익지(韓益之)와 소수서원에서 유생들의 백일장을 여는 일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날 아침에 구고(九臯)에서 새벽밥을 먹고 출발하여 시내를 따라 말을 타고 왔다.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고 响와 골짜기가 기이하여 마치 무우에서 바림을 쏘이고 시를 읊으며 돌아오는 기상을 느꼈다. 이에 7언절구를 읊어 익지에게 올리고 겸하여 풍기군수 이육(李堧) 찰방 하수일(河受一), 원장 민흥업(閔興業) 제군에게 보이고 화답을 구하다.	조성당선생문집 권2 (操省堂先生文集 卷2)	김택룡(金澤龍)	
백운동서원 회화	미호세고 권1 (眉湖世稿 卷1)	김화중(金華重)	
백운동서원에서 묵으며 강순오훈·김순도·창순·문거중두·순우흥기와 더불어 운자를 내어 읊음	대관재문집 권1 (大觀齋文集 卷1)	김회진(金晦鎭)	
백운동서원에 들어가서	과양세고 권1 (過養世稿 卷1)	박로(朴璐)	
박승건(朴承健) 시와 발문	운원잡록(雲院雜錄)	박승건(朴承健)	
소수서원에서 모임의 운자로 읊음	성암문집 권1 (誠庵文集 卷1)	박종후(朴宗垆)	
백운동서원에서 단곡 곽참봉진의 시에 차운함	금은유집(琴隱遺集)	박희문(朴希文)	
백운동서원에 들리	임연재문집 권1 (臨淵齋文集 卷1)	배삼익(裵三益)	
백운동서원 기망 모임에서 삼가 천사 권익휴 어른, 가는 어른 등의 시에 차운함	남애집 권1(南厓集 卷1)	서간발(徐幹發)	
백운동서원에서 벗들의 시에 차운함	눌헌문집 권1 (訥軒文集 卷1)	서성구(徐聖耆)	
백운동서원에서 《무릉집》시에 차운함 임오년	눌헌문집 권1 (訥軒文集 卷1)	서성구(徐聖耆)	
백운동서원에서 함께 놀며 지은 연구	눌헌문집 권1 (訥軒文集 卷1)	서성구(徐聖耆)	
백운동서원에서 좌중의 시에 차운함	눌헌문집 권1 (訥軒文集 卷1)	서성구(徐聖耆)	
새해 초에 백운동서원에서 벗들과 수창함	눌헌문집 권2 (訥軒文集 卷2)	서성구(徐聖耆)	
날이 조금 개어 백운동서원에 이르러	구천문집 권2 (龜川文集 卷2)	서성렬(徐成烈)	
백운동서원 맑은 밤에	구천문집 권3 (龜川文集 卷3)	서성렬(徐成烈)	
백운동서원에 홀로 앉아 그분을 생각함	동사유고 권5 (東沙遺稿 卷5)	서재무(徐在懋)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서원의 회의 내용을 전해 들으니 “봄부터 9월 초하루까지 분향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석되 로 분배하고 묘직의 아침 식량도 함께 넣었으며, 기타 전장록·심진록은 우선 궤에 넣어 보관하였다: 하였다. 서원 재정이 고갈되고 이전의 부채가 많아진 것을 이를 통하여 상상할 수 있다. 다만 서원 설립 후 3백여 년이 지난 지금에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니 선비의 의관을 한 자로 서 남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병고에 시달리며 궁색하게 사느라 문밖에도 나가지 못하는데, 처음 이런 소식을 들으니 두려운 마음이길 수 없다.	운재유고 권9 (耘齋遺稿 卷9)	서재우(徐在愚)	
원중의 벗들에게 드림	잡록 (雜錄b)	성진(成璿)	
백운동서원에서 김헌남의 시에 차운함	화당선생집 권2 (化堂先生集 卷2)	신민일(申敏一)	
백운동서원에서	잡록 (雜錄a)	안경(安敬)	1630년
소수서원 배울	매담시고 권1 (梅潭詩稿 卷1)	안공신(安公信)	
선조 소수서원을 참배하고 서원은 백운동에	낙은유고 권2 (樂隱遺稿 卷2)	안교달(安敎達)	
소수서원을 참배하고	죽남유고 권1 (竹南遺稿 卷1)	안구련(安龜鍊)	
백운동서원	의암집 권2 (宜庵集 卷2)	안덕문(安德文)	
백운동서원에 입재한 날 우연히 읊다	죽하유고 권1 (竹下遺稿 卷1)	안두연(安斗연)	
계축년 9월에 소수서원 원장이 되어 석전례를 올리고 파재하는 날 지어 행사를 주관한 분들에게 보임	눌헌문집 권1 (訥軒文集 卷1)		
삼가 관찰사 조사수의 소수서원 시판의 운자로 읊음	죽계선생문집 권1 (竹溪先生文集 卷1)	안희(安熹)	
백운동서원	월곡집 권4 (月谷集 卷4)	오원(吳瑗)	
운원에서 밤에 이야기하며	신촌문집 권1 (新村文集 卷1)	이기룡(李基隆)	
백운동서원에서 세알할 때 신사군(申使君)의 시에 차운함 경술년	신촌문집 권1 (新村文集 卷1)	이기룡(李基隆)	
백운동서원의 모임 자리에서 진사 신사중진하의 시에 차운함	신촌문집 권1 (新村文集 卷1)	이기룡(李基隆)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서원에서 신사군의 시에 차운함	신촌문집 권1 (新村文集 卷1)	이기룡(李基隆)	
달밤 백운동서원에서	신촌문집 권1 (新村文集 卷1)	이기룡(李基隆)	
기해년 초여름 백운동에 있을 때 안이득(安而得)이 돌아온다고 하고 권응해(權應諧)가 뒤이어 왔기에 재미삼아 읊다.	취사문집(炊沙文集)	이여빈(李汝蘋)	
백운동서원에서 창설재 권공두경의 시에 차운함	백은문집 권1 (白隱文集 卷1)	이진만(李鎭萬)	
이송사적의의 시에 차운함	백은문집 권1 (白隱文集 卷1)	이진만(李鎭萬)	
서원에서 달방에 박석지천주·전석이와 모여 이야기함	백은문집 권1 (白隱文集 卷1)	이진만(李鎭萬)	
백운동서원 사마회에서 좌중의 시에 차운함	백은문집 권1 (白隱文集 卷1)	이진만(李鎭萬)	
백운동서원에서 신사군의 시에 차운함	백은문집 권1 (白隱文集 卷1)	이진만(李鎭萬)	
백운동서원에서 오동나무에 달이 떠 아우진화의 시에 차운함	백은문집 권1 (白隱文集 卷1)	이진만(李鎭萬)	
새벽에 백운동서원을 참배하고	퇴옹선생문집 권9 (退翁先生文集 卷9)	이헌경(李獻慶)	
백운동서원에서 옛날 감회에 젖어	몽양재선생문집 권3 (蒙養齋先生文集 卷3)	이화익(李華翊)	
백운동서원에서 참봉 정중원의 시에 차운함	석문시고 권1 (石門詩稿 卷1)	장후상(張后相)	
백운동서원에서 이산서원의 시 운자로 읊음	석문시고 권1 (石門詩稿 卷1)	장후상(張后相)	
백운동서원 산장 한희경에게 드림	어주선생문집 권1 (漁洲先生文集 卷1)	전오륜(全五倫)	
백운동서원에서 신앙천의 시에 차운함	우천선생문집 권2 (牛川先生文集 卷2)	정옥(鄭玉)	
임자년 청화절에 친구들과 백운동서원에서 모임을 갖고 운자를 내어 서로 화답함	춘추유고(春秋遺稿)	정이간(鄭易簡)	
서원에서	지락재 시판 (至樂齋 詩板)	조사수(趙士秀)	
백운동서원에서 제생들에게 지어 보임	오죽재집 권4 (梧竹齋集 卷4)	조의양(趙宜陽)	
풍기에서 백운동서원을 찾아서	오산집 권7 (五山集 卷7)	차운로(車雲輅)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서원을 찾아서	오산집 권8 (五山集 卷8)	차운로(車雲輅)	
삼월 삼짓날 백운동서원에서 박산장에게 올림	추월당문집 권1 (秋月堂文集 卷1)	한산두(韓山斗)	
백운동서원에서 친구를 이별함	추월당문집 권1 (秋月堂文集 卷1)	한산두(韓山斗)	
백운동서원에서 수재들에게 줌	추월당문집 권1 (秋月堂文集 卷1)	한산두(韓山斗)	
홀로 우두커니 백운동서원 서재에 앉아 읊음	노운집 권1 (老雲集 卷1)	홍전(洪堅)	
백운동서원에서 수창함	노운집 권1 (老雲集 卷1)	홍전(洪堅)	
거재하는 중에 비가 내려 심히 무료하기에 장 난삼아 운원잡영 14수를 지음	노운집 권1 (老雲集 卷1)	홍전(洪堅)	
백운동서원으로 가는 객대옹을 전송하며	금계선생문집 권1 (錦溪先生文集 卷1)	황준량(黃俊良)	

⑨ 문성공묘(文成公廟)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문성공 사당을 참배하고 회암의 시에 차운함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백운동에서 공자의 영정과 문성공 사우를 참배 하고 감회를 읊음	나암유고(羅巖遺稿)	박주대(朴周大)	
회현선조 사당을 참배하고 서원 시판의 시에 차운함	매담시고 권1 (梅潭詩稿 卷1)	안공신(安公信)	
회현선조 사당을 참배하고	국포유고(菊圃遺稿)	안병용(安秉鎔)	
순흥 백운동서원에서 문성공 회현선생의 사당을 참배하고	삽교집 권1 (雪橋集 卷1)	안석경(安錫敬)	

⑩ 이항의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시제생(示諸生)」 시에 차운한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소수서원에서 삼가 시판의 노선생 시에 차운함	면우선생문집 권1 (勉宇先生文集 卷1)	곽종석(郭鍾錫)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퇴계선생 명륜당 시에 차운함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에서 삼가 노선생(老先生)의 시에 차운함	봉성세고 권2 (鳳城世稿 卷2)	금양순(琴養純)	
백운동에서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노원집만록 권2 (魯園集漫錄 卷2)	김철수(金喆銖)	
소수서원 서재에서 삼가 퇴도선생 시판의 시에 차운함	남애집 권5 (南厓集 卷5)	서간발(徐幹發)	
소수서원에서 퇴계선생 시판의 시에 차운함	야계선생문집 권1 (椰溪先生文集 卷1)	송희규(松希圭)	
삼가 소수서원 경령정 시판의 시에 차운함	임천유고 권1 (瀍川遺稿 卷1)	안광진(安光鎭)	
순흥 명륜당 시판의 시에 차운함	임천유고 권1 (瀍川遺稿 卷1)	안광진(安光鎭)	
소수서원을 참배하고 삼가 시판의 매담(梅潭) 안공신(安公信)선조의 시에 차운함	낙은유고 권2 (樂隱遺稿 卷2)	안교달(安敎達)	
소수서원에서 삼가 퇴계선생 시판의 시에 차운함	죽남유고 권1 (竹南遺稿 卷1)	안구련(安龜鍊)	
삼가 퇴계선생 시판의 시에 차운함	죽남유고 권1 (竹南遺稿 卷1)	안구련(安龜鍊)	
백운동서원에서 퇴계선생의 시에 차운함	송암유고 권1 (松巖遺稿 卷1)	안숙(安璠)	
명륜당 시판의 시에 차운함	청산유고 권1 (聽山遺稿 卷1)	안술연(安玟淵)	
백운동에서 삼가 시판(詩板)의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회현선조 사당을 참배하고 삼가 퇴계선생 소수서원 시판의 시에 차운함	삼수당문집 권1 (三翠堂文集 卷1)	안용호(安龍鎬)	
소수서원에서 삼가 퇴계선생 시판의 시에 차운함	동오선생문집 권1 (桐塢先生文集 卷1)	안처택(安處宅)	
또 삼가 시판의 시에 차운함	동오선생문집 권1 (桐塢先生文集 卷1)	안처택(安處宅)	
백운동 사당의 시에 차운함	양곡집 권1 (陽谷集 卷1)	안태국(安泰國)	
삼가 퇴계선생의 소수서원 시판의 시에 차운함	죽계선생문집 권1 (竹溪先生文集 卷1)	안희(安憲)	
삼가 차운함	지락재 시판 (至樂齋 詩板)	윤탁연(尹卓然)	
백운동서원에서 삼가 시판의 선조 시에 차운함	동전집 권1 (東田集 卷1)	이중균(李中均)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삼가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흥주지 권1 (興州誌 卷1)	이한응(李漢膺)	
명륜당 시에 차운함	운원잡록(雲院雜錄)	장응선(張應旋)	
명륜당에서 삼가 퇴도선생의 시에 차운함	지암선생문집 권1 (止菴先生文集 卷1)	황영조(黃永祖)	
삼가 차운함	강소잡록(講所雜錄)	강운(姜櫟)	
시판(詩板)의 퇴계선생 시에 삼가 차운함	급산문집 권3 (岾山文集 卷3)	안영호(安永鎬)	

⑪ 직방재(直方齋)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직방재 명	급산문집 권3 (岾山文集 卷3)	안영호(安永鎬)	
직방재(直方齋)	잡록d(雜錄d)	정중원(鄭重元)	

⑫ 지락재(至樂齋)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창석(蒼石) 선생 시판의 시에 삼가 차운함	지락재 시판 (至樂齋 詩板)	강침(姜忱)	
지락재에서 창석을 따라 놀던 패를 회상하며 읊음	단곡집 권2 (丹谷集 卷2)	곽진(郭{山+晉})	
제생들이 지락재에서 글을 짓고 있을 때 절구한 수를 지어 공직에게 보여줌	단곡선생문집 권1 (丹谷先生文集 卷1)	곽진(郭{山+晉})	
삼가 백운동서원 산장 한사첨 형에게 드림	단곡선생문집 권1 (丹谷先生文集 卷1)	곽진(郭{山+晉})	
이날 백운동서원에 들어가 지락당에서 자면서 벽상의 시에 차운함	망와집 권2 (忘窩集 卷2)	김영조(金榮祖)	
삼가 지락재 시판의 시에 차운함	심원록(尋院錄)	노성순(盧性純)	
지락재 명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지락재 시 운자로 읊어 허겸지달에게 줌	덕은문집 권1 (德隱文集 卷1)	여대표(呂大驪)	
백운동 지락재에서 회포를 읊어 군자들에게 드림	개곡집 권1 (開谷集 卷1)	이이송(李爾松)	

⑬ 일신재(日新齋)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일신재 명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박응숙(朴應淑)·홍극소(洪克紹)서경원(徐景遠)과 일신재에 앉아서 신(新) 자 운으로 읊음	사암세고(沙庵世稿)	이관도(李寬燾)	

⑭ 전사청(典祀廳)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전사청 진설도판. 이공의<구곡(九曲)> 시에 차운함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⑮ 장서각(藏書閣)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장서각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⑯ 동몽재(童蒙齋)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동몽재 명	급산문집 권3 (岾山文集 卷3)	안영호(安永鎬)	

⑰ 지도문(志道門)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지도문 명	급산문집 권3 (岾山文集 卷3)	안영호(安永鎬)	

⑩ 경렴정(景濂亭)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경렴정 시판의 시에 차운함	정사재집 권1 (靜思齋集 卷1)	강도희(姜道熙)	
삼가 차운함	경렴정 시판 (景濂亭 詩板)	강침(姜忱)	
소백산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백운동 경렴정에 모여, 참판 황참판(黃參判)·김경진(金景鎭)·곽단곡(郭丹谷)·금호여(琴曙如)와 더불어 수창함	태촌선생문집 권2 (泰村先生文集 卷2)	고상안(高尚顔)	
경렴정에서 시판의 시에 차운함	면우선생문집 권1 (旼宇先生文集 卷1)	곽종석(郭鍾錫)	
경렴정에서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계서집 권2 (溪西集 卷2)	권규도(權奎度)	
경렴정에서 주신재의 시에 차운함	평암선생문집 권1 (平庵先生文集 卷1)	권정침(權正忱)	
경렴정 시에 차운함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경렴정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경렴정 시에 차운함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백운동 경렴정 시판의 시에 차운함	계암세고(溪巖世稿)	김은집(金殷楫)	
경렴정	운원잡록(雲院雜錄)	김경운(金慶雲)	
백운동 경렴정 시에 차운함	노노재선생문집 권1 (魯魯齋先生文集 卷1)	김만휴(金萬休)	
백운동 경렴정 시판의 시에 차운함	경재유고(敬齋遺稿)	김상효(金相孝)	
경렴정 시에 차운함	고암문집 권1 (古巖文集 卷1)	김세락(金世洛)	
경렴정	성암문집 권1 (誠庵文集 卷1)	김세영(金世榮)	
경렴정에서 삼가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동야집 권2 (東埜集 卷2)	김양근(金養根)	
차운함	죽계집(竹溪集)	김엽(金曄)	
경렴정에서 판상의 퇴어공 시에 차운함	나운자초학집 (蘿雲子初學集)	김영직(金永稷)	
백운동 경렴정에서 삼가 벽상의 퇴도선생 시에 차운함	미호집 권1 (溪湖集 卷1)	김원행(金元行)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삼가 차운함	경렴정시판 (景濂亭詩板)	김응조(金應祖)	
경렴정에 올라 판상의 시에 차운함	죽하집 권3 (竹下集 卷3)	김익(金燧)	
삼가 경렴정 판상의 시에 차운함	소암일고 권1 (小巖逸稿 권1)	김준용(金駿鏞)	
경렴정 차운	지락재 시판 (至樂齋 詩板)	김진우(金鎭雨)	
경렴정	노원집만록 권2 (魯園集漫錄 卷2)	김철수(金喆銖)	
백운동에서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노원집만록 권2 (魯園集漫錄 卷2)	김철수(金喆銖)	
경렴정	지산집 권1 (芝山集 卷1)	김팔원(金八元)	
경렴정에서 삼가 시판의 시에 차운함	대관재문집 권1 (先生文集 卷1)	김회진(金晦鎭)	
친구들과 경렴정에서 놀며	희재문집 권2 (希齋文集 卷2)	김휘준(金輝濬)	
삼가 차운함	경렴정시판 (景濂亭詩板)	노경린(盧景麟)	
경렴정 시에 차운함	잡록(雜錄 b)	도처형(都處亨)	
백운동에서 삼가 신재 주선생의 시에 차운함	회역당집 권1 (悔易堂集 卷1)	박한(朴王旱)	
이의가와 함께 경렴정에 올라 시판의 시에 차운함	수간문집 권1 (守磻文集 卷2)	배선원(裴善源)	
비 온 뒤에 경렴정에서 시판의 시에 차운함	남애집 권1 (南厓集 卷1)	서간발(徐幹發)	
경렴정에서 채부사의<일송집 시에 차운함>시에 화답함	눌헌문집 권1 (訥軒文集 卷1)	서성구(徐聖耆)	
경렴정	구천문집 권9 (龜川文集 卷9)	서성렬(徐成烈)	
경렴정에서 삼가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정재집 권1 (貞齋集 卷1)	서정옥(徐廷玉)	
삼가 경렴정 벽 위의 시에 차운함	오산문집 권1 (梧山文集 卷1)	서창재(徐昌載)	
삼가 차운함	지락재 시판 (至樂齋 詩板)	성이민(成以敏)	
백운동에서 삼가 경렴정 시에 차운함	우당문집 권1 (愚堂文集 卷1)	송세호(宋世鎬)	
삼가 경렴정 시에 차운함	동거집 권1 (東渠集 卷1)	송정환(宋鼎鉉)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경렴정에서 황주부의 시에 차운함	동거집 권1 (東渠集 卷1)	송정환(宋鼎鎭)	
삼가 경렴정 시에 차운함	잡록 (雜錄a)	신경윤(愼景尹)	
경렴정에서 벽 위의 시에 차운함	저촌선생유고 권8 (樗村先生遺稿 卷8)	심육(沈鎭)	
경렴정에서 시판의 시에 차운함	쌍매당유고 권1 (雙梅堂遺稿 卷1)	안경직(安慶稷)	
차운함	지락재 시판 (至樂齋 詩板)	안공신(安公信)	
경렴정에서 삼가 시판의 시에 차운함	낙은유고 권1 (樂隱遺稿 卷1)	안교달(安敎達)	
삼가 경렴정 시판의 시에 차운함	죽남유고 권1 (竹南遺稿 卷1)	안구련(安龜鍊)	
갑자년 세모 전에 군수 안군수 경렬과 함께 소수서원 경렴정에 올라	죽운유고 권1 (竹雲遺稿 卷1)	안병대(安秉大)	
경렴정에 올라 판상의 시에 차운하여 읊음	죽운유고 권1 (竹雲遺稿 卷1)	안병대(安秉大)	
경렴정에 올라 시판의 시에 차운함	청산유고 권1 (聽山遺稿 卷1)	안솔연(安玟淵)	
정자에 기대어 홀로 읊음	청산유고 권1 (聽山遺稿 卷1)	안솔연(安玟淵)	
경렴정 중수 낙성식 시에 차운함	청산유고 권1 (聽山遺稿 卷1)	안솔연(安玟淵)	
경렴정에서 삼가 시판의 시에 차운함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경렴정에 올라 삼가 신재선생 시에 차운함	삼수당문집 권1 (三翠堂文集 卷1)	안용호(安龍鎬)	
경렴정에 올라	삼수당문집 권1 (三翠堂文集 卷1)	안용호(安龍鎬)	
경렴정에서 시판의 시에 차운함	도천선생문집 권1 (陶川先生文集 卷1)	안유상(安有商)	
경렴정	흥주지 권2 (興州誌 卷2)	안정선(安廷善)	
참가 경렴정 시판의 시에 차운함	동오선생문집 권1 (桐塢先生文集 卷1)	안처택(安處宅)	
경렴정에서 한 수 읊음	죽남문집 권1 (竹南文集 卷1)	안치묵(安致默)	
차운함	경렴정시판 (景濂亭詩板)	안현(安珉)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경렴정	운원잡록 (雲院雜錄)	양사기(楊士奇)	
경렴정에서 삼가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덕은문집 권1 (德隱文集 卷1)	여대표(呂大驪)	
삼가 차운함	운원잡록 (雲院雜錄)	오건(吳健)	
삼가 경렴정 시판의 시에 차운함	시판 (詩板)	유세명(柳世鳴)	
백운동에서 주신재의<경렴정>시에 차운함	호고설선생문집 권1 (好古堯先生文集 卷1)	유휘문(柳徽文)	
삼가 차운함	지락재 시판 (至樂齋 詩板)	이감(李戡)	
백운동 경렴정 모경	성오당선생문집 권1 (省吾堂先生文集 卷1)	이개립(李介立)	
경렴정 시에 차운함	사암세고 (沙庵世稿)	이관도(李寬燾)	
밤에 여러 형들과 경렴정에 올라	사암세고 (沙庵世稿)	이관도(李寬燾)	
경렴정에 올라	신촌문집 권1 (新村文集 卷1)	이기룡(李基隆)	
경렴정에서 시판의 시에 차운함	계촌집 권1 (溪村集 卷1)	이도현(李道顯)	
경렴정 시판의 시에 차운함	신암문집 권1 (愼庵文集 卷1)	이만각(李晩愨)	
삼가 현인들의 시판의 시에 차운함	운원잡록 (雲院雜錄)	이세석(李世奭)	
차운함	죽계지 (竹溪誌)	이숙(李翹)	
경렴정 시에 차운함	취사문집 (炊沙文集)	이여빈(李汝蘋)	
소수서원에서 삼가 경렴정 시에 차운함	밀암선생문집 권1 (密菴先生文集 卷1)	이재(李栽)	
경렴정	우원집 권1 (尤園集 卷1)	이정국(李貞國)	
삼가 경렴정 시 운자로 읊음	운원잡록 (雲院雜錄)	이준(李埈)	
차운함	죽계지 (竹溪誌)	이준(李埈)	
경렴정에서 시판의 시에 차운함	동전집 권3 (東田集 卷3)	이중균(李中均)	
경렴정에서 삼가 두곡 홍선생 시판의 시에 차운함	효암문집 권1 (曉庵文集 卷1)	이중철(李中轍)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경렴정	흥주지 권1 (興州誌 卷1)	이한응(李漢膺)	
경렴정에서 삼가 시판의 시에 차운함	북애시집 권1 (北厓詩集 卷1)	이호의(李好意)	
경렴정	몽양재선생문집 권1 (蒙養齋先生文集 卷1)	이화익(李華翊)	
경렴정에서	몽양재선생문집 권1 (蒙養齋先生文集 卷1)	이화익(李華翊)	
퇴계선생의 백운동서원 경렴정 시에 차운함	만락헌유고 권1 (晩樂軒遺稿 卷1)	장석인(張錫寅)	
경렴정 시에 차운함	운원잡록 (雲院雜錄)	장응선(張應旋)	
차운함	흥주지 권2 (興州誌 卷2)	정각(鄭矯)	
삼가 경렴정 시에 차운하여 올림	잡록 (雜錄b)	정사신(鄭思愼)	
경렴정 시에 차운함	매계문집 권1 (梅溪文集 卷1)	정탁(鄭鐸)	
경렴정 위에서 상원 날 관등 시에 차운함	매계문집 권1 (梅溪文集 卷1)	정탁(鄭鐸)	
삼가 차운함	경렴정시판 (景濂亭詩板)	정한(鄭澣)	
소백산으로 가다가 백운동서원에서 묵으며 밤에 경렴정에	월천선생문집 권1 (月川先生文集 卷1)	조목(趙穆)	
경렴정	팔우헌집 권2 (八友軒集 卷2)	조보양(趙普陽)	
삼가 차운함	시판(詩板)· 운원잡록(雲院雜錄)	조육(趙昱)	
경렴정	오죽재집 권4 (梧竹齋集 卷4)	조의양(趙宜陽)	
밤에 백운동서원 경렴정에 올라 삼가 시판의 시에 차운함	희암선생집 권20 (希菴先生集 卷20)	채팽윤(蔡彭胤)	
삼가 차운함	경렴정시판 (景濂亭詩板) 운원잡록(雲院雜錄)	최옹(崔頤)	
경렴정	송정선생숙집 권1 (松亭先生續集 卷1)	하수일(河受一)	
경렴정에서 시판의 시에 차운함	약헌문집 권1 (約軒文集 卷1)	하용제(河龍濟)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경렴정 회화	줄암유고 권1 (拙菴遺稿 卷1)	허온(許溫)	
삼가 차운함	운원잡록 (雲院雜錄)	허진(許晉)	
멀리서 경렴정 시에 차운함	목재선생문집 권1 (穆齋先生文集 卷1)	홍여하(洪汝河)	
삼가 차운함	경렴정시판(景濂亭詩板) 두곡선생문집 권3 (杜谷先生文集 卷3)	홍우정(洪宇定)	
경렴정에서 삼가 벽 위 선생의 시에 차운함	식암집 권1 (息庵集 卷3)	황섬(黃暻)	
삼가 차운함	경렴정시판 (景濂亭詩板)	황시(黃是)	
경렴정에서 삼가 선조 귀암선생 시판의 시에 차운함	지암선생문집 권1 (止菴先生文集 卷1)	황영조(黃永祖)	
삼가 차운함	시판(詩板) 송간선생문집 권2 (松澗先生文集 卷2)	황응규(黃應奎)	
경렴정 가을	송간선생문집 권2 (松澗先生文集 卷2)	황응규(黃應奎)	
삼가 경렴정 판상의 시에 차운함	대계유고 권1 (大溪遺稿 卷1)	황재영(黃在英)	
경렴정 시에 차운함	경렴정시판(景濂亭詩板) 금계선생문집 권1 (錦溪先生文集 卷1)	황준량(黃俊良)	
차운함	시판 (詩板)	황효공(黃孝恭)	
기미년 3월 29일 꽃 구경을 하며	강소잡록 (講所雜錄)	강이원(姜履元)	1799년

⑩ 제월루(霽月樓)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제월루를 낙성하고 읊음(樓成戲吟)	잡록(雜錄)	이이시(李以時)	
제월루를 낙성하고 읊음(樓成戲吟)	잡록(雜錄)	정선장(鄭善長)	
제월루를 낙성하고 읊음(樓成戲吟)	잡록(雜錄)	유중빈(柳仲賓)	

㉔ 경자바위[敬字石]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경자바위(敬字石)	노원집만록 권2 (魯園集謾錄 卷2)	김철수(金喆銖)	
이전 운자를 가지고 경자석을 읊음(疊前韻題敬字石)	수간문집 권1 (守澗文集 卷1)	배선원(裵善源)	
경석(敬石)	동사유고 권5 (東沙遺稿 卷5)	서재무(徐在懋)	
경석(敬石)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경암(敬巖)	성오당선생문집 권1 (省吾堂先生文集 卷1)	이개립(李介立)	

㉕ 취한대(翠寒臺)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취한대 시에 차운함(次翠寒臺)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취한대에서 읊어 호재 곽경함에 드림 (翠寒臺吟贈郭浩齋景含)	유일재선생실기 권1 (惟一齋先生實記 卷1)	김언기(金彦機)	
백운동에서 퇴계 선생 시에 차운함 (白雲洞次退溪先生)	노원집만록 권2 (魯園集謾錄 卷2)	김철수(金喆銖)	
취한대 밤 모임 시에 차운함(翠寒臺夜會韻)	눌헌문집 권2 (訥軒文集 卷2)	서성구(徐聖耆)	
취한대에서 지평 족형의 시에 차운함 (翠寒臺次持平族兄韻)	구천문집 권1 (龜川文集 卷1)	서성렬(徐成烈)	
취한대 경석 아래 깊은 못이 이루어져 있는 데, 옛날 늙은이들이 전하기를 신재가. (翠寒臺敬石下有深潭故老相傳慎齋...)	구천문집 권1 (龜川文集 卷1)	서성렬(徐成烈)	
취한대에서 놀며(遊翠寒臺)	동사유고 권5 (東沙遺稿 卷5)	서재무(徐在懋)	
취한대 시에 뒤이어 차운함(追和翠寒臺韻)	강소잡록 (講所雜錄)	성규로(成珪魯)	
취한대에서 퇴계 선생의 시에 차운함 (翠寒臺次退溪韻)	야계선생문집 권1 (倯溪先生文集 卷1)	송희규(宋希奎)	
취한대에서 삼가 퇴계선생 시에 차운함 (翠寒臺敬次退陶先生韻)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또 절구 한수를 지음(又吟一絶)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백운동 취한대에서 있는 일(白雲洞翠寒臺卽事)	성오당선생문집 권1 (省吾堂先生文集 卷1)	이개립(李介立)	
취한대(翠寒臺)	사암세고:사성재유고 권1 (沙庵世稿:思省齋遺稿 卷1)	이관도(李寬燾)	
취한대 수창(翠寒臺酬唱)	잡록(雜錄)	부사(府使)이명희 (李命熙)외 6명	
또 시판의 선조 취한대 시에 차운함 (又次板上先祖先生翠寒臺韻)	동전집 권3 (東田集 卷3)	이중균(李中均)	
삼가 취한대 시에 차운함(敬次翠寒臺韻)	백은문집 권1 (白隱文集 卷1)	이진만(李鎭萬)	
취한대에서 선택경의 시에 차운함 (翠寒臺次申澤卿)	白隱文集, 卷1 (백은문집 권1)	이진만(李鎭萬)	
친구들과 취한대에 앉아서 신재선생을 생각 하며(與諸友坐翠寒臺有懷愼齋先生)	월천선생문집 권1 (月川先生文集 卷1) / 운원잡록(雲院雜錄)	조목(趙穆)	
또 한 수(又)	운원잡록 (雲院雜錄)	조목(趙穆)	
남쪽으로 취한대에 내려와 지음(南下翠寒臺有作)	강소잡록 (講所雜錄)	서승열(徐承烈) 외 4인	

㉔ 광풍대(光風臺)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광풍대에서 지평 족형 승렬의 시에 차운함 (光風臺次持平族兄承烈韻)	구천문집 권1 (龜川文集 卷1)	서승열(徐承烈)	
광풍대(光風臺)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광풍대(光風臺)	성오당선생문집 권1 (省吾堂先生文集, 卷1)	이개립(李介立)	
광풍대(光風臺)	사암세고:사성재유고 권1 (沙庵世稿:思省齋遺稿, 卷1)	이관도(李寬燾)	
광풍대에서 장난삼아 읊음(光風臺戲題)	춘추유고 (春秋遺稿)	정이간(鄭易簡)	
삼월삼짓날 광풍대에서 놀며 친구들에게 지 어보임(重三遊光風臺示諸友)	추월당문집 권1 (秋月堂文集 卷1)	한산두(韓山斗)	
광풍대에서 한 잔 들며 읊음(光風臺小酌口呼)	강소잡록(講所雜錄)	서승열(徐承烈)외 4인	

㉓ 소혼대(消魂臺)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5월 보름날 비가 내린 뒤에 친구들과 함께 백운동을 유람하고 경령정에 올랐다가 이어서 소혼대로 향하다 (五月望日雨後携諸友白雲洞登景濂亭仍向消魂臺)	평암선생문집 권2 (平庵先生文集 卷2)	권정침(權正忱)	
소혼대 송별(消魂臺送別)	평암선생문집 권2 (平庵先生文集 卷2)	권정침(權正忱)	
중추에 백운동서원 소혼대에 올라 (雲院仲秋 登消魂臺)	남애집 권1 (南厓集 卷1)	서간발(徐幹發)	

㉔ 앙고대(仰高臺)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앙고대(仰高臺)	단곡선생문집 권3 (丹谷先生文集 卷3)	곽진(郭(山+晉))	

㉕ 탁영대(濯纓臺)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에 대를 쌓아 탁영이라 명명하고 두 수를 지어 남김(白雲洞築臺 命名濯纓 留題二首)	겸암선생문집 권1 (謙菴先生文集 卷1)	류운용(柳雲龍)	계사년
탁영대 시에 차운함 백운동서원에 있다 (次濯纓臺韻(在雲院))	희재문집 권2 (希齋文集 卷2)	김휘준(金輝濬)	
삼가 겸암선생의 탁영대 시에 차운함 (謹次謙菴先生濯纓臺韻)	덕은문집 권1 (德隱文集 卷1)	여대표(呂大驍)	

㉖ 영귀봉(靈龜峰)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영귀봉에 올라서	청산일고 권1 (聽山逸稿 卷1)	안솔연(安玳淵)	
영귀봉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제생이 나에게 『안부가요(按部歌謠)』 한 권을 보여 주었는데, 그 뜻이 새로운 것이 좋아 두세 번 읽어 보았다. 그러나 흥주(興州)의 영귀산 속수루도 그 경치가 팔경에 뒤지지 않는데도 빠뜨리고 읊지 않았기에 내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나의 사위 정생(鄭生)으로 하여금 절구 한 수를 짓게 하여 책 뒤에 붙여 나의 고향 산수의 수치를 씻게 하였다.	근재선생집 권2 (謹齋先生集 卷2)	정양생(鄭良生)	

㉓ 연화봉(蓮花峰)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연화봉(蓮花峰)	동사유고 권2 (東沙遺稿 卷2)	서재무(徐在懋)	
연화봉(蓮花峰)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㉔ 죽계(竹溪)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죽계음. 고시에 차운함. 2수	송암선생속집 권1 (松巖先生續集 卷1)	권호문(權好文)	
서구전에 함께 반계에서 놀며	봉성세고 권9 (鳳城世稿 卷9)	금양순(琴養純)	
죽계(竹溪)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죽계에서	신암문집 권1 (愼庵文集 卷1)	이만각(李晩愨)	
죽계팔경 뒤에 쓰다	금계선생문집 권6 (錦溪先生文集 卷6)	황준량(黃俊良)	
반계(磻溪)에서 광풍대(光風臺)의 운자로 다시 읊음	강소잡록 (講所雜錄)	강운(姜標) 외	
반계(磻溪)에서 저녁 무렵에 돌아오며	강소잡록 (講所雜錄)	서승렬(徐承烈) 외	
돌아오는 길에 호드기 소리를 듣고 죽석에서 읊음	강소잡록 (講所雜錄)	강운(姜標) 외	
마침 일이 있어 죽계구곡 유람에 참석하지 못하여 한스럽기 그지없다. 이에 절구 3수를 지어 동주(洞主) 이설서(李設書)에게 드림	강소잡록 (講所雜錄)	서간발(徐幹發)	
오언율시 1수, 칠언율시 2수를 읊어 하옹(霞翁)에게 화답을 청함	강소잡록 (講所雜錄)	서승렬(徐承烈)	

㉨ 제월교(霽月橋) 시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제월교를 지나며	창설재선생문집 권6 (蒼雪齋先生文集 卷6)	권두경(權斗經)	
제월교	급산문집 권1 (岾山文集 卷1)	안영호(安永鎬)	
제월교 도중에 읊음	백와집 건 (栢窩集 乾)	안희묵(安熙默)	
정월 대보름날 제월교에서 경자년	신촌문집 권1 (新村文集 卷1)	이기룡(李基隆)	

㉩ 잡영(雜詠)

문서명	출처	저자	연도
책장 명	잡록d (雜錄d)		
안상봉 존장이 백운동서원의 「역범도」를 수 리한 뒤에 감회를 시로 읊고 운자를 보여주 기에, 깊이 흠경하고 차운시를 지어 기념하였다. 장차 향내의 군자들에게 화답시를 짓게 하여 권중의 고사로 삼으려는 것이다.	지암선생문집 권1 (止菴先生文集 卷1)	황영조(黃永祖)	
소수서원 역범도 병풍 명	급산문집 권3 (岾山文集 卷3)	안영호(安永鎬)	
소수서원 강당 경독판 명	급산문집 권3 (岾山文集 卷3)	안영호(安永鎬)	
백운동에서 대나무를 감상하며	단곡선생문집 권1 (丹谷先生文集 卷1)	곽진(郭{山+晉})	
노승	동사유고 권8 (東沙遺稿 卷8)	서재무(徐在懋)	
백운동서원 소나무	백와집 건 (栢窩集 乾)	안희묵(安熙默)	
백운동서원 은행나무 시에 차운함	눌헌문집 권1 (訥軒文集 卷1)	서성구(徐聖耆)	
은행나무	동사유고 권5 (東沙遺稿 卷5)	서재무(徐在懋)	

2) 기문(記文)

기문명	출처	저자	연도
백운동 문성공 사당 기문 (白雲洞 文成公廟記)	죽계지(竹溪誌)	성세창(成世唱)	명종 1년(1545)
백운동 소수서원 기문(白雲洞紹修書院記)	죽계지 행록후 (竹溪誌:行錄後)	신광한(申光漢)	명종 5년(1550)
소수서원기(紹修書院記)	운원잡록 (雲院雜錄)	조징(趙澄)	
백운서원 중수기(白雲書院重修記)	잡록 (雜錄)	안홍정(安弘靖)	숙종 3년(1667)
동년 경술년 7월 일 원우 수리 때 기사 (洞年庚戌7月日院宇修理記事)	잡록 (雜錄)		영조 6년(1730)
계유년 정월 묘우 중수 기사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	소수서원묘우중수기 (紹修書院廟宇重修記)		순조 13년(1813)
소수서원묘우중수기(紹修書院廟宇重修記)	순흥안씨속수추원록 (順興安氏續修追遠錄)	이의덕(李義惠)	1934년
묘우중수기(廟宇重修記)	잡록 (雜錄)	유종흠(柳宗欽)	광무 4년(1900)
소수서원 중수기(紹修書院重修記)	삼취당문집 (三翠堂文集)	안용호(安龍鎬)	
신해년 3월 일 명륜당(明倫堂) 기와를 다시 이은 기사(辛亥三月日明倫堂改瓦事)	잡록 (雜錄)		정조 15년(1791)
일신재 중건기(日新齋重建記)	잡록 (雜錄)	성언근(成彦根)	
일신재 중수 기사(日新齋重修記事)	잡록 (雜錄)		순조 5년(1805)
지락재기(至樂齋記)	단곡선생문집 (丹谷先生文集)	곽진(郭 山+晉)	
지락재중수기(至樂齋重修記)	잡록 (雜錄)	성언근(成彦根)	정조 24년(1799)
기미년 지락재 중수 일기 (己未至樂齋重修日記)	잡록 (雜錄)		정조 24년(1799)
소수서원 동몽재 중건기 (紹修書院童蒙齋重建記)	학구재현판 (學求齋懸板)	김증현(金曾鉉)	철종 5년(1854)
소수서원 장서각 이건기 (紹修書院藏書閣移建記)	순흥안씨속수추원록 (順興安氏續修追遠錄)	이태순(李泰淳)	순조 19년(1819)
제월루(霽月樓)를 세울 때 기록	잡록 (雜錄)		숙종 46년(1720)
도동각기(道東閣記)	삼취당문집 (三翠堂文集)	안용호(安龍鎬)	1978년

기문명	출처	저자	연도
종죽기(種竹記)	단곡선생문집 (丹谷先生文集)	곽진(郭(山+晉))	광해군 5년(1613)
백운동서원 심방기(白雲洞尋院記)	죽계선생문집 (竹溪先生文集)	안희(安惠)	선조 26년(1293)
백운동서원 심방기(白雲洞尋院記)	구당선생집 (久堂先生集)	박장원(朴長遠)	효종 6년(1655)
소유기(少遊記)	식산선생별집 (息山先生別集)	이만부(李萬敷)	
백운동 심방기(訪白雲洞記)	성호선생문집 (星湖先生文集)	이익(李瀼)	숙종
백운동 유람기(遊白雲洞記)	매야문집 (邁莪文集)	서활(徐活)	
소수서원 유람기(紹修書院 遊覽記)	청대집 (淸臺集)	권상일(權相一)	

3) 통문(通文)

통문명	출처	저자	연도
이산서원에 보내는 통문[通伊山書院]	운원잡록 (雲院雜錄)	소수서원	
삼가 답함[拜上謝狀]	운원잡록 (雲院雜錄)	이산서원 (伊山書院)	
도산서원 통문	잡록e (雜錄e)		을유년 5월 일
우(又)	잡록e (雜錄e)		8월 일
본원 회답 통문[本院答通]		소수서원	
의성(義城) 장대서원(藏待書院) 통문	잡록e (雜錄e)		
예천(醴泉) 정산서원(鼎山書院) 통문	잡록e (雜錄e)		
도산서원 도회에서 경주 사림 처벌을 논한 통문[陶山道會時 通慶州士林論罰文]	잡록e (雜錄e)		무자년 8월 26일
상주 도남서원 도회소(道會所) 통문[尙州道南書院道會所通文]	잡록e (雜錄e)		
본원 통문[本院通文]	잡록e (雜錄e)		
각면 사통	강소잡록 (講所雜錄)		

통문명	출처	저자	연도
수임(首任)을 도내(道內)에 두루 의망(擬望)하는 일에 대하여 품의(稟議)할 때 통고한 조목과 제사(題辭)	잡록e (雜錄e)		
【장이덕(張彝德)의 처 열행(烈行)에 관한 통문(通文)】			
소수서원에서 영천향교에 보낸 통문[紹修書院榮川鄉校文]	운재유고 (耘齋遺稿)	서재우(徐在愚)	신유년
소수서원 회답 통문[紹修書院答通]			
【도고서원(陶阜書院) 설립에 대한 통문】	도고서원통문록 (陶阜書院通文錄)		
통문[通文]	도고서원통문록 (陶阜書院通文錄)		기유년 2월
소수서원통문[紹修書院通文]	구호지 (鷗湖志)		
소수서원통문[紹修書院通文]	사복선생실기 (思復先生實記)		
소수서원에서 열읍에 보내는 통문[紹修書院通列邑文]	구천문집 권12 (龜川文集 卷12)	서성렬(徐成烈)	임오년
소수서원에서 도내에 보내는 통문[紹修書院通道內校院文]	구천문집 권12 (龜川文集 卷12)	서성렬(徐成烈)	임진년
소수서원의 주신재 선생 위패 개제 때 통문[紹修書院周慎齋先生位牌改題通諭文]		권헌조(權憲祖)	

2-4-3. 소수서원의 고문서와 영정

1) 고문서(古文書)

소수서원이 소장하였던 고문서와 성책류에 대해서는 2007년 영남문헌연구소에서 간행한 『소수서원지(紹修書院誌)』에 그 목록이 소장처 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그 수를 파악하면 전답문서 4점, 노비문서 1점, 관문 2점, 도서목록 7점, 일기·사적 3점, 입의·회계·운영 문서 15점, 입원·거재·강회 문서 14점, 원임·집사·회원 명부 21점, 잡록 11점, 서원 방문 기록 32점 등 모두 110점이 확인된다.

한편, 소수서원 고문서와 성책류는 20세기 이후 서원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여러 군데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다.

① 전답 문서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紹修書院田畵案	1762	33.0×21.9cm	계명대 동산도서관	筆寫本, 1冊
紹修書院田畵案	1766	27.0×52.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5장
紹修書院田畵量案	1911	23.8×23.2cm	계명대 동산도서관	筆寫本, 1冊
紹修書院三所田畵騰錄 本所 講學所 藏		23.1×28.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8장

② 노비 문서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紹修書院奴婢案	1737~1783	32.7×22.0cm	계명대 동산도서관	筆寫本, 3冊

③ 관문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觀察使關文	1546	95.8×76.9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장
紹修書院騰錄	1547	33.5×38.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④ 도서목록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紹修書院書冊錄	1653	29.7×20.6cm	계명대 동산도서관	筆寫本, 1冊
書冊目錄	숙종연간	20.0×31.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5장
紹修書院冊錄	1762	32.7×21.4cm	계명대 동산도서관	筆寫本, 1冊
書冊目錄丙辰八月修錄	1796	21.5×29.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書冊目錄乙亥七月 日	1875	15.5×24.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5장
書冊目錄丁巳九月日 現存	1917	28.3×23.1cm	국사편찬위원회	筆寫本, 1冊 8장
紹修書院 書冊目錄	1951	8.4×25.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7장

⑤ 일기·사적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紹修書院聖幀 改事日記	1815	23.0×33.5cm	영주시 부석면 자계리 梅鶴堂(金鑒) 종택	필사본, 1책 53장
紹修書院 影幀處變時事蹟	1911	30.3×24.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9장
紹修書院廟宇重修記	1813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⑥ 입의·회계·운영 문서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紹修書院立議		23.0×33.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2장
紹修書院 文書傳掌冊 己亥三月初八日	근대	28.0×22.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2장
傳掌記		23.0×33.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0장
傳掌冊 甲申四月日粧匣		20.5×30.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10장
傳掌冊 庚子 辛丑		20.5×30.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4장
紹修書院秋收記		30.0×19.8cm	계명대 동산도서관	筆寫本, 1冊
紹修書院秋收記 庚午年度	1930	19.0×29.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7장
紹修書院 秋收記 丁亥年度	1947	29.0×26.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6장
賃貸料收納簿	1955	19.0×26.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4장
紹修書院狀況調査 壬子十月十五日	1912	8.5×28.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9장 (별지 2장)
修書院財團管理所管理所則 植紀四二八〇年十月十九日	1947	28.0×24.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6장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紹修書院 産管理委員會任案 癸丑九月日起	1973	25.0×33.5cm	소수서원	筆寫本, 1책 39장
備品台帳 植紀四二八四年辛卯五月十六日	1951	20.0×25.l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장
修書院院財團管理所役員名 簿 植紀四二八〇年九月日	1947	28.0×24.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장

⑦ 입원·거재·강회 문서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入院錄	1543~1696	36.0×25.5cm	한국국학진흥원	筆寫本, 1책 57장
入院錄 第二	1660~1691	24.4×34.7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2장
紹修書院 入院錄	1721~1760	23.5×30.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66장
紹修書院 入院錄	1725~1846	23.2×36.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2장
居齋錄	1780.10.20 ~ 1793.12.18	21.5×32.0cm	국사편찬위원회	筆寫本, 1冊 70장
居齋雜錄	1761.11.15 ~ 1780.08.29	22.3×33.0cm	국사편찬위원회	筆寫本, 1冊 84장
居齋雜錄		19.7×29.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1장
通讀雜錄 辛酉		21.5×32.7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9장
紹修書院朔望講都目		27.2×32.l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6장
謹次紹修書院講會韻		25.2×385.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軸
仰高臺模帖		29.9×27.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78장
雲院齋錄 壬子動初吉		20.4×31.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4장
鄉飲酒禮詩律訓約		30.3×31.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9장
都園點秩 乙未八月三十日		100.2×29.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장
紹修書院院錄騰本 丙戌五月十三日		35.0×31.5cm	한국국학진흥원	筆寫本, 1冊 9장
院任題名錄	1542~1718	27.0×34.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6장
紹修書院任事錄 一	1542~1718	25.4×39.6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8장
紹修書院任事錄 二	1708~1794	21.5×35.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53장
紹修書院任事錄 三	1794~1897	19.7×36.6cm	소수서원	筆寫本, 1책 87장
紹修書院任事錄四 戊戌四月日	1898~1914	24.3×34.1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2장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紹修書院任事錄五	1916~1931	27.3×33.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0장
紹修書院任事錄六 癸酉三月		28.2×31.7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64장
紹修書院任事錄七 甲申三月日		25.5×33.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92장
紹修書院任事錄八 乙酉八月	1969~?	27.0×37.8cm	소수서원	筆寫本, 1책 89장
紹修書院任事錄九 丙子八月日		27.0×37.5cm	소수서원	筆寫本, 1책
紹修書院執事錄		27.0×37.5cm	소수서원	筆寫本, 1책
面分錄 癸酉七月二十日		27.0×33.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8장
面分類 時用 丙子秋還復古規後修正		24.0×25.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1장
面分類		26.0×27.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0장
面分類		21.5×32.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0장
面分類		32.7×22.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3장
面分類		30.5×33.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1장
時用面分類		24.0×33.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21장
時用面分類		26.5×30.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9장
紹修書院 時存錄		27.5×37.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4장

⑧ 잡록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雲院雜錄(원본)		22.0×30.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9장
雲院雜錄(사본)		24.3×34.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65장
紹修書院雜錄 a	1626.11.06 ~1678.08	22.5×30.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冊 78장
紹修書院雜錄 b	1667.07 ~1720.10	22.5×29.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冊 142장.
雜錄 c	1712.12 ~1718.02.29	23.0×31.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冊 62장
雜錄 庚子通細嫩 d	1720~1759	23.5×29.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冊 47장
雜錄 e	1759~1832	22.2×33.4cm	소수박물관	1책 32장
雜錄 f	1794~1795	21.5×30.0cm	국사편찬위원회	筆寫本, 1冊 17장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雜錄 己未乙丑庚子 重修 g	1799~1900	20.2×29.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25장.
紹修書院雜錄 h		18.6×28.3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0장
紹修書院雜錄 i	20세기초	22.6×33.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64장

⑨ 서원 방문 기록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尋院錄 庚寅	庚寅~辛卯	26.2×32.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8장
尋院錄 第二	1553~1599	27.8×35.7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0장
尋院錄	1646~1649	26.5×30.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8장
尋院錄	1657~1660	25.6×32.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9장
尋院錄 第七	1660~1670	25.5×32.7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7장
尋院錄 第九 辛酉	1676~1679	24.7×32.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51장
尋院錄	1681~1683	23.0×30.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4장
尋院錄	1690~1699	25.6×31.6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57장
尋院錄	1699~1710	25.0×31.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54장
尋院錄	1702~1718	27.8×35.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90장
尋院錄	1709~1711	24.9×31.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1장
尋院錄	1711~1714	23.2×35.3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9장
尋院錄	1721~1724	24.6×35.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55장
尋院錄 壬子至甲寅	1732~1734	27.6×38.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4장
尋院錄 辛酉	1741~1743	24.0×36.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1장
尋院錄	1745~1747	23.7×35.6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4장
尋院錄	1746~1751	23.4×30.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9장
尋院錄	1747~1748	24.3×36.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0장
尋院錄	1765~1770	28.0×33.2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8장
尋院錄	1778~1782	29.0×32.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0장
尋院錄 壬寅	1782~1785	26.3×34.1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5장
尋院錄	1788~1801	28.5×33.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5장
尋院錄 戊午六月 日始	1798~1801	29.2×36.8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40장
尋院錄 辛巳五月日	1821~1822	26.2×30.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6장
尋院錄 甲申乙酉	1824~1825	27.3×36.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3장
尋院錄 丙辰 七月十五日	1836~1838	20.0×29.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37장
尋院錄	1882~1884	26.6×32.7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26장

문서명	작성연도	크기	소장처	비고
尋院錄己酉	1847~1918	29.0×46.4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8장
尋院錄	1951~1964	27.7×24.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1장
尋院錄	1965~1968	23.3×29.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3장
尋院錄	1968~1971	23.5×28.5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2장
尋院錄	1971~1975	28.5×24.0cm	소수박물관	筆寫本, 1책 16장

2) 영정

소수서원에는 안향의 영정을 비롯하여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주세붕의 영정을 봉안하였고, 그 외 주자(朱子), 이원익(李元翼, 1547~1634), 이덕형(李德馨, 1561~1613), 허목(許穆, 1595~1682)의 영정도 함께 봉안했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것 중 안향과 주세붕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사품이며, 소수박물관에 옮겨져 전시되어 있다.

① 안향초상(安珦肖像)

고려후기의 문신이자 학자로 우리나라에 처음 성리학을 전한 회헌 안향(1243~1306)의 초상화다.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37cm이며 반신상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의 화면은 상하로 2등분되어 위에는 글이 쓰여 있고 아래에는 선생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왼쪽을 바라보며 붉은 선으로 얼굴의 윤곽을 나타내었다. 옷주름은 선을 이용하여 명암 없이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안향의 초상화는 1318년(충숙왕 5) 문묘에 봉안할 때, 한 본을 더 그려 향교에 봉안하였는데, 소수서원에 전해지는 초상화는 후자다. 그러나 세조 연간 단종복위 모의가 실패로 끝나고 순흥부가 해체되면서 순흥향교에 있던 안향의 영정이 한동안 한양 종가에 보관되었다. 그러다 주세붕이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면서, 한양 순흥안씨 대종가에 있던 안향의 영정이 백운동서원에 봉안된 것이다. 안향의 초상화는 현재 전해지는 초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초상화로, 고려시대 초상화 화풍을 알 수 있어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귀중한 유물이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② 주세붕영정(周世鵬影幀)

조선전기의 문신이며 학자였던 주세붕의 상반신을 그린 초상화로, 크기는 가로 62.5cm, 세로 134cm다. 주세붕은 1543년(중종 38)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을 건립한 인물이다. 이 초상화는 사모관대의 정장 관복을 차려입고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얼굴은 간략한 선으로 묘사하고, 넉넉한 몸체에 묵은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옷의 깃을 낮게 표현한 것은 다른 초상화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당시 유행하던 양식으로 생각된다. 주세붕 초상화의 정확한 제작연대를 추정하기 힘들지만 색이 바라고, 훼손된 상태, 복식, 필법 등으로 미루어 제작연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16세기 초상화가 대부분 공신상인데 비해, 학자의 기품이 드러난 학자의 모습으로 매우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81년 3월 18일 보물 제717호로 지정되었다.

2-4-4. 소수서원 소장 전적과 책판

1) 전적(典籍)

제목	편저자	판본	분량
葛川先生文集	漏潮銷著	목판본	1책
綱鑑會要	王世貞卿編	목판본	1책
敬亭先生集	李民成	목판본	1책
溪西先生逸稿	成以性	목판본	1책
溪村先生文集	李道顯	목판본	1책
久菴集	韓百謙	목판본	1책
近思錄	朱熹·呂祖謙	목판본	2책
岐陽世稿 陶軒先生遺稿	柳友潛	목판본	1책
蘿山世稿	李挺仁	목판본	2권 1책
楠溪文集	安浩淵	목활자본	1책
論語集註大全	胡廣	목판본	2책[영본]
訥隱先生文集	李光庭	목판본	2책
訥隱文集	徐聖考	목판본	1책
唐鑑	范祖禹		1책
唐柳先生集	柳宗元	목판본	12책[영본]
大廣益會玉篇	陳彭年		3책[영본]
大山文集	李象靖	목판본	9책[영본]
東渠集	宋鼎銳	목판본	1책[영본]
東醫寶鑑雜篇	許浚	목판본	1책[영본]
遜庵先生逸集	徐翰廷	목판본	2권 1책
遜翁先生實紀	朴球	목판본	2권 1책
藤巖先生逸稿	權徵	목판본	2권 1책
僂語編類	趙仁奎	목활자본	1책[영본]
梅潭集	安公信	목판본	1책[영본]
梅陰羅先生丙子亂護聖行蹟			1책[사본]
孟巖集	金英烈	석판본	1책
孟子·大文		목판본	1책
牧隱詩藁	李穡		7책[영본]
霧隱先生文集	鄭之虎	석판본	1책[영본]

제목	편저자	판본	분량
文選	蕭統	목판본	6책[영본]
文節公金先生逸稿	金淡	목판본	2권 2책
朴正字遺稿	朴泰漢	목판본	4책[영본]
白沙先生集	李恒福	목판본	2책[영본]
樊川文集	杜牧	목판본	2책[영본]
分類補註李太白詩	李白	목판본	5책[영본]
四佳詩集	徐居正	목판본	5책[영본]
四佳詩集補遺	徐居正	목판본	3권 1책
司馬榜目 戊子年式翰		필사본	1책
沙川文集	徐昌鏡	목판본	4권 2책
沙村先生文集	安德麟	목판본	1책[영본]
西原世稿	郭守智	목활자본	1책[영본]
嘯阜文集	朴承任		4책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江贊	목판본	5책[영본]
松巖先生文集	李魯	목판본	3책
松巖先生續集	權好文	목판본	6권 2책
松隱先生文集	金光粹	목판본	2권 1책
松坡集	李海昌	목판본	7권 2책
詩傳大全	胡廣 等		4책[영본]
心經附註	程敏政	목판본	1책[영본]
梧峯先生文集	申之悌	목판본	3책[영본]
韻府群玉	陰時夫	목판본	2책
元史	宋濂 等	목판본	1책[영본]
諭中外大小臣庶輪音	正祖	필사본	1책[영본]
六臣遺稿	六臣遺稿	목판본	2책[영본]
一松先生文集	沈喜壽	목판본	1책[영본]
自竜集	金絳	목판본	2권 1책
資治通鑑綱目	朱熹	목판본	45책[영본]
田園文集			1책[영본]
正氣錄	高敬命		1책
槽巖集	趙昌期	목판본	1책[영본]
周易諸解	宣祖 命	목판본	9권 5책
周易傳義大全	胡廣 等	목판본	11책[영본]

제목	편저자	판본	분량
朱子大全	朱熹	고활자본	33책
竹南文集	安致默	목판본	4권 2책
重刊陸宣公奏議		목판본	1책[영본]
纂註分類社詩	杜甫	목판본	14책[영본]
撰集辯課錄		목판본	1책
天運紹統	曜仙	목판본	1책
闡義昭鑑	英祖 命	고활자본	1책[영본]
瞻慕堂先生文集	林芸	목판본	3권 2책
楚辭後語	屈原	목판본	1책[영본]
秋江集	南孝溫	목판본	6권 2책
春秋胡氏傳	胡安國		3책[영본]
春秋胡氏傳	胡安國	목판본	10책
冲齋先生逸稿	權櫟	목판본	2책[영본]
癡巖逸稿	裴尙益	목판본	2권 1책
澤堂先生別集	李植	목판본	4책[영본]
澤堂先生續集	李植	목판본	1책[영본]
澤堂先生集	李植	목판본	3책[영본]
通鑑			2책[영본]
通鑑口訣			2책[영본]
退溪先生文集	李滉		1책[영본]
破字冊		필사본	1책
八斯遺稿	裴幼華	고목활자본	2권 1책
許貞簡公遺事	許詡	목판본	1책
湖陽先生文集	權益昌	목판본	1책[영본]
活齋先生文集	李渠	목판본	1책[영본]
皇朝名臣言行外錄	朱熹	목판본	1책[영본]
悔堂先生文集	申元祿	목판본	1책[영본]
晦齋先生文集	李彦迪	목판본	1책[영본]
會募宋岳鄂武穆王精忠錄	宣祖 命		1책[영본]

2) 책판(冊板)

현재 소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은 모두 22종 1,250판으로 이 가운데 『추원록(追遠錄)』이 302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구서씨세보(大邱徐氏世譜)』 137판, 『죽계지(竹溪誌)』 118판, 『눌헌문집(訥軒文集)』 108판, 『상변찬요(常變纂要)』와 『오산문집(梧山文集)』이 각각 89판을 차지하고 있다. 『죽계지』, 『추원록』, 『가례언해(家禮諺解)』,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은 소수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것이고 『괴헌집(槐軒集)』, 『눌헌문집(訥軒文集)』, 『대구서씨세보』, 『사천문집(沙川文集)』 등은 기증·기탁에 의해 소수박물관에 소장되게 되었다.

2001년 11월 1일 소수서원 소장 책판들인 『추원록』 책판 661점, 『가례언해』 책판 4점, 『육선생유고』 책판 8점과 합하여 일괄 902판이 2001년 11월 1일 시도유형문화재 영주시 제331호로 지정되어 현재 소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죽계지(竹溪志)』

『죽계지』는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창건한 이듬해인 1544년(중종 39)에 사당에 모신 안향·안축·안보의 전기와 서원 창건 과정에 생성된 자료에, 주희(朱熹)의 시문 속에서 발췌한 서원·학교·사당의 기문과 시 등을 합하여 6권 3책으로 간행한 책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한 간행 초기 인출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책판이 간행 이후 약 400년 동안 소수서원 서고에 보관되어 오던 중, 1968년 5월에 도감 안승규(安承奎)의 주관 아래 다수의 마멸된 판을 보각하고 발문을 붙여 인출하였다.

② 『추원록(追遠錄)』

순흥안씨 문중사를 기록한 『추원록(追遠錄)』책판이다. 『추원록』은 회헌 안향의 14대손 안응창(安應昌)이 1658년 의성현령으로 재임할 당시, 순흥안씨 시조의 설단(設壇) 사실, 직계 선조와 외척들의 비지(碑誌) 등을 편집하여 의성 관아에서 책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해당 책판의 인본(印本)으로는 곡성(谷城) 도동묘(道東廟)에 완본 7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에 영본 6책이 소장되어 있다.

③ 『육선생유고(六先生遺稿)』

1658년(효19)에 박팽년의 7대손 박송고(朴崇古)가 사육신의 유문을 모아 3책을 만들고 충청도관찰사 이경억(李慶億)이 간행한 책판의 잔본이다. 최초 이 책판이 서원에 유입된 경위는 알 수 없고, 1791(정조 15) 12월 영월부의 요청에 따라 89판을 영월부로 이송한 기록이 있다.

④ 『가례언해(家禮諺解)』

『가례언해』책판 4점이다. 주희의『가례(家禮)』를 신식(申埏, 1551~1623)이 언해하여 1632년에 간행한 10권 4책본의 책판으로 서문 부분만 소장되어 있다. 소수서원에 수장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려진 자료가 없다.

2-4-5. 소수서원의 현판과 각석

1) 현판(懸板)

소수서원에는 경림정, 지락재, 유물관, 강학당, 학구재, 일신재, 직방재, 전사청, 문성공묘, 영정각, 사료관, 충효교육관, 취한대, 지도문, 박물관 수장고등의 건물이 있는데, 각 건물에는 편액(扁額)을 비롯한 각종 현판과 주련 등이 게시 및 소장되어 있다. 건물별로 게시 및 소장되어 있는 현판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성공묘(文成公廟)

■ 문성공묘(文成公廟)

문성공묘의 편액이다. 해서(楷書)이며 크기는 세로 52cm, 가로 164cm다. 주희의 후손인 명나라의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1605년(선조 38)에 사신으로 왔다가 소수서원을 참배하고 묘우명을 썼다.

■ 문성공 시호(諡號)와 시주(諡註) 현판

‘문성공(文成公)’, ‘도동박문왁문(道德博問曰文)’, ‘안민입정왁성(安民立政曰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향이 받은 ‘문성(文成)’이라는 시호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② 명륜당(明倫堂)

■ 백운동(白雲洞)

해서로 작성된 백운동 편액이다. 크기는 세로 47cm, 가로 108cm다. 죽계 건너 암벽에 새겨진 백운동 글씨를 탁본하여 모각한 것이다.

■ 소수서원(紹修書院)

소수서원 편액으로 해서이며, 세로 33cm, 가로 162cm다.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謄錄)』에 수록된 1550년(명종 5) 6월 초4일 관찰사 관문(關文)에 의하면, 최초 사액 편액에 대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과 ‘흥경서원(興慶書院)’ 두 가지가 입계(入啓)되었다고 한다. 이에 명종은 지난 3월 11일 ‘소수서원’으로 낙점하여, 현판에 큰 글씨로 쓰고, 하단에 연호·월일과 ‘선사(宣賜)’ 등의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색깔은 짙은 청색으로 입혔고, 운각(雲閣)으로 주위를 장식하여 내려 보내도록 명했다고 한다. 편액은 동년 6월 초순에 소수서원에 도착하였다. 내려진 날짜는 ‘가정 29년 4월 일(嘉靖二十九年四月日)’이다.

■ 집사분정판(執事分定板)

소수서원의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를 게시한 것으로, 해서이며 길이는 세로 43cm, 가로 187cm다. 판목아래에 이름을 써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초헌관에서 진설(陳設)에 이르기까지 총18명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소임 없이 제사에 참여하는 학생도 분정기에 기록한 점이 특이하다.

■ 주세붕 입안(立案)

1546년 11월에 작성된 입안을 현판으로 게시한 것이다. 해서로 작성하였으며,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56cm다. 안향을 배향한 사당과 서원을 수직하는 이들은 토착인이 없어 임종동 등 4인을 수직으로 삼고자 경상감사에게 계청하였으며, 경상감사도 국왕에게 보고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향후 이 네 집안에 대해서 영구히 찬탈과 침요(侵擾)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안이다.

■ 심잠(心箴), 경재잠(敬齋箴)

행서로 범준(范浚)의 「심잠(心箴)」과 주자(朱子)의 「경재잠(敬齋箴)」을 써서 행서로 게시한 것이다. 크기는 세로 43cm, 가로는 114cm다.

■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

진백(陳柏)의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행서로 작성하여 게시한 현판으로 크기는 세로 43.5cm, 가로 120cm다. 1827년(순조 27) 이가순(李家淳)이 다시 판각한 것으로, 진백이 자신을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제10에도 채록되어 있다.

■ 사물잠(四勿箴)

송나라의 유학자 정이(程頤)가 쓴 「사물잠(四勿箴)」을 게시한 현판이다. 행서이며 크기는 세로 40cm, 가로 125cm다.

■ 백운동서원규(白雲洞書院規)

1543년 작성한 백운동서원 운영 관련 규정이다. 예서(隸書)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45.5cm, 가로 146cm다. 「백운동서원규」는 주자의 백록동서원 학규를 당시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 신종하(申宗夏) 입안(立案)

1750년(영조 26) 순흥부사(順興府使)가 발급해준 입안을 해서로 작성하여 게시한 현판이다. 크기는 세로 37cm, 가로 62cm다. 1546년(명종 1) 주세붕이 국왕의 윤허를 받아 사환(使喚) 임종동(林種同), 안왕손(安王孫), 김경량(金景良), 황세근(黃世斤) 4인의 수직인들에게 대한 외부간섭을 막고 서원 업무에 충신토록 한 입안을 바탕으로 그들 4사람의 후손들에게도 영구히 잡역 면제시켜, 서원 사환으로 전념하도록 발급해준 입안이다.

③ 일신재(日新齋)

■ 일신재(日新齋)

일신재의 편액으로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53cm, 가로 96cm다. 일신재는 애당초 독립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직방재를 확장하여 하나의 방을 증축하였고 새로 지어진 방이라

‘신방(新房)’이라 불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별도의 현판도 있지 않았다. 1804년(순조 4)에 성언근(成彦根)이 원장이 되어 중수한 뒤에 ‘신방(新房)’에 ‘일(日)’을 보태고 ‘방(房)’을 ‘재(齋)’로 고쳐 ‘일신재(日新齋)’라는 현판을 걸게 되었다. 이로써 직방재와 연립된 건물이면서도 독립 서재(書齋)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인데, 이때 이후에 제작된 편액임을 알 수 있다.

④ 직방재(直方齋)

직방재의 편액으로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120cm다. 퇴계 이황의 글씨로 알려져 있는데, 1720년(숙종 46) 다시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학구재(學求齋)

■ 학구재(學求齋)

학구재의 편액으로 행서(行書)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41cm, 가로 86cm다. 학구재는 동몽재(童蒙齋)를 폐지하고 설치한 재사다. 현판은 주자 글씨인 ‘학구성현(學求聖賢)’의 ‘학구(學求)’와 ‘지락재(至樂齋)’의 ‘재(齋)’를 합쳐서 판각한 것이다. 서자(書者)는 미상이다.

■ 동몽재중건기(童蒙齋重建記)

1854년(철종 5) 김증현(金曾鉉)이 순흥부사로 와서 쓴 소수서원 동몽재 중건 기문이다. 행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41cm, 가로 86cm다. 기문에는 동몽재를 중건하게 된 경위를 칭송하고 학문 진작을 당부해 놓았다.

⑥ 지락재(至樂齋)

■ 지락재(至樂齋)

지락재의 편액으로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41cm, 가로 95cm다. 재호(齋號)는 최초 건축자인 창석(蒼石) 이준(李埈)이 구양수(歐陽修)의 ‘지락막여독서(至樂莫如讀書)’라는 어구에서 취하여 지은 것이다.

■ 이감(李戡), 노경린(盧景麟) 시판

1547년 경상도관찰사 이감이 지은 시와 노경린의 차운시(次韻詩)를 현판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다. 행서이며 크기는 세로 27.5cm, 가로 52.8cm다.

■ 윤탁연(尹卓然) 시판

퇴계 이황의 「경렴정(景濂亭)」 칠언시를 차운한 것으로 초서(草書)로 작성하였으며, 크기는 세로 41cm, 가로 81cm다. 윤탁연이 1582년(선조 15) 경상도관찰사를 부임했을 때 지은 시다.

■ 김진우(金鎭雨) 시판

조선중기의 병인년 어느 해에 김진우가 작성한 이항의 「경렴정」 차운시다.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6.5cm, 가로 35.8cm다. 모두 입성 '청(靑)'을 쓴 것이 특이하다.

■ 조사수(趙士秀) 시판

1550년(명종 5) 경상도관찰사 조사수가 이항의 「경렴정」에 차운한 시다.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세로 33cm, 가로 62cm다.

■ 창석 이준(李埈) 시판

1614년(광해군 6) 창석 이준의 차운시다.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0cm, 가로 62cm다.

■ 황시(黃是) 시판

1619년(광해군 11) 황시가 이항의 「경렴정」에 차운한 시다.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3cm, 가로 34cm다.

■ 황준량(黃俊良) 시판

퇴계 이항의 시에 황준량이 차운한 것이다.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6cm, 가로 55cm다. 1551년(명종 6) 황준량이 감군어사(監軍御使)로 임명을 받아 암행길에 소수서원의 전신인 백운동서원에 들러 작성한 것이다.

■ 강침(姜沈) 시판

1799년(정조 23) 풍기군수를 역임했던 창석 이준의 「경렴정」 원운에 순흥부사로 부임한 강침이 차운한 것이다.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7cm, 가로 56cm다.

■ 지락재증수상량문(至樂齋重修上樑文)

지락재를 중수한 후 쓴 상량문으로 강침이 작성하였다.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7cm, 가로 98cm다.

■ 백운동서원령(白雲洞書院令)

백운동서원의 학칙으로, 서원 내에서 기거하는 학생들이 지켜야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2cm, 가로 59.7cm다.

■ 성이민(成以敏), 조옥(趙昱) 시판

성이민과 조옥이 쓴 「경렴정」 차운시다. 성이민의 시는 해서와 초서를 혼용하였는데, 1610년(광해군 2)에 작성된 것이다. 크기는 세로 26.6cm, 가로 58.5cm다.

⑦ 장서각(藏書閣)

■ 장서각(藏書閣)

장서각의 편액으로,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작자는 미상이다. 크기는 세로 29.7cm, 가로 80cm다.

⑧ 전사청(典祀廳)

■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의 편액이다.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9.6cm, 세로 85cm다. 글씨 작성자는 미상이다.

⑨ 경렴정(景濂亭)

■ 경렴정(景濂亭)

경렴정의 편액으로 행서와 초서 두 가지가 있는데, 본 편액은 해서로 이황의 글씨다. 크기는 세로 48cm, 가로 104cm다.

■ 경렴정(景濂亭)

경렴정의 편액으로 황기로(黃耆老)의 글씨다. 초서이며 세로 51cm, 가로 118cm다.

■ 주세붕(周世鵬) 오언시 시판

백운동서원 창건자 주세붕의 「경렴정」 원운(原韻) 시판이다. 풍기군수에서 이임하기 직전인 1545년(명종 1)에 지은 것이다.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6.5cm, 가로 43cm다.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아마도 경렴정을 짓고 바로 지은 시가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다.

■ 주세붕(周世鵬) 칠언시 시판

칠언절구 2수다.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0cm, 가로 49.2cm다. 첫 번째 시는 입성(入聲) '한(寒)'자를, 두 번째 시는 거성(去聲) '맥(陌)'자를 운으로 사용하였다.

■ 이황(李滉) 오언시 시판

1610년(광해군 2) 후대의 누군가가 『퇴계집(退溪集)』에 수록된 경렴정 차운시를 찾아 다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5cm, 가로 42.5cm다.

■ 이황(李滉) 칠언시 시판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했을 때 백운동서원에서 제생(諸生)들에게 보인 시다. 발문에 따르면 편액이 마모되어 1958년 퇴계 이황의 12대손 이중두(李中斗)가 다시 고쳐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행서와 초서가 섞여 있으며, 크기는 세로 37.5cm, 가로 55.5cm다.

■ 홍우정(洪宇定) 시판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차운한 시로 추정된다.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2cm, 가로 52cm다.

■ 유세명(柳世鳴) 시판

숙종 연간 문신이었던 유세명의 시를 게시한 것이다. 행서로 작성되었다.

■ 정한(鄭澣) 시판

경령정의 원운에 정한이 차운한 시판이다.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8cm, 가로 37cm다. 1806년(순조 6) 순흥부사 재임 시 차운한 시판이다.

■ 강침(姜沈) 시판

소수서원 앞 경령정에 걸려 있던 편액으로, 1798년(정조 22) 강침이 지은 차운시다.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6.5cm, 가로 58cm다. 1799년(정조 23) 판각되었다.

■ 황섬(黃暻) 시판

1610년(광해군 2) 황섬이 경령정 원운에 차운한 것으로,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0cm, 가로 45cm다.

■ 황준량(黃俊良) 오언시 시판

1546년(명종 1) 가을 황준량이 해서와 초서를 혼용하여 작성한 시로, 크기는 세로 26.3cm, 가로 43.2cm다.

■ 황시(黃是) 시판

황시가 1619년(광해군 11) 경령정에 차운한 시로, 해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3cm, 가로 34cm다.

■ 황응규(黃應奎) 시판

1590년(선조 23) 봄 황응규가 지은 주세붕의 「백록동」 차운시다. 초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9.5cm, 가로 43.8cm다.

■ 안현(安瑗), 황효공(黃孝恭), 안공신(安公信) 시판

경상도관찰사 안현, 전 사간(司諫) 황효공, 전 직강(直講) 3명의 차운시다. 해서이며, 크기는 세로 30cm, 가로 60cm다.

■ 김응조(金應祖), 오건(吳建) 시판

1562년(명종 17) 오건이 작성한 차운시와 1658년(효종 9) 김응조가 작성한 차운시를 함께 개판한 것이다. 행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8.4cm, 가로 58.8cm다.

■ 최옹(崔頤) 시판

경상도암행어사(慶尙道暗行御史) 최옹이 1560년(명종 15) 주세붕의 「백운동」에 차운한 시다. 행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27cm, 가로 43.3cm다.

⑩ 취한대(翠寒臺)

■ 취한대(翠寒臺)

죽계를 사이에 두고 경림정과 마주한 정자 건물인 취한대의 편액이다. 초서로 작성되었다.

⑪ 영정각(影幀閣)

■ 영정각(影幀閣)

소수서원에 소장된 영정을 모시기 위해 1974년 지은 건물의 편액이다. 원래는 도동각(道東閣)이라는 이름을 썼던 건물로 파악되나, 지금의 영정각으로 바뀐 연유는 알려지지 않는다. 현판의 제작시기와 서자는 알려지지 않지만 신축 당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행서로 작성되었으며, 크기는 세로 36cm, 가로 127cm다.

⑫ 사료관(史料館)

■ 사료관(史料館)

소수서원의 소장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1982년 건립한 사료관의 편액이다.

⑬ 광풍정(光風亭)

■ 광풍정(光風亭)

광풍정의 편액으로 현대 서예가 정하건(鄭夏建)이 작성하였다.

⑭ 충효교육관(忠孝敎育館)

■ 충효교육관(忠孝敎育館)

소수서원의 소장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1982년 신축한 충효교육관의 편액으로, 영주 출신의 서예가 김태균(金台均)이 작성하였다.

2) 백운동 각석

소수서원의 죽계 건너편 앞에 세워진 취한대(翠寒臺) 옆에는 '敬'이라는 글자가 붉은 색으로 바위에 새겨져 있다. 일명 '경자바위'라 불리는데, 이것은 주세붕이 새긴 것이다. 그리고 '敬'자 위에는 '白雲洞'이 새겨져 있다. '敬'자를 새긴 내력은 『죽계지(竹溪志)』 권5 잡록(雜錄)과 『무릉잡고(武陵雜稿)』 별집(別集) 권6에 수록된 「백운동석벽각경자(白雲洞石壁刻敬字)」에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있다.

문성공(文成公)의 사당 앞 깎아지른 석벽에 '경(敬)'자를 새기려고 하니, 서원의 모든 벗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여김을 당할 뿐이라고 경계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마음속으로 공경할 것이지 어찌 굳이 이것을 돌에 새겨야만 하겠는가?' 하기에, 나도 감히 강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회옹(晦翁)의 이 말을 찾게 되어 벗들 앞에 보이므로, '선천(先天)'의 모든 그림도 새겼는데 유독 경(敬)자를 새기는 것만 안 된다 말인가? 일찍이 이르기를 '경은 구차함의 반대됨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면 이는 곧 불경(不敬)이다' 하였다. 이는 실로 우리 회헌(晦軒)이 회옹과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묘원(廟院)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하더라도 이 각석(刻石)이 마멸되지 않아 1천년 후에 이것을 일컬어 '경석(敬石)'이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드디어 새겼다.

文成公廟前 有石壁如削 欲刻敬字 書院諸友皆以取怪世俗爲戒 且曰 當自敬於心 何必刻之於石 世鵬亦不敢強 及得晦翁此說 然後 乃開視諸友曰 先天諸圖尚可刻 獨不可以刻敬字乎 嘗謂 敬者 苟之反 纔苟 便不敬 此固吾晦軒之所契於晦翁者 愈不可以無刻也 廟院雖不得久保 使此刻不至於剝落 則千載之下 稱之曰敬石 足矣 皆曰 諾 遂刻之

반면, '敬'자 위에 새겨진 '白雲洞'이라는 글자의 연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 『무릉잡고』 권3 「경렴정(景濂亭)」시를 통해 주세붕이 직접 주관하여 새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磨崖題刻白雲名
白日白雲生白石
太守頻來愛白雲
白頭如雪眼藍壁

큰 바위에 백운동 이름 새기니
맑은 날 흰 돌 속에서 흰 구름 나오네
래수가 자주 찾아와 흰 구름 아끼고
머리는 백설 같아도 눈은 푸르다네

3. 서원현황

3-1. 입지 및 배치

3-1-1. 서원의 입지적 특성

서원의 설립되는 장소는 존경받을 만한 선현의 일정한 연고지여야 하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은거하여 수양하며 독서하기에 좋은 곳, 즉 산수가 뛰어난 곳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¹²⁾

이는 서원의 입지 선정에 있어 선현과의 관계성을 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은둔과 교화의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조선시대 사대부 선비들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朱熹)가 은거하여 학문을 했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가장 이상적인 자연으로 생각하였으며, 무이구곡을 그린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주희의 학문을 파악하는 보다 적극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무이구곡도_이성길(1562~?)

주변 풍광이 빼어난 곳에 서원이 자리를 잡게 되는 요인으로는 성리학자들이 자연 속에 은둔하여 심신을 수양하며 천인합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성리학자들에게 천인합일 사상은 가장 중요한 유가적 정신 관념으로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우주의 생명 전체는 융화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인생의 최고 이상이였다. 따라서 자각적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중요하였다.

이런 이유로 사대부들은 골짜기가 있어 물이 흐르고, 산이 있어 풍월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연에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을 연마하고 후학을 양성하였다.

퇴계에 의하면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나 도를 강론하고 업을 익히는 사람들이 흔히 세상의 시끄러움을 꺼리어 다투어 많은 책을 안고지고 한가한 들과 정막한 이곳에 도피하여 선왕의 도를 노래하고 그 덕을 쌓고 그 인을 익히어 낙을 삼는 까닭에 들떠 서원을 다닌다. 보건대 향교가 조시(朝市), 성곽(城郭) 중에 있어서 앞에는 학령의 구매가 되고 뒤에는 이물(異物)의 천탈(遷奪)이 있으니 그 공교가 어찌 같다고 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고 보면 오직 선비의 학(學)이 서원에서

12)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p361

힘썼을 뿐 아니라 국가가 현자를 얻는 것도 반드시 서원에서 되며 저것보다 나을 것이다.’ 하여 서원의 은둔사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¹³⁾

아울러, 서원이 풍관이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된 요인은 그 설립의 배경에 있어서 관학인 향교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받았던 반면에 서원은 사학으로서 행정상으로 조정과 당당히 독립되었고, 또한 서원제도 자체에 함유된 은둔사상 등이 결합되어 행정 중심지로부터 격리되어 건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관학인 향교와 달리 서원은 발생기원에서 유생들의 장수처 역할을 겸했으므로 자연히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서원의 이러한 입지 조건에 대하여 퇴계는 성원이 산천경계가 소려하고 한적한 곳에 머물며 환경의 유혹에서 벗어나 학문을 닦음으로서 교육적 성과가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⁴⁾



향교의 입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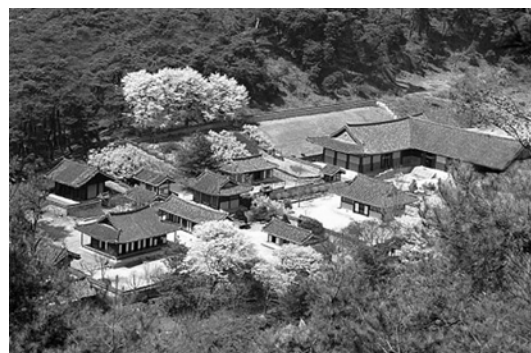


서원의 입지 특성

서원의 입지를 정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는 풍수지리사상으로 길지인 풍광경수의 뛰어난 곳을 선정하였고, 이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소수서원의 풍경에 대하여 ‘영천¹⁵⁾ 서북부쪽, 순흥부에 죽계가 있는데 소백산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들은 넓고 산은 낮으며 물과 돌이 맑고 밝다. 상류에 있는 백운동서원은 문성공 안휴를 제사하는 곳이다...중략 소백산과 태백산의 아래와 황강의 상류는 참으로 사대부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여 소수서원이나 소수서원 등의 입지에 풍수의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소수서원 입지 현황



소수서원 전경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원이 설립된 곳을 살펴보면, 배향(配享)하고자 하는 선현의 연고지가

13)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문열당, 1995, p.21

14) 이상해, 앞의 책, p.361

15) 경상북도 영주의 옛지명

16) 김은중, 앞의 책, p.22 재인용

가장 많다. 이러한 연고지는 선현의 출생지이거나 고향, 성장지, 유배지, 충절과 연관된 곳, 관리로 있었던 곳, 은거하여 후학을 지도했던 곳, 묘소가 있는 곳 등으로 구분된다.¹⁷⁾

건립시기	고향	강학처	유배지	은거	성장지	묘소	합계
~1550	2개소 소수서원 상현서원	1개소 근암서원					3
~1600	3개소 남계서원 임고서원 선암서원	6개소 경광서원 신항서원 이산서원 도산(陶山)서원 덕천서원 필암서원 월봉서원	2개소 옥천서원 경현서원	3개소 파산서원 금오서원 옥산서원		1개소 충렬서원	15
~1650	1개소 우저서원	4개소 병산서원 희연서원 돈암서원 동낙서원		1개소 서계서원		2개소 자운서원 심곡서원	8
~1700	1개소 임천서원	4개소 노강서원 화양서원 도산(道山)서원 칠산서원			1개소 미천서원		6
~1750		5개소 창계서원 흥암서원 부산서원 도정서원 고산서원	1개소 반곡서원				6
~1800				1개소 고산서원			1
1851~		1개소 단구서원					1

서원의 장소성

17) 이상선, 한국 서원건축의 조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논문, 2009, p.41 참조

3-1-2. 소수서원의 입지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동북쪽 거북 모양의 영귀봉(靈龜峯) 아래 자리하고 있다. 소백산 아래 초암계곡에서 발원한 시냇물이자 태백산의 황지(黃地)와 함께 1,300리 낙동강의 원류를 이루는 죽계수(竹溪水)가 발원하는 곳이다. 소수서원에 배향된 안축의 「죽계별곡(竹溪別曲)」은 순흥에 대해 “천년 흥망에도 한결같은 풍류”를 이어 온 고장이라고 하며, “산수가 맑고 높은 광경”을 앞세워 순흥을 흐르는 죽계(竹溪)의 경치를 찬양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중환(李重煥)도 택리지(擇里志)에서 “예안, 안동, 순흥, 영천, 예천 고을은...신(神)이 알려준 복지이다. 라고 찬양한 바와 같이 순흥은 좋은 자연환경을 자기는 곳이다. 소수서원은 영주시 순흥면 동북쪽으로 떨어진 곳, 영귀봉아래, 죽계수 위에 있다. 죽계수 건너 마주보는 산은 연화봉이다. 소수서원을 창건한 주세붕은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에서 서원의 주변 자연환경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왼쪽으로는 죽계수가 휘감아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소백산이 높이 솟아 구름과 산과 언덕과 물줄기가 실로 여산(廬山)에 못지않다. 아, 공이 돌아가신지 232년 만에 비로소 사당을 창건하였고, 공의 영정이 북으로 떠난지 87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 이 어찌 하늘의 기수가 아니겠는가.”, “구름이며, 산이며, 언덕이며, 강물 그리고 하얀구름이 항상 골짜기에 가득하므로 감히 이곳을 이름하여 ‘백운동’이라 하였고 감회에 젖어 배회하다가 비로소 사당 건립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곳은 퇴계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을이 그윽하고 깊숙하여 구름에 잠긴, 골짜기가 아늑한 곳이다. 유생들이 노닐고 강독(講讀)하는 장소로 삼을 만한 곳이다. 소수서원에 들어서는 길목 노송들과 계곡을 바라보고 서있는 서원 전경은 요산요수(樂山樂水) 자체만의 취향과는 거리가 있으면서, 자연 속에서 도학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이를 숭상하며, 또한 도학에 뛰어난 학자를 제향(祭享)해야 할 만한 곳임을 알게 한다. 이는 은거(隱居)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학을 강명(講明)하고 업(業)을 익히는 무리가 노닐고 강독하는 장소로 삼을 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흔히 세상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것을 멀리해야하기 때문이었다.



영귀봉과 문성공묘



소수서원 산도

소수서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소백산의 지맥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서원이 위치한 죽계의 바로 앞에서 영귀봉으로 다시 솟아났는데, 소수서원은 바로 이 영귀봉을 의지하여 자리하고 있다. 영귀봉은 남북으로 줄기가 곧게 뻗어있으며, 소수서원은 영귀봉 줄기의 동쪽 측면에 자리하고 있다.

거북에 대해 우리조상들은 십장생(十長生)이라 하여 신령스러운 동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오랜

세월을 사는 거북이는 신령스러움을 간직한 동물이다. 이는 장수에 대한 바람을 반영한 것이며, 즉, 주산이 오랜 세월을 번영하기를 바라는 맘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귀봉과 문성공묘를 기준으로 다양한 풍수지리적(風水地理的) 해석이 나타나는데, 첫째, 머리의 형상과 앞쪽의 죽계수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영귀입수형(靈龜入水形). 즉, 신령스런 거북이 앞쪽의 죽계로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뜻이 된다. 둘째, 영귀하산형(靈龜下山形)으로 신령스런 거북이가 산을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동그란 봉우리의 안산을 거북이의 알로 보아 영귀포란형(靈龜抱卵形) 혹은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엮드려 있는 형국이라는 영귀출복형(靈龜出伏形) 이라고도 볼 수 있다.¹⁸⁾

숙수사지 당간지주(보물 제59호)가 길 오른쪽 숲속에 서있다. 당간(幢竿)은 절에서 불교의식이 있을 때 불(佛)·보살(菩薩)의 공덕을 기리거나 마귀를 물리칠 목적으로 달았던 “당(幢)”이라는 깃발의 깃대를 말하며, 이 깃대를 고정시켜 받쳐 세우는 돌기둥을 당간지주라 한다. 이곳에 위치한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사찰인 숙수사(宿水寺)의 것이다. 이 당간지주는 서원 경내에 있는 석조 불상대좌와 주춧돌 등 석조 유물 부재와 함께 소수서원이 숙수사 옛터에 세워진 것임을 알게 한다. 당간지주 맞은편에는 서원을 서쪽에서 휘감아 그 앞에서 동쪽으로 돌며 에워싸듯 바위가 돌출(突出)하여 앉아있는데 마치 신령한 거북이가 알을 품고 엮드려 있는 듯한 모습을 하였고, 그 위에는 숙수사의 별대(別臺)로 쓰였던 건물 주초자리가 남아 있다.

서원이 들어선 후 이 자리는 유생(儒生)들이 공부하며 머리를 식히던 곳으로 사용된 소혼대(消魂臺)가 되었다. 소혼대는 “암연소혼자 유별이이의(黯然消魂者惟別而已矣)”이라는 이별을 노래한 옛 시「별부(別賦)」에서 따온 이름이다.

18) 소수서원 입지환경과 풍수_박정해

3-2. 소수서원의 건축

3-2-1. 서원의 건축

1) 서원의 건축적 특성

서원 건축의 공간 구성과 배치는 교육 시설로서의 강학공간과 제향을 위한 시설인 제향 공간 그리고 제향과 강학 기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속 공간으로 크게 나뉘는데, 서원의 배치는 이들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는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서원의 건물 배치형태는 일반적으로 강학공간을 앞쪽에 두고, 제향공간을 뒤쪽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지형조건에 따라 소수서원·회연서원과 같이 동쪽에 강학 공간을 두고, 서쪽에 제향 공간을 배치한 동학서묘(東學西廟) 방식을 따르는 서원도 있다. 서원의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정문과 사당을 잇는 중심축에 정문·누각·강당·내삼문·사당을 배치하고, 강당 앞 좌우에는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를 대칭으로 배치하였으며, 장서각·장판각·제기고·전사청·고직사 등의 부속건물들은 적절히 배치해놓았다.



도동서원(전학후묘)



회연서원(동학서묘)

서원의 정문인 외삼문은 솟을 대문으로 이루어진 솟을삼문과 평삼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남계서원의 풍영루(風咏樓), 도동서원의 수월루(水月樓), 필암서원의 학연루(廓然樓), 무성서원의 현가루(絃歌樓), 금오서원의 읍청루(挹淸樓) 등과 같이 정문으로 누문을 세운 곳도 있다. 또한 외삼문을 들어서면 옥산서원의 무변루(無邊樓), 병산서원의 만대루(晩對樓), 서악서원의 영귀루(詠歸樓), 자계서원의 영귀루(詠歸樓) 등과 같이 외삼문과 강학 공간 사이에 누각을 세운 서원이 있다.¹⁹⁾

19)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11.



도동서원 수월루



옥산서원 무변루

강학 공간은 일반적으로 일당양재(一堂兩齋)의 원칙에 따라 강당과 동·서재로 구성되는데, 규모가 작은 서원의 경우 강당만 있거나 혹은 동·서 양재만 있는 경우도 있다. 강당은 서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서원 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로 일반적으로 정면 5칸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중앙의 3칸은 대청으로 만들어 강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좌우 양측의 각 1칸은 온돌로 만들어 교수진이 사용하였다. 강당의 명칭은 향교의 명륜당과 같이 공통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도산서원의 전교당(典敎堂), 무성서원의 명륜당(明倫堂), 덕양서원의 덕양강당(德陽講堂)과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을 쓴다. 동재와 서재는 원생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기숙사와 같은 곳으로서 강당을 중심으로 왼쪽이 동재, 오른쪽이 서재라 칭하며, 동재에는 선배가 되는 원생들이 기거하였다.



서원 전체 배치



강당 및 양재



사당 및 내삼문

제향공간은 내삼문(신문)과 사당으로 구성되는데, 제향공간은 엄숙하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위에 담을 쌓았다. 서원의 사당은 공자를 비롯한 선현과 우리나라 유학자 18현을 봉안하는 향교의 사묘와는 달리 특정한 인물을 배향하므로 향교에 비해 사묘의 크기도 작고 배향인물도 서로 다르다. 사당 건물은 보통 정면 3칸과 측면 2칸의 규모로 구성되는데 예외적으로 창절서원은 정면 5칸 규모이다. 이는 봉향자가 1~6명인 다른 서원과 달리 창절서원은 단종 복위와 관련된 사육신을 포함하여 봉향자가 1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사당의 명칭도 강당의 명칭과 같이 도산서원의 상덕사(尙德祠), 옥산서원의 체인묘(體仁廟), 필암서원의 우동사(祐東祠) 등으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였다.

부속 공간으로는 강학 공간에 부속된 건물인 장서각과 장판각이 있고, 제향공간에 부속된 건물로는 전사청과 제기고 등이 있다. 장서각은 서책을 보관하고, 장판각은 서책을 찍어낸 목판을 보관하는 곳으로 명문 서원에서는 선현들의 문집 등을 판각하여 책을 펴낸 뒤 다른 서원에 공급하기도 하였는데, 이 목판을 장판각에 수장하였다. 장판각은 서고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위치와 건축구조에 각종 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구조적으로도 습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닥은 마루로 만들고 창문의 크기는 통풍을 고려해 만들었다. 또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장판각 전후로는 가능한 다른 건물을 띄워서 배치하고 건물을 둘 경우 바람이 잘통하도록 배치하였다. 전사청은 제향 때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는 곳이고, 제기고는 제기와 제례 용구를 보관하는 곳인데, 간혹 전사청과 제기고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전사청은 일반적으로 사묘구역 내에 두지 않고 사묘와 별도로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데, 함양의 남계서원은 유일하게 사묘구역 내에 전사청을 두었다.²⁰⁾



도산서원 상고직사



돈암서원 장판각

또 교직사(校直舍)·주소(廚所)·주사(廚舍) 등으로도 불리는 교직사는 서원에 딸린 노비들이 생활하면서 원생들의 식사와 세탁, 제사 음식준비 등을 서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였다.

서원에는 향사와 관련된 성생단(省牲壇)·관세대(盥洗臺)·망료위(望燎位)·정료대(庭燎臺)와 같은 의례용 시설물들도 있다. 제사에 쓰일 가축을 생(牲)이라 부르는데, 제수를 마련하기 전날 향사의 관계자들이 희생 제물로 쓰일 '생'을 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쓰일 생이 정결한가를 검사하였다. 이때 '생'을 올려놓는 단을 성생단이라 부른다. 성생단은 소수서원과 같이 흙을 쌓아 만든 곳도 있으나, 돌을 쌓아 만든 석단과 넓적한 돌로 만든 것도 있다. 또한 관세대는 제사 때 손을 씻기 위한 대야를 올려놓는 시설물이다. 그리고 망료위는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축문을 태우고 묻는 곳이다. 또한 정료대는 밤 중에

20)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19.

불을 밝히기 위하여 사당이나 강당 앞에 세워놓는데, 제사는 한밤중에 행해지기 때문에 정료대 위에 관솔불을 올려놓아 불을 밝혔다.²¹⁾



성생단



관세대



망료위



정료대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조선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상실되기는 했지만 건축은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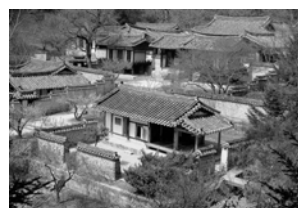
서원은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각 시대에 따라 건립된 사례가 현존하고 있어,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 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야가 된다. 또 서원 건축의 가장 큰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현존하는 서원중에는 도동서원 외 8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고산서원 외 많은 서원의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된 서원들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축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이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들 지정문화재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특별히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소수서원



도동서원



도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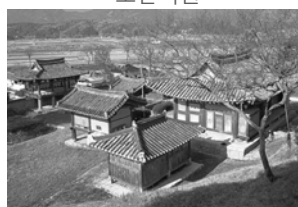
돈암서원



무성서원



병산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21) 이호일, 『조선의 서원』, 도서출판 가람기획, 2006, p.14.

2) 서원 건축물의 가치²²⁾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조선왕조시대의 시대상과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현대사회가 되면서 서원의 기능은 상실되기는 했지만 건축은 원형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있다. 동북아 유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들 중 서원건축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이며, 그 중에서도 조선말 훼손을 면한 47개 서원은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인물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서원건축의 기술사적 가치와 양식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우리나라 서원중에는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사례를 비롯하여 조선말까지 각 시대에 따라 건립된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 서원의 건축양식을 통해 당시의 기술수준과 미학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다. 서원 건축의 양식사와 기술사는 그 시대의 건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한 그 시대의 문화사, 경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서원건축은 시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한 분야가 된다. 서원건축의 가장 큰 가치는 완전성과 진정성이다. 현존하는 서원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가 있다. 지정된 서원은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건축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이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지정문화재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의 건축사적 가치는 다른 서원에 비해 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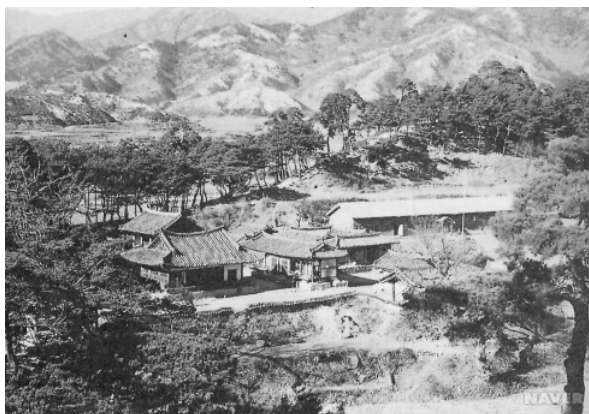
22)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21

3-2-2. 소수서원의 배치

일반적으로 서원의 강당과 재사의 배치관계는, 서원이 정립되는 초기 시기에는 강당이 후면에, 동재, 서재 등의 재사가 전면에 서로 마주보며 들어서는 전재후당 형식이 주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 건립된 서원에서는 전당후재의 형식도 나타난다. 하지만 소수서원의 강당과 사당의 배치관계는 이와 상이하다. 그 이유는 소수서원이 건립될 당시는 우리나라 서원 건축의 배치형식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제적 해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소수서원은 전학후묘가 아닌, 동학서묘의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쪽을 으뜸으로 삼는다.(서상, 西上)”는 예규를 따른 것이다. 직방재 서쪽과 동쪽 주변에는 장서각, 전사청, 영정각 등의 건물과 관세대, 정료대 등의 전경물이 있다.

현재 소수서원 외부공간의 배치는 진입로 우측에 숙수사지 당간지주가 있고, 좌측으로 암반 위에 형성된 소훈대와 소훈대 동쪽 아래 경림정이 배치되어 있다. 경림정 주변에는 학자수(學者樹)로 은행나무가 식생하고 있으며, 죽계천 너머에 ‘경(敬)’자 바위와 취한대가 있다. 소수서원의 내부공간은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크게 나뉘는데 강학공간은 강학당과 함께 북쪽 편에 있는 직방재·일신재, 학구재, 지락재, 장서각이 중심이 되며, 제향공간은 강학당 서쪽에 배치된 문성공묘와 그 뒤로 전사청, 영정각이 포함된다. 이외 1970년 이후 고직사, 사료관, 충효교육관 등이 서원 북쪽에 들어서게 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많은 자료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몇몇 사진자료와 최근 위성사진 등을 통해 소수서원 중심영역 주변의 배치상 변화된 모습이 관찰된다.

1918년 지형도에 소수서원이 위치한 내죽리는 원촌(院村)으로 병기되어 있고, 소수서원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만 배치모습은 간략하다. 현재 충효관과 북쪽 죽계천 사이의 공원에 민가 표기도 관찰된다. 진입로는 영귀봉 남쪽으로 나있고, 죽계천을 건너 천을 따라 북쪽으로 소로가 표기되어 있다.



1950년대 추정 소수서원 전경



1960~1982년 추정 소수서원 전경



1982년 이후 소수서원 전경



1992년 이후 소수서원 전경



현재 소수서원 전경



현재 소수서원 전경

국립국토지리원에서 수집된 위성사진 자료는 197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촬영된 것이다.

1971년 위성사진에서는 1918년 지형도에서 관찰된 민가의 배치가 이어져 왔으며, 마을의 남쪽은 모두 농지였다. 소수서원의 담장 윤곽이 뚜렷하고, 고직사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영정각의 지붕은 측면 폭이 현재의 영정각보다 좁게 확인된다.



1971년 항공사진



1980년 항공사진



1988년 항공사진



1991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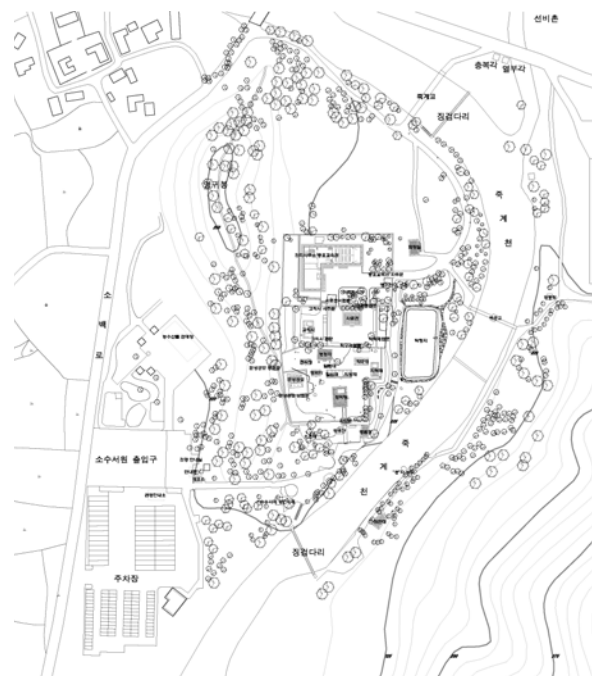
1980년 위성사진에서는 고직사가 보이지만, 지금의 사료관과 충효관이 세워지기 이전의 모습이다. 진입로 입구 즉, 매표소 인근 일부 농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한 모습이 관찰되며, 원촌의 지붕수도 일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1988년 위성사진은 고직사 앞에 사료관이 들어서 있고, 매표소 앞 진입로와 주차장이 추가되어 넓어진 모습이 관찰되며, 북쪽 원촌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모습은 1991년 위성사진이 촬영된 시기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995년 항공사진에서는 북쪽 원촌의 마을 규모가 작아진다. 특히 큰길 주변의 민가 위주로 정비된 모습이다.

소수서원 내의 가장 큰 변화로는 충효관건립이 있으며, 서원의 본 영역보다 큰 면적을 차지한다.

2005년 항공사진에서는 1995년 항공사진보다 크게 변화된 모습이 관찰된다. 먼저 북쪽 원촌은 완전히 사라지고, 공원이 조성되었다. 죽계천 너머 북쪽에는 선비촌이 들어서 있고, 동쪽에는 소수박물관이 배치된다. 죽계천에는 이들 배치공간과 연결하는 석교와 목교가 신설된 모습이 관찰된다. 소수서원의 서쪽 농지도 모두 주차장과 공원으로 바뀌었다. 지락재와 동쪽 죽계천 사이에는 탁청지가 발굴 후 복원되어 있는 배치모습이다. 2005년 항공사진 대비 2012년 정밀실측조사 당시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배치상 변화된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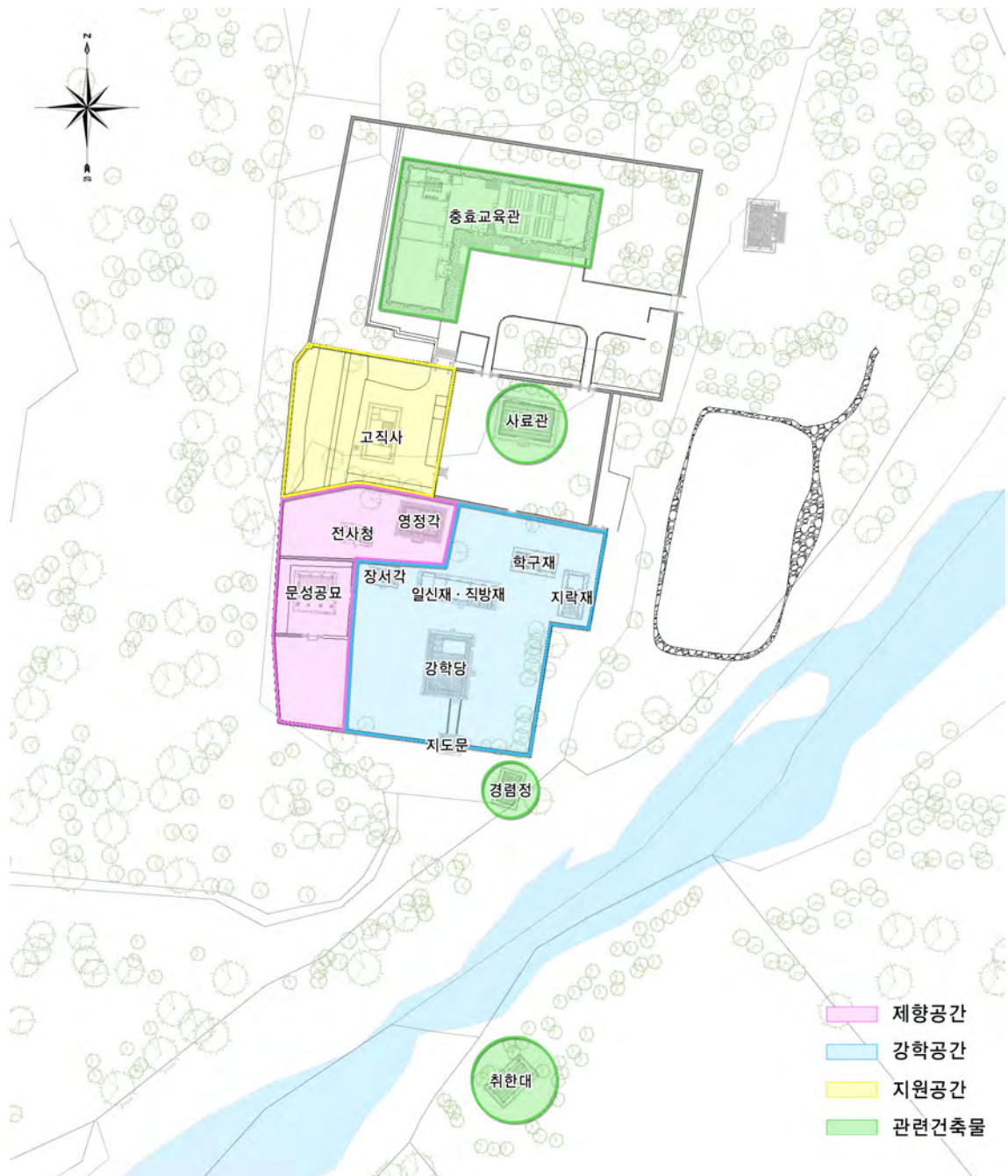
소수서원 영역의 배치는 현재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강학당과 사당, 서재 등이 배치된 서원중심영역과 고직사, 사료관이 그 북쪽으로 배치되어 1차 확장영역을 갖추었고, 다시 북쪽으로 충효관이 들어서 2차 확장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은 모두 담장을 둘렀으며, 담장 밖으로는 경림정, 탁청지, 취한대 등이 배치되어 있다.



소수서원 배치도

3-2-3. 현재의 소수서원

현재 소수서원의 영역은 강학영역과 제향영역, 지원영역 그리고 진입영역으로 구분된다. 서원의 배치형태는 교육시설인 강당이 있고 묘제시설인 문성공묘가 좌측에 있는 초기서원의 형태를 하고 있다. 특히 조선 성리학의 본산이자 성리학의 최초 시발점인 소수서원의 건축물들은 전체적으로 간결, 검소하게 꾸며졌으며 학문을 공부하는 선비의 자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소수서원 영역도

1) 강학공간

강학공간은 유생들이 생활하며 강학과 학문을 닦는 공간으로 서책의 보관, 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건축물로는 강학당, 학구재, 지락재, 일신재 직방재, 장서각이 있다.



강학공간

① 강학당

■ 개요

- 서원 강당인 명륜당은 남북으로 길게 동향(東向)하여 서있으며, 정문인 사주문을 면하여 “백운동(白雲洞)” 현판이 걸려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 강학공간의 중심을 이루는 강당은 유생들이 강학하는 곳으로써 향교의 명륜당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소수서원의 강당은 주세붕이 1543년(중종 38) 군학사(郡學舍)를 이건(移建)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강당이름이 강학당으로 되어 있다. 또 일반적으로 서원 건물의 강당은 정면 5칸 규모의 건물인데 소수서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큰 대청을 형성하고 방이 한쪽에만 있다. 대청 북편에는 명종의 친필 편액 “소수서원(紹修書院)”이 걸려있다. ‘소수서원’ 현판은 명종 임금의 친필 사액(賜額) 현판이다. 이 강당에서 길러낸 원생은 4천여명에 달하며 퇴계 이황 문하생(門下生)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다.
- 강학당은 소수서원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이다. 강학당은 남북으로 길게 지어진 건축물로 남측과 북측으로 합각지붕을 설치하였다. 이를 전통한옥의 평면구성으로 보면 건물의 향을 동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강학당은 그렇게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는 건물의 전면에 붙어있는 현판인 백운동서원이 남측면 중앙칸 외벽면 위에 붙어있고, 또 소수서원이라는 명종의 친필 현판은 같은 방향으로 건물의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한옥건물의 보편적 개념상 건물의 평면 형태와는 달리, 보편적 건물에서의 측면을 건물의 정면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 연혁

- 1543년 향교 학사(郡學舍)를 이건
- 1651년 중건
- 1652년 양벽과 사벽 공사, 단청공사
- 1677년 창과 벽체 수리
- 1689년 비가 새는 곳 수리 후 문과 창 수리
- 1692년 ‘강학당 남쪽과 동쪽 담장’ 개축, 강학당 동북 양편의 섬돌 개축
- 1704년 ‘강학당 앞대문’ 개축
- 1719년 중수하고 단청함
- 1723년 중수
- 1782년 중수(뒷마루보수, 난간 신설, 마루 분합 높임)
- 1791년 계단과 기와보수
- 1799년 기와 보수
- 1832년 중수
- 1958년 보수
- 1974년 번와 공사
- 1985년 번와 공사
- 1992년 번와 공사
- 1996년 보수 공사
- 2000년 보수 공사
- 2004년 보물 제1403호 지정

■ 관련자료

- 『紹修書院誌』·『문화재보수실적('84년)』·『문화재보수실적('85년)』
- 소수서원 강학당 및 문성공묘 정밀실측보고서_문화재청

■ 현황 사진



강학당 정면



강학당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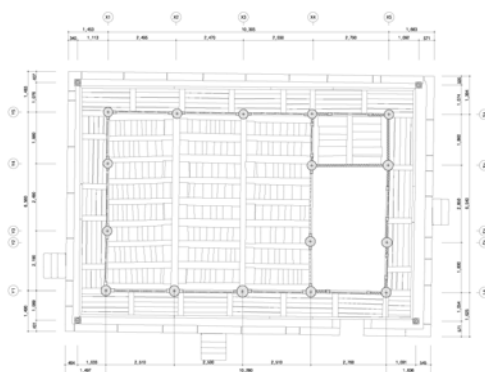


강학당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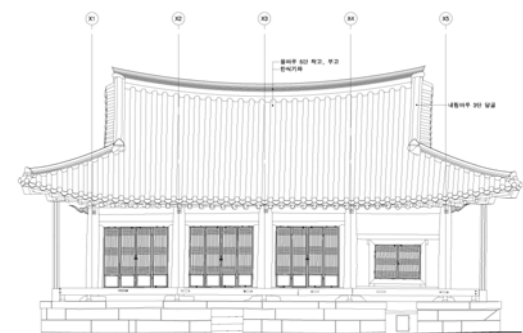


강학당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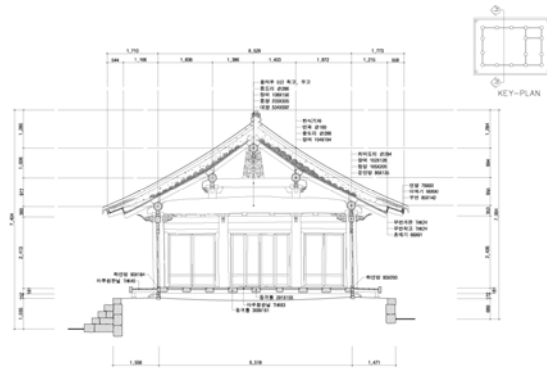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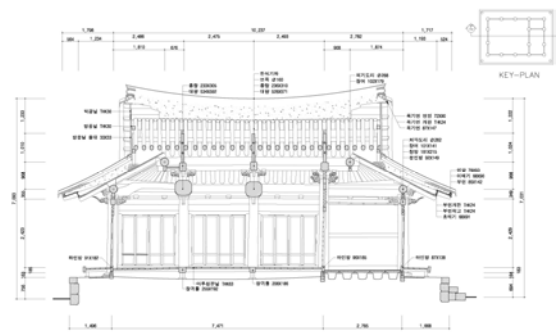
강학당 평면도



강학당 우측면도



강학당 종단면도



강학당 횡단면도

② 일신재·직방재

■ 개요

- 강당인 강학당 북쪽에 위치한다. 다른 서원처럼 동재와 서재가 각각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양재(兩齋)가 한동(棟)으로 이뤄진 독특한 건물로써 편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신재는 “나날이 새로워지라”는 뜻의 「대학(大學)」에서 따온 것이며, 건물 우측 직방재는 안(內心)과 밖(外行)을 곧고 바르게 하라는 뜻의 「주역(周易)」에서 따온 것이다. 이 재사는 정면 6칸, 측면 1.5칸으로, 중앙의 우물마루 2칸과 양쪽 협실 각 2칸 및 협실 앞의 툇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 연혁

- 1543년경 건립(강학당 건립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
- 1654년 직방재 2칸을 동·서로 길게 고침
- 1677년 직방재 4칸 개조
- 1712년 직방재 결방 '신방(新房)' 북쪽 처마 아래에 마루 개설
- 1791년 직방재·신방의 계단, 기와 보수
- 1799년 직방재·신방 기와 보수
- 1805년 일신재 세움(49)
- 1975년 일신재·직방재 보수
- 1991년 지붕보수
- 2006년 보수

■ 관련자료

- 『直方齋日新齋上梁文』·『新房學求齋上梁文』·『紹修書院誌』
- 『문화재보수정비실적('63~'83)』·『문화재수리보고서('91년, 下권)』

■ 현황 사진



일신재·직방재 정면



일신재·직방재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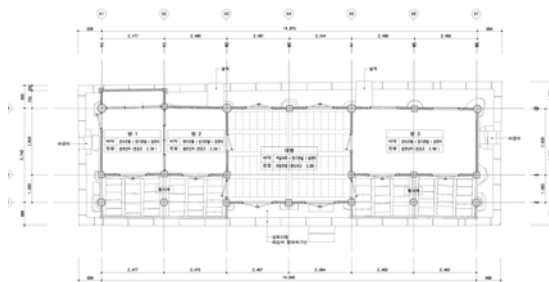


일신재·직방재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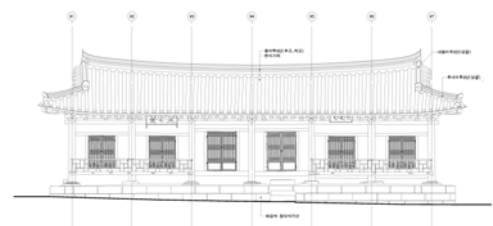


일신재·직방재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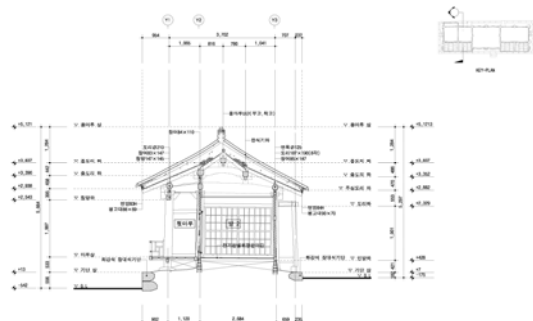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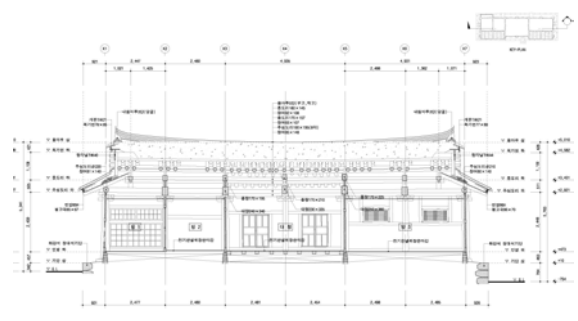
일신재·직방재 평면도



일신재·직방재 정면도



일신재·직방재 종단면도



일신재·직방재 횡단면도

③ 지락재

■ 개요

- 재사 동북쪽으로 학구재와 함께 ‘ㄱ’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곳이다. 지락재는 “배움의 깊이를 더하면 즐거움에 이른다”는 뜻으로 일명 양고재(仰高齋) 라고도 하며, 창석(蒼石) 이준(李俊)이 세웠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지락재는 일신재와 직방재보다 위계가 낮은 성격의 건물이다. 서향을 한 지락재의 북쪽의 한 칸은 온돌이고, 남쪽의 나머지 두 칸은 우물마루로 처리했는데 외부로 면한 면은 모두 개방하였다.

■ 연혁

- 1614년 건립
- 1652년 서까래 보수
- 1799년 중수
- 1832년 중수
- 1966년 해체 보수
- 1985년 보수
- 1994년 보수
- 2000년 보수공사

■ 관련자료

- 『至樂齋重修求齋上梁文』
- 『紹修書院誌』·『문화재보수정비실적('63~'83)』
- 『문화재보수실적('84년)』
- 『문화재수리보고서('94년)』

■ 현황 사진



지락재 정면



지락재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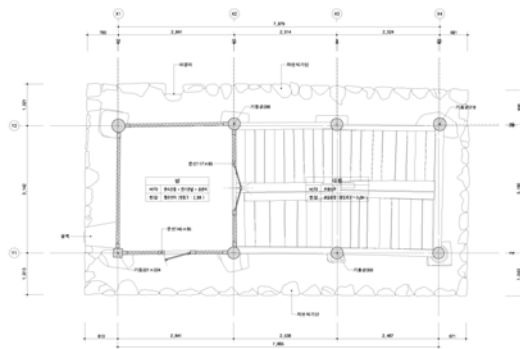


지락재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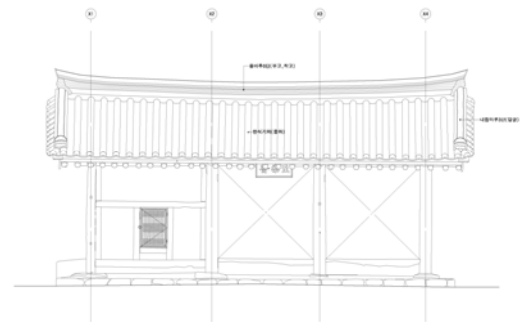


지락재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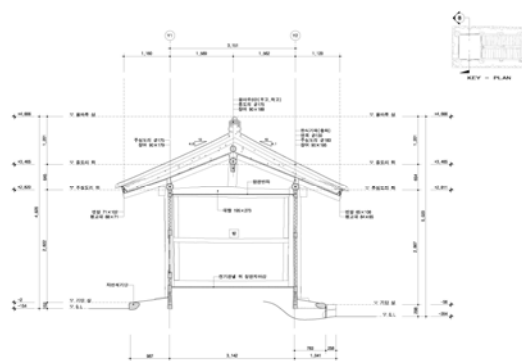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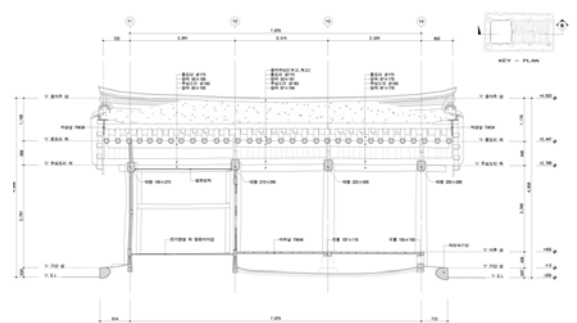
지락재 평면도



지락재 정면도



지락재 종단면도



지락재 횡단면도

④ 학구재

■ 개요

- 재사 동북쪽으로 서향하고 있는 지락재와 ㄱ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지락재와 함께 유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곳이다. 학구재는 “학문을 구한다.”는 뜻으로 일명 동몽재(童蒙齋)라고도 한다. 남향을 한 학구재는 정면 세칸, 측면 한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중앙의 우물마루는 전·후면을 모두 개방해 놓았고, 좌우에 온돌방을 한칸씩 두었다.

■ 연혁

- 1677년 동몽재 중수
- 1730년 동몽재 중수(제월루터에서 지금 자리로 이건)후 학구재로 개명(51)
- 1730년 서쪽 방2칸, 동쪽1칸 마루 중수
- 1805년 중건(신방(新房)의 현 나무에 새 재목으로 보수)
- 1832년 보수
- 1966년 해체보수
- 1989년 연목이상 해체보수, 계단, 석축 설치
- 2005년 해체 보수공사

■ 관련자료

- 『新房學求齋上梁文』
- 『童蒙齋重建記』
- 『紹修書院誌』
- 『문화재보수정비실적('63~'83)』
- 『문화재수리보고서('89년)』

■ 현황 사진



학구재 정면



학구재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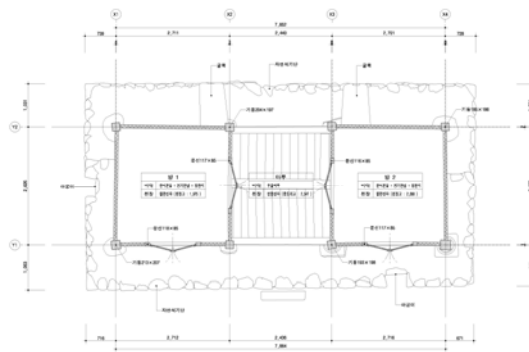


학구재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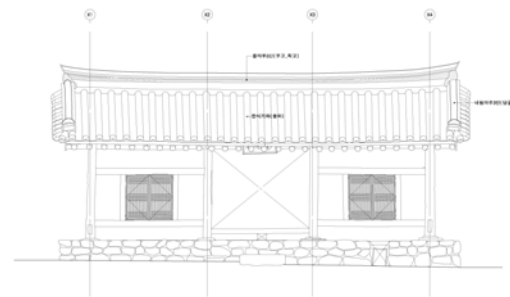


학구재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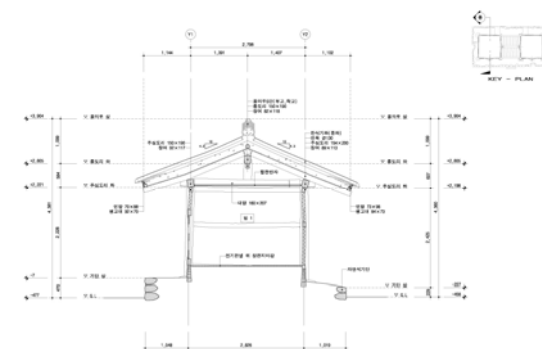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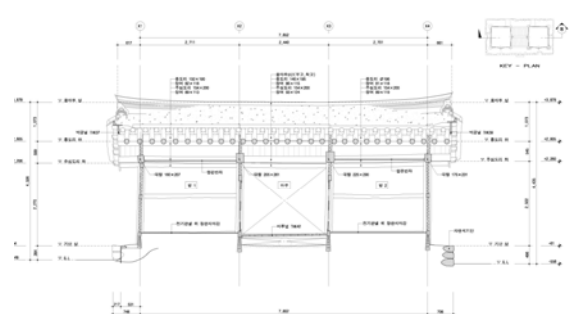
학구재 평면도



학구재 정면도



학구재 종단면도



학구재 횡단면도

⑤ 장서각

■ 개요

- 장서각은 직방재와 문성공묘 사이에 위치한다. 목판(木板)과 나라에서 내려준 서책을 포함한 3,000여권의 서적을 보관하던 곳으로 전해지나, 현재는 정면 두 칸, 측면 한 칸의 맞배지붕을 한 건물로써, 정면에는 각 칸마다 판문을 달았고, 내부는 마루를 깔았다. 일반적으로 서원의 장서각은 강학공간에 부속되는 주요 건물로서, 선현들의 문집 등을 판각하여 서적을 펴내는 목판을 보관하는 곳이며, 목판을 제작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서원은 장판각을 두고, 일반적으로 판본이나 서적들을 수장하기도 하는데 장판고, 문집판고(文集板庫), 판각(板閣), 서고 등으로도 불린다. 구조는 습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은 땅에서 떨어뜨려 마루로 하고, 환기구나 살창을 설치한다. 규모가 큰 서원은 장판각과 장서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한다.

■ 연혁

- 1543년경(강학당 건립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
- 1996년 보수공사

■ 관련자료

- 『紹修書院藏書閣移建記』

■ 현황 사진



장서각 정면



장서각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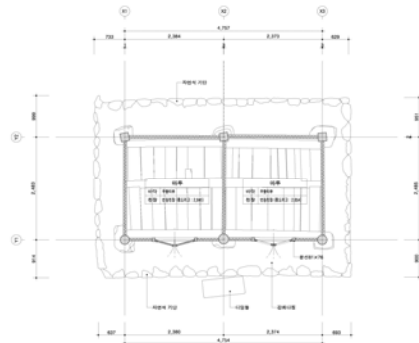


장서각 내부 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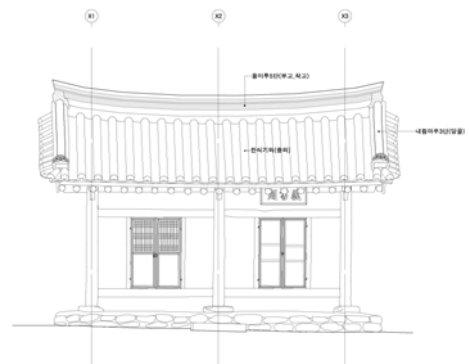


장서각 현판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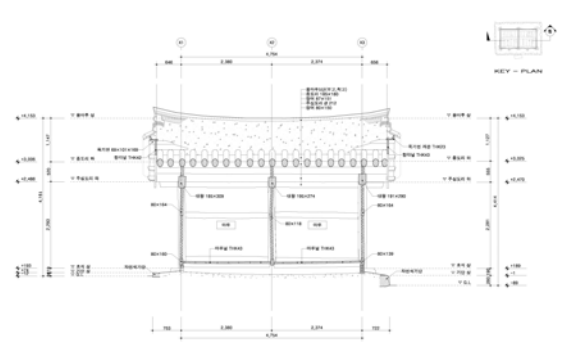
장서각 평면도



장서각 정면도



장서각 종단면도



장서각 횡단면도

2) 제향공간

제향공간은 후학들이 선현의 학덕을 기리고자 지은 사당과 그에 따른 부속 건물로 이루어지며 문성공묘, 전사청, 영정각으로 구성된다.



제향공간

① 문성공묘

■ 개요

- 주세붕이 1542년 안향을 기리고자 그의 연고지에 세운 사당인 문성공묘(文成公廟)는 서원 일곽 서쪽 가장 깊고 존엄한 곳에 둘레담으로 별도 구역을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써 전면에 퇴칸을 조성한 사당에는 안향을 주벽(主壁)으로 해서 1544년 추가로 배향된 안축(安軸, 1287~1348)과 안보(安輔, 1302~1357), 그리고 1633년(인조 11)에 추향(追享)된 주세붕이 모셔져 있으며, 북벽 동쪽에는 '文成公', 왼쪽에는 '道德博問曰文 安民立政曰成'라고 쓰여져있다. 소수서원에서는 매년 3월과 9월 춘추 초정일(初丁日)에 주세붕이 초안 하고 이황이 보완한 홀기(笏記)에 의해 제향(祭享)을 드린다. 이때에 반드시 주세붕이 창작한 "도동곡(道東曲)"이라는 경기체가(景幾體歌)를 창(唱)하는데, 이는 중국 공자의 도(道)가 회헌 안향에 의해 우리나라로 옮겨진 것을 높이 찬양한 것이다.

■ 연혁

- 1543년 5월 건립
- 1543년 8월 문성공 영정 봉안
- 1711년 사당 보수
- 1799년 사당 기와보수
- 1985년 협문 보수
- 1985년 문성공묘 변와보수
- 1996년 문성공묘 보수
- 2004년 4월 6일 보물 제1402호 지정

■ 관련자료

- 『紹修書院誌』
- 「명륜당 대들보 기문」
- 『문화재보수실적('85년)』

■ 현황 사진



문성공묘 정면



문성공묘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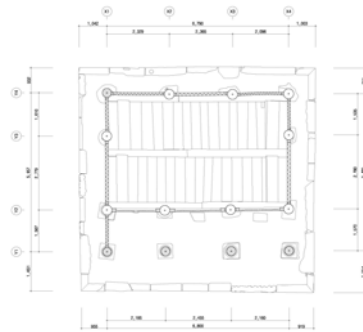


문성공묘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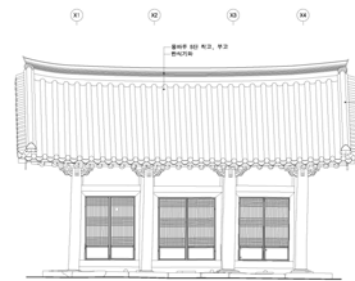


문성공묘 우측면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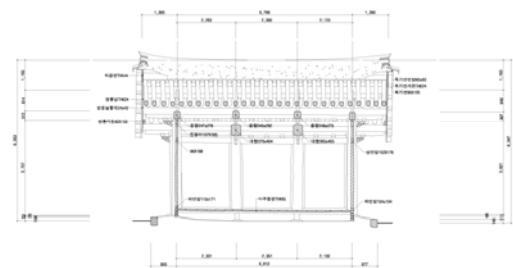
문성공묘 평면도



문성공묘 정면도



문성공묘 종단면도



문성공묘 횡단면도

② 전사청

■ 개요

- 전사청은 문성공묘 담장 북쪽편에 위치하고 있다. 주세붕이 사당을 지으면서 제기(祭器)를 보관하고 춘·추향사때 제물(祭物)을 장만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 연혁

- 1543년경 건립(문성공묘 건립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
- 1546년 확장공사
- 1654년 3칸 서까래 교체
- 1790년 기둥, 창호 문지방, 기와 보수
- 1986년 보수
- 1996년 보수공사

■ 관련자료

- 『紹修書院誌』

■ 현황 사진



전사청 정면



전사청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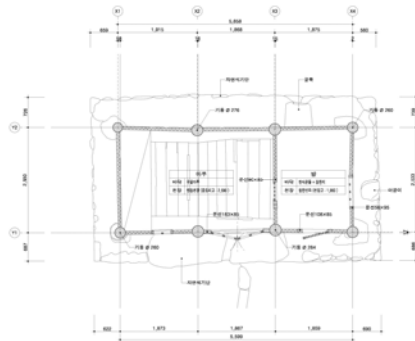


전사청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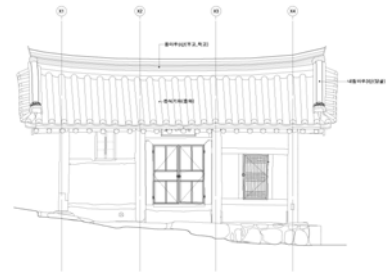


전사청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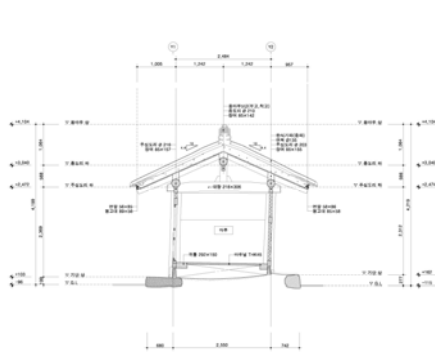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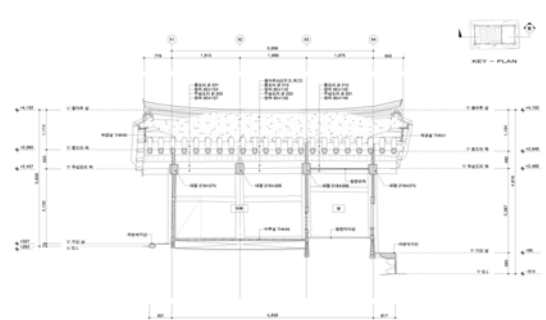
전사청 평면도



전사청 정면도



전사청 종단면도



전사청 횡단면도

③ 영정각

■ 개요

- 장서각과 직방재 뒤에 위치한 영정각에는 회헌 안향의 영정(국보 111호)과 신재 주세붕의 영정(보물717호), 회암 주희, 문충공 오리 이원익, 문익공 한음 이덕형, 문정공 미수 허목, 영정을 봉안 하고 있다.

■ 연혁

- 1974년 건립
- 1991년 경보기 설치
- 1996년 보수공사

■ 관련자료

- 『문화재보수정비실적('63~'83)』
- 『문화재수리보고서('91년, 下권)』

■ 현황 사진



영정각 정면



영정각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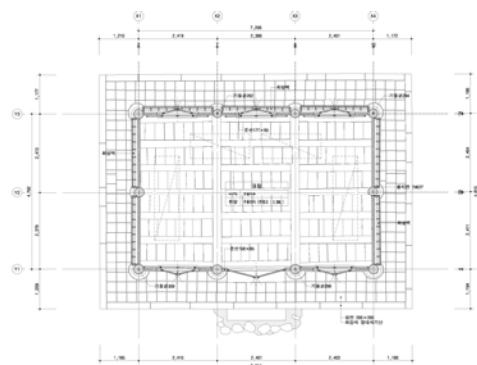


영정각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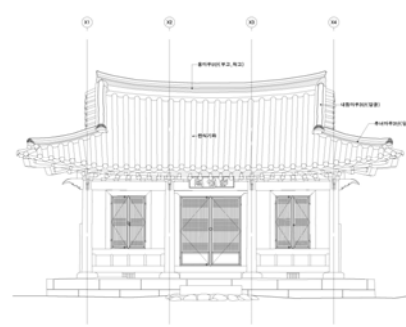


영정각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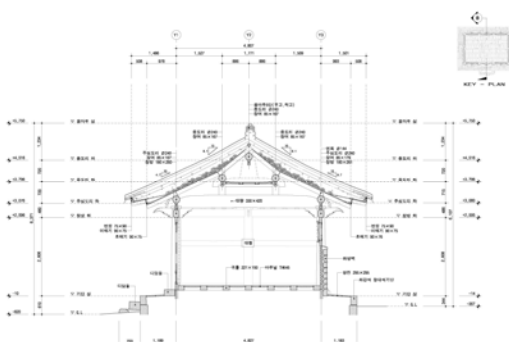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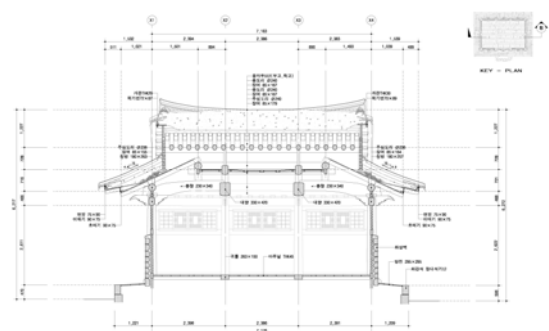
영정각 평면도



영정각 정면도



영정각 종단면도



영정각 횡단면도

3) 지원공간

지원공간에는 고직사가 있으며, 서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원공간

① 고직사

■ 개요

- 고직사는 서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거처하던 곳으로 방과 대청, 부엌 등으로 평면이 구성되는 것은 일반 살림집과 같다. 일반적으로, 고직사는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원지기의 주거 기능, 재생들의 식사, 제사시 음식을 준비하는 기능, 식량, 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기능을 갖는다. 명칭은 교직사(校直舍), 관리사(管理舍), 주사(廚舍)라고도 한다. 고직사는 유교관념상 서원내에서는 사람이 임종을 할 수 없으므로, 서원 담장 밖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고직사는 서원 강학공간 영역 밖 좌측, 또는 우측에 위치하는데, 소수서원의 경우는 서원 일곽 뒤에 위치하고 있다.

■ 연혁

- 건립연대 미상
- 1974년 영정각 신축 공사시 현 위치로 이건
- 1982~85년경 유물관 신축 공사시 재정비(추정)

■ 관련자료

- 『紹修書院誌』

■ 현황 사진



고직사 정면



고직사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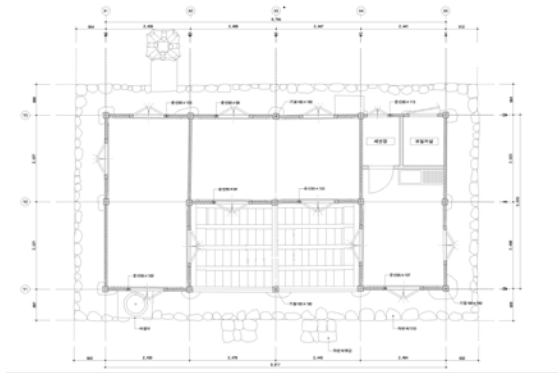


고직사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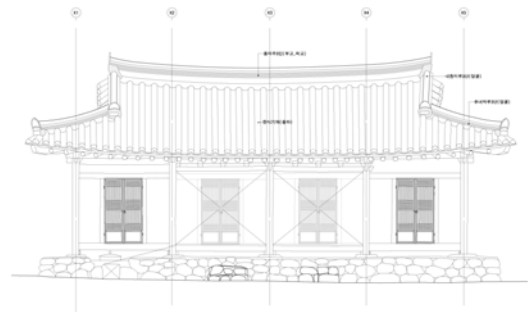


고직사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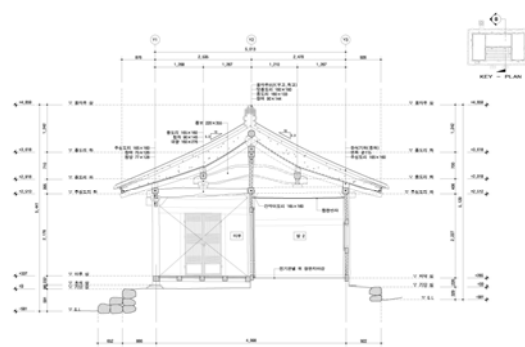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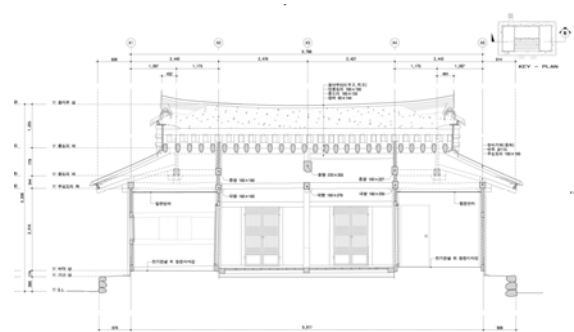
고직사 평면도



고직사 정면도



고직사 종단면도



고직사 횡단면도

4) 관련건축물

관련건축물로는 경림정, 취한대가 있으며 죽계천이 조망되고 풍광이 수려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사료관과 충효교육관이 있으며, 관람을 지원해주고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건축물

① 경렴정

■ 개요

- 경렴정은 원생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정자(亭子)이다.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건립하면서 지은 건물로 정자의 이름 '경렴정'은 북송(北宋)의 성리학자인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를 경모(景慕)하는 뜻에서 그의 호(號)에서 따왔다. 정자 안 남쪽의 초서(草書) 현판(懸板)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의 제자(弟子)인 고산(孤山) 황기로(黃耆老)의 글씨이다. 경렴정은 서원공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서원 동쪽에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죽계수를 끼고 주변 경관을 조망하며, 원생이나 유림이 모여 회합을 하거나 시회(詩會)를 열며 풍류를 즐기고 심신을 고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연혁

- 1545년 건립
- 1657년 철거 후 재건
- 1689년 비가 새는 곳 수리, 난간 철정(鐵釘) 수리
- 1691년 경렴정 현판 수리
- 1714년 중건
- 1716년 단청공사
- 1763년 기와보수
- 1769년 '경렴정 북쪽 담장' 개축
- 1975년 번와공사, 기단보수
- 2000년 보수공사
- 2009년 해체보수

■ 관련자료

- 『紹修書院誌』
- 『2010년 문화재연감』

■ 현황 사진



경렴정 정면



경렴정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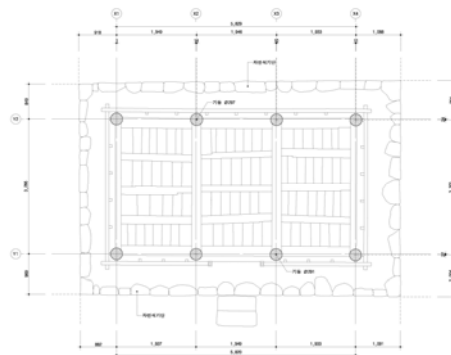


경림정 배면과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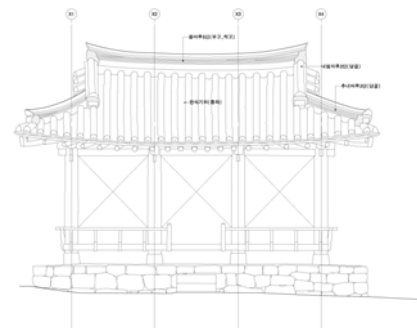


경림정 지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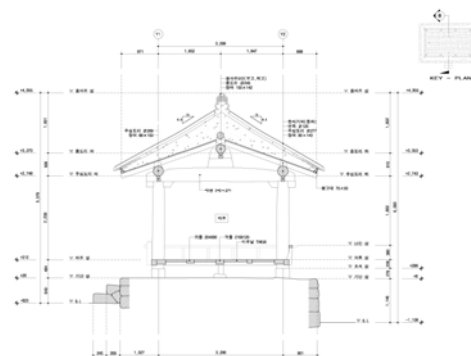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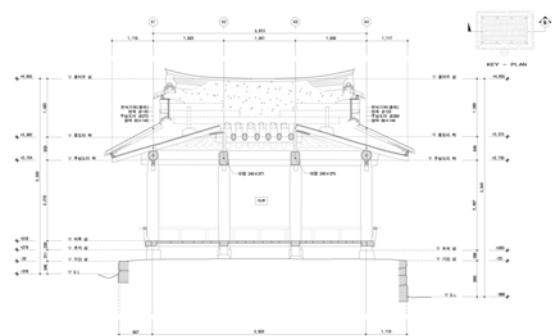
경림정 평면도



경림정 정면도



경림정 종단면도



경림정 횡단면도

② 취한대

■ 개요

- 소수서원 북서쪽에서 북동을 지나 남동쪽으로 감돌아 흐르는 죽계천 건너편 소나무 숲에 위치한다. 퇴계 선생이 경자바위 윗부분에 터를 닦아 대를 쌓고 손수, 소나무, 대나무, 잣나무를 심고 취한대라 이름한 것을 본받아 1986년에 새로 지은 정자이다. 취한대는 원생들이 시를 짓고 학문을 토론하던 곳으로 취한(翠寒)이란 '푸른 연화산의 기운과 맑은 죽계천의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뜻에서 송취한계(松翠寒溪)에서 따온 것이다. 전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출입하는 전면 중앙칸을 제외하고 모두 난간을 설치했다.

■ 연혁

- 1550년 건립
- 연대미상. 소실되고 터만 남음.
- 1986년 신축
- 2000년 보수공사

■ 관련자료

- 『紹修書院誌』
- 『2010년 문화재연감』

■ 현황 사진



취한대 전경



취한대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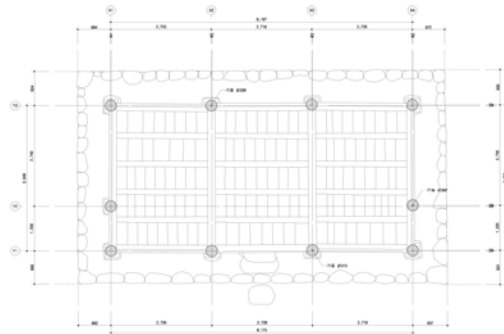


취한대 상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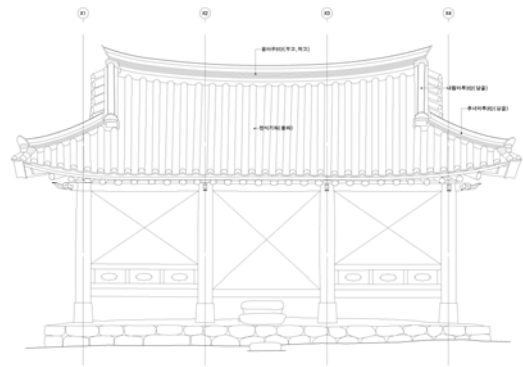


취한대 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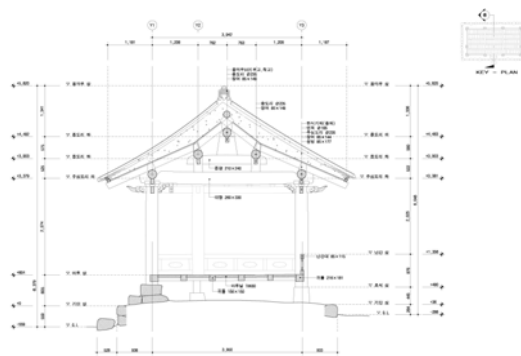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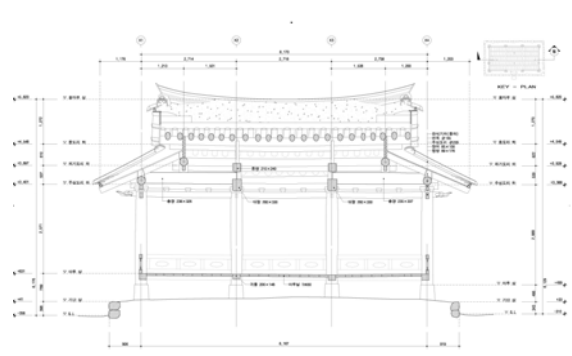
취한대 평면도



취한대 정면도



취한대 횡단면도



취한대 종단면도

③ 사료관

■ 개요

- 유물관에는 서원의 양대 기능인 「강학(講學)」과 「제향(祭享)」을 주제로 하여 유물을 전시하였다. 우선 '강학'과 '제향'의 모습을 '디오라마'로 제작하여 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사당에 봉안된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 선생에 대한 설명과 서원의 발생, 운영, 교육, 제향, 사회적 기능 등 당시 서원의 역할에 대한 도판을 제작,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서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아울러 '학맥도', '선현문집', '경서류', '시판' 등을 전시하여 유교문화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연혁

- 1982년 신축

■ 관련자료

- 『문화재보수실적('82년)』

■ 현황 사진



사료관 정면



사료관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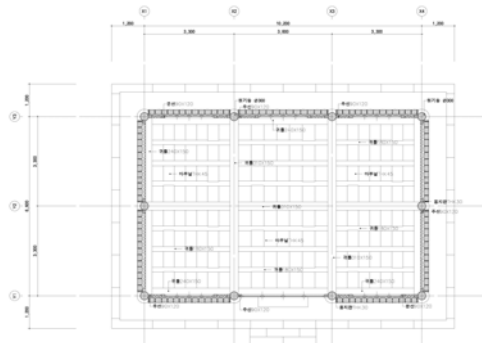


사료관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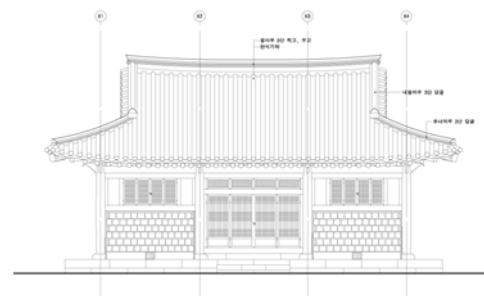


사료관 우측면

■ 현황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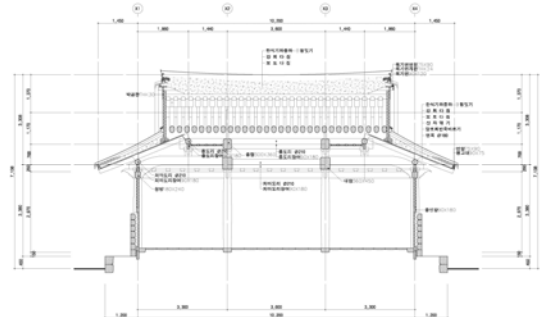
사료관 평면도



사료관 정면도



사료관 종단면도



사료관 횡단면도

④ 충효교육관

■ 개요

- 고직사와 유물관 뒤 별도의 영역에는 사료전시관과 충효교육관이 있고, 마당에는 소수서원중건기적비가 있다. 건물의 면적은 583.2㎡이며, 소수서원중건기적비는 1993년 6월 송지향(宋志香)이 짓고, 김태균(金台均)이 썼으며, 영풍군(榮風郡)이 세웠다. 기적비에 의하면 국바·도바·군비를 재원으로한 소수서원 중수 사업은 1991년 10월에 착공하여 1993년 6월에 준공하였다. 처음에는 충효사료관으로 개관하였는데 2004년 소수박물관이 건립된 이후 사료전시실은 소수박물관으로 이관되고 충효사료관은 충효교육관으로 변경하여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와 교육관(강당), 체험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 연혁

- 1992년 건립
- 1995년 마당 정비 및 조경공사
- 2004년 사료 전시실은 소수박물관으로 이관

■ 관련자료

- 『문화재수리보고서('95년 下권)』

■ 현황



충효교육관 정면



충효교육관 관리사무소



충효교육관 충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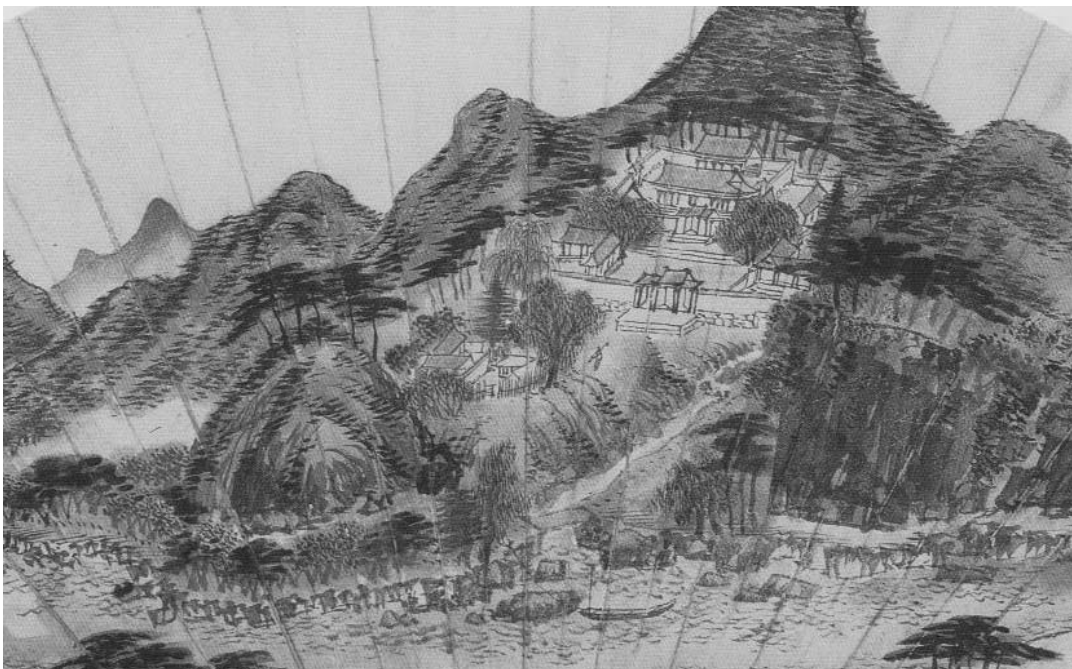
충효교육관 평면도

3-3. 서원의 입지 경관²³⁾

우리나라 서원 입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입지한다는 자연성이다. 전면에 경지, 강 그리고 산이 있어 개방적이고 시원한 전면 경관과 여기서 마을에 다가오는 푸른 산색과 반짝이며 굽이쳐 흐르는 물색에서 생의를 깨닫고 마음을 넓히며 지혜를 함축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산수경관이 서원의 필수적 입지 요소이다.

또 서원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전저후고의 경사지형에 입지하며, 강당을 앞에 두고 사당을 뒤에 두는 입지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서원의 전저후고의 입지 경관은 첫째 안에서 외부로 조망할 때 개방적 자연 경관시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천인합일’을 정감적으로 체득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원의 중요한 특성이고 장점이다. 자연적 지형 경사를 따라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서원에 진입하도록 하고 앞에서부터 외삼문-안마당-강당-사당의 순으로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진입과정에서 느끼는 상승감이 존경 경관에 대한 외경심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입지적 성격 때문에 서원은 공공적 종교적 시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폐쇄성과는 반대로 매우 개방적이다. 낮은 담장과 벽 없는 기둥으로 외부와 차단되지 않는 마루 공간, 자연지형 지세에 순응하는 상대향과 복합적 축선 등으로 나타난 개방성과 자연성은 폐쇄적인 중국서원과 다르다. 풍수적 자연관과 관련된 위요경관도 시각적·심리적으로 장소를 내부화하는 것이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시계를 제한하기 위한 위요경관이 아니다.



겸재 정선의 도산서원도

23)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p.22-30 참조.

3-3-1. 천인대대(天人對待)의 전망경관

전망 경관은 서원의 문루나 강당에서 전면의 대자연을 내다보는 경관으로 인간과 대자연이 마주보는 천인대대의 경관이다. 풍수에서는 안대라고하고 유교적 관점에서는 자연과 생의를 감통 감응함으로써 천인합일의 경지(인仁)를 마음과 정신으로 느끼고자 하는 경관이다. 서원의 구체적 입지 유형과 서원 창설자들의 지향하는 바에 따라 천인감통을 느끼는 방식이 다양하다. 서원 문루의 이름과 기문이나, 관련된 인물의 시문을 통해서 전망 경관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입지	서 원
야경(野景)	확연대공(廓然大公, 필암서원), 음풍영귀(吟諷詠歸, 남계서원)
산경(山景)	취병만대(翠屏晩對, 병산서원)
강경(江景)	추월한수(秋月寒水, 도동서원)
계경(溪景)	관수유술(觀水有術, 구연서원)

입지유형 천인감통 유형

- 필암서원 : 확연대공(廓然大公)의 필암서원은 탁 트여 시원하게 펼쳐진 평야 경관이다.

夫天地之常，以其心普萬物而無心。

聖人之常，以其情順萬事而無情，故君子之學 莫若廓然而大公，物來而順應

- 『定性書』

“천지의 상도는 그 마음이 만물에 두루 미치나 사사로움이 없고, 성인의 상도는 그 정이 만물에 순응하나 사사로운 정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은 확 트여서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와서 순응하지 않음이 없다.

- 『정성서』

- 남계서원 : 풍영루(風詠樓)는 경주 평지에 자리 잡아 낮은 산과 들이 평온하고 생기 있게 보이는 경관이다.

“다락집의 제도가 매우 광결하지는 않지만 빛나고 날듯 함이 잠시 동안 다시 보게 되었다. 높이가 백자도 되지못하나, 멀리 임해서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경치가 들판이 평평하게 넓고, 냇물이 감돌아 얹히듯 했는데, 먼 숲은 푸르고 저녁노을이 아름답도다. 백암산의 두어 집이 저문 빛속에 들어 반쯤이나 숨었고, 석뢰계(石雷溪)의 한쪽은 아침 햇볕에 온전히 드러났도다. 대나무와 잣나무 우거진 앞마을에는 우는 새들이 봄을 재촉하고, 논에서는 늙은 농부가 가을 농사를 점치도다. 풍월(風月)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구름과 아지랑이가 재주를 드리우는데, 한번 슬쩍 보아도 천가지 기이함이 황홀하여 형상하기 어렵도다. 이 다락에 오르면 넓어지는 마음과 편안한 정신이 자연 속에 자맥질하여서 유연히 스스로 얻은 것이 있는 듯 뜻이 있도다. 두류산(頭流山)의 만첩 봉우리와 화림천(花林川) 아홉구비의 흐름에서 거의 선생의 풍표(風標)를 보고 선생의 기상(氣象)을

우러러 볼 수 있음이니, 흡사 선생이 계신 자리에 되시고 서서 증점(曾點)이 쟁그렁하고 비파를 밀쳐놓던 뜻이 있는 듯하여 풍영루(風詠樓)라 이름 하였다.”

-남계서원(濫溪書院) '풍영루기문(風詠樓記文)'

- 병산서원 : 취병만대(翠屏晩對)의 병산서원은 생기 충만한 푸른 산색(山色)을 마주하며 생의(生意) 체득이 뚜렷한 경관이다.

翠屏宜晩對

푸른 절벽은 해질녘에 마주하니 좋고 - 두보(杜甫)의 시

蒼峭矗寒空，落日明影翠

만대봉 저녁놀은 푸르고 높아 차가운 하늘과 가지런한데, 푸른 절벽을 선명하게 비추네.

- 주자(朱子)의 시



병산서원 입교당에서 본 병산

- 도동서원 : 추월조한수(秋月照寒水)의 도동서원은 가을 달 찬 강물에 비추는 군자의 마음을 느끼는 경관이다.

恭惟千載心，秋月照寒水

삼가 천년을 전해 온 군자의 마음, 가을 달 찬물 위에 비추네

- 구연서원 : 끊임없이 흘러오는 물에서 자강불식하는 성인의 마음과 물의 지혜를 읽는 경관이다.

龜淵源接泗洙汀 活潑清流繞廟庭
混混續來知有本 悠悠過去自無停
盈科豈憚經千曲 勇進終能達四溟
觀水名樓誠有意 有形觀處覺無形

구연서원의 연원은 수사(洙泗)의 물가에 닿아, 활발한 맑은 시내 서원의 물을 돌아 흐르네.

끝없이 흘러오니 근본이 있음을 알겠고, 유유히 흘러가 스스로 정체함이 없네.

웅덩이를 채운 뒤 흐르니 천 굽이를 꺼리랴, 용감히 나아가 끝내 큰 바다에 이르리라.

관수루라는 이름 참으로 의미가 심장하니, 형체 있음을 보는 곳에서 형체 없음을 깨닫네.

1) 전저후고의 풍수적 위요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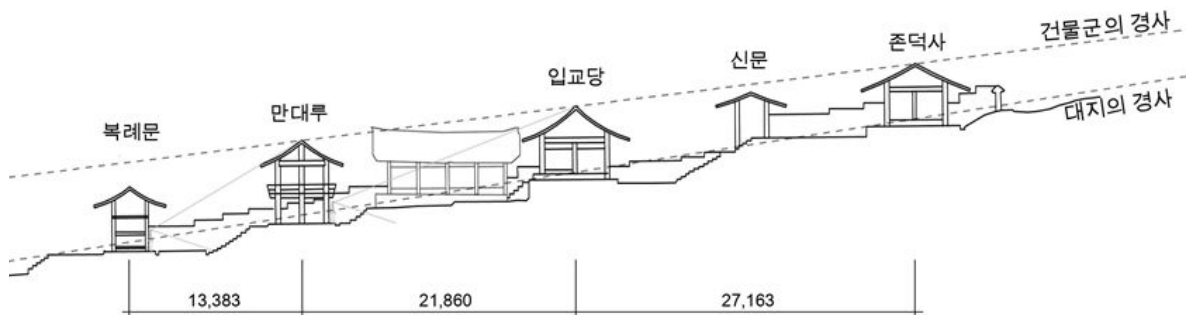
서원은 주위 산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기를 타고 갈무리 하도록 둘러싸인 풍수 경관을 이루며, 유교적 관점에서는 서원이 산줄기의 맥을 타는 것으로 연원이 이어짐을 상징한다. 위요경관은 바람을 막아 기를 안정시키는 미기후 효과뿐 아니라, 내부공간을 장소화 함으로써 보호되는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게 심리적·상징적 효과가 크다. 사신사(四神砂)라고 부르는 풍수적 위요 경관은 주위 산세(山勢)와 담장과 대문, 강당과 동·서재로 둘러싸인 안마당(중정, 中庭)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국 전통건축에서 담장은 주로 돌이나 흙 혹은 돌과 흙을 섞어 울타리를 두르는 방식으로 서원 내부에서 외부 자연경관을 관망하는 서원의 개방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낮은 담장을 통해서 서원 외부의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면서 서원의 인위적 경관을 담장 너머 대자연과 합일시킨다.

서원을 비롯한 한국 전통건축의 위요 경관은 내부를 완전하게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상징적으로 둘러싸서 내부자(insider)라는 지각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산과 담장은 높지 않고, 안마당을 둘러싼 건물도 틈새가 크다.

2) 위계적으로 분절(分節)된 예(禮)경관

예를 실천하는 서원경관은 서원의 내부 경관 구조에서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느껴지도록 개별 장소로 분절된 공간으로, 전저후고의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처럼 서원의 장소들은 상승 축을 따라서 좌우대칭적 구조에 기능별로 분절적으로 배치함으로서, 입구에서부터 지형경사를 따라 차례로 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장소로 진행하도록 한다.



병산서원 대지 종단면도

3) 서원의 연못 경관

서원경관에서 수경관(水景觀)은 풍수적 취수 집수 기능과 유교적 관조의 대상이라는 상징적 성격이 중복된 연못으로 나타나며, 형태는 방형(方形)이 많다. 서원 연못은 풍수적 맥락에서 보완경관 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서원의 연못도 취수, 집수, 수구로서 우기 때 집수 장소가 되어 서원 내부의 배수를 원활하게하여 마당 토양의 유실을 막아주고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며 화재 때는 수원의 역할을 한다.



남계서원 연지



병산서원 연지

4) 비움과 인간적 규모의 안마당(中庭)경관

서원 내부는 기능에 따라 많은 분절된 장소가 형성되는데, 서원의 중심인 강당 앞에는 보통 안마당(중정)이 만들어져 있다. 안마당은 비움의 공간으로 화초나 수목을 심지 않는데, 비움으로써 마당은 양기를 충전하는 장소가 되고, 수양의 성찰을 돕도록 침묵의 공간이 된다. 비워진 마당은 여름에는 서원 후면의 숲으로부터 바람을 유도하여 강당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마당의 복사열이 강당과, 동·서재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하는 미기후 조정 기능이 있다.

안마당의 규모는 보통 건물사이의 거리가 20-25m 정도이며, 마당 폭과 건물높이 사이의 비례는 2-3배이고, 마당한쪽 끝에서 반대편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양각은 18-27°이다. 이는 건너편 건물에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고 육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간격이며, 건물이 사면을 둘러싸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답답하지는 않을 정도의 가장 편안한 폐쇄감을 느끼게 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게다. 또 중정의 사면을 막는 건물들 사이 모서리는 연결되지 않고 벌어져 있는데, 그 각도는 20-25°로, 중정 사면의 공간은 개방성과 폐쇄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감을 느끼게 하는 크기이다.



옥산서원 안마당



도산서원 안마당

5) 수목식생 경관

서원은 산수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입지하므로 의도적 수목 식생은 제한적이다. 식생 수종의 특성을 서원 경외는 진입 공간과 담장주위, 서원 내는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원 경외의 진입과정의 공간의 공통적인 수목은 소나무와 느티나무 그리고 행단과 관련된 은행나무가 대표적이고 노거수가 많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는 유식여가장소인 정자나무 역할을 한다. 담장 주위와 서원 뒤에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대표적이다. 경내에 식재되는 나무는 강학공간에는 은행나무, 매화나무, 배롱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강학공간은 안마당이 중심장소가 되기 때문에 비어 있어 나무나 초본의 식재가 적다. 제향공간은 상대적으로 수목식생이 많은 편이다. 목백일홍(배롱나무)과 무궁화 및 모과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측백과 회화나무(괴목, 槐木) 등이 있다.



소수서원 진입로 식생



병산서원 만대루 앞 식생현황

6) 서원 주위 자연적 장소 경관

서원의 주위에는 서원 창립자의 삶의 자취가 남겨진 많은 장소들이 있고 아름다운 산수가 있어, 자연과 합일하려는 서원 창설자의 사상이 바위글자로 새겨져 있다. 의미 있는 장소들을 유교적 가치와 관련된 이름이 부여되고 구곡(九曲)등으로 경영되기도 한다, 이는 주자의 무이정사(武夷精舍) 사례에서 유래하고, 퇴계의 소수잡영(陶山雜詠) 병기(並記)에도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문성공(文成公)의 사당 앞 깎아지른 석벽에 ‘경(敬)’ 자를 새기려고 하니, 서원의 모든 벗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이하게 여김만 당할 뿐이라고 경계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스스로 마음속으로 공경하면 되지, 어찌 굳이 이것을 돌에 새겨야만 하겠는가.” 하기에, 나도 감히 강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회옹(晦翁)의 이 말을 찾게 되어 벗들 앞에 보이고서.

“선천(先天)의 모든 그림도 새겼는데 유독 경(敬)자를 새기는 것만 안 된단 말인가? 일찍이



소수서원 경자바위

이르기를, ‘경은 구차함의 반대이니 잠깐이라도 구차하면 이는 곧 불경(不敬)이다.’ 하였다. 이는 실로 우리 회헌晦軒이 회옹(주자)과 부합되는 것이니 더욱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묘원(廟院)은 비록 오래 보존되지 못하더라도 이 석각(石刻)이 마멸되지 않아 1천 년 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일컬어 ‘경석(敬石)’ 이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니 모두 좋다고 하여 드디어 새겼다.

《죽계지(竹溪志) 권5 : 잡록(雜錄)》·《武陵雜稿別集 권6 : 백운동석벽경자(白雲洞石壁敬字)》
 <소수서원 경자(敬字)바위, 「경(敬)」자를 새긴 내력>

“당 앞 출입하는 곳을 막아서 사립문을 만들고 이름을 유정문(幽貞門)이라 하였는데, 문밖의 오솔길은 시내를 따라 내려가 동구에 이르면 양쪽 산기슭이 마주하고 있다. 그 동쪽 기슭 옆에 바위를 부수고 터를 닦으니 조그만 정자를 지을 만한데, 힘이 모자라서 만들지 못하고 다만 그 자리만 남겨 두었다. 마치 산문(山門)과 같아 이름을 곡구암(谷口巖)이라 하였다. 여기서 동으로 몇 걸음 나가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바로 탁영담에 이르는데, 그 위에 커다란 바위가 마치 깎아 세운 듯 서서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10여 길은 될 것이다. 그 위를 쌓아 대(臺)를 만들었더니,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며, 위에는 하늘 아래에는 물이어서 새는 날고 고기는 뛰며 물에 비친 좌우 취병산의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天淵臺)라 하였다. 그 서쪽 기슭 역시 이것을 본떠서 대를 쌓고 이름을 천광운영(天光雲影)이라 하였으니,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에 못지않다. 반타석(盤陀石)은 탁영담 가운데 있다. 그 모양이 넓적하여 배를 매 두고 술잔을 돌릴 만하며, 큰 홍수를 만날 때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이 빠지고 물결이 맑아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소수서원의 천연대(天淵臺)와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

3-3-2. 소수서원의 경관

1) 소수서원 주요 경관요소

① 죽계천

죽계천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부터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서천 합류점에 걸쳐서 위치한 지방2급하천 죽계천 13.10km와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평리부터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죽계천 합류점에 걸쳐서 위치한 지방2급하천이다.

『광여도(순흥)』와 『영남지도(순흥)』에는 죽계수(竹溪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지도서』(순흥)에서는 『죽계지(竹溪志)』를 인용해서, 순흥의 형승을 묘사하고 있는데 "죽계가 그 왼쪽을 에워싸고 흐르며, 소백산이 그 오른쪽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다. 산은 높고 물은 맑으며, 봉황이 날아가고 용이 서려



제방공사 이전의 과거 죽계천 모습

있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문헌 단묘조에서 "죽계는 훌륭한 유학자이신 안유님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라 하여, 이에 그 땅에 나아가 살피서 서원을 지었는데 모두 30여 칸에 달하는 건물이었습시다."라는 기록이 있다. 죽계천은 여기서 말하는 죽계에서 유래하였다. 현재도 죽계천 상류의 계곡에는 죽계구곡이 있다. 죽계는 안축(1287~1348)의 고향임과 동시에, 그가 지은 경기체가 죽계별곡의 무대이다. 하천변 공원에는 죽계별곡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²⁴⁾

백운동 소수서원기를 살펴보면

“죽계수는 소백산에서 발원하여 이곳을 거쳐 흐른다. 죽계수가 경유하여 흐르는 이곳은 옛적 순흥부의 땅으로서 고려 문성공 안유가 살면서 독서하던 곳이다.²⁵⁾

쪽 뻗어 내려가다 남에서 감싸 안은 것이 ‘소백산’이다. 남쪽 한 줄기가 굽이돌다가 그윽하면서도 깊은 골짜기를 이루며, 또 맑은 물이 그 앞에서 휘감아 흐르는 것이 ‘죽계’이다. 죽계가에 예부터 큰 고을이 있었는데 ‘순흥’이라 하며, 지금은 풍기와 통합되었다. 그 천지의 맑은 기운은 마땅히 대인군자가 태어나 시운(時運)을 붙들고 교화를 일으켜 사도(斯道)를 길이 전할 만한 곳이다.

또한 백운동안문성공사당기에도 죽계천에 대한 대목이 나타난다.

24) 네이버지식백과,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지명, 국토지리정보원

25) 2013 소수서원 정밀실측조사보고서 92p, 문화재청



현재 죽계천 모습 2013.11 -1



현재 죽계천 모습 -2

주세붕은 1544년(중종 38년) 8월 11일 창건된 백운동사당에 안향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죽계사」 3장을 낭독하며 경건히 제례(祭禮)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 죽계수 서쪽에 소백산 그 사이에 공을 모신 사당
백운이 가득찬 골짜기에 앞길이 희미하네,
시냇물에는 고기 놀고 산에는 잣나무
여기는 공이 놀던 옛 터인데 어이하여 돌아오지 않으시나,
돌아와 주오 돌아와 주오 나를 슬퍼잡게
서쪽에는 소백산 동쪽에는 죽계수 산 위에는 구름
강물에는 달빛 고금에 변함 없네
공이 오실 적에는 옥규를 타고,
더러는 난조를 타고
나의 술잔을 드시고 나의 정성에 흠향하시어
기쁨을 다하소서.
공이 옛적 낚기 전에 유도가 어두웠고
윤리가 땅에 떨어져 구름 연기에 쌓인 황혼이었네
공이 나신 후로 삼한이 일신되어
푸른 하늘 태양처럼 의리의 도가 높여졌네
환출한 사당에 공의 영정 봉안되니
죽계수는 더욱 맑고 소백산은 더욱 높아.

소수서원 동몽재 증건기에도 죽계천이 나타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을 동쪽에 죽계(竹溪)가 있고 죽계 가에 백운동(白雲洞)이 있으니 바로 문성(文成) 안공(安公) 유허인데, 그곳에 사당을 세웠고 현판을 걸어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 하였으니, 바로 명종대왕의 친필이다.

이외에도 다수의 상량문에 죽계천이 나타날 정도로 죽계천은 소수서원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료 중 하나인 죽계구곡(竹溪九曲)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사 신필하(申弼夏)가 일찍이 소백산을 유람할 때 초암사 금당(金堂) 앞에 큰 글씨로 ‘죽계제일수석(竹溪第一水石)’이라 써서 새겼다. 그리고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떠 처음으로 반석에 1곡(一曲)이라 새기고 시내를 따라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배점[梨店]에서 9곡(九曲)을 새겼다. 그 사이의 거리가 5리쯤 된다. 계곡이 길고 급이가 많아서 가장 볼만한 데만 취한다 해도 이뿐이 아닐 텐데, 새겨져 있는 9곡은 거리가 너무 짧지 않나 여겨진다. 중국의 무이구곡은 동구(洞口)에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곡 마지막까지 가는데, 동구가 1곡이 되고 계곡 나지막이 9곡이 되었으니 이곳의 9곡과는 반대인 셈이다. 지금에 본다면, 마땅히 백운동(白雲洞) 취한대(翠寒臺)가 처음 1곡이 되고, 금성(金城) 반석이 2곡이 되고, 백자담(柏子潭)이 3곡이 되고, 이화동(梨花洞)이 4곡이 되고, 목욕담(沐浴潭)이 5곡이 되고, 청련동애(靑蓮東崖)가 6곡이 되고, 용추(龍湫)가 7곡이 되고, 금당(金堂) 반석이 8곡이 되고, 증봉의 합류되는 곳이 9곡이 되어야 한다. 우선 이 설을 기록하여 후인들의 평가를 기다린다.

② 경자바위

경림정 동남쪽 넘어 죽계를 낀 곳에는 물가로 튀어나온 경자바위(敬字岩)가 있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을 창건하고 거기에 ‘경(敬)’자를 음각하였다. 경은 성리학에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수양론의 핵심이 되는 선비들의 지침이다. ‘경’은 주역(周易)의 「문언전(文言傳)」에서 밝힌 대로 군자(君子)는 경으로써 자신의 마음(안)을 곧게 하고, 의(義)로써 행실(박)을 방정(方正)히 하는 것이 인격을 닦는 도리이며 덕(德)을 함양시키는 바탕이 된다. 또, ‘경’은 성인(聖人)이 되어 가는 지름길과 같아 효경(孝經)과 맹자(孟子)에서는 공경의 뜻으로, 논어(論語)에서는 삼가 근신(勤愼)하는 의미로 풀이했다.

다른 설화로는 “세조 3년(1457) 단종복위운동 실패로 참절당한 제 의사들의 시신을 죽계천 백운동에 수장시킨 후로는 밤마다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요란하므로 유생들이 밤출입을 꺼리자, 주세붕이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글자 위에 붉은 칠을 하여 제를 드렸다고 한다.” 라고 전해진다.



경자바위 원경



경자바위 확대

③ 광풍대와 광풍정

서월 동편 죽계 건너편에 있는 대로서 깎아 지른 절벽위에 평지가 이루어져 있다. 제향지에서 『취한대 북쪽 1백보 쯤 되는 시냇가에 있다. 푸른 절벽이 8~9길 우뚝하게 서 있다. 퇴계가 명명한 것이다.』 하였다.

光風臺：在翠寒北百步許溪畔。蒼壁突立奇峭。高八九丈。退溪善生所命名。



광풍정

④ 탁청지²⁶⁾

1614년에 풍기군수 이준(李俊)의 명에 따라 원장 곽진이 주관하여 지락재 아래에 조성한 연못이다. 당시 기록에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동쪽 뜰 모퉁이에 작은 서재를 짓고 서재 아래에 대를 쌓고 대 아래에 연못을 팠다.” 라고 하였으므로 대략 현재의 위치로 비정된다.

처음 조성한 경위에 대하여 곽진의 지락재기(至樂齋記)에서

蒼石李候守豐之明年。政平民和。印文生緣。乃於白雲書原東庭之隅。構小齋。齋下築臺。臺下鑿池。旣成。揭扁。池曰濯清。臺曰仰高。齋曰至樂。

“창석(蒼石) 이후(李候, (이준(李俊))가 풍기군수로 부임한 명년(1614)에 정사와 민생이 화평하여 관아의 도장에 녹이 슬 정도였다. 이에 백운동서원 동쪽 뜰 모퉁이에 작은 서재를 짓고 서재 아래에 대를 쌓고 대아래 연못을 팠다. 일이 모두 이루어져 편액을 거니, 연못은 탁청지, 대는 앙고대, 서재는 지락재라 하였다.”

하였고, 또 이준이 서원에 보낸 편지에서,

“연못을 파는 일은 이미 두서가 이루어 졌는지요?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와 계수나무를 심고 늪을 파내어 옥거울 같은 연못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야 할 일입니다. 혹시라도 일을 독려하는 것이 힘든 것으로 하여 경치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산에 꽃이 만발하는 날 꼭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과 안주 한 그릇을 보내드리니 그윽한 흥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올립니다. 산승에게 분부하여 연목 남쪽 행한 골짜기에 단풍나무·해나무·철쭉을 심도록 하십시오. 서쪽 섬돌의 추석도 새롭게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3월 초7일 이준 올림.”

26) 소수서원지 895~896p -탁청지濯清池 발췌

池役已成頭緒否。去荊棘植松桂。化沮洳爲玉鏡。此吾與子之所共勉也。
無以董事之勞。而忽於展拓之地也。待紅錦滿山。當委造。酒羞各一器。附呈。
發幽興。伏惟僉鑑。分付山僧。多種楓檜躑躅於池南谿訝之地。西砌甃石。亦合點化。
望并圖之。三月初七。竣頓。

라고 하여, 연못을 파게 된 과정과 취지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고 있다. 명칭에 대하여는 식암(息庵) 황섬(黃暻)이 1615년 6월 29일 곽진에게 보낸 편지에서,

“양고대(仰高臺)는 우리를수록 더욱 높다는 뜻을 취하였고, 탁청당은 맑은 물에 씻어 스스로 깨끗해진다는 뜻을 취하였다.”

仰高臺。取仰彌高之義。濯清塘。取濯清自潔之義。

하였는데, 다만 이준이 곽진에게 보낸편지에서,

“지락재 공사를 다 마쳤다고 하니 바라보는 사이에 풍광이 확 달라졌을 것이며, 몇몇 선비들과 날마다 그 사이에서 노닐 것을 생각하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없어 유선(儒仙)들 속에서 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당실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합당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찌 당돌하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거듭 성대한 부탁을 여기게 되기에 왼쪽과 같이 써올립니다.

하여, 지락재 당호를 지어 보내준 것을 밝히고 있다. 또 이준의 『퇴계의 취한대 시에 차운함(次退溪翠寒臺韻)』시에서,

힘한 늙 다듬어 맑은 연못 만들고	化盡坡陀作玉淵
그 위에 앉으니 그윽한 멋 절로 이네	坐來幽趣轉悠然
연못 속에 삼경의 달 잠겨 빛나고	倒涵虛白三更月
공중에 흰 이내 비껴 날리네	截破空青一抹烟
봉래도가 어찌 세상 밖에만 있으랴	蓬島豈須方外地
죽계가 도리어 신선세계이네	竹溪還有洞中天
선비들 기르는 공 어디서 시작되었던가	欲知果育功何自
아름다운 옛날 현인의 자취 거슬러 찾아보네	芳躅從今泝往賢

하였다.

위의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준이 지락재·양고대와 함께 탁청지를 조성하도록하고 이름까지 지어 보낸 것이 분명하다. 한편, 현재 소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겸암 유운룡의 시판 주기에서,

“만력 계사년(1593)에 겸암 유운룡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소수서원을 방문한 후 사당을 참배하고, 바로 지락재 앞에 못을 파고 대를 쌓아 ‘탁영’이라 이름을 붙이고 이 시를 지었다. 당시에 소수서원이 선생의 관할 안에 있었다. 을유년 2월 일.”

萬曆癸巳。謙菴柳先生。知豐基郡。來謁茲院。直至樂齋前。鑿塘爲臺。命名濯清。
作此詩。是爲先生活內也。乙酉二月日。

하였는데, 이 시판이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이 시판 기록의 근거로서 『겸암집(謙菴集) 권1』에 “백운동에 대를 쌓아 ‘탁영대’라 하고 시 두 수를 지어 남김이라는 제목의 시가 실려있고, 『겸암집 년보(年譜) 권1』에서 “계사년 가을에 정식으로 풍기군수에 제수되어 백운동서원을 참배하였다. 대를 쌓아 ‘탁영대’라 하고 시를 지어 남기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집의 기록에도 연못을 팠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시판을 만들 때에 착당(鑿塘)이라는 문자를 잘못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초 류운룡이 조성하고 이준이 재차 팠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의 탁청지

⑤ 영귀봉²⁷⁾

영귀봉은 소수서원의 주산으로 평지에 우뚝 솟은 모양이 마치 거북이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근재 안축의 시에 나타나는데,

거북이 옆드린 듯한 산머리
그 아랫 깊은 냇물 가 백 척의 누각
난간에 기대어 아침 해 삼키고
참 기운 길러 온 지 천년이리라

靈龜形勢縮山頭
下有深溪百尺樓
須倚涼軒嚙朝日
釀成真氣已千秋

하였다. 또한 재향지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本院主山。平地突起。狀如龜。故名。安文貞工詩曰。靈龜形勢縮山頭。
下有深溪百尺樓。須倚涼軒嚙朝日。釀成真氣已千秋。

- 梓鄉誌



영귀봉



영귀봉

27) 소수서원지 895~896p -탁청지濯淸池 발췌

3-3-3. 서원 내 유적

1) 성생단

성생단은 향사에 쓸 희생을 검사하는 단으로 생단(牲壇)이라고도 한다. 홀기(笏記)에 따라 춘추 향사(享祀) 때 제물祭物인 희생(犧牲, 짐승)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고, 잡던 곳이다. 성생의(省牲儀), 충돌례(充腠禮) 등으로 불리는 희생을 검사하고 품평하는 의(儀), 즉 생간품(牲看品)은 제관들이 생단에 나아가 생단 주위에 서서 행한다. 생단 서쪽에 선 축관(祝官)이 생단에 준비된 희생이 정결한가를 '돌(膺)'하고 물으면, 헌관이 좋으면 '충(充)'하는 것으로 의식이 끝나고 제수를 준비하게 된다.



성생단

서원의 생단은 사당 근처에 있는 것이 관례인데, 소수서원의 생단은 서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로, 남계서원의 생단은 강당 오른쪽인 북쪽에 있고, 예림서원은 강당 앞에 있으며, 필암서원의 경우는 생단 대신에 내삼문 앞에 계생비(繫牲碑)가 설치되어 있다.

본래 성생단의 위치가 현 위치가 아니라 서원 배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현재 유림위원회에서 “내가 어릴적 향사를 지낼 때부터 현 위치에서 창홀 했었다.” 하여 고증을 받은 결과 현위치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소혼대

소혼대는 죽계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서원의 정문 밖 영귀봉의 중턱에 있으며 이곳에는 숙수사의 별대(別臺)로 쓰였던 건물 주초자리가 남아있다. 원래 통일신라때 세워진 숙수사의 별대였으나 서원이 들어선 후 이 자리는 유생들이 공부하며 머리를 식히던 곳으로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손님을 배웅하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소혼대

소혼이란 근심으로 넋을 잃는다는 뜻인데, 대개 방문객들이 여기서 작별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소혼대’란 이름은 중국 남송(南宋)시대 강염의 ‘암연소혼자 유별이이의(黯然消魂者 惟別而已矣)’이라는 이별을 노래한 옛 시 「별부(別賦)」에서 따온 것이다.

3) 관세대·정료대

정료대(庭燎臺) 석물(石物)은 상·하부 두개의 석재로 이루어져 서원을 밝혀주던 조명(照明) 시설이다. 현재 두개로 분리된 돌기둥 위에 소실된 함지박 모양의 상부 석재를 얹어 그 위에 관솔을 태워 정원(庭園)을 밝혔다. 정료대(庭燎臺)는 서원에 따라서 요거석(燎炬石)이라고도 한다. 연대미상. 현재의 정료대는 근래에 새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관세대(盥洗臺)는 향사(享祀)때 헌관(獻官) 등이 손을 씻는 시설물이 위치한 곳으로써 석재 기둥 위에 관분(盥盆), 즉 물그릇을 올려놓는 곳이다. 관세대는 일반적으로 서원이 남향일 경우 보통 사당 앞 동쪽 계단의 동쪽에 위치하는데, 소수서원의 경우는 사당영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연대 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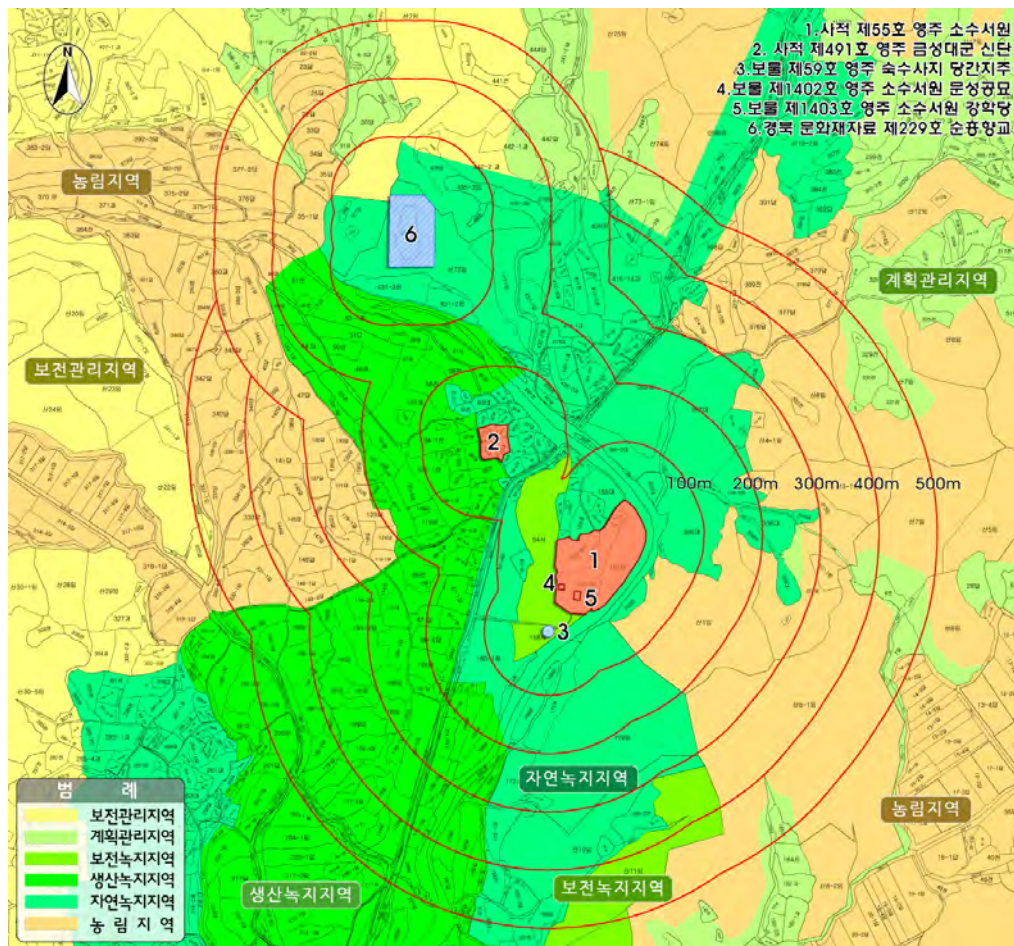


정료대



관세대

3-4. 주변 토지이용계획



소수서원 주변 토지이용계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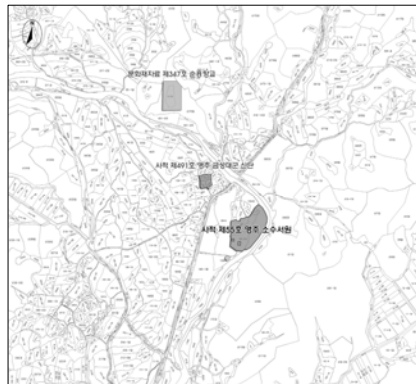
소수서원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소수서원의 남쪽으로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분포하고 있고 북쪽으로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1호 관련'에 의거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0호 관련'에 의거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9호 관련'에 의거하여 건축이 가능하다.



3-5. 주변문화재 현황



소수서원 주변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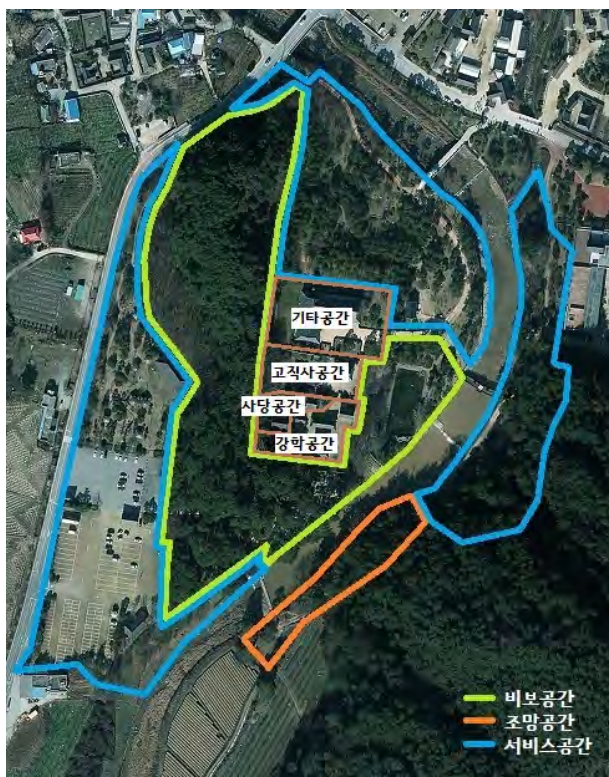
소수서원 인접 문화재로는 소수서원을 북서쪽 300m지점에 사적 제491호 영주 금성대군 신단이 위치하고 있고 북서쪽 650m 지점에 문화재자료 제347호 순흥향교가 위치하고 있다.

주변문화재의 성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주변 문화재와의 연계방안을 고려한다.

종 목	사적 제491호	
명 칭	영주 금성대군 신단 (榮州 錦城大君 神壇)	
분 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수량 / 면적	2,654m ²	
지정(등록)일	2007.12.31	
소재지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번지 일원	
시 대	-	
소유자	영주시	
관리자	영주시	
		<p>문화재개요</p> <p>금성대군신단은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된 유적으로 18세기에 탕평정치의 움직임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왕에 대한 의리가 다시금 강조되는 정치적 분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당대 왕조의 인신(人神)을 위한 제단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로 평가된다.</p>
종 목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47호	
명 칭	순흥향교 (順興鄉校)	
분 류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 향교	
수량 / 면적	10,037m ²	
지정(등록)일	1998.04.13	
소재지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길235번길 15-36 (청구리)	
시 대	-	
소유자	-	
관리자	-	
		<p>문화재개요</p> <p>순흥향교는 고려 충렬왕 30년(1340)에 처음 지었으나, 단종 복위운동으로 고을과 함께 향교가 혁파당하여 약 200여년이 지난 숙종 9년(1683) 부(府)가 회복되면서 다시 세웠다. 이후 여러 차례 위치를 옮겨 세운 끝에 정조 14년(1790) 지금 있는 자리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p> <p>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그 제자와 우리나라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p>

3-6. 식생 현황

소수서원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내·외 전반에 걸쳐 식생 정비를 실시하였다. 경내의 식생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내의 영역이 세 번에 걸쳐 확장되는 것과 더불어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에 사당 북쪽의 영정각과 담장가에 화단을 조성하였고, 1982년~1985년에 유물관을 건립한 후 화단을 조성하고 고직사와 경계를 이루는 서쪽 담장 화단에 무궁화를 열식하는 등 수목을 식재했으며, 1991년에는 경내 불량 수목 제거 및 주변 조경공사를 하였고 사료전시관과 충효교육관을 신축한 후 수목정리를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충효교육관 내 잔디식생지역에 식재하였다. 경외에서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 이에 소수서원을 크게 경내와 경외로 나누어 각각의 조사구역을 설정하였는데, 경내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강당공간, 사당공간, 고직사공간, 기타공간으로 4분했고, 경외는 개별 공간의 조성 목적에 따라 비보공간, 조망공간, 서비스공간으로 3분했으며, 조사대상은 수목류로 한정하였다.



소수서원 경내·외 공간 구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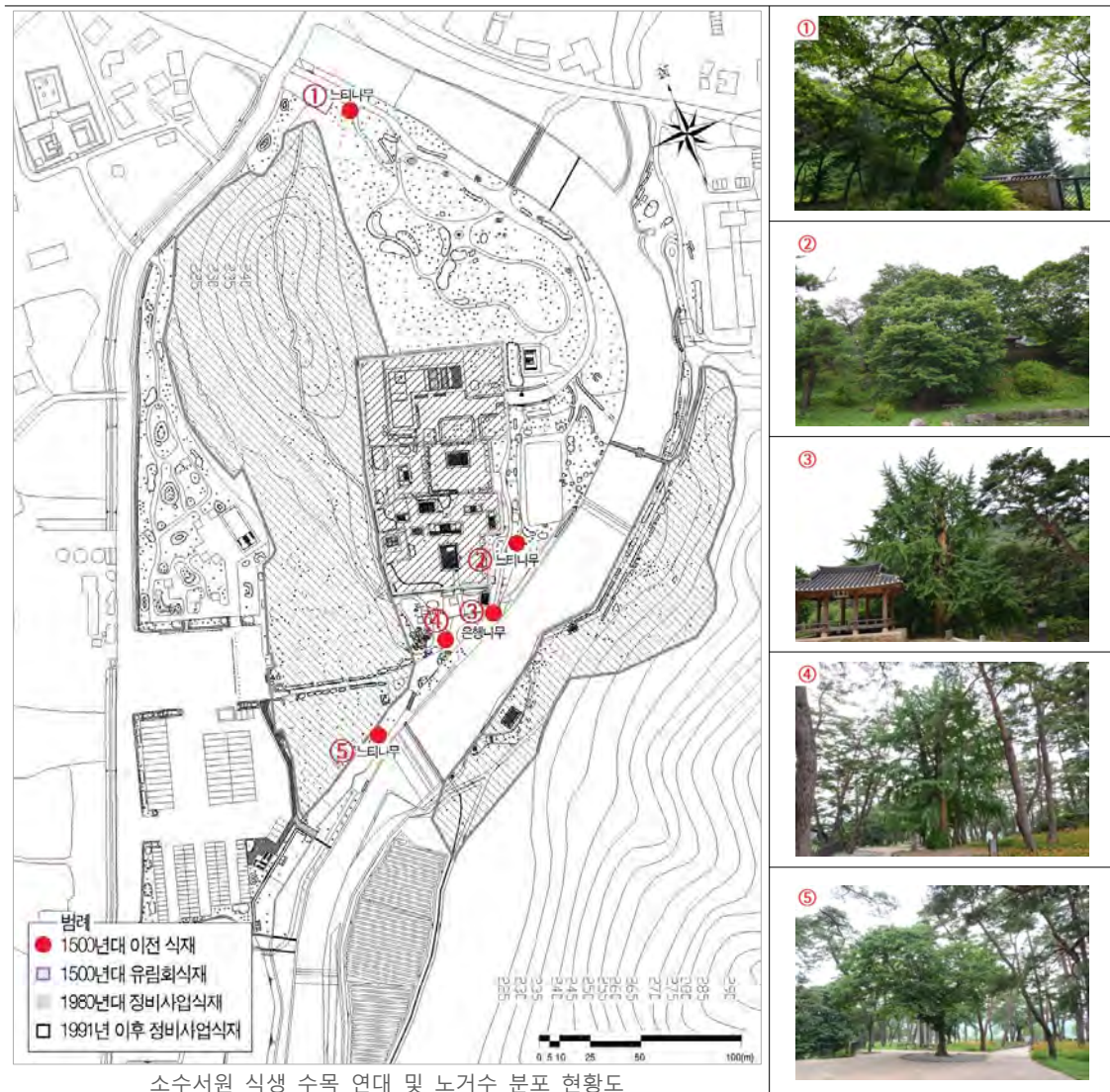


소수서원 경내·외 식생 현황도

소수서원의 식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소수서원 경내·외에는 낙엽수와 상록수를 합하여 50종의 수목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1,758주가 식생하고 있다. 수목분포율은 경내가 8%, 경외는 92%로 식생의 대부분이 서원 경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낙엽수 40종 547주(32%), 상록수 10종 1,211주(68%)로 수종은 낙엽수가 다양했지만 수량에서는 상록수가 2배 이상 집중 식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나무가 1,095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이 식생하고 있으며, 교목류가 1,705주, 관목류는 53주로 교목이 식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원 경외에 해당하는 서원 진입로 주변과 서원 동쪽의 영귀봉, 북쪽의 청다리 주변에 교목성 상록 수종인 소나무가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소수서원에 현존하는 노거수로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숲이 있는데 느티나무는 소수서원 서북쪽 제월교와 영귀봉 사이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1500년 이전 자연발생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나무는 소수서원 입구에 좌우 대칭으로 식생하고 있는데 식재자를 알 수는 없으나 수령이 500년 정도 되었다는 표석의 기록으로 미루어 적어도 1482년(영주시 보호수 지정일 1982년)에는 존재했던 수목으로 추정된다. 소나무숲 역시 언제 형성되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소수서원잡록』의 기록²⁸⁾으로 보아 소수서원 주변 소나무숲은 인공 식재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아있는 소나무의 수령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 소나무숲은 서원 진입로 주변과 영귀봉에 분포하여 북쪽 청다리 주변에 조성된 공원과 함께 소수서원 방문객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휴식처 역할을 겸하고 있다.



28) “1654년 정월 25일 묘우 남쪽 서쪽 편으로 영귀봉 아래에서 석주(石柱) 남쪽 냇가에 이르기까지 소나무 1천여 그루를 심었는데 산 것이 겨우 5백 그루였다.” 1757년 1월 기록에는 “서원 남쪽 편에 심은 소나무가 세월이 오래 되면서 다수 꺾이고 말라 엉성해졌으므로 정축년(1757) 봄부터 무인년(1758) 봄에 걸쳐 모충하여 심었다.”

소수서원 전체 수목 현황

구분		수종명	수고(m)	흉고직경(cm)	수관폭×식재길이(m)	수량		분포율	공간별 수목 현황			
									경 내		경 외	
가평	교목	감나무	2.5~8	3.5~29	1.5~8	6	-	0.3413	1	-	5	-
		느티나무	2~15	2~147	0.5~11	88	-	5.0057	-	-	88	-
		단풍나무	3~8	4~32	1.5~6	50	-	2.8441	17	-	33	-
		대추나무	1.5~5	6~16	0.5~2	17	-	0.9670	1	-	16	-
		매실나무	2.5~6	5~17	1~5	7	-	0.3982	2	-	5	-
		모과나무	3.5~6	9.5~25	1.5~5	6	-	0.3413	2	-	4	-
		목련	1~13	2~25	0.5~10	29	-	1.6496	4	-	25	-
		밤나무	13~14	50~79	5.5~10	2	-	0.1138	-	-	2	-
		배롱나무	2~5	2~21	1~3	17	-	0.9670	2	-	15	-
		버드나무	12	28	6	4	-	0.2275	-	-	4	-
		벚나무	1.5~19	3.5~73	1~12	83	-	4.7213	-	-	83	-
		복자기	2~5	5~30	1~2	22	-	1.2514	-	-	22	-
		뽕나무	7.5~15	25~45	1~7	4	-	0.2275	-	-	4	-
		산딸나무	3.5~4	11~12	2	3	-	0.1706	-	-	3	-
		산사나무	5	21	5	1	-	0.0569	1	-	-	-
		산수유	1.5~5.5	1~31	0.5~11	38	-	2.1615	8	-	30	-
		살구나무	3~9	9~27	1.5~8	9	-	0.5119	3	-	6	-
		신나무	4.5~9	21.5~100	2~4	3	-	0.1706	-	-	3	-
		은행나무	5.5~19	10~153	1.5~15	46	-	2.6166	7	-	39	-
		이팝나무	2~8	1~42	1~6	50	-	2.8441	1	-	49	-
		일본목련	5	5	2.5	1	-	0.0569	-	-	1	-
		자귀나무	2.5~8.5	4~23	3~6	12	-	0.6826	-	-	12	-
		회화나무	3~27	6.5~29.5	1~10	5	-	0.2844	-	-	5	-
	계	23	1~27	1~153	0.5~15	503	-	28.6121	49	-	454	-
	관목	개나리	1~2	2	1~2.5×5.5~51	-	균식	-	-	-	-	균식
		개암나무	3	2	1.5	2	-	0.1138	-	-	2	-
		꼬리조팝나무	1.5	-	1.5×1.5	-	균식	-	-	-	-	균식
		등	2~2.6	-	5.5~16	4	-	0.2275	4	-	-	-
		딱총나무	8	27	7	1	-	0.0569	-	-	1	-
		모란	0.5~1.5	-	1~2	3	-	0.1706	1	-	2	-
		무궁화	1~3	2~23	1~2.5	5	-	0.2844	3	-	2	-
		박태기나무	1~4	1~4	0.5~2.5	21	-	1.1945	6	-	15	-
		백당나무	2	4	1	1	-	0.0569	1	-	-	-
		병꽃나무	1.5	-	1.5×10	-	균식	-	-	-	-	균식
		산당화	1.5~2	2.5	2	1	균식	0.0569	1	-	-	균식
		산철쭉	0.3~9	1.5	0.5~8×0.2~159	-	균식	-	-	균식	-	균식
		수수꽃다리	1.5~3.5	2~7	0.5~3	5	-	0.2844	3	-	2	-
		자산홍	0.5~1.5	-	1.5~2×1.5~2.5	-	균식	-	-	-	-	균식
		죽단화	1.5	-	3×8	-	균식	-	-	균식	-	-
		쥐똥나무	9	30	4	1	-	0.0569	-	-	1	-
		해당화	0.5~1	-	1~2×6~6.5	-	균식	-	-	-	-	균식
계		17	0.3~9	1~30	-	44	균식	2.5028	19	균식	25	균식
합계	40	0.3~27	1~153	-	547	균식	31.1149	68	균식	479	균식	
상록	교목	가문비나무	1.5~6	2~18	1~2.5	44	-	2.5028	-	-	44	-
		비자나무	3.5	19	1.5	1	-	0.0569	-	-	1	-
		소나무	0.5~30	2~145	0.5~20	1,095	-	62.2867	18	-	1,077	-
		숨대	5.5	6.5	22	-	균식	-	-	-	-	균식
		주목	0.5~8	1~28	0.3~5×1.3~70	60	균식	3.4130	55	균식	5	균식
	계	6	0.5~30	1~145	-	1,202	균식	68.3732	75	균식	1,127	균식
	관목	둥근향나무	0.8	-	1.6	4	-	0.2275	4	-	-	-
		사철나무	2	5	3	1	-	0.0569	1	-	-	-
		이대	2.2~6	-	1~4×4~22.5	-	균식	-	-	균식	-	-
		회양목	0.5~1	1	1~1.5	4	-	0.2275	-	-	4	-
계	4	0.5~6	1~5	-	9	균식	0.5119	5	균식	4	-	
합계	10	0.5~30	1~145	-	1,211	균식	68.8851	80	균식	1,131	균식	
총계	50	0.3~30	1~153	-	1,758	균식	100	148	균식	1,610	균식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소수서원 경내·외 수종 분포 현황

	수종명	수량	분포율
1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	1,095	62.2867
2	느티나무(Zelkova serrata (Thunb.) Makino)	88	5.0057
3	벗나무(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Maxim.) E.H.Wilson)	83	4.7213
4	주목(Taxus cuspidata Siebold & Zucc.)	60	3.4130
5	단풍나무(Acer palmatum Thunb.)	50	2.8441
6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 Lindl. & Paxton)	50	2.8441
7	은행나무(Ginkgo biloba L.)	46	2.6166
8	가문비나무(Picea jezoensis (Siebold & Zucc.) Carriere)	44	2.5028
9	산수유(Cornus officinalis Siebold & Zucc.)	38	2.1615
10	목련(Magnolia kobus DC.)	29	1.6496
11	복자기(Acer triflorum Kom.)	22	1.2514
12	박태기나무(Cercis chinensis Bunge)	21	1.1945
13	대추나무(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17	0.9670
14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L.)	17	0.9670
15	자귀나무(Albizia julibrissin Durazz.)	12	0.6826
16	살구나무(Prunus armeniaca var. ansu Maxim.)	9	0.5119
17	매실나무(Prunus mume (Siebold) Siebold & Zucc.)	7	0.3982
18	감나무(Diospyros kaki Thunb.)	6	0.3413
19	모과나무(Chaenomeles sinensis (Thouin) Koehne)	6	0.3413
20	무궁화(Hibiscus syriacus L.)	5	0.2844
21	수수꽃다리(Syringa oblata var. dilatata (Nakai) Rehder)	5	0.2844
22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L.)	5	0.2844
23	동근향나무(Juniperus chinensis var. globosa)	4	0.2275
24	등(Wisteria floribunda (Willd.) DC.)	4	0.2275
25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4	0.2275
26	뽕나무(Morus alba L.)	4	0.2275
27	회양목(Buxus koreana Nakai ex Chung & al.)	4	0.2275
28	모란(Paeonia suffruticosa Andrews)	3	0.1706
29	산딸나무(Cornus kousa F.Buerger ex Miquel)	3	0.1706
30	신나무(Acer tataricum subsp. ginnala (Maxim.) Wesm.)	3	0.1706
31	개암나무(Corylus heterophylla Fisch. ex Trautv.)	2	0.1138
32	밤나무(Castanea crenata Siebold & Zucc.)	2	0.1138
33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L.)	2	0.1138
34	딱총나무(Sambucus williamsii var. coreana (Nakai) Nakai)	1	0.0569
35	백당나무(Viburnum opulus L.)	1	0.0569
36	비자나무(Torreya nucifera (L.) Siebold & Zucc.)	1	0.0569
37	사철나무(Euonymus japonicus Thunb.)	1	0.0569
38	산당화(Chaenomeles japonica (Thunb.) Lindl. ex Spach)	1	0.0569
39	산사나무(Crataegus pinnatifida Bunge)	1	0.0569
40	일본목련(Magnolia obovata Thunb.)	1	0.0569
41	쥐똥나무(Ligustrum obtusifolium Siebold & Zucc.)	1	0.0569
42	개나리(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	군식	-
43	꼬리조팝나무(Spiraea salicifolia L.)	군식	-
44	병꽃나무(Weigela subsessilis (Nakai) L.H.Bailey)	군식	-
45	산철쭉(Rhododendron yedoense f. poukhanense (H.Lev.) M.Sugim. ex T.Yamaz.)	군식	-
46	숨대(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Bean) Stapf ex Rendle)	군식	-
47	이대(Pseudosasa japonica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군식	-
48	자산홍(Rhododendron hortense Nakai)	군식	-
49	죽단화(Kerria japonica f. pleniflora (Witte) Rehder)	군식	-
50	해당화(Rosa rugosa Thunb.)	군식	-
계	50종	1,758	100

1) 경내 현황

소수서원의 경내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강학공간, 사당공간, 고직사공간, 기타공간의 총 4공간으로 구역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경내에는 수목이 총 27종 148주가 식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명륜당이 있는 강학공간에 16종 20주, 문성공묘와 영정각 등이 있는 사당공간에 4종 3주, 고직사와 사료관이 있는 고직사공간에 15종 66주, 관리사무소가 있는 충효교육관이 위치한 기타공간에는 12종 59주로 식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인 전체의 85% 이상이 고직사와 사료관이 위치한 고직사공간과 관리사무소가 위치한 기타공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총 3번에 걸친 서원 정비 사업으로 경역이 확장되면서 후대에 식재지가 추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낙엽수는 21종 68주(46%), 상록수가 6종 80주(54%)로 성상별 식생 수량은 엇비슷하나 낙엽수가 더 다양하게 혼식되어 있었으며, 가장 많이 식생하고 있는 수종은 주목으로 전체 148주 중 55주가 식생하며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내의 각 공간마다 낙엽수와 상록수가 모두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산철쭉과 죽단화, 이대는 군식의 형태로, 주목은 경계식생의 형태로 열식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소수서원 경내 공간 구분도



소수서원 경내 식생 현황도

강학공간			
사당공간			
고직사공간			
기타공간			

소수서원 경내 수목 현황

구분		수종명	수고 (m)	흉고직경 (㎝)	수관폭 ×총길이(m)	수량	분포율	공간별 수목 현황									
								강학공간		사당공간		고직사공간		기타공간			
소수서원	교목	감나무	7	18	8	1	-	0.6757	-	-	-	-	1	-	-	-	
		단풍나무	3~5	9~32	3~6	17	-	11.4865	3	-	1	-	-	-	13	-	
		대추나무	5	10	1.5	1	-	0.6757	-	-	-	-	1	-	-	-	
		매실나무	5~6	12~17	3.5~5	2	-	1.3513	2	-	-	-	-	-	-	-	
		모과나무	5.5~6	15~21	5	2	-	1.3513	1	-	-	-	1	-	-	-	
		목련	2.5~5	2~20	0.5~3	4	-	2.7027	1	-	-	-	2	-	1	-	
		배롱나무	2.5~3.5	5~21	1.5~3	2	-	1.3513	1	-	-	-	-	-	1	-	
		산사나무	5	21	5	1	-	0.6757	1	-	-	-	-	-	-	-	
		산수유	3.5~5.5	10~31	3~8	8	-	5.4054	1	-	-	-	-	-	7	-	
		살구나무	8~9	20~27	5~8	3	-	2.0270	-	-	-	-	3	-	-	-	
		은행나무	8.5~16	22~52	3~7	7	-	4.7297	-	-	-	-	2	-	5	-	
		이팝나무	7	18	6	1	-	0.6757	-	-	-	-	1	-	-	-	
	계	12	2.5~16	2~52	0.5~8	49	-	33.1081	10	-	1	-	11	-	27	-	
	관목	등	2~2.6	-	5.5~16	4	-	2.7027	-	-	-	-	2	-	2	-	
		모란	1.5	-	2	1	-	0.6757	1	-	-	-	-	-	-	-	
		무궁화	1.6~3	3~23	1~2.5	3	-	2.0270	-	-	-	-	3	-	-	-	
		박태기나무	1~2.6	2~4	0.5~2.5	6	-	4.0541	1	-	-	-	4	-	1	-	
		백당나무	2	4	1	1	-	0.6757	1	-	-	-	-	-	-	-	
		산당화	1.5	2.5	2	1	-	0.6757	1	-	-	-	-	-	-	-	
		산철쭉	0.3~2.6	-	2~3.8×0.2~14	-	군식	-	-	군식	-	군식	-	군식	-	군식	
		수수꽃다리	1.5~3	2~3	0.5~1	3	-	2.0270	-	-	-	-	2	-	1	-	
		죽단화	1.5	-	3×8	-	군식	-	-	군식	-	-	-	-	-	-	
		계	9	0.3~3	2~23	-	19	군식	12.8378	4	군식	-	군식	11	군식	4	군식
		합계	21	0.3~16	2~52	-	68	군식	45.9459	14	군식	1	군식	22	군식	31	군식
상록		교목	소나무	3~7	8~83	1~9	18	-	12.1622	-	-	-	-	-	18	-	
	주목		0.5~5.5	4~28	0.3~5×1.3~56	55	군식	37.1622	5	-	2	-	42	군식	6	군식	
	향나무		2.5~5	13~17	3	2	-	1.3513	-	-	-	-	2	-	-	-	
	계	3	0.5~7	4~83	-	75	군식	50.6757	5	-	2	-	44	군식	24	군식	
	관목	둥근향나무	0.8	-	1.6	4	-	2.7027	-	-	-	-	-	-	4	-	
		사철나무	2	5	3	1	-	0.6757	1	-	-	-	-	-	-	-	
		이대	2.2~6	-	1~4×4~22.5	-	군식	-	-	-	-	군식	-	군식	-	-	
	계	3	0.8~6	5	-	5	군식	3.3784	1	-	-	군식	-	군식	4	-	
합계	6	0.5~7	4~83	-	80	군식	54.0541	6	-	2	군식	44	군식	28	군식		
총계	27	0.3~16	2~83	-	148	군식	100	20	군식	3	군식	66	군식	59	군식		

2) 경외 현황

경외 공간은 개별 공간의 조성 목적에 따라 비보공간, 조망공간, 서비스공간의 총 3공간으로 구역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경외에는 수목이 총 42종 1,610주가 식생하고 있었으며 그 중 비보공간에 20종 447주, 조망공간에 6종 81주, 서비스공간에 38종 1,082주로 식생의 대부분이 서비스공간에 집중되어 전체의 67% 이상이 열식 또는 혼식된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낙엽수가 36종 479주(30%), 상록수가 6종 1,131주(70%)로 수종은 낙엽수가 다양하지만 수량에서는 상록수가 2배 이상 식생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식생하고 있는 수종은 소나무로 총 1,077주가 식생하고 있어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수서원 경외 공간 구분도



소수서원 경외 식생 현황도

소수서원 진입로 주변과 영귀봉, 탁청지가 속한 비보공간은 상록교목인 소나무의 식생비율이 월등히 높아 대다수가 군식되어 숲을 이루고 있었고, 탁청지 주변으로는 낙엽수종과 상록수종이 혼식되어 나타났다. 죽계천 너머에 위치한 제단과 취한대를 포함한 조망공간에도 역시 소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군식된 상태였으며, 주차장과 매점, 영귀천, 청다리, 목교, 광풍각, 제월교 구역은 서비스 공간으로 낙엽수와 상록수가 다양하게 혼식 및 열식된 상태로 나타났다. 서원 경외에서는 진입로 주변과 영귀봉의 소나무숲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성상별로 다양한 수종이 혼식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 '소수서원 내 소나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고사위험목 영양제 주사, 퇴비처리, 브레싱 설치 등을 실시했으며, 정비사업의 결과물로 '영주 소수서원 송림 관리카드'를 제작하고 개별 수목에 관리번호를 지정해 관리내역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당해년도 작성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추가 기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후 2014년 6월에는 병충해(응애) 방제, 수간주사(솔잎혹파리) 처치를 하였고 7월에는 고사목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영주시에서 2014년 9월에 완료한 『소수서원 일원 개별소나무 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소수서원 내 소나무의 쇠퇴원인을 규명하고 소나무림의 장기간 보전 및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외 공간별 식생 현황

비보공간			
조망공간			
서비스공간			

이러한 수목의 관리연혁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영양공급, 고사목 제거 등
- 2009년 : 고사위험목 영양제주사, 퇴비처리, 브레싱 설치 등
- 2012년 :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영양공급 등
- 2014년 : 고사목 제거 등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소수서원 경외 수목 현황

구분		수종명	수고 (m)	흉고직경 (cm)	수관폭 ×총길이(m)	수량		분포율	공간별 수목 현황						
									비보공간		조망공간		서비스공간		
경외	교목	감나무	2.5~8	3.5~29	1.5~2	5	-	0.3106	-	-	-	-	5	-	
		느티나무	2~15	2~147	0.5~11	88	-	5.4658	7	-	-	-	81	-	
		단풍나무	3~8	4~22	1.5~3.5	33	-	2.0497	6	-	1	-	26	-	
		대추나무	1.5~4.5	6~16	0.5~2	16	-	0.9938	-	-	-	-	16	-	
		매실나무	2.5~4	5~8.5	1~2.5	5	-	0.3106	-	-	-	-	5	-	
		모과나무	3.5~6	9.5~25	1.5~3	4	-	0.2484	-	-	-	-	4	-	
		목련	1~13	2~25	0.5~10	25	-	1.5528	1	-	-	-	24	-	
		밤나무	13~14	50~79	5.5~10	2	-	0.1242	1	-	-	-	1	-	
		배롱나무	2~5	2~13	1~2	15	-	0.9317	3	-	-	-	12	-	
		버드나무	12	28	6	4	-	0.2484	-	-	-	-	4	-	
		벚나무	1.5~19	3.5~73	1~12	83	-	5.1553	15	-	2	-	66	-	
		복자기	2~5	5~30	1~2	22	-	1.3665	-	-	-	-	22	-	
		뽕나무	7.5~15	25~45	1~7	4	-	0.2484	2	-	-	-	2	-	
		산딸나무	3.5~4	11~12	2	3	-	0.1863	-	-	-	-	3	-	
		산수유	1.5~5.5	1~25.5	0.5~11	30	-	1.8634	3	-	3	-	24	-	
		살구나무	3~4	9~16	1.5~2	6	-	0.3727	-	-	-	-	6	-	
		신나무	4.5~9	21.5~100	2~4	3	-	0.1863	-	-	2	-	1	-	
		은행나무	5.5~19	10~153	1.5~15	39	-	2.4224	3	-	-	-	36	-	
		이팝나무	2~8	1~42	1~5	49	-	3.0435	3	-	-	-	46	-	
		일본목련	5	5	2.5	1	-	0.0621	-	-	-	-	1	-	
		자귀나무	2.5~8.5	4~23	3~6	12	-	0.7453	-	-	-	-	12	-	
		회화나무	3~27	6.5~29.5	1~10	5	-	0.3106	-	-	-	-	5	-	
	계	22	1~27	1~153	0.5~15	454	-	28.1988	44	-	8	-	402	-	
	관목	개나리	1~2	2	1~2.5×5.5~51	-	균식	-	-	균식	-	-	-	균식	
		개암나무	3	2	1.5	2	-	0.1242	-	-	-	-	2	-	
		꼬리조팝나무	1.5	-	1.5×1.5	-	균식	-	-	-	-	-	-	균식	
		딱총나무	8	27	7	1	-	0.0621	1	-	-	-	-	-	
		모란	0.5	-	1	2	-	0.1242	2	-	-	-	-	-	
		무궁화	1~2	2	1~1.5	2	-	0.1242	1	-	-	-	1	-	
		박태기나무	2~4	1~2.5	0.5~1.5	15	-	0.9317	5	-	-	-	10	-	
		병꽃나무	1.5	-	1.5×10	-	균식	-	-	-	-	-	-	균식	
		산당화	2	-	5.5×6	-	균식	-	-	-	-	-	-	균식	
		산철쭉	0.5~9	1.5	0.5~8×1~159	-	균식	-	-	균식	-	균식	-	균식	
		수수꽃다리	1.5~3.5	2~7	0.5~3	2	-	0.1242	2	-	-	-	-	-	
		자산홍	0.5~1.5	-	1.5~2×1.5~2.5	-	균식	-	-	-	-	-	-	균식	
		쥐똥나무	9	30	4	1	-	0.0621	-	-	-	-	1	-	
		해당화	0.5~1	-	1~2×6~6.5	-	균식	-	-	균식	-	-	-	-	
		계	14	0.5~9	1~30	-	25	균식	1.5528	11	균식	-	균식	14	균식
		합계	36	0.5~27	1~153	-	479	균식	29.7516	55	균식	8	균식	416	균식
상록		교목	가문비나무	1.5~6	2~18	1~2.5	44	-	2.7329	-	-	-	-	44	-
	비자나무		3.5	19	1.5	1	-	0.0621	-	-	-	-	1	-	
	소나무		0.5~30	2~145	0.5~20	1,077	-	66.8944	392	-	73	-	612	-	
	숨대		5.5	6.5	22	-	균식	-	-	-	-	-	-	균식	
	주목		0.5~8	1~25	0.5~2.5×3~70	5	균식	0.3106	-	균식	-	-	5	균식	
	계	5	0.5~30	1~145	-	1,127	균식	70.0000	392	균식	73	-	662	균식	
	관목	회양목	0.5~1	1	1~1.5	4	-	0.2484	-	-	-	-	4	-	
	계	1	0.5~1	1	1~1.5	4	-	0.2484	-	-	-	-	4	-	
합계	6	0.5~30	1~145	-	1,131	균식	70.2484	392	균식	73	-	666	균식		
총계	42	0.5~30	1~153	-	1,610	균식	100	447	균식	81	균식	1,082	균식		

4. 관리현황

4-1. 관리조직 및 현황

4-1-1. 문화재청

사적으로 지정된 소수서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의 보존정책과로 소수서원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 사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사적의 지정·해제·보호 및 관리
- 사적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설계심사·점검·시공평가 및 수리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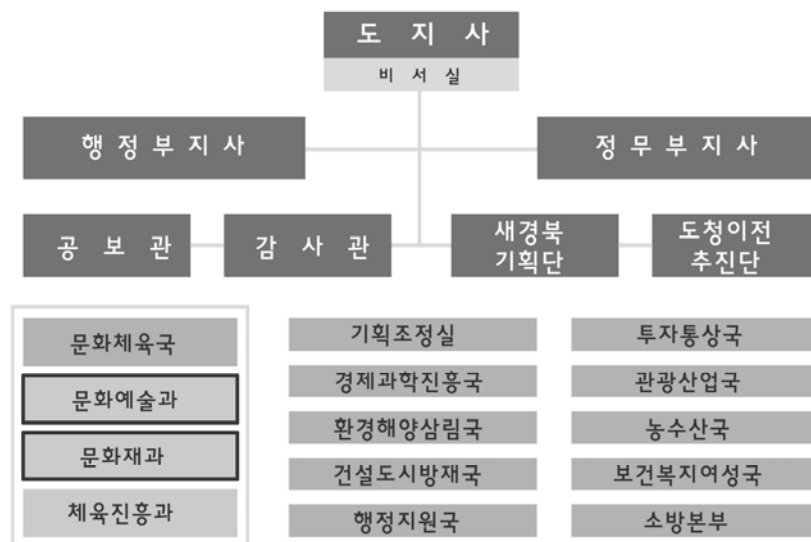
문화재청 행정조직도

4-1-2.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관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안전 및 소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이다. 경상북도의 역할 가운데 특별히 소수서원의 보존관리에 관여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국 소속의 문화재과이다. 문화재과 업무 가운데 사적지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 문화재보수 및 현상변경허가
-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추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이외에도 관광산업국의 각 부서에서는 문화관광마케팅과 관광컨텐츠 개발, 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서원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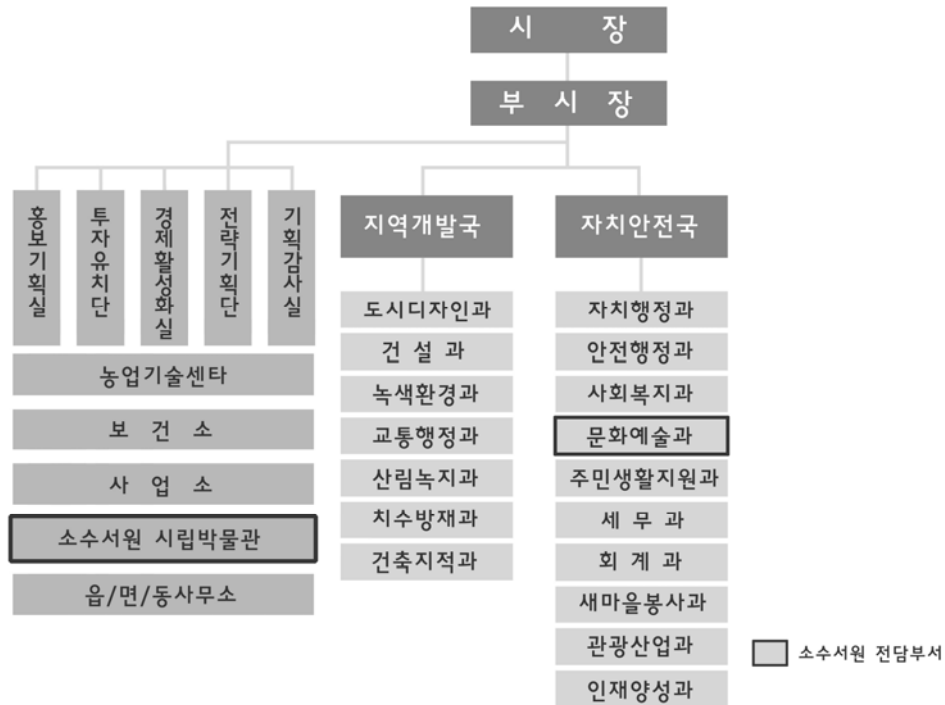
경상북도 행정조직도

4-1-3. 영주시

영주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소수서원의 원형보존을 위해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와 함께 보수에 대한 조사 및 보수사업, 현상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으며 소수서원 관광지화 계획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영주시 문화예술과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심사분석, 기술지도 및 설계실시
- 고가옥박물관, 유교문화센터, 연계도로망
- 유교문화권 개발계획거점화, 루트화 사업
- 유교문화권 개발중점정비, 관광개발사업
-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무형문화재발굴
- 문화재 지정·해제·보호구역지정
-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등 관리



영주시 행정조직도

4-1-4.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소수서원을 관리하기 위해 영주시 직할로 만들어진 소수서원 관리사무소가 소수서원 배면에 위치한다. 영주시에서는 소수서원, 선비촌, 소수서원 시립박물관을 통합하여 순흥 문화유적 관리사무소라는 명칭아래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서비스단체라 할 수 있으며 대표업무는 소수서원 문화재지정구역 내 문화재 보존 및 시설물 관리와 소수서원 방문관광객 관리,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운영과 소수서원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의 직원구성

직 위	인 원
소장	1명
관리팀	9명
소수박물관팀	5명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의 주요 업무

업 무	내 용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 지원	서원에 상주하며 현황을 수시로 파악 파손 및 훼손여부를 조사 및 영주시에 보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환경정비	재난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 수목관리와 환경정리 문화해설사사무실 및 매점 관리 관광지 부대시설 운영에 효율화
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선비문화체험 연수생 교육을 통해 겸손과 배려하는 정신함양 선비문화체험 수련생 다양화에 상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방문 관광객관리	선비문화체험 교육을 통해 정신문화 중심도장으로서 역할 수행 전통문화의 가치제고와 감각적인 홍보활동 실시 다양한 홍보자료 배부 및 관광객에게 정보제공
소수서원 관람료 징수 및 운영 ²⁹⁾	관람료 수익의 용도에 관한 사항 (관람료 수입금의 100분의 40이내)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주변의 환경정화사업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 애호심 고취·문화재의 소개 및 전승을 위한 사업 지정구역안의 현상보존을 위한 경상경비 퇴계선생 선양사업을 위한 보조금지급

소수서원 관람료 (2014.10.현재)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린이		1,000원	800원	6세 이하어린이 무료입장
청소년		2,000원	1,500원	
일 반		3,000원	2,500원	65세 이상 무료입장
영주시민 및 사이버영주시민 50% 할인	어린이	500원	400원	-
	청소년	1,000원	750원	
	일 반	1,500원	1,250원	
주차장		무료 이용		

※ 참고 : 소수서원 + 소수박물관 + 선비촌 통합입장료

※ 참고 : 단체는 30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료입장

29) 소수서원의 관람료 징수 및 운영은 「영주시 소수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의 내용을 따르며, 소수서원의 관람료는 2013년 1월, 현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관람시간은 하절기는 09:00~18:00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09:00~17:00까지로 관람이 가능하다.

4-2. 건축물 관리현황³⁰⁾

건축물 관리현황 -1

시기	주요 연혁
1550년 (명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21일 왕명에 의해 '백운동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음. 명종 어필로 『紹修書院』현판을 하사함.
1593년 (선조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 후 대를 쌓고 못을 팜.
1613년 (광해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석(蒼石) 이준(李埈)이 연못 탁청지를 팜.
1614년 (광해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락재(至樂齋)를 신축하여 상량함.
1633년 (인조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월 9일 소수서원에 주세봉을 추가 배향함.
1651년 (효종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8일 명륜당 중수 상량함. 10월 2일 명륜당을 중수하여 기와를 올림.
1652년 (효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8일 명륜당 양벽(仰壁)과 사벽(沙壁) 공사를 시작하여 8월 12일에 마침. 7월 8일 지락재 서까래 보수를 시작하여 29일에 마침. 8월 2일 명륜당 단청 공사를 시작하여 10월 13일에 마침.
1654년 (효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묘우 남쪽 담장 서쪽편으로 영귀봉 아래에 석주(石柱) 남쪽 넷가에 이르기까지 소나무 1천여 그루를 심었는데, 산 것이 겨우 5백 그루였으므로 잘 기르고 발을 갈거나 소를 방목하거나 화재가 나는 일을 금할 것과 새 길과 오솔길을 가다듬어 소나무를 심고, 앞으로 사이사이 더 심어 무성하게 하도록 함. 7월 원장 방 2칸을 새로 고쳐 동서로 조금 길게 함. 7월 전사청 3칸의 서까래 교체 7월 두지 2칸 중건함. 7월 공수청 7칸을 중건함.
1657년 (효종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45년 창건 이후 113년 만에 경렴정(景濂亭) 중건 공사를 시작함. 9월 6일 경렴정 중건을 위하여 구 건물을 철거함. 9월 9일 경렴정을 중건을 상량함. 10월 18일 경렴정을 중건하여 기와를 올림.
1677년 (숙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직방재 4칸을 개조함. 7월 공수간(公需間) 15칸의 형태를 변경하여 개조함. 7월 동서쪽 담장 삼면을 개축함. 8월 명륜당, 직방재, 지락재의 방내 창과 벽을 새로 바름 9월 대문 1칸을 개조함. 9월 동몽재 3칸을 옛날 그대로 두고 중수함. 10월 원장방과 동몽재 벽을 새로 바름 10월 식고(食鼓)를 새로 만듦.
1678년 (숙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지락재 남쪽 담장 밖과 공수간 서쪽 담장 밖으로 닥나무 1천여 그루를 심음. 탁청당 중수함.
1689년 (숙종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명륜당 담장·명륜당·경렴정·각방과 공수간에 비가 새는 곳을 수리함. 3월 사당 신문(神門)과 출입문 1칸 새로 기와를 덮음. 3월 명륜당 앞 대문에 새로 기와를 덮음. 4월 명륜당 장지문과 창, 각방의 문과 창을 수리함. 4월 경렴정 난간 철정(鐵釘)등을 수리함.
1691년 (숙종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16일 경렴정 시판을 떼어 새로 수리하고 채색함. 6월 경렴정에 황고산(黃孤山)이 직접 쓴 「景濂亭」 세글자를 새겨서 걸음. 8월 12일 사당 신문 동쪽 담장을 수축함.(기와 150장을 관아에 요청)

30) 영주 소수서원 정밀실측보고서_2013_문화재청

건축물 관리현황 -2

시기	주요연혁
1692년 (숙종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17일 명륜당 남쪽과 동쪽 담장, 지락재 앞 담장을 개축함. 공수간(公需間) 뒤 돌담장을 조금 옮겨 개축함. 유사청(有司廳) 통로 칸과 별고(別庫) 및 두지 1칸을 통합하여 마루 2칸으로 하여 밥상을 차리는 장소로 삼음. 명륜당 동북 양편의 섬돌을 반듯하게 개축함.
1704년 (숙종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륜당 앞 대문이 기울어져 옛날 재목을 가지고 다시 세움. 지락재 남쪽 담장 밖 옛날 닻나무발 터에 닻나무 1백여 그루를 심음.
1711년 (숙종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당 보수함. 공수간 보수함.
1712년 (숙종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신방(新房) 북쪽 처마 아래에 작은 마루를 새로 만들.
1714년 (숙종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20일 경렴정 증건공사 완공함.
1715년 (숙종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탁청지 주변 13곳에 제방을 쌓음.
1716년 (숙종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묘우 신문(神門)과 동협문(東夾門)의 경판 보수함. 10월 경렴정에 새로 단청함.
1719년 (숙종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명륜당을 중수하고 새로 단청함. 8월 유사청(有司廳) 남쪽 일강문(日降門)과 마구 2칸을 재건함. 8월 지락재와 경렴정 사이에 제월루(霽月樓)를 세우기 위하여 터를 닦음. 9월 10일 제월루 기둥을 세움.
1720년 (숙종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30일 제월루 공사를 마침. 4월 직방재(直方齋) 편액을 판목에 새김.
1723년 (경종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명륜당 중수함.
1730년 (영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동몽재(학구재) 서쪽 2칸은 방을 만들고 동쪽 1칸은 마루를 만들.
1769년 (영조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묘정 서쪽 담장 보수함. 6월 경렴정 북쪽 담장이 무너져 개축하고 보수함.
1780년 (정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월 26일 명륜당(明倫堂) 사액 현판의 사룡(紗籠)을 새로 장만함.
1782년 (정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명륜당 중수 : 명륜당 뒷마루가 무너져 보수하면서 난간을 신설하고 마루 서쪽 분합(分闔)이 낮아 다시 한 척을 높임.
1790년 (정조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3일 전사청 기둥과 창호 문지방, 기와 보수함.
1791년 (정조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명륜당, 직방재, 신방의 계단과 기와 보수함. 지락재에서 소헌대까지 담장을 쌓고, 전사청 앞 담장을 쌓음. 사당의 기와를 보수하고 뒤편 담장 보수함.
1799년 (정조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30일 사당, 명륜당, 직방재, 신방 기와를 보수함. 8월 1일 신방(新房)과 학구재(學求齋) 중간 담장을 쌓음. 8월 1일 책방(冊房)과 주사(廚舍) 중간의 담장을 쌓음. 9월 2일 지락재를 중수함.
1805년 (순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일신재 구역을 철거한 뒤 흙을 쌓아 터를 다지고 일신재를 세움. 3월 일신재 공사후 학구재를 세움.
1824년 (순조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향 후손이 『회선실기』 간행 후 부록으로 삼기 위해 「죽계지」 3책을 3권 1책으로 중간함.
1832년 (순조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명륜당을 중수함. 4월 지락재, 동몽재, 묘우와 각 재실을 보수함. 주사(廚舍)의 대문을 보수함.

건축물 관리현황 -3

시기	주 요 연 혁
1871년(고종 8)	◦ 소수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 제외되어 존속하게 됨.
1917년(순종 10)	◦ 안향의 신도비 중건 : 공자의 76세손인 공영이(孔令鯤)가 신도비명을 짓고 공자의 77세손인 공덕성(孔德成)이 안자묘(安子廟) 친필 편액을 소수서원에 보내음.
1939년	◦ 소수서원 중수
1947년	◦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설치
1958년	◦ 명륜당 보수공사 ◦ 중앙 마루도리에서 상량문 발견
1963.1.21	◦ 소수서원 경내(7,504㎡)를 사적 제55호로 지정
1966.12.31	◦ 지락재 및 협문 보수공사
1974.9.9~12.20	◦ 명륜당 번와공사 ◦ 영정각 신축공사 ◦ 경렴정 번와 공사 ◦ 울타리공사(철책 77m, 철조망 459m) ◦ 관리사 이전공사 20평 ◦ 조경공사(은행나무 17주, 둥근향나무 4주, 선향나무 50주)
1975년	◦ 주차장 확장 외 6건의 공사시행 ◦ 경렴정 기단 보수 ◦ 막돌담장 해체보수(260m) ◦ 주차장 토공사(673㎡) ◦ 영정각 도난방지책 설치
1977년	◦ 화장실 1동 신축
1978년	◦ 안내판 개수
1982.6.21~12.31	◦ 유물전시관(사료관) 신축 ◦ 담장신축(83m) ◦ 호두나무 진열장 제작 5개
1983년	◦ 협문1동 신축(2주문)
1983.10	◦ 안내판 및 조감도 개수
1983.11	◦ 서원 주변 정비 공사
1984.5.3	◦ 주변 정비 공사
1985.5.23	◦ 명륜당 번와 보수공사 ◦ 문성공묘 협문 보수 ◦ 지락재 보수 ◦ 전사청 기단 보수 공사 ◦ 보호책 설치 ◦ 방연, 방출 살포

건축물 관리현황 -4

시기	주요연혁
1986.6.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성공묘 번와 보수 전사청 보수 취한대 신축 주차장 200평 확장 화장실 신축 보호철개 203m 설치 담장 64.3m 신축 제방 227m 축조 공사
1987.3.13~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표소(3.4평) 신축
1989.6.26~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구재 6.6평 보수 서고 3.9평 번와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조감도 교체 공사
1991.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정각과 유물관에 경보기 설치
1991.10.5~ 1992.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전시관 및 충효교육관 신축 진입로 주차장 정비 공사
1991.10.3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신재·직방재의 연목 교체 및 벽체 보수, 기단 신축, 번와 공사 문성공묘 전면보수
199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신재·직방재 수리도중 건물 중도리에서 묵서 발견
1991.12.31~ 1992.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학당 북편지붕 일부 번와공사
19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1년 10월에 시작한 중수사업을 완공하고, 소수서원중건수기적비 세움.
1993.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사(46.9㎡) 보수
1993.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전시관의 전시시설 설치 공사
1994.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락재(25.24㎡) 보수
1995.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수대 설치 등 보수공사
1995.7.15~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효관내 마당정비 및 조경공사(카프포장 560㎡, 화단 1식)
1996.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학당, 전사청, 문성공묘, 영정각, 장서각 보수
1997.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효전시관 전시실 조명기구 및 전선 교체, 진열장 보수, 교체 충효전시관 전기시설 정비공사 자동문 설치
19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물관 번와 보수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학당 보수 공사 경렴정, 지락재, 취한대 보수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탁영대(濯纓臺)와 탁청지(濯淸池) 발굴조사복원사업시행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죽계지』 국영본 발간
20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서원 강학당 및 문성공묘 실측조사보고서』 발간
200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성공묘가 보물 제1402호, 강학당이 보물 제1403호로 지정

건축물 관리현황 -5

시기	주 요 연 혁
200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서원 주변올타리 정비 ◦ 선비촌, 소수박물관 개관 ◦ 청소년수련관 운영 ◦ 순흥향교 중수
2005.7.30	◦ 『운원잡록(雲院雜錄)』, 『강소잡록(講所雜錄)』, 『잡록(雜錄)』 국역발간
2005.9	◦ 학구재 해체보수
2006.5	◦ 일신재 · 직방재 보수
200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단청공사, 창호보수, 벽체보수 ◦ 주변정비공사
2007.12.20	◦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해제한 『소수서원지(紹修書院誌)』발간
200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서원 정비공사 ◦ 선비문화수련원 개관 ◦ 금성대군신단 국가사적 제491호 승격지정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기와 고르기 ◦ 경렴정 해체보수 ◦ 당간지주 주변 철책보수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렴정, 협문, 건물보수 ◦ 주변정비공사

5. 활용현황

5-1. 소수서원 운영 프로그램

- 현재 소수서원 내에서 항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
- 충효교육관만 비정기적으로 대관하고 있다.(2시간 4만원, 160석)
- 음력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하는 향알, 매년 정월 초 5일에 행하는 정알, 그리고 음력 3월과 9월의 초정일에 지내는 춘추 향사 등 서원의 제향 기능은 전승·지속되고 있다.

5-2. 소수서원과 연결되는 위·수탁시설

- 소수서원에 바로 인접해있는 '선비촌'에서 선비촌 체험과 한옥 숙박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 선비촌 체험 : 소수서원과 연계되는 영주 선비정신의 계승과 이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역사관 확립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체프로그램(대학일반인, 초·중·고등학생), 개별프로그램,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비촌 체험		
단체프로그램	대학·일반인	선비촌 밥상머리 교육(문화유적 탐방, 전통예절 교육, 우리먹거리 체험, 전통 혼례, 다례 체험 등)
	초·중학생	선비촌 밥상머리 교육(문화유적 탐방, 전통예절 교육, 전통문화체험, 우리먹거리 체험, 다례 체험, 인성 교육, 일일 훈장체험 등)
	고등학생	선비촌 밥상머리 교육(생활 예절 교육,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적 탐방, 우리먹거리 체험, 사군자 그리기, 다례 체험, 인성 교육, 혼례 체험 등)
개별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서당체험, 전통예절, 다도예절
	전통문화 체험	한지공예, 천연염색, 짚풀공예, 매듭공예, 목공예, 도자기 공예, 전통혼례 체험, 소달구지 체험, 민속놀이 체험
	전통음식 체험	두부만들기, 인삼한과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순흥 묵밥 만들기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한글서예, 전통혼례, 인절미 만들기, 한옥숙박

■ 한옥 숙박체험

- 선비촌내 한옥에서 숙박을 통하여 옛 선조들의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박체험집을 '고급형(김상진 가옥, 해우당고택, 안동장씨 고택)과 일반형(두암고택, 김세기 가옥, 김문기 가옥, 만족재)'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 인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유교문화와 전통문화를 교육하고 체험하기 위해 선비정신 육성교육, 인성교육, 예절교육,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체험과목</p>	<p>사적 제55호 특강(인문학/리더십/인성예절), 논어의 가르침, 사자소학, 유복입고 배례법, 다례(茶禮), 전통혼례 시연, 제례상 진설 및 시연, 선비명상(집단놀이 게임을 통한 마음의 벽 허물기), 선비밤길 스토리텔링, 택견, 예절드라마영상(드라마의 상황을 통한 간접 체험), 좌우명 짓기 및 서예, 투호, 윷놀이, 제기 만들어 차기, 굴렁쇠 굴리기, 천연염료를 이용한 염색(의복, 인견), 한지공예, 도자기 빚기·도자기에 그림그리기 떡메치기(인절미 만들기), 짚공예(짚의 생활 활용), 풍물한마당(전통의 집단놀이/우리가락과 장단)</p>
-------------	---

5-3. 소수서원 활용프로그램 운영의 한계성

-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로 미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서원의 자료들이 방문객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소수서원의 종합가치, 이해 교육, 전승의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
- 소수서원의 건축물은 '제향공간, 강학공간, 지원공간, 주변유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연계 가능한 공간이지만,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 소수서원의 배향인물은 서원의 정체성과 사상에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여러 형태로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현재 소수서원 내에서 항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소수서원의 고유한 가치가 담긴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일정 시기에 진행되는 제향, 각종의례, 문중행사 등은 타 서원과의 차별성과 특성을 찾기 어려우며, 서원의 활용면에서 획일적이고 제한적이다.
- 현재 소수서원 인근의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은 예절, 인성교육,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의 차별점이 없으며 보편적·천편일률적이고, 소수서원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서원의 교육콘텐츠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서원 체험을 통한 효용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 제작과 학습게임,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 등 인터넷(e-learning)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현재 소수서원이 위치해 있는 경북 영주시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수요자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관광콘텐츠의 개발 및 육성, 관광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준비 및 육성노력이 필요하다.
- 소수서원의 방문객들은 소수서원만의 가치와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소수서원의 잠재적인 방문객에 대한 연구와 욕구 분석을 통해 그들의 호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4. 소수서원 분석의 시사점

- 소수서원은 우리 전통사상과 교육의 요람이며 역사적 가치 속에 진정성을 계승하고 보존해야 하지만, 서원을 분석한 결과 지역 사회의 대표문화유산 자원으로 운영되거나 체계적인 활용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수서원의 특성이 부각된 소재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이때 소수서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욕구 분석을 통해 그들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전략수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선조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하는 공간인 소수서원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와 참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즉 소수서원의 기능과 시대정신, 역사와 인물, 공간의 배치구조 등이 함께 이해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모델 계획 수립이 요청된다.
- 소수서원의 콘텐츠 확보와 개발이 활성화되어 문화적 향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활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IV. 기본구상

1. 기본방향
2. 기본구상



IV. 기본구상

1. 기본방향

1-1. 기본개념

1-1-1. 기본원칙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방안을 수립한다.
- 유적의 가치보존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복원은 지양한다.
- 관련계획 및 관련법 검토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 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하고,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에 부합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중 서원에 적용될 등재 기준 해당 항목은 (ii), (iii), (iv), (vi)이다.
 - 기준(ii), 한국의 서원은 유교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한 후, 성리학의 보급에 합당한 한국 특유의 서원 건축 형식을 형성한다.
 - 기준(iii), 한국의 서원 건축은 조선시대 사학(私學)교육의 가장 전형적인 증거(Testimony)를 보여준다.
 - 기준(iv), 한국의 서원 건축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특유한 공간 유형을 창출하였다. 서원의 전면 경관은 성리학자들이 이상으로 생각하는 산수 자연미의 전형이다. 이는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유가(儒家)의 천인합일사상을 반영한다.
 - 기준(vi),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방 문화와 교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문집과 문헌을 남겼다. 이들 서원은 향촌사회의 여론과 공론을 집약하는 지성들의 집회소 역할, 제향과 강학 기능을 통한 사회교육의 장소, 그리고 도서관과 출판기능을 수행한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

구 분	기 준	사 례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한국 종묘
V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와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공통	문화유산은 진정성(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문화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완전성을 보유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을 통한 보호 및 관리체계 수립	

1) 서원 건축물과 경관의 원형 유지

- 서원의 수리공사는 반드시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시행한다.
- 원형에 대한 근거를 확보 하였을 때 시행하며, 원형을 알 수 없을 때는 현 상태를 지속한다.
- 추정하여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은 원형훼손을 초래한다.
- 원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나중에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서원의 기록유지

- 서원의 건축물을 수리함에 있어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인가능한 모든 사항을 조사, 기록해두어야 한다.
- 기록이나 자료가 잘못되거나 오류를 목인할 경우 원형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 가능성이 높다.
- 특히 재난과 같은 불의의 사태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훼손된 서원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서원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3) 건축양식 유지

- 서원의 건축물 수리 시 반드시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건축양식을 바꾸거나 변형하는 것은 안 된다.
- 양식이 불확실하다고 추정하여 수리할 경우 원형이 변형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양식에 맞게 철저한 고증을 통해 수리한다.

4) 건축기법과 기술 유지

- 서원건축물 수리는 양식과 함께 당대의 기술과 기법도 수호해야 한다.
- 기술자 집단의 기술과 기법, 가공수단, 건축도구를 충분히 재현하여 당대의 기법과 기술이 유지되도록 수리해야한다.

5) 건축재료 유지

- 서원건축물을 수리할 경우 가능한 원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건축 재료의 변화는 곧, 물적 특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서원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수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서원의 장소성 유지

-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 동산문화재는 특수 장소로 옮겨 수장할 수 있으나, 부동산문화재는 원위치에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발휘된다.
- 건물의 경우 건물을 에워싼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풍수지리의 좌향 같은 철학적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원래 장소를 떠나지 않도록 장소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서원 주변 자연경관 유지

- 서원 및 주변경관이 도시개발, 특히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확대되면서 개발행위가 서원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문화가치가 산업 가치와는 비교하기 어려운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재인식하고 문화재는 물론 서원 주변경관까지도 보호, 유지되어야 한다.
- 서원 주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원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1-1-2. 계획의 기본방향

■ 유적 정비

- 구조, 양식, 기법 등 핵심적인 사항은 변형되지 않게 하여 진정성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역사문화적가치가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 정비

-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고 역사·문화·자연경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조경계획은 과거 기본적인 원형은 유지하되, 주변 경관이 보존되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물 정비

- 도입시설은 기존 시설 보호를 전제로 하여 기존 건축물의 시각적 차단을 최소화 시켜 조화로운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입시설의 기능은 기존 건축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1-3. 계획의 지표설정

- 기존 서원 건축물의 전통 구조, 양식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전통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정비한다.
- 변형된 부분은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등으로 정비하여 전통적인 옛 모습을 유지하도록 한다.
- 배수로는 자연재해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직선화하거나 폭을 넓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정비한다.

1-2. 경관 정비에 관한 구상

■ 조경 및 식생에 관한 구상

- 서원의 경관과 주변경관은 서원의 입지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진정성이 보존되어야한다.
- 서원 내외의 경관은 전통적인 경관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외래수종 식생을 배제하고 경관 상 어울리지 않거나 전통조경과 맞지 않는 수종들은 제거하거나 이식한다.

■ 주변경관 보전에 관한 구상

- 주변 경관은 현재 경관구조를 유지하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자연경관은 가능한 한 원형으로 회복되도록 계획한다.

분류 구분	경관	식물	시설물							
			휴게시설	편의시설	장식시설	포장시설	안내시설	홍보 전시시설	방재 방법시설	토목시설
전통 조경 유구	지형 지물 수림	교목 관목 초화류 과실수	樓亭臺 평상 石榻	계단·담장· 우물·석등· 샘·정로대	괴석·석함· 대석·석자· 석조·석수· 조산·단·연못	박석포장 전돌포장 디딤돌	하마비 신도비 공적비	-	울타리	화계 배수로 다리[橋]
현대 시공 조경	-	교목 관목 초화류 과실수	정자 의자 평상 퍼걸러	주차장 화장실 경계웬스 음수대 가로등 휴지통	화단·화계· 괴석·석함· 대석·석자· 석조·석수· 造山	보도블록포장 아스콘포장 콘크리트포장 황토포장	설명판 안내도 방향지시판	전시시설 교육시설	소화전 방수층 CCTV 방범센서	배수로 집수정

사적지 조경 정비의 대상

1-3. 시설물 정비에 관한 구상

■ 관람편의시설에 관한 구상

- 음수대, 간이의자, 휴지통,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의 관람편의시설은 서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간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한다.
- 안내판의 설치 수량은 최소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안내판과 권역안내판, 기능성 안내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안내판은 서원의 특색을 반영하되 전체적인 디자인 시스템에 있어 일관된 분위기는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 소방방재시설에 관한 구상

- 소화전은 장내 매립 또는 지중화 등으로 외부에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소화전함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형태로 정비한다.

■ 기타시설에 관한 구상

- 서원주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 매장유구 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현대식 재료 사용은 최소화하고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건축물의 외형은 전통한옥 형태로 한다.
- 계량기, 난방시설, 전기 통신시설 등 외부에 설치되는 기기나 도구는 가능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전통재료를 이용하여 차단시키도록 한다.
- 조명등의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가능한 한 담장 내에 매립하거나 담장 높이 이하로 노출을 최소화 하여 서원의 특성에 어울리는 형태 및 재질로 정비한다.
- 전시시설·체험학습시설·화장실·주차장 등의 어느 정도 규모가 요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적 지정지 밖에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사적지 내부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아야하고, 시설의 규모 및 의장이 과대해지지 않아야한다.

2. 기본구상

2-1. 기본구상

-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되어 있는 소수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찾는다.
- 소수서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위적, 자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여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변형이 이루어진 부분은 최대한 원형으로 환원하며,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부분은 대체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소수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회복한다.
- 소수서원의 가장 큰 변형은 1991년의 충효교육관 건립이며, 건립 당시 철거되었던 원촌과 제방공사 등이 있다.

2-1-1. 건축물 정비

- 건축물의 훼손된 부위를 파악하고, 옛 사진을 참고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하여 소수서원의 진정성을 찾는다.
- 과거 존재하였던 제월루를 사료들을 참조하여 환원, 재현의 의미는 소수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찾기 위함이며 현대인들에게 과거 학업에 매진하고 풍류를 즐기던 공간을 재현한다.

2-1-2. 경관정비

- 코어존과 버퍼존을 설정하여 주변경관 보존 및 훼손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 충효교육관과 사료관을 건립함에 따라 저해된 경관을 복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충효관 이건 및 철거를 통하여 경관 회복방안을 마련한다.
-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바닥 마감재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한다.

2-1-3. 주변정비

- 현재 서원 공원영역이 조성되어 있는 장소는 소수서원의 원촌이 자리하고 있었던 장소로, 1991년 충효교육관 신축공사 당시 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 철거되었다. 이를 복원하여 소수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되찾는 방안을 모색한다.
- 소수서원의 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2. 활용계획

- 서원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한번 상실한 원형은 형태를 재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던 고유한 역사성은 상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존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체는 서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 건축물의 전체적인 형태는 서원의 경관에 어울리도록 한다.
 -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반드시 석재를 사용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게 하여야한다.
 - 건물 외부로 현대재료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한다.
 - 서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 등을 위한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 서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전시, 체험, 출판, 도록 등 지속 가능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서원 내 건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단체는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 지속가능한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2-2-1. 서원문화의 본질, 종합성 활용

- 서원문화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활용한다.
 - 서원문화의 본질은 지성사, 정신사적 성격을 파악한다.
 - 서원문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건축물[hardware]을 보존한다.
 -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민속·인문학적 내용을 발굴하여 스토리 메이킹을 시행한다.
 - 인물, 문학, 정신사적 콘텐츠의 자료정리를 충실히 이행한다.
 - 고품격, 선택된 철학적 의미와 경관요소를 최대한 특화한다.
 - 소규모를 지향하되, 도제식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한다.
 - 효과적인 교육 자료집의 제작 등 수요층과 주제별 보조아이디어 개발 추가한다.
 - 서원스테이 : 토론, 전토와 현대의 만남, 유림과 대화 등의 활용 위주로 진행한다.
 - 국민적 문화향수 욕구에 충족되는 서원 관리운영체계[humanware]를 정립한다.

2-2-2.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와 개발

- 서원의 주변 경관과 건축물은 인류의 삶의 흔적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장소성, 역사성, 경관성에 진정성과 완전성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한 서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원의 특징과 개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 학문, 강학 유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2-3. 역동적, 체험적 프로그램의 접목

- 서원이 현대사회와 괴리되지 않고 주류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원 활용 프로그램이 시대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직접 옛 조선시대 서원의 구성원이 되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연령, 성별, 수요자의 성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지성들의 집회소, 사회교육의 장소, 도서관 및 출판기능
 -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지성인들의 삶과 생활문화를 자원으로 재생 활용한다.
 -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대문화 추세에 주목하여 인관과 자연의 일체감을 느끼기 위한 '자연경관 감상' 체험한다.

2-2-4. 경쟁력 있는 문화 체험공간 활용

- 서원이 지역문화 브랜드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원 활용은 서원만의 가치와 의미를 살려내야 한다. 사찰, 민가와 다른 건축적 공간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과 문화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도심 속 학원가의 한문학원, 역사공간으로서 고급선비문화의 공간으로 입장한다.
 - 강학 전통의 복구와 계승, 덕성·인성교육의 대안, 지속가능한 교육방침을 제공한다.
 - 과거공간으로의 완벽한 이동(철저한 과거식 교육방식)을 체험한다.
 - 서원 품위에 맞는 활용법(문학·사상·역사 특강, 이벤트)을 모색한다.

2-2-5.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

- 서원이 역사 문화 장소적, 경관적, 공간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사실에 비해 서원 활용 지원 정책과 예산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적극적인 활용 지원정책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이 요구된다.

- 문화재 원형 및 주변 경관에는 큰 영향이 없는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서원활용계획과 예산지원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수한 활용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도록 한다.
- 일률적인 활용계획 보다는 서원 활용의 성과가 우수한 서원, 서원문화 재생산에 기여한 서원에 선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 활용에 지원된 예산은 집행과 기대효과를 평가하여 추후 예산지원에 반영한다.

프로그램 유형		주요 내용
체험	교육의례	· 서원제향의례 등 유교의례 이벤트 프로그램 · 유림과 대화, 의미와 해설 체험 · 교육의례 : 강학, 시회 등
	전통교육	· 향약, 향음례, 향사례, 향회, 새로운 의례의 발굴 개발 · 고강(시험), 동서재 기숙 등 서원생활 문화체험 · 유림과의 토론 · 교육 및 학문 체험프로그램 : 교육과정, 교과서, 규약 체험 등
답사	문화유적	· 유교문화 성격별, 권역별 코스 개발 · 건물, 전적, 목판, 고문서, 금석문, 생활사 유적 유물 답사 · 관련 역사 사건이나 인물 일화의 저술, 업적, 유적 답사 · 관련유적 : 서당, 종가, 누정, 재실, 정려 등
	인물사상	· 인물연구,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화 · 시대, 인물, 주제(의병 도학, 사림 정치)교육 · 인물 유적 탐방, 인물 관련 유적 유물(저술, 생애, 일화 등) · 주요 인물 관련, 서원 탐방 및 종가체험 · 서운의 고문서 조사와 번역
관광 및 홍보	공간활용	· 학교 교육과 연계, 문화 교육행사장으로 적극 활용 · 기존 문화유적 최대 활용, 주제별 답사와 체험 · 고전 강독, 한문, 족보 특강, 정신 학술 교육 등 · 대학연구소,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
	전시홍보	· 유물 및 소장자료 전시 · 인물유품, 유교문화재, 고문서 전적, 금석문 · 정려 특별전시회 개최, 기증 및 위탁 전시기능 · 자료 종합 정리(교양서 안내서 발간), 학술세미나

서원 문화의 활용 및 프로그램의 개발유형

2-3. 단계별 정비

- 서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향후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가능하도록 단기적으로 시행할 사업과 이후 단계별로 추진할 공정을 구분하여 계획 수립한다.
- 다양한 사업에 동시다발적인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으로 시기별, 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을 부담·분산한다.

V. 종합정비계획

1. 유적 및 유구정비
2. 경관정비계획
3. 주변정비계획
4. Master Plan



V. 종합정비계획

1. 유적 및 유구정비

1-1. 제월루 재현

1) 서원과 누각

- 우리나라 서원의 누각은 한적하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되었다.³¹⁾
- 누각은 선비의 장수(학문을 통한 수양)와 유식(즐거며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다.
- 경상북도 서원의 누각의 경우 장방형 형식이 주로 나타난다.³²⁾
- 누각이 있는 다른 서원들을 살펴보면 강학당(명륜당)과 누각은 평행한 배치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강학당과의 배치축선을 평행하게 설정하여 계획한다.
- 경북 서원 중 측면 2칸의 누각이 전체 14개소 중 11개소로 나타나며, 단청의 경우 백골집 5개소, 모로단청 8개소로 나타난다.³³⁾



병산서원



옥산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2) 현황 및 방향설정

- 소수서원이 건립되기 이전 숙수사가 존재하였고, 숙수사에는 숙수루가 있었다는 기록이 다수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 숙수루의 터에 제월루를 건립하였다는 기록 또한 확인된다.
- 제월루가 언제 어떻게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누각이 서원에서 갖는 의미는 서원의 진입동선, 전체 경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발굴 조사를 통하여 유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제월루 재현 후 진입동선 마련 및 전면경관에 대한 재현 및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전성과 진정성 회복을 통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재현계획을 수립한다.

31)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유식공간 연구_김상협

32) 조선시대 루건축(樓建築)의 지역별 유형특성_최미경

33) 서원과 향교의 루에 관한 연구_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_이성호

3) 관련 사료

① 사료

- 제월루에 관련된 기록은 몇몇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백은(白隱) 이진만(李鎭萬)의 '잡록'

- 백은 이진만 선생의 '잡록'은 2007년 발행된 소수서원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명륜당 동쪽에서 지락재 남쪽 경림정의 북쪽 시냇가에 비탈진 언덕이 있는데, 선배들이 일찍이 누각을 지을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이에 명륜당 중수를 마친 달 갑자일에 담장을 철거하고 터를 닦기 시작하였다. 담장 밑으로 한 길 정도를 파내려가니 큰 주춧돌 10개가 나왔는데 모두 한 줄로 나란히 있어 옛날 건물 터임이 완전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날 숙수사가 있을 때 노여(魯瑬)의 시에서 이른바, ‘찬 시냇물 소리를 밟으며 나그네 누각으로 오르네.’라고 한 것이니, 이곳이 분명 그 터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9월10일 기둥을 세우고 10월 초하루에 열 칸 건물로 상량하였다. 11월에 추위가 닥쳐 기와를 덮고서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듬해 2월 14일부터 3월 그믐까지 난간과 칠을 다 마쳤다. 인력이 지난여름 보다 갑절 더 소요되었는데, 모두 서원 하인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였다.

“옛날에 광풍대(光風臺)와 제월교(霽月橋)가 있었으니 다리에 이름 붙였던 것을 가지고 이곳의 이름을 삼는 것이 좋겠다.”

하여, 드디어 '제월루(霽月樓)'라 하였다.³⁴⁾

-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래 숙수사에 존재 했던 숙수루가 멸실되고 그 건물터에 다시 제월루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 노여(魯瑬)의 시

順興宿水寺樓의 칠언전구 시구

輕裝短帽一尋幽	가벼운 행장에 짧은 모자 쓰고 그윽한 곳 찾아오니
蘭院依然十載遊	10년전 놀던 절간 옛날 그대로이네
壁價幾年詩共重	벽 값은 몇 해에 시와 함께 중해지고
寺名千告水同流	절 이름은 천고의 물과 함께 흐르네
寒推巖色僧扃戶	차갑게 산 빛을 밀며 스님 문을 닫고
冷踏溪聲客上樓	싸늘한 물소리 밟으며 나그네 누각에 오르네
長嘯徘徊日云暮	휘파람 불며 배회하는데 해가 저물어
倚欄回首起鄉愁	난간에 기대어 머리 돌려 향수에 젖네

34) 소수서원지 694p - 『雜錄』, 백은(白隱) 이진만(李鎭萬), 제월루(霽月樓)를 세울 때 기록 발췌

■ 문정공 안축의 시

靈龜形勢縮山頭 신령스러운 거북이 산머리에 쭈그리고 있는 모양
 下有深溪百尺樓 그 아래 깊은 시냇가에 백척의 누각
 須得涼軒嚙朝日 분명 시원한 정자에서 아침해를 삼키고
 釀成真氣已千秋 진기를 양성한 지 천년 세월이리라

■ 풍기읍지

在靈龜山下. 有宿水樓, 卽白雲書院所建之地.

周慎齋創院寺 拓基得瘞銅若干斤 質書籍藏之云

영귀산 아래있었다. 숙수루가 있었으니, 바로 백운서원을 세운 곳이다.

주신재가 서원을 창건할 때 터를 닦으면서 구리 약간 근을 출토하여 그 값으로 서적을 구입하여 소장하였다고 한다.

② 사료고찰

- 문헌을 종합해 보면 제월루는 1720년 3월경에 축조가 완료되었으며, 과거 소수서원 이전에 숙수사가 존재할 당시 숙수루라는 누각이 존재 했었고, 이후 숙수사가 폐사되었다는 기록만 존재할 뿐 숙수루가 붕괴, 노후 등의 문제로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 후 소수서원이 건립되고 건축물들의 신축과 함께 제월루가 건립되었으나, 건립 당시 문헌에서 「담장 밑으로 한 길 정도를 파내려가니 큰 주춧돌 10개가 나왔는데 모두 한 줄로 나란히 있어 옛날 건물 터임이 완연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전날 숙수사가 있을 때 노여(魯瑬)의 시에서 이른바, ‘찬 시냇물 소리를 밟으며 나그네 누각으로 오르네.’라고 한 것이니, 이곳이 분명 그 터가 아니겠는가?», 「기둥을 세우고 10월 초하루에 열 칸 건물로 상량하였다.」라는 대목에서 볼 때 제월루는 숙수루가 존재하던 동 위치에 건립되었음과 10칸 규모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월루의 규모를 10칸 규모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재현계획을 수립한다.
- 그리고 문정공 안축의 시에서 「그 아래 깊은 시냇가에 백척의 누각(下有深溪百尺樓)」의 대목에서 당시의 길이 단위인 척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당시 1척은 현재의 약 30.8cm정도로 환산되며, 백척은 오늘날 약 30.8m이다. 또한 한칸당 열척으로 구성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 위치는 경림정과 지락재 사이의 담장구간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줄로 나란한 주춧돌 10개에서 가로 9칸 규모로 나타나지만, 수록된 본문에서 “10월 초하루에 열칸 건물로 상량하였다.”에서 10칸 규모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³⁵⁾
- 병산서원 만대루와 유사함, L=27m, B=10m³⁶⁾
- 위의 두 가지 문헌 이외의 문헌은 제월루 및 숙수루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문헌이다.
- 경북지방 누각의 분포를 보면 세로 2칸 규모로 추정이 가능하다.³⁷⁾

35) 백은 이진만 잡록

36) 선비의 고장 “영주” 둘러보기, 영주시

37) 경북지방 누각의 분포_이성호

4) 대상지 선정

- 소수서원이 건립되기 이전 숙수사가 존재할 당시 숙수루가 존재했었다는 시편, 상량문 등의 사료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소수서원이 건립된 후 숙수루와 동위치에 제월루가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백은(白隱) 이진만(李鎭萬)이 제월루(霽月樓)를 세울 때 기록에서 나타나는 「명륜당 동쪽, 지락재 남쪽, 경림정 북쪽 시냇가 비탈진 언덕이 있는데, 선배들이 일찍이 누각을 지을 만한 곳」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동위치에 재현한다.



제월루 재현 예정지(담장내부)



제월루 재현 예정지(담장외부)



제월루 재현 예정지

< 자문의견 >

- 제월루 재현은 경관회복에 아주 큰 의미가 있으므로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시·발굴조사를 필수적으로 선행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 또한 과거 소수서원의 진입동선을 현재의 동선과 비교하며, 과거 문헌에 나타나는 진입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 제월루가 복원되었을 때 파생되는 효과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5) 재현 계획

- 제월루 재현의 당위성은 세계문화유산의 등재조건 중 진정성과 완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문헌의 기록만으로는 원형복원이 불가능하지만 문헌상의 기록내용과 누(樓)가 있는 다른 서원의 사례를 분석하여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여 진정성과 완전성을 찾는 것에 의의를 둔다.
- 소수서원은 여타 서원과 같이 일반적인 배치는 아니지만 숙수사와 숙수루에 관한 자료와 제월루에 관한 자료가 전승되고 있으므로 완전성과 진정성을 위해 재현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재현 계획 실시 이전에 시·발굴조사를 통하여 면밀한 유구파악을 실시하며, 규모와 위치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발굴조사 자료를 토대로 지락재와 경림정 사이 담장구간에 재현하며, 지붕의 형태는 병산서원의 만대루와 유사한 팔작지붕으로 구성한다.
- 제월루가 재현됨에 따라 기존의 남쪽 진입방식이 아닌 과거 원촌지(현재 공원)에서 죽계천을 따라 탁청지를 지나 제월루 동쪽으로의 진입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과거 제월루에서 300여명이 참여하여 백일장을 개최했다는 기록을 기초로 하여 향후 소수서원의 백일장 및 기타 행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활용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월루 재현계획도

1-2. 고직사 이견

1) 고직사의 고찰

- 고직사는 서원구역 외곽에 민가형식의 건축물로 살림집 형식이며 서원 관리인이 거처하던 곳이다. 고직사(校直舍)라고도 하는 고직사는 서원의 향사를 행하는 날에 필요한 제수품을 준비하고 서원에 기거하는 선생님과 교생들의 숙식 지원 및 서원의 제반 살림을 맡아보는 기능을 수행하던 공간이다.
- 유교관념상 서원 내에서는 사람이 임종할 수 없으므로 사람이 기거하고 생활하는 고직사는 서원 담장 밖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현황

- 현재 고직사는 사료관 서쪽, 영정각 배면에 담장으로 구획된 별도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고직사 위치



고직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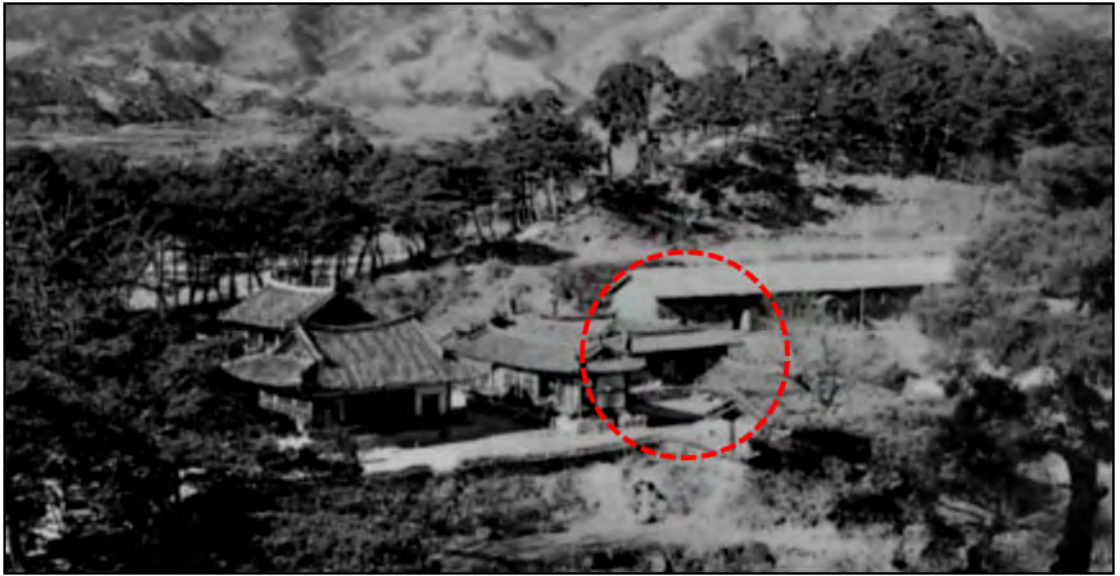


고직사 사주문

- 고직사로 진입하기 위해서 사주문이나 협문을 통과해야 하며, 진입시 전면에 마당이 형성되어 있는 4X2칸의 고직사가 나타난다. 현재 고직사는 자연석기단위에 민도리형식의 가구이며, 팔작지붕으로 형성되어 있다. 중앙 2칸은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측면 2칸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서원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기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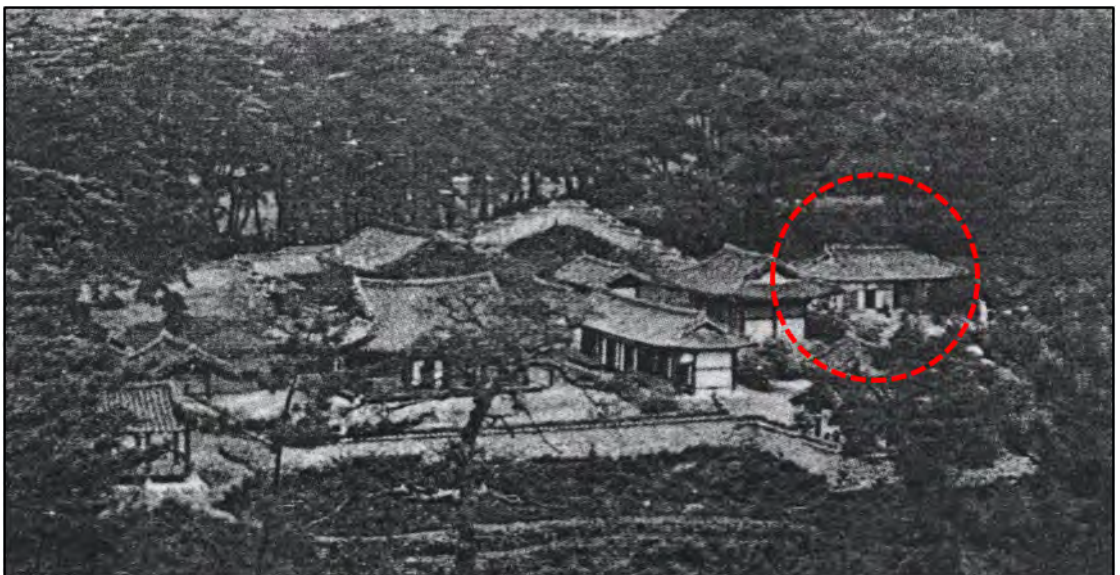
3) 사진자료 분석

① 과거전경사진



1964년 이전 전경

- 고직사로 추정되는 건물 북·서쪽에 소수공민학교가 보인다.
- 일신재·직방재 배면에 있는 건물이 고직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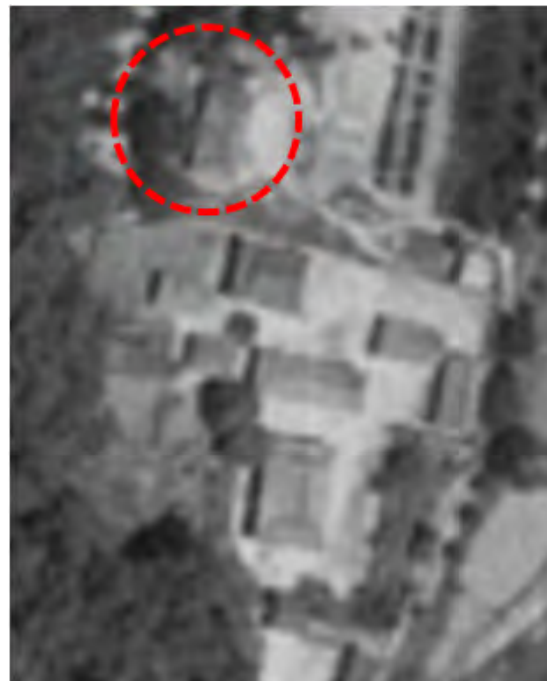
1974년 이후 전경

- 소수공민학교가 사라지고 영정각 배면에 고직사가 위치하고 있다.

② 항공사진



1971년 항공사진



1980년 항공사진



1988년 항공사진



1991년 항공사진

- 71년에는 고직사가 나타나지 않으나 80~91년에 나타나는 건물은 현재 고직사 위치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 88년 이전에는 담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88년 이후부터 담장이 나타난다.

< 자문의견 >

- 고직사 이건은 경관회복에 의미가 있으므로 계획대로 이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시·발굴조사 선행 후에 이건하도록 한다.

4) 정비계획

- 소수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 회복을 위해 본래 위치를 고증하여, 이건하며 고직사 이건 이전에 본래 위치 고증을 위한 시·발굴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유교적 관념에서 서원내부에서 사람이 임종할 수 없으므로 고직사는 서원 담장 밖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준수하여 서원영역 외부로 이건한다.
- 현재 고직사의 건축면적은 약 80㎡이며, 본 계획에서는 시굴조사를 선행한다.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범위는 보다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하여 원형 추정지에 현재 고직사 건축면적의 200%를 책정하고, 시굴조사는 그 면적의 20%인 36㎡를 실시한다.
- 이건 면적과 규모는 사진자료와 시·발굴조사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이건하도록 한다.



고직사 정비계획도

구 분		현 황	정 비	비고
규모	면적	80㎡	80㎡	시굴조사 후 현 고직사를 해체하여 이건
	칸수	4×2칸	4×2칸	
위치		현위치	동남측 방향 영정각 배면 담장 밖	이동거리 - 약 10m

• 특기사항 : 원형지로 추정되는 대상지 시굴조사 선행(시굴면적: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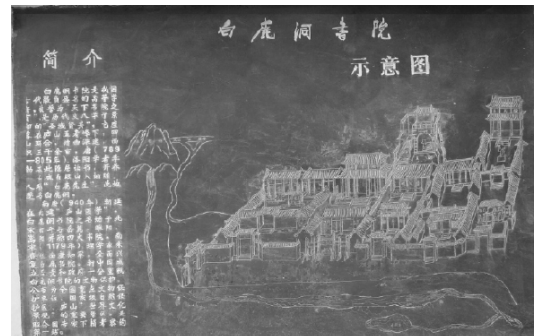
2. 경관정비

2-1. 경관정비의 방향 및 체계

2-1-1. 서원의 경관 가치

1) 고유성

-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송·원·명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수되나, 조선조에 이르러 그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능과 성격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중국의 서원은 관인 양성을 위한 준비기구로서 학교의 성격을 고수 하였으나 조선의 서원은 사림의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의 취회소(聚會所)로 정치적·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 조선시대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봉안하고,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조선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서원과과는 다른 고유성을 확보하였다 할 수 있다.



중국 백록동 서원(당나라)



중국 송양서원(후주)



악중국 록서원(송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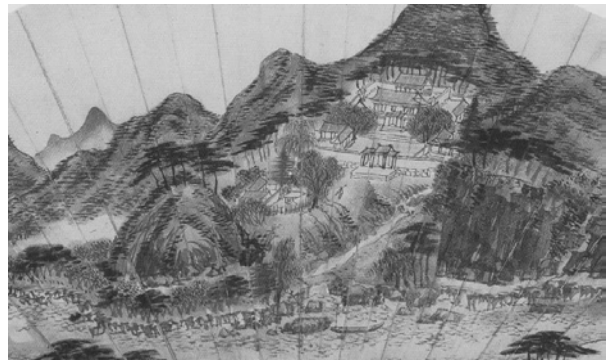
중국 응천서원(송나라)

2) 조화성

- 서원의 역사경관에서 인지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연환경과 인문사회경관의 조화이다. 초기의 서원은 강학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서원의 제향기능(祭享機能)과 도서의 출판과 보급, 열람 등의 출판·장서(藏書)기능으로의 발전에 따라 서원의 건축적 변화도 행하여졌다. 이러한 건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자연경관에 최대한 조화·순응하면서 자연경관과 인문·사회적 경관들이 상호 조화되어 표출하는 서원 경관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 아호서원 입지



도산서원 입지(검재 정선)

2-1-2. 서원 경관의 보전관리 방향

1) 전제조건

- 서원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관 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러한 활력은 조망자가 현재의 서원 경관을 통해 과거 조선시대 사림의 성리학적 근거지였던 서원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천인합일'의 사상에 근거한 자연과의 조화 등 서원경관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서원의 경관보존은 '현재 서원경관의 시각적 체험'을 통해 '과거 서원의 경관을 심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과거와 현재의 경관을 통해 동일시 할 수 있도록 조망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은 미래 한국 서원의 경관보존 방향과 직결되며, 미래까지 한국 서원경관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들을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와 같이 서원경관의 보존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서원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유추하여 정립하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³⁸⁾

38) 대한민국,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보전관리 계획, 2010, p.131 참조



병산서원 만대루에서 바라본 경관



도동서원 주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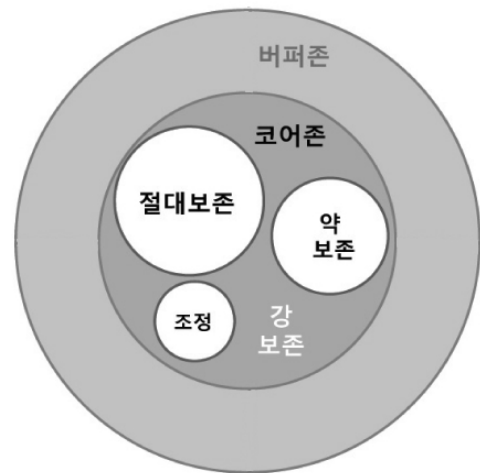
2) 보존 방향

- 사라지거나 과거에 비해 약해진 경관을 보완하는 것
 - 한국의 서원은 500여년의 세월동안 정치·사회·문화사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1871년 서원철폐령 이후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근·현대기를 거치면서 경제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개발과정 속에서 서원 및 주변 자연경관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진 경관들을 재현, 보완하여 서원경관의 원형적 가치를 회복한다.
- 현재에도 강하게 인지되는 경관들을 지키는 것
 - 서원철폐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원들은 살아남았으며, 이후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자 비록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성리학적 질서를 토대로 일정기간 동안 향촌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현재에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변화된 주변 자연경관과 더불어 선조들이 과거에 인지하던 경관들을 지켜 서원의 경관 가치를 지속시킨다.
- 서원 경관과 연계하여 새로운 힘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을 발굴하는 것
 - 조선의 서원은 서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주자(朱子)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본받아 자연이 빼어난 구곡원림(九曲園林)을 설정하고 구곡시가(九曲時畵歌)를 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곡도(九曲圖)를 그려 완상하면서 성리의 이념을 꽃피우고 구곡비평(九曲批評)을 전개하는 등 이른바 구곡문화(九曲文化)를 형성한다.
- 이러한 구곡문화를 조사발굴하여 현재 지속되고 있는 서원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연계성을 모색하여 서원경관의 활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을 발굴·도입한다. 단 도입하는 경관은 기존의 서원 경관을 저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1-3. 보존영역의 설정

1) 서원경관의 보존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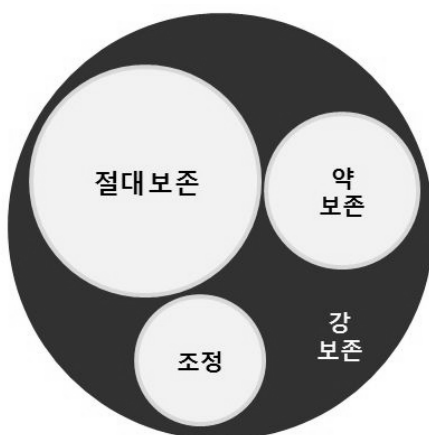
- 서원의 경우 대부분 비도시지역에 입지하며, 주변 자연경관에 순응·조화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서원경관의 완전성과 진정성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변 자연경관의 보전 또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유지되어 온 서원 경관과 더불어 주변 자연경관의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위계별 경관보존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서원의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사물 혹은 자연환경은 경관보존의 '코어존(core zone)'으로 설정하고, 서원경관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변(자연, 생산, 주거 등) 환경을 '버퍼존(buffer zone)'으로 설정한다.



서원의 보존 범위

2) 서원경관의 보존 위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원의 경관은 역사경관의 핵심인 서원 영역과 서원의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자연환경까지 결합하여 형성되어 있다.
- 그러므로 문화재구역 이외에 서원과의 역사경관적 관계를 고려하여 보존 위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존위계는 '절대보존지', '강보존지', '약보존지', '조정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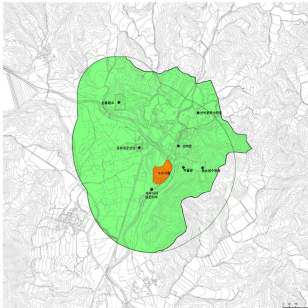


절대보존	절대적인 보존 가치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동결보존이 필요한 곳
강보존	'절대보존지'보다는 가치가 낮은 곳으로서, 절대보존지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완기능 수행 및 주로 문화재를 제외한 건물 및 외부공간이 해당
약보존	보존가치가 낮으며, 서원 중심과 이격 되어 있어 서원 전체적인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서원 전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융통성 있게 흡수하여 서원의 생명력을 유지, 확장 할 수 있는 곳
조정지	원형에서의 변화 정도가 가장 심하여 보존 가치가 낮은 곳이며, 입지상 서원 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들의 도입이 가능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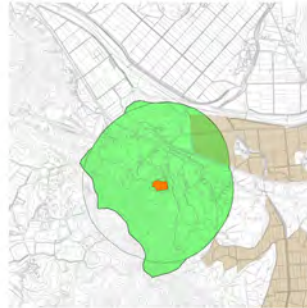
보존 위계 설정

3) 세계문화유산 등재 9개 서원 완충구역 설정

-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9개 서원 완충구역 설정(안)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일시 : 2014. 0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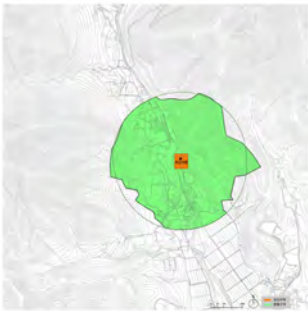
영주 소수서원



논산 돈암서원



함양 남계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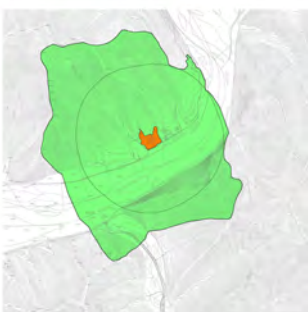
경주 옥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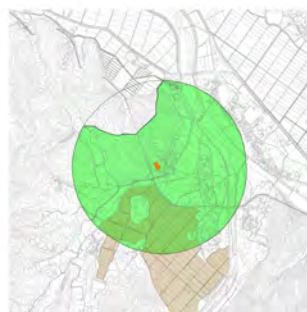
안동 도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안동 병산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 완충구역범위를 바탕으로 하여 내부 영역을 설정한다.

2-2. 경관 보존구역 설정

2-2-1. 경관보존구역 설정

1) 코어존(Core Zone)과 버퍼존(Buffer Zone)의 설정

- 완충구역의 설정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그 보완책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³⁹⁾을 참고하여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한다.
-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과 2구역 내에서 코어존을 설정한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을 버퍼존으로 설정하되 소수서원과 인접한 선비촌영역은 코어존으로 설정한다.
- 코어존
 - 소수서원을 기점으로 소수서원의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으로 소수서원에서 조망되는 최대한의 구역을 설정하여 동결 보존한다.
 - 소수서원의 가사조망권에 들어오는 서원 주변의 산 능선내부와 소수서원의 배경이 되는 배면산지와 소수서원과 인접하여 흐르는 죽계천까지 일괄 코어존으로 설정하여 소수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입지조건을 보존하도록 한다.
- 버퍼존
 - 소수서원 경관과 이격되어 현재 개발중인 영향권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3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을 버퍼존으로 설정하여 소수서원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완충공간이 되도록 한다.

39) 문화재청_영수 소수서원 외 3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고시자료

■ 코어존 내부의 구역설정

• 절대보존구역

- 문화재구역을 포함한 소수서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자연 경관구역으로 소수서원과 소수서원의 영귀봉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동결 보존하도록 한다.



영귀봉



서원 진입부 송림



서원 서쪽 송림

• 강보존구역

- 경관 저해 요소 발생 시 치명적 타격은 발생하지 않으나 서원의 경관적 가치를 높여 주는 보완적 공간으로 현재 소수서원의 진입부 및 죽계천, 그리고 서원 배면의 안산(능선 내부)를 강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



죽계천



취한대



경자바위

• 약보존구역

- 절대보존구역과 강보존을 제외한 전체 코어존으로서 서원과 일정 거리가 이격되어 서원 전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역으로 보존의 강도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서원의 고유한 입지조건에 포함되어 서원 경관의 완전성 형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역이므로 약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
- 전면 경작지 및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도로를 따라 일부 개발이 이루어진 영역을 포함하고 인접문화재를 포함하여 약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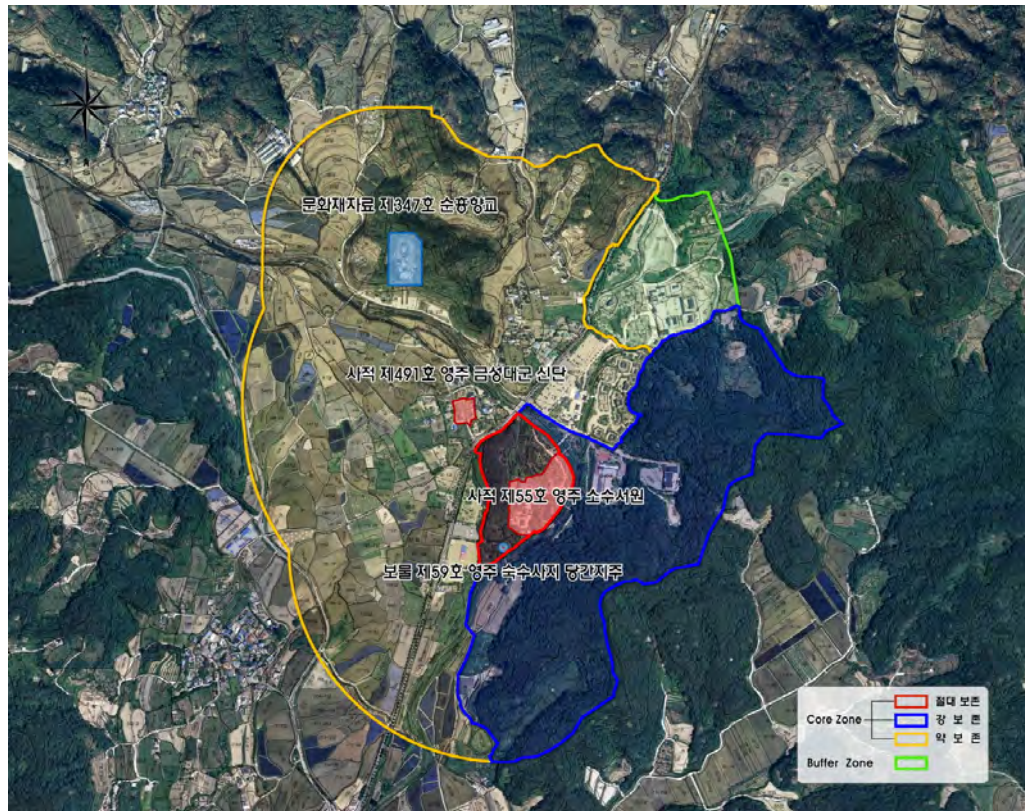
서원 북측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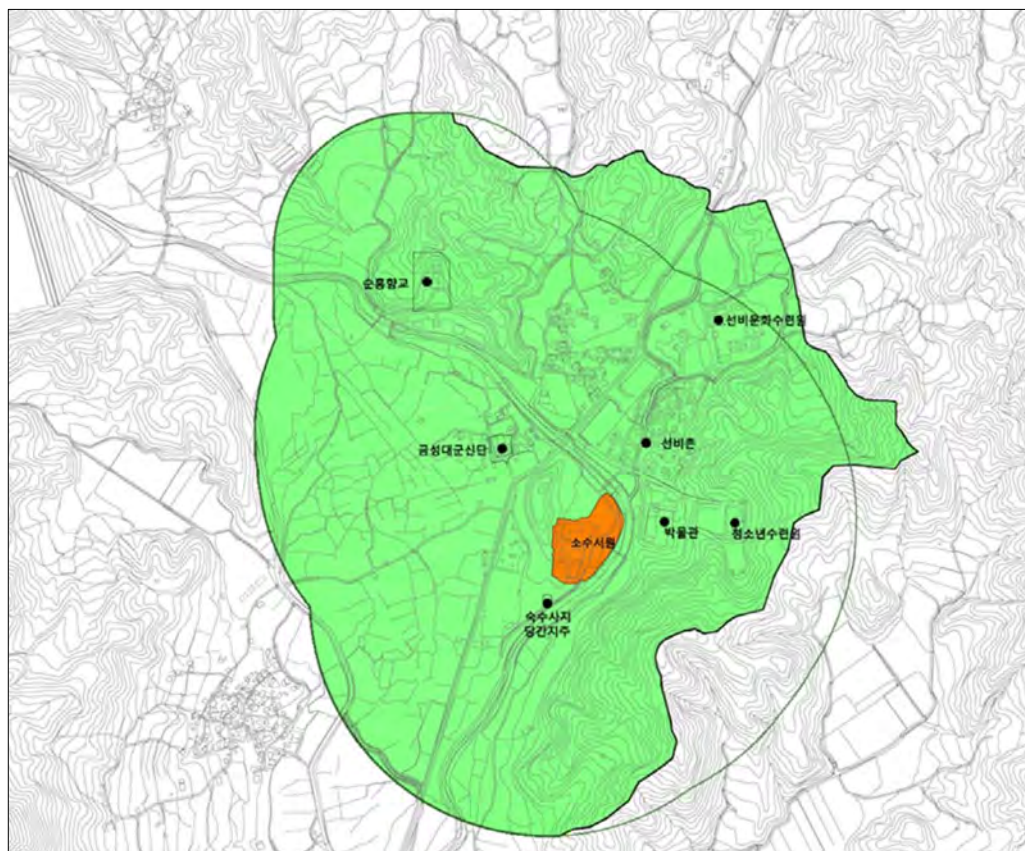
서원 서측원경

■ 버퍼존 내부의 구역설정

-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으로 설정된 기개발된 구역으로, 소수서원 경관의 간접 영향권에 속하며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완충공간이다.
- 이 모든 구역설정은 세계문화유산 등재팀과 영주시청,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조율 및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나머지 등재신청대상의 8개 서원도 함께 부합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소수서원 경관보존구역 설정(위성)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완충구역 설정

2-3. 충효교육관 및 사료관 이건

1) 현황

■ 충효교육관

- 소수서원의 수리이력에서 나타나는 「1991년 교육관 및 사료관 신축공사 및 진입로정비, 주차장포장」 공사 당시 신축된 건물이며, 1991년 10월 5일에 착공하여 1992년 11월 30일에 준공되었다. 면적은 583.2㎡이며 'ㄱ'자 건물로 축조 되었다.

• 외부 현황

- 충효교육관 건립 이전에 소수중학교가 있었으나 1964년 이건 되고 1992년 현 위치에 충효교육관이 건립되었다.
- 전통건축양식과 맞지 않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되어 있으며, 규모가 크고, 서원 영역과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소수서원의 경관저해요소로 작용 중이다.



충효교육관 전경

• 내부 현황

- 본래 충효사료관으로 건립될 당시 내부에 전시실이 있었으나 2004년 소수박물관이 건립되고 내부의 전시물은 소수박물관에 전시되었다.
- 기존 전시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소수서원 관리사무소로 이용 중이며, 교육관은 160석이 마련되어 있고, 학술 세미나 및 연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사료관

- 1982년에 유물전시관으로 신축되었으며, 내부에 유물을 전시해왔으나 1992년 충효사료관이 신축됨에 따라 내부 유물을 이동하였다.
- 사료관은 전통건축양식으로 축조되었으나 외벽이 화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청이 화려하여 기존 서원구성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아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수서원 본래의 서원영역 밖에 인접하여 조성되었으며, 전시 내용물을 볼 때 충효교육관 이건 시 내부로 인입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사료관 전경

• 외부 현황

- 서원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양식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규모가 크고, 서원영역과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 소수서원의 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내부 현황

- 유물은 충효사료관이 건립된 후 이동, 이후 다시 소수박물관으로 이동하였다.
- 현재는 별도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지 않으며, 디오라마, 패널과 같은 정보전달 매체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소수서원 전반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유물들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료관 내부 디오라마



사료관 내부 패널

■ 소수서원 유물의 이동

- 소수서원 유물의 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82년 사료관 신축 후 전시
 - 1991년 사료관에서 신축된 충효사료관으로 이동, 전시
 - 2004년 충효사료관에서 신축된 소수박물관으로 이동, 전시
 - 현재 충효교육관 및 사료관에는 유물을 전시하고 있지 않음

2) 문제점

- 현재 충효교육관과 사료관은 서원의 역사경관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건축물의 규모가 서원을 구성하는 다른 건물과 비교하여 크기가 방대하고, 층고가 높다.
 - 전통적인 서원 목구조가 아닌 철근 CON'C 조로 건립되었다.
 - 두 건물 모두 유물 전시를 위해 건립되었으나, 소수박물관 건립 후 유물을 이관하였으며, 안내공간, 사무공간 및 강당으로 활용 중으로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3) 과거 사진자료

■ 과거 항공사진



1971년 항공사진



1988년 항공사진



1991년 항공사진



2010년 위성사진

- 과거 항공사진⁴⁰⁾과 2010년 위성사진⁴¹⁾을 살펴본 결과 충효교육관 건립이전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변화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71년 항공사진 : 사료관과 충효교육관이 건립되기 이전의 모습
 - 1988년 항공사진 : 사료관이 건립되고 충효교육관이 건립되기 이전의 모습
 - 1991년 항공사진 : 사료관이 건립되고 충효교육관이 건립되기 이전의 모습
 - 2010년 항공사진 : 사료관과 충효교육관이 건립된 현재의 모습
- 1991년 항공사진의 경우 1991년에 촬영되었으며, 충효교육관이 같은 해 1991년에 건립되었지만 충효교육관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충효교육관이 건립된 8월 이전의 사진으로 보이며, 주변 원촌 및 탁청지가 건립되기 이전 모습이 나타난다.

40) <http://air.ngii.go.kr/html/map.do> 국토지리정보원41) http://map.daum.net/_다음지도

■ 과거 전경사진



1964년 이전의 소수서원 전경 사진



1982년 이후의 소수서원 전경 사진

- 과거 전경사진을 살펴본 결과 1964년 이전의 전경사진은 소수공민학교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의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소수공민학교는 1964년에 현 위치로 이건 되었으므로, 1964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수공민학교의 위치는 영정각 배면으로 나타난다.
- 두 번째 사진은 사료관이 신축된 이후로 보이며, 소수공민학교는 사라지고 그 위치에 사료관 신축 및 고직사가 이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기본 방향

■ 충효교육관

- 소수서원의 역사경관 회복을 위하여 경외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교육관은 학술세미나, 강연과 서원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교육관내에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체 사무공간이 요구된다.
- 따라서 경외에 소수서원 관리직원이 상주할 사무공간과 현재 강당과 같은 교육공간을 마련한다.

■ 사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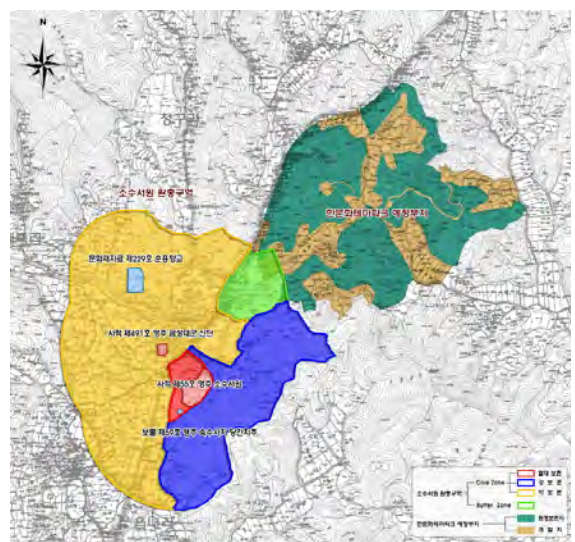
- 내부 전시물은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소수서원의 완전성과 진정성 회복을 위한 철거 검토가 필요하다.

5) 대상지 선정

- 사무공간은 현재 매점 및 특산물공판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활용을 검토한다.
- 서원 서쪽 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출입구 인근에 위치하여 전반적인 관리에 유리하다.
- 현재 영주에서 임대형식으로 대여해 준 건물로, 건물 내부 공간을 분할하여, 일부 공간을 관리사무소로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충효관은 강당과 같은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소수서원 인근에서 신축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수서원 북서쪽에 조성중인 한문화테마파크 내부 효문화진흥원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다.



현 특산물공판장



한문화테마파크 조성 예정지

6) 이건계획

■ 충효교육관 이건계획

- 현재 충효교육관은 사무공간과 강당과 같은 교육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개별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이건방안을 모색한다.

• 관리사무실 이건 계획

- 소수서원 전면 특산물 공판장으로 이건하여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며, 특산물 공판장의 공간을 분할하여 관리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
- 특산물 공판장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분할하고 소수서원 관리사무소로의 활용과 매점 및 특산물공판장과 같은 편의공간으로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영역	정비 전		정비 후		비고
	규모(㎡)	점유율(%)	규모(㎡)	점유율(%)	
관리사무실	230.91	39.59	170	73.64	소수서원 특산물 공판장 리모델링 후 이건
교육관	200.88	34.44	-	-	한국문화테마파크 내부 효문화진흥원으로 이동
로비/휴게실	120.63	20.68	45.46	19.69	
화장실	30.78	5.28	15.4	6.67	
계	583.2	100.00	230.86	100.00%	

- 관리사무공간의 규모는 감소하게 되지만 사무 공간 산출식⁴²⁾을 산정한 결과 충분한 공간으로 나타난다.

• 교육관 이건 계획

- 서원과 관련된 각종 행사, 학술세미나, 강연 등의 충효교육관의 역할을 대체할 공간이 요구되므로, 공연, 집회의 기능과 서원관련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기능의 공간이 필요하다.
- 하지만 현재 소수서원 경내·외 인근에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영주시에서 계획중인 『효문화진흥원』 조성단지 내부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집회·교육시설공간을 확보한다.



충효교육관 이건 및 철거 계획안

42) 사무공간 1인당 소요공간 1.6㎡

■ 사료관 정비계획안

- 소수서원의 경관보존 및 원형회복을 위해 철거하도록 한다.
- 내부 정보전달 매체는 관리사무실 전면배치하도록 한다.

< 자문의견 >

- 충효관의 이질적인 재료와 방대한 규모로 인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검토대상이 되며, 경관회복을 위해 충효교육관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건축물 신축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관 이건, 철거 계획안



충효교육관 및 사료관 정비 후

2-4. 주차장정비

1) 현황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면적 6,643㎡(남쪽)과 1,743㎡(북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 장애인 6대, 소형 110대, 대형 37대가 동시 주차가능하다.
- 2013년 연간이용객이 총 188,280명이며 일일 최대 이용객을 산출하면 최대이용객은 사계절형 1,883명이며, 단일공간체험형의 동시체재율은 584명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시간 최대 이용객수는 584명으로 산정된다.⁴³⁾
- 관람객이 동시에 최대로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주차장 위성사진



남쪽 주차장 현황 -1



북쪽 주차장 현황



북쪽 주차장 현황

- 북쪽 주차장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공간효율이 떨어지므로 북쪽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대수의 확보가 가능하다.
-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문화유산 주차장 사례를 참고하여 정비한다.



정비사례 - 안동 하회마을 주차장



정비사례 - 문경 근암서원 주차장



정비사례 - 경주 첨성대 주차장

43) 원단위 적용에 따른 이용객 예측

구 분	인 원(인)	산 정 식
연간 총 이용객(년-year)	188,280	이용객 점유율 6.5% -문화예술 체험활동(국민여가실태조사, 2007.참조)
최대 이용객(일-day)	1,883	①×계획일집중률(0.01, 사계절형)
최대 이용객(시-hour)	584	②×동시체재율(0.62, 단일공간체험형)

2) 정비계획

- 기존 북측에 아스팔트로 형성되어 있던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차 대수를 장애인주차 15대, 소형 131대, 대형 43대로 확충하며 대형과 소형차량으로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 간의 혼선을 최소화 한다.
- 진입부영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바닥 마감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색상의 소재인 잔디블럭을 사용한다. 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닥돌의 넓이를 크게한다.
- 단체관광객 동선과 화장실을 인접하게 형성하여 편의성을 고려하고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인다.
- 대형차량의 회차공간을 마련하여 차량 혼선 및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차폐조경을 식재하여 외부로부터 시선을 차단하고, 공간을 구획한다.
- 북쪽 휴게영역과 주차장영역을 분할하기 위하여 경계부분(J)을 마운딩처리 한다.



주차장 정비계획

분 류		현 황	정 비	비고
면적 (㎡)	북쪽	2,049.2	2,106.2	진입로와 주차공간의 구분을 위한 공간 축소
	남쪽	6,643	6,400	보행자 동선확보를 위하여 주차장과 접하는 부분의 공간 축소
	계	8,692.2	8,506.2	
주차 대수 (대)	장애인	6	15	
	소형	110	131	
	대형	37	43	

분 류		현 황	정 비
주차바닥(㎡)	재료	콘크리트+아스팔트	잔디블럭
	면적	6641.46	7,120.4

분 류	현 황	정 비					비고
		연번	넓이 (㎡)	길이 (m)	개소(EA)		
조경 (㎡)	면적	-	A	16.2	10.80x1.5	5	
		-	B	8.5	5.00x1.5	3	
		-	C	29.7	37.10x0.8	2	
		-	D	24.0	30.05x0.8	2	
		-	E	13.3	16.65x0.8	2	
		-	F	158.9		1	
		-	G	107.1	3.73x2.9	1	
		-	H	121.5	42.28x2.9	1	
		-	I	270.7		1	
		-	J	306.2	53.27x5.75	1	북쪽 휴게영역과 주차장영역의 분할을 위해 마운딩 처리
	계	1,558.54				1,385.80	

정비 전후 비교표

< 자문의견 >

- 정비가 필요한 상태로 계획대로 시행함



정비 전·후 비교

2-5. 죽계천 경관회복 방안

1) 현황

- 서원 전면에 흐르고 있는 하천은 서원구성요소에서 전면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이다. 소수서원에서의 전면경관을 구성하는 하천은 죽계천이며, 죽계천을 따라 경자바위, 취한대, 광풍대, 근래에 설치한 백운교와 복원한 광풍정 등이 배치되어 있다.



죽계천

- 소수서원의 전체적인 배치는 죽계천을 기준으로 서원영역은 서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죽계천을 건너 경자바위, 광풍대, 취한대 등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후대에 조성된 선비촌과 영주선비문화수련원 역시 죽계천 건너에 형성되어 있다.
- 지방하천으로 분류되는 죽계천⁴⁴⁾은 낙동강 제3지류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방2급 하천으로서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덕현리에서 발원하여 경북 영주시 창진동 서천 합류점까지 구간이다. 죽계천의 수원은 국망봉, 자개봉, 천마산, 대마산, 노인봉, 원적봉, 비로봉을 기준으로 분수계를 형성하고 있다.
- 죽계천의 변화는 1986년 제방축조공사와 2003년에 시행된 죽계·홍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었다. 제방축조공사 당시 원촌지부터 죽계천까지 형성되어 있던 완만한 경사지를 성토하여 제방을 축조하였으며, 2003년에 시행된 기본계획에서 유속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실시하였다.⁴⁵⁾

하천명	측점(N0.)	거리(m)	누가거리(m)	최심하상고(EL.m)	평형하상고(EL.m)	비고
죽계천	+75	1	11.375	216.80	218.11	소수낙차공
죽계천	+61	11	11.561	218.50	219.12	소수서원교
죽계천	+13	10	113.713	220.00	220.88	제월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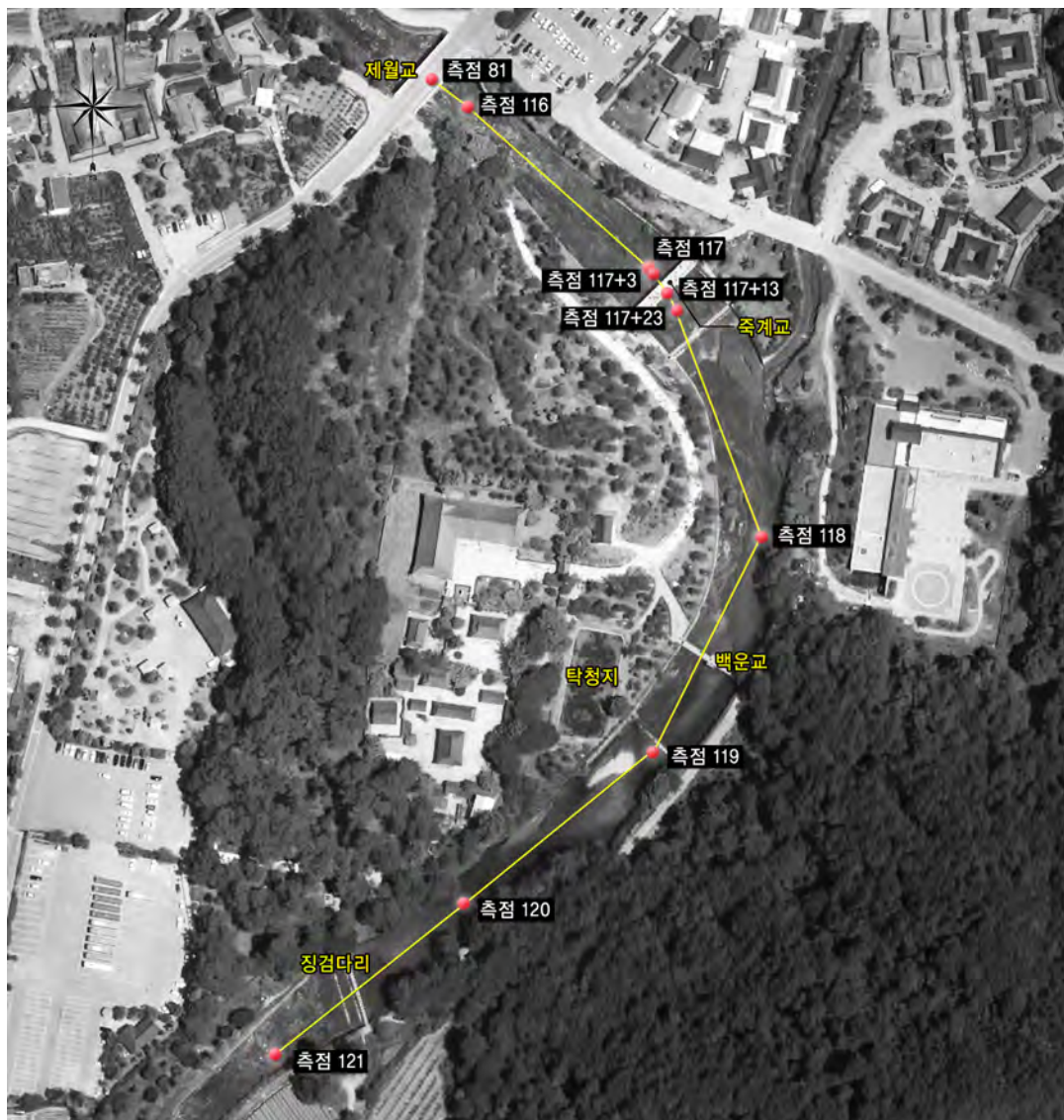
44) 한국 하천 정보시스템, http://garam.kwater.or.kr/page.do?page_val=3&page_id=2_2&mode_val=2

45) 죽계·홍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경상북도, 2003. 08

-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나타나는 계획홍수위는 다음과 같다.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개수전홍수위 (EL.m)						비고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죽계천	+75	11,375	220.88	221.15	221.30	221.49	221.58	221.87	소수낙차공
죽계천	+61	11,561	221.89	222.17	222.35	222.56	222.66	223.01	소수서원교
죽계천	+13	11,713	224.48	224.71	224.98	225.24	225.36	225.72	제월교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개수후홍수위 (EL.m)						비고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200년	
죽계천	+75	11,375	219.99	220.14	221.30	220.45	220.52	220.74	소수낙차공
죽계천	+61	11,561	221.26	221.43	221.63	221.78	221.85	222.11	소수서원교
죽계천	+13	11,713	222.88	223.01	223.16	223.31	223.38	223.57	제월교

죽계·홍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계획홍수위표



죽계·홍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위 측정도

- 아래표는 소수서원 인근 죽계천의 각 측점에 따른 평형하상고, 계획홍수위, 하폭,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방고를 나타내는 표이며 측점 119지점에서 탁청지 인근의 수위가 나타난다.

하천명	측점	누가거리 (m)	평형하상고 (EL.m)	계획홍수위 (EL.m)	하폭		기설제방고(EL.m)		비고
					현하폭	계획하폭	좌안	우안	
죽계천	81	11,581	219.33	221.87	35	50	223.96	223.96	죽계교
	116	11,600	219.54	222.08	36.7	50	223.65	224.52	
	117	11,700	220.60	223.16	27.00	50.00	226.00	226.70	
	+3	11,703	220.64	223.19	18.00	50.00	226.29	226.29	
	+13	11,713	220.76	223.35	18.00	50.00	226.29	226.29	제월교
	+23	11,723	220.88	223.50	18.00	50.00	226.29	226.29	
	118	11,800	221.80	224.72	26.20	50.00	225.21	226.70	
	119	11,900	223.70	226.29	27.90	50.00	226.24	227.40	백운교
	120	12,000	225.60	227.86	20.20	50.00	230.17	227.91	
	121	12,100	226.40	228.92	22.00	50.00	231.15	229.40	
	122	12,200	230.40	232.88	31.10	50.00	233.72	236.41	
	+2	12,202	230.44	232.96	33.00	50.00	235.20	235.20	
	+5	12,205	230.50	232.99	33.00	50.00	235.20	235.20	

죽계·홍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구간별 계획

- 아래표는 위 표에 나타나는 계획홍수위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제방의 편차를 나타내는 표로 큰 편차의 평균값은 -2.41m로 나타나고, 작은 편차는 -1.75m로 나타난다. 수치상 가장 큰 편차가 나타나는 지점은 측점117로 -3.54m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측점119에서 0.05로 높게 나타난다. 작은 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측점은 -3.10으로 나타나는 117+3측점이며, 가장 낮은 측점은 측점120지점으로 -0.05의 값이 나타난다.

측점	측점명	계획홍수위 (EL.m)	계획홍수위-제방		계획홍수위-제방편차	
			계획홍수위-좌안	계획홍수위-우안	큰편차	작은편차
81	죽계교	221.87	-2.09	-2.09	-2.09	-2.09
116		222.08	-1.57	-2.44	-2.44	-1.57
117		223.16	-2.84	-3.54	-3.54	-2.84
+3		223.19	-3.10	-3.10	-3.10	-3.10
+13	제월교	223.35	-2.94	-2.94	-2.94	-2.94
+23		223.50	-2.79	-2.79	-2.79	-2.79
118		224.72	-0.49	-1.98	-1.98	-0.49
119	백운교	226.29	0.05	-1.11	0.05	-1.11
120		227.86	-2.31	-0.05	-2.31	-0.05
121		228.92	-2.23	-0.48	-2.23	-0.48
122		232.88	-0.84	-3.53	-3.53	-0.84
+2		232.96	-2.24	-2.24	-2.24	-2.24
+5		232.99	-2.21	-2.21	-2.21	-2.21

죽계·홍교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좌·우안과 계획홍수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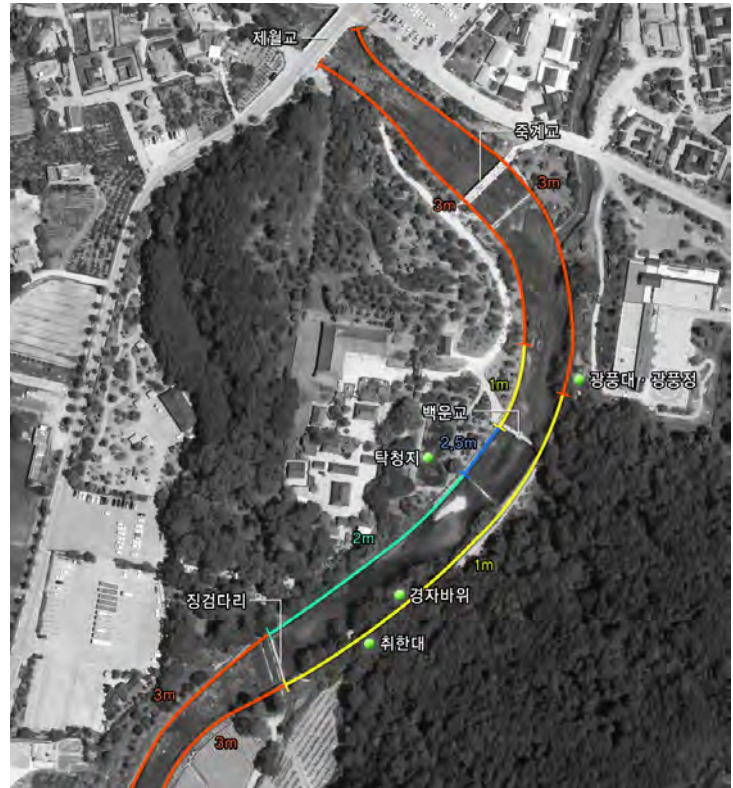
2) 문제점 및 정비계획

- 과거 죽계천의 옛 경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철거한 후 원촌지가 존재했던 현재 공원부지 일부를 절토하여 옛 모습으로의 환원이 필요하다.
- 하지만 공원 우측부분의 죽계천 최대수위를 감안하면, 최대수위와 제방의 높이 편차는 0.8m로 나타나므로 절토를 하게 되면 범람이 우려된다. 또한 측점 119, 탁청지가 위치한 지점은 수위가 홍수위까지 차게 되면 범람 우려가 다분한 지점이다. 따라서 정비를 통하여 과거 경관 회복은 가능하지만 홍수 시 오히려 문화유산 주변 경관의 침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 후 시행해야 한다.



소수서원 수위도

- 현재 죽계천의 석축은 자연석 바른층쌓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구간에 따라 석축의 높이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우안은 제월교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광풍대까지 약 3m의 높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광풍대를 지나 백운교, 경자바위, 취한대, 남쪽 징검다리까지 약 1m의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 징검다리가 있는 지점 이후 다시 3m의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



죽계천 구간별 석축 높이 분포도



광풍대 석축(취한대 방향)



백운교 동쪽 석축(취한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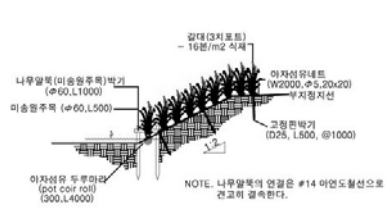
백운교 서쪽 석축(소수서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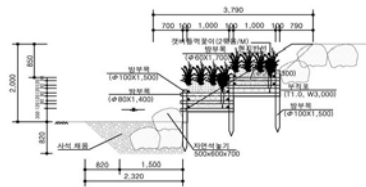
남쪽 징검다리 인근 석축(소수서원 방향)

- 좌안⁴⁶⁾ 역시 제월교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광풍대까지 약 3m의 높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광풍대에서 탁청지까지 1m의 높이로 형성되어 있고 탁청지에서 경령정 인근까지는 2.5m로 되어 있다. 경령정에서 부터 징검다리까지 남쪽으로 2m 높이로 형성되어 있으며 징검다리부터 이후 남쪽으로는 3m의 높이로 축조되어 있다.
-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현재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유지, 혹은 자연친화적인 경관복원의 일환으로 호안석 정비를 시행한다.
- 정비 방법은 현재 경사값이 적은 법면을 과거의 경사지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과거 경사지와 최대한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하여 기존 경사가 미미한 석축을 정비하여 동일하게 바른층으로 쌓되 자연석 쌓기 방법으로 일정구간 뒤로 물려 쌓는 방법으로 정비한다.
- 하지만 현재 인위적인 석축을 정비하여 자칫 더욱 인위적으로 정비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호안석 쌓기방법으로는 환경사식생호안, 자연석쌓기호안, 자연석계단호안, 돌붙임+갯벌호안, 자연석+코아를호안, 어소블럭+식생호안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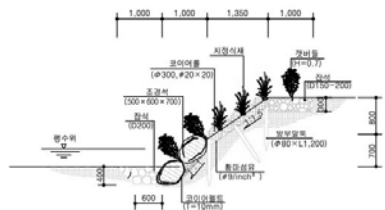
46)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좌우안을 구분



완경사식생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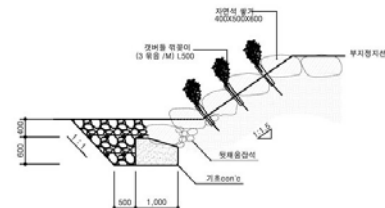
자연석계단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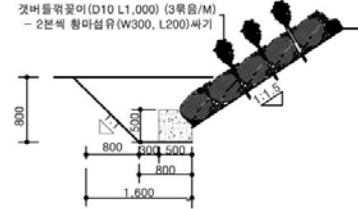
자연석+코아를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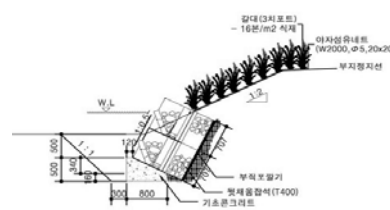
호안정비예시 -1



자연석쌓기호안



돌붙임+갯버들호안



어소블럭+식생호안



호안정비예시 -2

3) 결론

- 죽계천 정비는 소수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위하여 시행하여야 할 정비계획 중 하나이나, 죽계천 정비계획의 실시로 홍수 시 범람의 우려가 있으며, 과거 경관 그대로의 복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죽계천 정비는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 향후 현재 하천 홍수를 대비하여 설치한 석축과 보를 원형으로 환원하게 될 시, 그에 따른 유속변동으로 인한 하천 하부구조의 유실 및 재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추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6. 식생정비

1) 기본 원칙⁴⁷⁾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역사적 정원에 대한 보존 및 복원의 문제는 정원을 구성하는 주된 재료가 식물이라는 점에 있어서 건조물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역사적 정원을 위해 두 개의 영향력 있는 기본적인 도큐먼트(document)가 완성되었는데, 하나는 ICOMOS-IFLA 국제위원회의 '피렌체 헌장(Florence Charter)'이라 칭하는 '역사적 정원의 복원헌장'이고, 다른 하나는 디자인 예술 아카데미에 의해서 피렌체에서 개최된 원탁회담에서의 '역사적 정원의 복원에 대한 이탈리아 헌장(Italian Charter)'이다. '피렌체 헌장'과 '이탈리아 헌장'은 모두 역사적 정원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예술작품에 비해서 살아 있는 식물의 동적인 성장과정을 수반하는 정원의 특수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건조물과는 구분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피렌체 헌장과 이탈리아 헌장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원(restoration)과 복구(reconstruction)에 대해서는 피렌체 헌장이 역사적 정원의 복원과 복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개별화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비하여 이탈리아 헌장은 정원의 복구가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이 두 헌장은 정원에 있어서 식물재료가 다른 무엇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살아 있는 생명체인 식물은 끊임없이 성장과 소멸함으로써 그에 대한 '복구'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역사적 정원의 복원에 대한 시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이코모스(ICOMOS)를 위해 굿차일드(Peter Goodchild)가 완성된 도큐먼트(document)가 역사적 정원의 복원을 위한 최근의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복원방침으로써 이 도큐먼트는 정원발전의 모든 양상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존분야에 있어서는 역사적 정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변화는 꼭 필요한 경우라도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유지·관리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	피렌체헌장(Florence Charter)	이탈리아헌장(Italian Charter)	최근의 흐름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조물 문화재와 역사적 정원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 ·역사적 정원의 가장 중요한 재료(material)은 식물(수목) 		
역사적 정원에 대한 시각·정의	·역사적 정원에 대한 복원과 복구는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계속되는 작업	·역사적 정원은 항상 변화하며 현재는 다양한 시대적 변화를 담고 있음	·역사적 정원의 모든 양상은 그 자체로 역사적 가치를 지님
복원(restoration) 및 복구(reconstruction)에 대한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고학적 발굴과 심도 있는 연구 후에는 복원 및 복구가 시행될 수 있음 ·복원 및 복구는 전통적 형태에 준할 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복구될 수 없음 ·같은 재료(material), 식물(plant), 그리고 기술에 의하여 똑같이 복구될 수 없음 	·역사적 정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이 보존되어야 함
결론	·역사적 정원에 대한 복구를 인정	·역사적 정원에 대한 복구를 인정하지 않음	·유지관리적 시각

역사적 정원의 복원 및 복구에 대한 이탈리아에서의 가이드라인(guideline)

47) 김영모, 2007, 전통 정원의 보존(保存) 및 복원(復原) 원칙 설정을 위한 시론적(試論的) 연구

비단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정원도 살아 있는 생물인 식물을 주재료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식물의 쇠퇴와 자연적인 천이,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한 고사 등이 경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정원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원의 현존 양상에 따라 그에 맞는 정비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만약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정원이라면 현상의 파괴나 변형 없이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현존 식생의 인위적인 교체를 엄격히 제한하되 생육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반조치만을 시행토록 한다. 이미 부분적으로 소멸되었거나 왜곡된 정원은 현존하는 부분을 유지하고 변형된 부분은 원래의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에만 정비를 허용하도록 하며, 완전히 소멸된 정원은 기록이나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원래의 경관과 식생의 복구는 불가능하므로 분명한 고고학적 발굴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정비 자체를 유보하고 연구자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도록 한다.

전통정원의 현존양상에 따른 정비원칙 설정

현존양상	정비의 원칙	정비의 대상
원형 유지	현상 유지 및 관리	·일상적 보수와 점검 ·식생의 유지관리 및 수세의 회복
부분소실 및 왜곡	원형 유지의 원칙 속에서 정비를 일부 허용	·사료를 통한 고증을 전제로 부분 정비 ·왜곡되었다고 분명히 판단되는 부분의 제거, 교체 및 복구 시행
완전소실	정비 자체를 허용치 않음	·분명한 고고학적 발굴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정비 유보

2) 정비 방향

서원의 경내는 학생과 선생, 알묘하는 손님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움직이는 공간인 만큼 수목 자체가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원을 꾸밀 만큼의 식재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궁전이나 주택에서의 식재와도 유사하며 행사 및 의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에는 수목이 거의 없고 주로 연회(宴會), 회유(回遊), 사색하는 장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수서원의 경우 정비 사업 당시 조성된 화단을 비롯한 경내 여러 곳에서 다수의 수목이 혼식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정원의 원형을 추정하기 힘들다. 게다가 서원의 식생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옛 그림 등의 사료가 현존하지 않아 정비의 근거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서원의 경내·외에는 국외에서 도입된 외래수종⁴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비록 향토수종은 아니지만 이들 중 여러 고문헌 상에 등장하고 있는 일부 수종의 경우 서원의 설립년도와 식재시기를 추정해보았을 때 그 시기에 서원의 조경양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에 포함되었으므로 진정성 측면에서 부합되는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원에 출현한 외래수종 중 조선시대 관련문헌에 등장하는 수종은 '조선시대 전통수종'으로 따로 분류하였으며 식생 정비 대상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외래수종으로 한정하였다. 그동안 소수서원은 주변의 소나무숲과 노거수들을 오랜 시간 보존하고 관리해온 만큼 경내·외에 걸쳐 서원 본래의 취지에 맞는 최소한의 정비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서원 정비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8)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국가지정문화재 민속마을의 외래식물현황과 관리방안'에 수록된 외래식물 선정기준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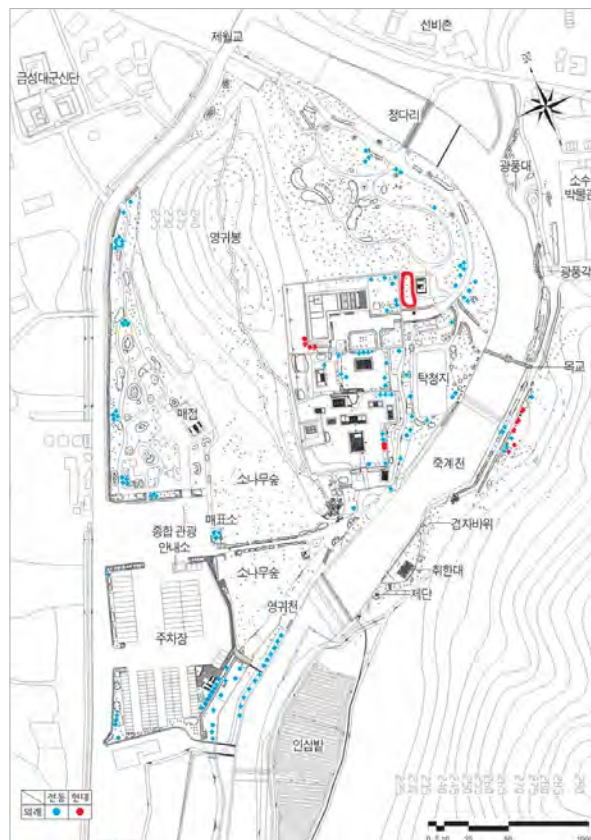
고문헌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전통수종-1

구분	수목명		고문헌				비 고
	한자명	국 명(학 명)	양화 소록 (1474)	지봉 유설 (1614)	산림 경제 (1643-1715)	임원 경제지 (1827-1842)	
구분	柿	감나무(<i>Diospyros kaki</i> Thunb.)	-	-	-	○	과류
	楸梓	가래나무(<i>Juglans mandshurica</i> Maxim.)	-	-	-	○	목류
	小桃	개복숭아(<i>Prunus persica</i>)	-	-	○	○	-
	榛	개암나무(<i>Corylus heterophylla</i> Fisch. ex Trautv.)	-	-	-	○	과류
	君遷子	고욤나무(<i>Diospyros lotus</i> L.)	-	-	-	○	과류
	枸杞	구기자나무(<i>Lycium chinense</i> Mill.)	-	-	-	○	목류
	臘梅	납매(<i>Chimonanthus praecox</i>)	-	○	-	○	화류
	榆	느릅나무(<i>Ulmus davidiana</i> var. <i>japonica</i>)	-	-	-	○	목류
	槐木	느티나무(<i>Zelkova serrata</i> (Thunb.) Makino)	-	-	○	○	목류
	丹柰	능금나무(<i>Malus asiatica</i> Nakai)	-	-	○	○	林檎
	獼猴桃	다래(<i>Actinidia arguta</i>)	-	-	-	○	과류
	楮	닥나무(<i>Broussonetia kazinokii</i>)	-	-	○	○	목류
	丹楓	단풍나무(<i>Acer palmatum</i>)	-	-	-	○	목류
	棗木	대추나무(<i>Zizyphus jujuba</i> var. <i>inermis</i>)	-	-	○	○	과류
	頭菜木	두릅나무(<i>Aralia elata</i>)	-	-	○	-	-
	杜冲	두충나무(<i>Eucommia ulmoides</i>)	-	-	-	○	貞木
	梅	매실나무(<i>Prunus mume</i>)	○	○	○	○	화류
	食茱萸	머귀나무(<i>Zanthoxylum ailanthoides</i>)	-	-	-	○	과류
	山葡萄	머루(<i>Vitis coignetiae</i>)	-	-	-	○	과류
	楝	멀구슬나무(<i>Melia azedarah</i>)	-	-	-	○	목류
	木瓜	모과나무(<i>Cydonia sinensis</i>)	-	-	○	○	과류
	牡丹	모란(<i>Paeonia suffruticosa</i>)	○	○	○	○	花王
	木蓮	목련(<i>Magnolia kobus</i>)	-	-	○	○	木芙蓉
	木槿	무궁화(<i>Hibiscus syriacus</i>)	-	-	-	○	화류
	無花果	무화과나무(<i>Ficus carica</i>)	-	-	-	○	과류
	無患木	무환자나무(<i>Sapindus mukorossi</i>)	-	○	-	-	-
	梣	물푸레나무(<i>Fraxinus rhynchophylla</i>)	-	-	-	○	목류
	紫荊	박태기나무(<i>Cercis chinensis</i>)	-	-	-	○	화류
	栗木	밤나무(<i>Castanea crenata</i>)	-	-	○	○	과류
	梨	배나무(<i>Pyrus pyrifolia</i> var. <i>culta</i>)	-	-	○	○	과류
	紫薇花	배롱나무(<i>Lagerstroemia indica</i>)	○	-	○	○	花木
	柳	버드나무(<i>Salix koreensis</i>)	-	-	○	○	목류
	覆盆子	복분자(<i>Rubus coreanus</i>)	-	-	-	○	과류
	桃	복사나무(<i>Prunus persica</i>)	-	-	○	○	小桃
	桑	뽕나무(<i>Morus alba</i>)	-	-	○	-	-
	膚木	붉나무(<i>Rhus javanica</i>)	-	○	-	○	千金木
	四季花	사계화(<i>Rosa chinensis</i>)	○	-	○	○	화류
	楂果	사과나무(<i>Malus pumila</i>)	-	-	○	○	과류
	白楊	사시나무(<i>Populus glandulosa</i>)	-	-	-	○	목류
	楂	산당화(<i>Chaenomeles speciosa</i>)	-	-	-	○	화류
	山茱萸	산수유(<i>Cornus officinalis</i>)	-	-	○	-	-
	杏	살구나무(<i>Prunus armeniaca</i> var. <i>ansu</i>)	-	-	○	○	과류
	橡	상수리나무(<i>Quercus acutissima</i>)	-	-	-	○	과류
	石榴花	석류나무(<i>Punica granatum</i>)	○	-	○	○	海榴
	丁香	수수꽃다리(<i>Syringa</i> spp.)	-	-	○	○	庭香
	櫻桃	앵도나무(<i>Prunus tomentosa</i>)	-	-	○	○	과류
	五加皮	오갈피(<i>Acanthopanax sessiliflorus</i>)	-	-	-	○	목류
	桐	오동나무(<i>Paulownia coreana</i>)	-	-	-	○	梧桐
	五味子	오미자(<i>Schizandra chinensis</i>)	-	-	-	○	과류
	漆	옻나무(<i>Rhus verniciflua</i>)	-	-	○	○	목류
	樺	왕벚나무(<i>Prunus yedoensis</i>)	○	-	-	○	목류
	月桂花	월계화(<i>Rosa chinensis</i>)	○	○	-	○	화류
	銀杏	은행나무(<i>Ginkgo biloba</i> L.)	-	○	○	○	鴨脚樹
	合歡木	자귀나무(<i>Albizia julibrissin</i>)	-	○	-	-	-
	李	자두나무(<i>Prunus salicina</i>)	-	-	○	○	오얏나무
	薔薇	장미(<i>Rosa</i> spp.)	-	○	-	○	長春花
	皂莢	주엽나무(<i>Gleditsia japonica</i>)	-	-	-	○	목류
	杜鵑	진달래(<i>Rhododendron mucronulatum</i>)	-	-	-	○	화류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고문헌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전통수종-2

내원	躑躅	철쭉(<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	○	-	○	화류
	葡萄	포도(<i>Vitis vinifera</i>)	-	-	○	○	草龍
	海棠花	해당화(<i>Rosa rugosa</i>)	-	-	○	○	화류
	胡桃	호두나무(<i>Juglans regia</i>)	-	-	○	○	과류
	槐木	회화나무(<i>Sophora japonica</i>)	-	-	○	-	-
계	63종		7종	10종	30종	57종	-
상원	女貞	광나무(<i>Ligustrum japonicum</i>)	-	-	-	○	목류
	橘	귤나무(<i>Citrus unshiu</i>)	○	-	○	○	과류
	關天竹	남천(<i>Nandina domestica</i>)	-	-	-	○	화류
	竹	대나무(<i>Phyllostachys or Sasa spp.</i>)	○	○	○	○	잡식류
	山茶花	동백나무(<i>Camellia japonica</i>)	○	○	○	○	화류
	梣子	비자나무(<i>Torreya nucifera</i>)	-	-	-	○	과류
	杉	삼나무(<i>Cryptomeria japonica</i>)	-	-	-	○	목류
	瑞香花	서향(<i>Daphne odora</i>)	○	-	○	○	화류
	松	소나무(<i>Pinus densiflora</i>)	○	○	○	○	목류
	蘇鐵	소철(<i>Cycas revoluta</i>)	-	○	○	○	喬木
	映山紅	영산홍(<i>Rhododendron indicum</i>)	-	○	-	○	화류
	柚	유자나무(<i>Citrus junos</i>)	-	-	-	○	과류
	倭躑躅	일본철쭉(<i>Rhododendron spp.</i>)	○	-	○	-	왜홍
	栢子木	잣나무(<i>Pinus koraiensis</i>)	-	-	○	○	柏子
	檜	전나무(<i>Abies Holophylla</i>)	-	-	-	○	목류
	棕竹	종려나무(<i>Trachycarpus fortunei</i>)	-	-	-	○	화류
	茶	차나무(<i>Camellia sinensis</i>)	-	-	-	○	잡식류
	側柏	측백나무(<i>Thuja orientalis</i>)	-	○	○	○	柏
	梔子花	치자나무(<i>Gardenia jasminoides</i>)	○	○	○	○	화류
	萬年松	향나무(<i>Juniperus chinensis</i>)	○	-	○	○	화류
	柑	홍귤나무(<i>Citrus tachibana</i>)	-	-	-	○	과류
	華楊木	회양목(<i>Buxus koreana</i>)	-	-	-	○	華楊木
계	22종		8종	7종	11종	21종	-
합계	85종		15종	17종	41종	78종	-



소수서원 경내·외 정비 대상 외래수종 분포도

소수서원 경내·외 분포수종 분류

구분		조선시대		전통수종		국내수종		외래수종	
		국내수종		외래수종					
낙엽	교목	감나무	6	매실나무	7	벗나무	83	일본목련	1
		느티나무	88	모과나무	6	복자기	22		
		단풍나무	50	배롱나무	17	산딸나무	3		
		대추나무	17	팽나무	4	산사나무	1		
		목련	29	은행나무	46	신나무	3		
		밤나무	2	회화나무	5	이팝나무	50		
		버드나무	4						
		산수유	38						
		살구나무	9						
		자귀나무	12						
	계	10	255	6	85	6	162	1	1
	관목	개암나무	2	모란	3	개나리	군식	자산홍	군식
		수수꽃다리	5	무궁화	5	꼬리조팝나무	군식	죽단화	군식
		해당화	군식	박태기나무	21	등	4		
				산당화	1	막충나무	1		
						백당나무	1		
						병꽃나무	군식		
						산철쭉	군식		
	계	3	7	4	30	8	7	2	군식
합계	13	262	10	115	14	169	3	1	
상록	교목	소나무	1,095	비자나무	1	가문비나무	44	숨대	군식
		향나무	2			주목	60		
	계	2	1,097	1	1	2	104	1	군식
	관목	회양목	4	-	-	사철나무	1	동근향나무	4
	계	1		-	-	2	1	1	4
합계	3	1,101	1	1	4	105	2	4	
총계	16	1,363	11	116	18	274	5	5	

3) 정비 계획안

① 노거수 정비

소수서원에 현존하는 노거수로는 서원 경외에 식생하고 있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소나무숲이 있다. 이들은 모두 1500년 전후에 형성되었는데 느티나무는 자연발생한 것으로, 은행나무는 인공 식재한 것으로 추정하며 소나무숲은 『소수서원잡록』에 식재기록이 남아있다. 현재 소나무숲은 2009년 소수서원 내 소나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영주 소수서원 송림 관리카드'를 제작하여 순흥문화유적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수목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병충해 방제와 수간 주사 처리, 고사목 제거가 실시되었으며, 영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소나무림에 대한 장기보전 및 육성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느티나무·왕버들·소나무·팽나무 등과 함께 노거수의 대표적 수종으로 꼽히는 은행나무는 고문헌에도 나타나는 전통수종이자 전국 대부분의 서원에 출현하는 대표적인 서원 식재목이며 영주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노거수이므로 주변의 느티나무 노거수, 소나무숲과 함께 향후에도 수세 유지를 위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 시에는 노거수 전문가의 입회하에 지상부 수목건강도 분석과 토양의 물리적 장애(습해, 건조의 피해, 복토해, 답압 등) 및 화학적 장애 여부 진단, 병해충 방제, 전반적인 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거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소나무 숲에 대해서는 2014년 9월에 완료한 소수서원 일원 개별소나무 정밀진단 용역보고서⁴⁹⁾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고서에 수록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나무숲 현황

서원 내 평지 소나무의 경우 ha당 임목본수는 약 240본으로 적정본수 대비 51%이며 평균 수고는 18m [2-26m], 평균수령은 130년 [80-230년]으로 조사되었다. 수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고가 높게 나온 것은 과거 밀생임분일 때 과밀에 의한 경쟁이 심화되어 수고생장에 치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도태된 수목에 의해 숲 틈이 생성되어 수목이 굽어 자람으로서 바람,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개체가 다수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숲이 쇠퇴하고 있다.



수목연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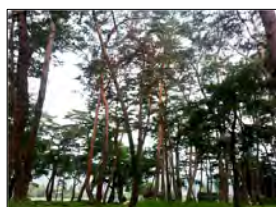
2010년 (붉은색은 제거됨)



2014년

201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소수서원 내 노송 300그루 중 약 20그루가 고사되었으며 고사목 발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수목도 그간의 경쟁으로 수고는 높는데 반해 수관량은 상대적으로 적어 수세쇠퇴는 지속될 전망이다.



A-숲 내 고사목 발생



B-고사목 제거 후



A-진입부 고사목 발생



B-고사목 제거 후

49) 소수서원 일원 개별소나무 정밀진단 용역보고서, 영주시청, 2014

14년 전과 현재의 소수서원을 비교해 보면 도복 및 절간 등의 피해로 인해 다수의 소나무가 숲에서 사라져 숲에 빈공간이 드러나고 있다.



A-2000년 소수서원



B-2014년 소수서원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후계목 식재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것도 숲의 쇠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영귀봉 소나무

과거 영귀봉의 소나무 분포상태를 보면 능선부에만 생육하였고, 현재 숲을 이루고 있는 어린소나무는 모수에 의한 천연하중갱신으로 후계림이 조성된 것이다.



A-과거 소수서원



B-현재 영귀봉 임분상태

영귀봉 ha당 임목밀도는 1,025본으로 적정본수 대비 13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높은 임분 밀도에서 경쟁이 지속된다면 수고생장에 치중하여 평지소나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숲은 쇠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병충해 발생상황

■ 재선충과 솔수염하늘소

- 소나무 재선충은 반드시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전염된다. 몸에 재선 충을 지닌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생기는 나무의 상처부위를 통해 전파되는 것이다. 재선충이 일단 침입하게 되면 소나무 잎은 6일이내로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며, 20일 후에는 시들고, 30일 후에는 나뭇잎이 붉은색으로 변색하면서 말라죽게 된다. 소나무 재선충을 없애기 위해서는

약제를 비행기로 살포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해야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나무는 모두 벌채해 소각하거나 직경 2.5cm 미만의 조각(칩)으로 파쇄하여 펄프 재료 등으로 사용한다. 나무 조직 속에는 재선충이 남아 있으므로 벌채한 통나무도 남겨두게 되면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다시 확산될 수 있다. 벌채한 지역의 나무뿌리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되고, 그루터기에 정제 형태의 훈증약제(인화늄 정제)를 뿌린 뒤 비닐로 덮어 씌워 완전 히 박멸해야 한다.

- 재선충의 크기는 1mm 정도지만, 한쌍이 1주일여 만에 20만 마리로 왕성하게, 급속히 번식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건강한 소나무로 침투한 후, 수백만 마리로 번식하여 소나무의 수분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킨다. 소나무가 썩게 되면 솔수염하늘소는 이곳을 산란장소로 활용한다. 건강한 나무에서는 부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솔수염하늘소는 종의 연명을 재선충에 의존하는 것이다. 산란한 알이 애벌레를 거쳐 우화(羽化, 날개가 달려 성충이 되는 것)하기 직전, 둘은 다시 결합한다.
- 나무속에 퍼져 있던 재선충은 본능적으로 솔수염하늘소의 숨구멍을 찾아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솔수염하늘소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 피해와 특징
 - 8월중순경부터 잎의 색깔이 황색을 띠기 시작하고 그 후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적고현상(赤枯現象)이 나타난다. 피해는 8월 하순부터 10월에 걸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일부는 여름에도 선 채로 말라 죽는다. 적송과 곰솔의 성 목에 피해가 많고 산림수(山林樹)외에 정원수나 공원 수 등에도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다.
- 소수서원 인근 수목에서는 솔수염하늘소 및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감염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 솔잎혹파리

- 솔잎혹파리의 경우 2014년도에 방제를 시행하여 피해를 (충영형성율)은 경미하게 나타났다. 영귀봉 임연부 및 일부 생육이 좋지 못한 소나무에서 충영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하였으며, 주차장에 식생하고 있는 나무에서도 충영이 발견 되었으나, 충영형성률은 3% 미만으로 대부분 경미한 수준으로서 방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솔잎혹파리에 의해 형성된 충영

■ 기타 병해충 피해상황

• 진딧물류 및 응애 등

- 흡즙성해충인 진딧물류 및 응애 등은 흡즙에 의한 피해 뿐 아니라 부차적으로 잎을 검게 그을리게 하는 그을음병 및 잎의 황화현상을 동반한다. 이러한 해충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하지는 않으나 수세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에 쇠약해진 수목의 줄기에 침입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소나무좀 등에 의한 수목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
- 진딧물류, 각지벌레류 등의 발생밀도는 경미한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응애류에 의한 피해는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호리왕진딧물



부생성 그을음병



응애 피해



응애 피해로 변색된 잎

-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응애의 피해를 받은 잎이 누렇게 황백색으로 변색이 되어 생육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 소나무응애는 연 5~6회 정도의 세대를 반복하면서 소나무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어 소나무 수세를 급격하게 저하시키기도 한다. 현재의 소수서원 전반의 소나무림은 응애의 서식밀도가 높아 주기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그 외 발견된 흡즙성 해충으로는 소나무가루각지벌레와 소나무숨벌레 이며 그 피해수준은 경미하게 나타났다.



소나무가루각지벌레



소나무숨벌레

- 수목의 병의 발병원인이 되는 미생물, 병원미생물에 대한 감수성, 병발생에 적합한 환경요인 등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는데 소수서원 소나무림의 경우 해충에 의한 2차 피해인 그을음병이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수준은 중으로 나타났다. 그을음병은 진딧물류를 구제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므로 별도의 방제는 요구되지 않는다.
- 또한 영귀봉에서는 소나무혹병이 일부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소수이고 그 피해수준이 경미하여 소나무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개별목 진단결과

- 안전시설물 설치가 요구되는 수목은 약 22주로 조사되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지대 및 브레싱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되었던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수 및 보완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수세가 쇠약한 임목은 약 30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목간 과도한 경쟁 및 생육환경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영양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수간부 상처부의 면적이 매우 크고 방치하였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목은 약 6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영귀봉일대 소나무의 경우 숙아베기 및 식생정리를 시행하여 경쟁을 완화시켜야 하며, 서원 경외 이식목에 대해서는 일상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적절한 작업을 실시하여줄 수 있도록 한다.

라) 소수서원 소나무 관리대책

- 소수서원의 소나무를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피해요인별로 개선이 필요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병해충 관리 등의 일상관리와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관리를 병행하여 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일상관리

- 모니터링
 - 모니터링은 각종 병해충 동향과 기상인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 5회 이상의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은 수목의 생리와 병해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매회 보고를 시행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처방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의 기간은 소나무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부터 생육이 정지되는 11월까지 시행토록 하며, 모니터링의 최종보고는 이듬해 중점 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관리대책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선충 약제 처리	
예방방법	선충은 약제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 박멸이 가능할 것으로 소나무의 수액이 이동되고 성충비레기 4~5월 전에 선충탄 액제 또는 분제를 토양에 살포 소나무에 침투한 재선충은 물론 소나무 신초에 약제가 공급되므로 신초를 가해하는 솔수염하늘소 또한 완전박멸 예상
기대효과	현재 훈증처리에는 본당 약 3만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선충 약제 처리의 경우 본당(20cm 기준) 약 2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훈증은 소나무가 고사된 후 약제를 처리하며, 선충탄의 경우 고사되기 전 예방약제로 다른 나무에의 감염을 억제함으로써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다(농업기술센터의 협조(2005. 03. 05)를 받아 재선충을 검출하여 약제(선충탄)를 투여한 결과(2005. 03. 07) 재선충이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무주사 - 국립산림과학원_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법	
예방방법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재선충 아바멕틴 1.8% 유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2.15%를 원액으로 천공하여 주사하며, 2년 1회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목 선정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에 실시 소나무 잎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상 징후가 있는 나무는 대상목에서 제외
부적합 대상목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 병해충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쇠약해진 나무 식재 후 오래되지 않았거나 전정전지를 과도하게 한 나무 수고가 낮고 흉고직경이 작은 나무, 분재
천공방법	지상 50cm 이하 높이에서 나무의 수직방향 30~45°로 아래로 천공 구멍은 천공기를 사용하여 직경 1cm, 깊이 8~10cm 크기로 뚫음

솔수염하늘소 유인트랩설치 - 산림청(2015. 04)	
예방방법	소나무재선충병을 빠르게 퍼뜨리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을 페르몬으로 유인해 포획하는 친환경 방제방법이 도입 페르몬 트랩은 곤충이 다른 개체를 불러 모을 때 특정물질을 분비하는 것에 착안해 만든 일종의 덫으로, 재선충병에 감염된 매개충이 죽은 나무에서 탈출한 후 페르몬에 유인되어 트랩에 포획되는 원리, 나무에 직접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매개충의 생리적 특성을 이용한 것이 특징
사례사진	 

- 일상관리
 - 소수서원 소나무의 일상적인 관리는 병해충관리와 영양공급 등이며, 관리여부의 결정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소수서원 소나무림이 품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연 3~4회의 병해충 관리와 영양공급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 병해충으로는 응애류,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등이며, 기타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 소나무좀 등 소나무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방제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전반적인 수세정도가 쇠약한 편이므로 병해충 방제와 더불어 영양제 등을 함께 처리하여 수세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생육이 왕성한 3~6월에 집중 관리하는 것이 좋고, 장마 이후의 기간에도 필요시 한두차례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은 소나무 수세 정도에 따라 처리량을 달리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해당분야 전문가가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조경수목 관리
 - 서원 내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기타 조경수목에 대하여 전정, 비배관리 등 일상관리가 필요하며, 수종별 병해충 등에 대해서도 방제수준을 요하는 경우 방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관리

• 영귀봉 소나무 속아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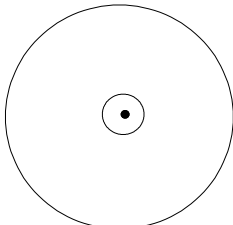
- 임목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영귀봉 일대는 소나무 형질이 불량해지기 이전에 속아베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속아베기는 주로 피압목, 형질불량목 위주로 제거토록 하고, 그 외에는 경쟁이 심한 개체에 따라 제거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 속아베기의 시행은 낙엽이 완료된 늦가을에서 겨울에 시행하는 것이 소나무좀이나 기타 천공성 해충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봄철이나 여름은 가급적 피하여 작업하는 것이 좋다.
- 간벌률은 적정 임목밀도 이하로 시행하는 것이 옳으나 정밀 조사 후 결정하도록 하며, 간벌 산물은 전량 임외로 반출토록 하여 숲 내에 이병목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과습토양 개선

- 습지형 초본류가 번성하는 점으로 미루어 토양 과습이 우려되므로 배수로 설치와 토양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토양 과습에 식생이 변화된 것이 소나무에도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전면적인 시행보다는 부분적으로 시행하여 시행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배수로 설치와 토양환경 개선으로 수목 생육이 개선되면 이후 전면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 적기는 여름철 장마 이전에 시행하여 과습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 개별 수목 진단결과에 따른 응급조치 사항

- 800주의 소나무 전수조사결과 수세 쇠약목과 안전조치 요구 수목, 외과수술 필요 수목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수목이 다수 조사되어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 수세 쇠약목 30주, 안전시설물 필요한 수목 20주 등이며, 외과수술은 과거 송기채취 등으로 발생된 상처가 큰 6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다.

2 번목				
재 원	수 고 : 18m	지하고 : 11m	수관폭 - 동서 : 9.5m / 남북 : 9.5m	
	나무둘레 : 182cm	근원둘레 : 229cm	잎 길이 : 7.5cm	신초길이 : cm
안전진단	기울기 : 북	나무상처 : m²	안전조치 :	수관량 : 중
수세 및 생육환경 진 단	전기저항치(kΩ) : 16.1	토양경도(kg/㎠) : 1.5		답압도 : -
	배수상태 :	포장유무 : 북 2.2m, 포장로		피압도 : -
	병충해 종류 :			병충해 밀도 :
관리이력	2014년 병해충 방제 시행 (응애)			이식목 여부 : -
종합평가 및 관리대책	<div>- 성장상태와 수세 정도는 보통임</div> <div>- 병해충 및 영양공급은 연중관리 필요</div> <div>- 생육지 토양환경이 비교적 과습한 편이므로 배수시설 설치 필요</div>		수관형성도	
			<div></div> <div></div>	

개별 수목카드 샘플

■ 후계림 조성

- 숲 공터 소나무 식재
 - 소수서원 내 고사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숲에 공터가 다량 발생되어 후계목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후계목은 경급이 큰 수목보다는 근원경 10-20cm 내외의 수목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식 수량은 약 50여주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식목은 영주 관내(특히 순흥 지역)의 소나무로 하고, 이식 시기는 봄철 해토시기에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이식목은 숲 그늘에 식재되므로 소나무 특성상 이식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므로 엽면시비, 생리활성제처리 등과 병해충 방제 등 별도의 이식목 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후계림 육성
 - 서원 내 지표면에는 어린 소나무가 매년 다량 발생되는데 풀깎기 등의 작업으로 매년 제거되고 있다. 새롭게 발생한 어린 치수를 별도의 육묘장 등으로 옮겨 소수서원 소나무림의 직계 소나무를 육성하여 추후 고사되는 수목이 발생되면 이들을 이식하여 유전적으로 같은 계통의 소나무가 존속될 수 있도록 후계목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목활력도 판정기준

평가항목	0	1	2	3	4
수 세	생육왕성	생육부진의 영향은 다소 있으나 분명치 않음	생육약화가 나타남	생육약화가 상당히 진전됨	심하게 약화되어 소생이 어려움
수 형	자연수형유지	일부 파괴 흔적이 있으나 자연 상태 유지	수형이 일부 파괴되나 자연 상태 유지	수형의 파괴가 뚜렷이 진행됨	수형이 파괴됨
가지신장과 발아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아 신장이 극히 정상적	발아 전체적으로 고르지 않음 신장은 정상	발아도 차이가 있고 신장도 차이가 있음	가지의 신장이 작고 상하에 차이가 있음	전체적으로 가지가 아주 왜소 발아도 늦음
엽 장	정상적임	전체적으로 크기는 고르나 약간 적음	일부 가지의 잎은 소형이나 중정도 작음	보통 소형이며 상층부 하층부의 크기가 다름	잎이 현저하게 작음
엽 색	정상적임	약간 이상생김	일부 가지의 잎색과 구엽에 이상이 생김	전체적으로 엽색의 이상이 생김	현저하게 이상이 나타남
가지고사	정상적인 생장	정밀관찰시 고사지 발생함	고사지가 눈에 띌 정도임	소지의 고사지가 상당히 많음	소지, 중지, 대지의 고사지가 많음
지엽밀도	잎이 많음 80%	약간 적으나 정상이라 할 수 있음 70~80%	전체적으로 약간 영성함 50~60%	가지에 영성한 부분 많음 40~50%	전체 지엽발생 영성함 40% 이하
낙엽상태	시기가 늦으며 일시에 낙엽됨	시기가 약간 빠르고 기간이 김	시기가 빠르고 낙엽이 불규칙	불규칙하고 부분적인 낙엽	계절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가지에 낙엽이 붙어있음
유합조직 형성	유합조직 형성 왕성 맹아력도 완성	유합조직 형성 양호 맹아력 안정됨	유합조직 형성 약간 있음 맹아력 보통	유합조직 형성 불량, 맹아력도 나쁨	유합조직 형성 불량, 수피고사 진전됨
수간줄기 고사부패	상처 부패 동공이 없음	상처 부패 동공 있으나 큰 피해 없음	상처 부패 진전 동공이 생김	상처 동공부위 크고 부패 진전	상처 동공 크고 줄기 수간고사 기상적 피해 우려

*쇠약도=각 항의 피해도 수치합계÷10

*쇠약도의 구분 1: 1.5이하—양호 2: 1.6~2.4—보통 3: 2.5~3.2—쇠약 4: 3.3~4.0—극쇠약

■ 토양 검사성적서

- 향후 아래의 토양검사성적서를 참고하여 생육 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비 및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AT 에이티분석센터(주)

연구 · 분석 전문기업

www.atac.co.kr

367-831 충북 괴산군 청안면 광장로 590-11 TEL : 043-838-8301 FAX : 043-838-9440

검 사 성 적 서

의뢰처	상 호	한서나무종합병원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408-81-69181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전거리5길 29 (용상동)		

시 료 명	토양		
접 수 년 월 일	2014. 8. 18	접 수 번 호	14-08-042

분 석 결 과

분석항목(단위)		시료구분	
		영주서수서원 소나무우림 1	영주서수서원 소나무우림 2
유기물(%)		4.40	5.91
N(%)		0.14	0.18
유효P ₂ O ₅ (mg/kg)		10.24	11.63
치환성K(cmol ⁺ /kg)		0.31	0.34
치환성Ca(cmol ⁺ /kg)		3.77	2.09
치환성Mg(cmol ⁺ /kg)		0.39	0.41
치환성Na(cmol ⁺ /kg)		0.05	0.05
양이온치환용량(cmol ⁺ /kg)		9.58	10.91
pH[1:5]		5.60	5.16
전기전도도[1:5] (dS/m)		0.045	0.057
NaCl(%)		불검출	불검출
토성 [美농무성법 분류]	모래{ % }	59.37	55.81
	미사{ % }	21.67	24.65
	점토{ % }	18.96	19.54
	분류	사양토	사양토

2014년 8월 20일

에이티분석센터(주)

 농촌진흥청 비료시험연구기관 제48호
 농촌진흥청 유기농업자재시험연구기관 제35호


※ 위의 분석결과는 귀하께서 분석의뢰하신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며, 의뢰용도 이외의 상업적인 광고 및 법적인 해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T Analysis Center Co., Ltd. 토양(수목·잔디·농작물)분야/비료(유기질·화학비료)분야/양액분야/광물·식물체분야

② 외래수종 정비

현재 경내 강학공간과 기타공간에 각각 식생하고 있는 죽단화와 둥근향나무는 관목성 외래수종으로 식재된 위치가 경내 건물과도 인접하고 있지 않고 수고도 낮으므로 건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 강학공간에 식생하고 있는 죽단화는 담장 인근에 소규모로 식생하고 있고 향후 제월루 재현 예정지에 포함되므로 계획에 따른 이식이나 제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둥근향나무는 충효교육관이 위치한 기타공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구역은 향후 충효관 철거계획에 따라 이식이나 제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한편, 경외에 나타나는 외래수종은 서비스공간에 출현하고 있으며, 일본목련과 자산홍은 죽계천 건너편에, 솜대는 탁청지 인근 화장실 뒤편에 나타나고 있다. 솜대 역시 서원 경내 기타공간의 둥근향나무처럼 향후 충효관 철거 예정지에 포함되므로 충효관 철거계획에 따라 이식 혹은 제거하도록 하며, 일본목련과 자산홍은 죽계천 건너편에 위치하여 경내에서 직접 조망이 어려우므로 향후 점진적인 이식을 시행토록 한다.

경내·외 정비 대상 외래수종



죽단화



둥근향나무



솜대



일본목련, 자산홍

③ 건물 인근 수목 정비

현재 사당공간 내의 건물인 영정각 주변으로 이대가 군식되어 있다. 대나무류인 이대는 땅속줄기인 지하경으로 번식하는데 지하경의 마디마다 눈과 뿌리가 있어 1개의 마디만 있어도 번식이 가능할 정도로 재생력이 매우 강하므로 한 번 군락을 형성하게 되면 땅속에 그물망 같은 뿌리를 형성하며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주변 건물인 영정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경을 차폐할 수 있는 지하담을 쌓거나 군락 둘레로 굴을 파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등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번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나무 지하경 정비 대상지 및 사례



영정각 주변 이대 군식지



그물망 상태의 지하경



차폐용 지하담



완충지대 조성

④ 주차장 및 충효교육관 주변 정비

소수서원 진입로 전면에 위치한 주차장 주변으로는 경계 및 녹음식재를 실시하도록 하며, 충효교육관은 현 위치에서 이전하게 된 후에는 도로와 인접하게 되므로 차량소음과 기타 공해로부터 건물을 차폐하기 위한 식재를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산울타리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도입 수종은 서원의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전통수종 혹은 향토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소수서원 완충 공간 주변 정비안

구 분	식재별 기능	적용 수종
차폐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상 불량성을 완충, 제한, 은폐하기 위한 식재 지하고가 낮고 강전정에 걸리며 지엽이 치밀한 수종 차폐가 강하게 요구되는 곳에는 상록수를 도입 	상록수: 측백나무, 전나무, 향나무, 주목, 비자나무, 동백나무, 사철나무, 팽 팽나무, 광나무
경계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울타리로 조성되며 경계표시, 공간나눔을 위한 식재 지엽이 고르고 생장이 빠르며 유지관리가 쉬운 수종 가벼운 차폐를 겸할 시에는 낙엽수인 화목류가 적합 	낙엽수: 개나리, 쥐똥나무, 화살나무, 병꽃 나무, 조팝나무, 매자나무 상록수: 회양목, 호랑가시나무
녹음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한 햇빛을 차단하고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식재 수관과 잎이 크며 지하고가 높고 밀생하는 수종 겨울에는 그늘을 만들지 않는 낙엽교목류가 적합 	낙엽수: 회화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오 동나무, 이팝나무, 느릅나무, 단풍 나무, 산딸나무, 서어나무

3. 주변정비

3-1. 원촌지 재현도 제작 및 설치

1) 현황

- 소수서원 북쪽에 위치한 원촌지는 충효교육관 건립과 동시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현재 시비 공원으로 활용 중이다.
- 죽계구곡을 담은 시비와 산책로, 징검다리, 백운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선비촌으로 이어지는 연계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원 전경-1



공원 전경-2



시비-1



시비-2



징검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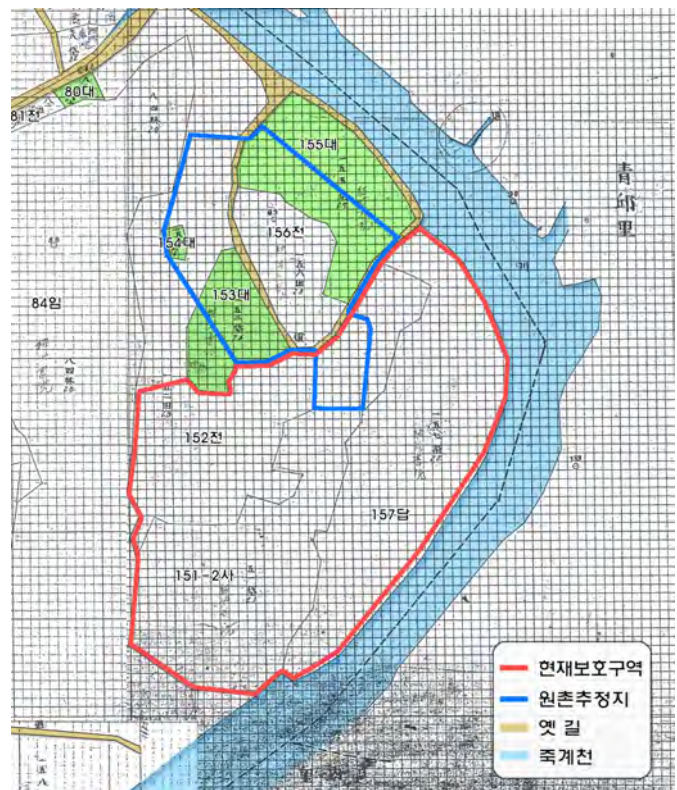
공원 화장실

2) 관련 사료

- 조선시대 향교 인근에는 교촌, 서원 인근에는 원촌이 존재했다. 조선시대의 서원이 사액을 받게 됨과 동시에 나라에서 서원노비, 전답 등을 하사하여 서원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전답에서 소작농으로 생활하며 추수한 작물을 서원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을 원촌이라고 지칭한다. 주로 하는 일은 서원의 청소와 심부름, 수직(守直), 제수(祭需)마련, 유생공궐(儒生供饋) 등 원노(院奴)가 하는 잡역을 담당하였다.
- 서원의 노비는 서원의 재산으로 서원의 운영에 핵심이 되는 재정적인 상납 및 노동을 담당하는 서원의 일부였다. 이러한 서원의 노비들이 서원 인근에 부락을 형성하여 농사를 지어 서원에 농작물의 일부를 납세하고 생활하는 대신 나라의 부역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 과거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소수서원 북쪽에 서원의 부역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모여 촌락을 이루었던 원촌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971년, 1988년, 1991년 까지 9가구의 촌락이 나타나며, 1991년 충효관 건립과 동시에 모두 철거되고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 예전에 이곳의 지명은 원촌으로 불렸으며 과거 지적관련 자료에 원촌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재향지(순흥읍지, 1849년)의 제이내죽면(第二內竹面) 촌명 중에 나타난다.
성북(城北), 속수(涑水), 중촌(中村), **원촌(院村)**, 금성(金城), 옥계(玉溪), 광문(廣文), 송림동(松林洞), 배점(裵店),
 - 1918년 지형도에 소수서원과 원촌(院村)으로 명기되어 원촌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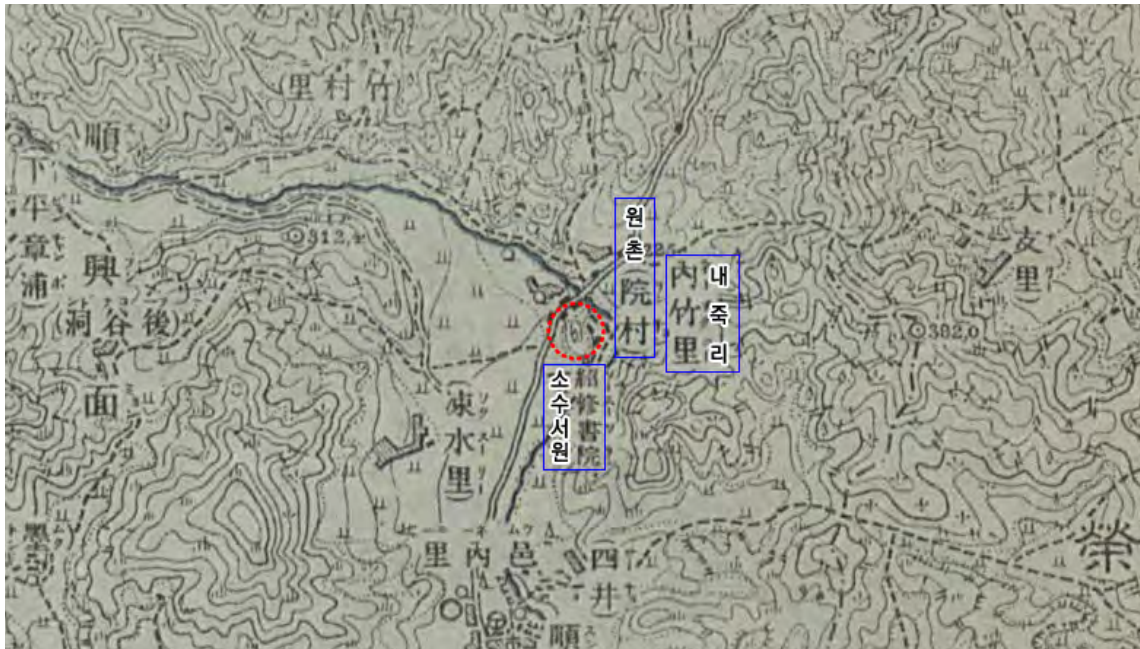
- 소수서원의 원촌은 당해문화재 보호구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개별의 가옥마다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않다.
- 지적원도에 표시되는 길(황색) 주변으로 가옥이 분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녹색으로 표시된 지적은 소유자가 소수서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 전체적으로 각 지번의 면적이 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다른 자료와 비교해 보면, 하나의 지번 내에서 다수의 가옥 및 전답이 분포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 1918년 지형도 - 순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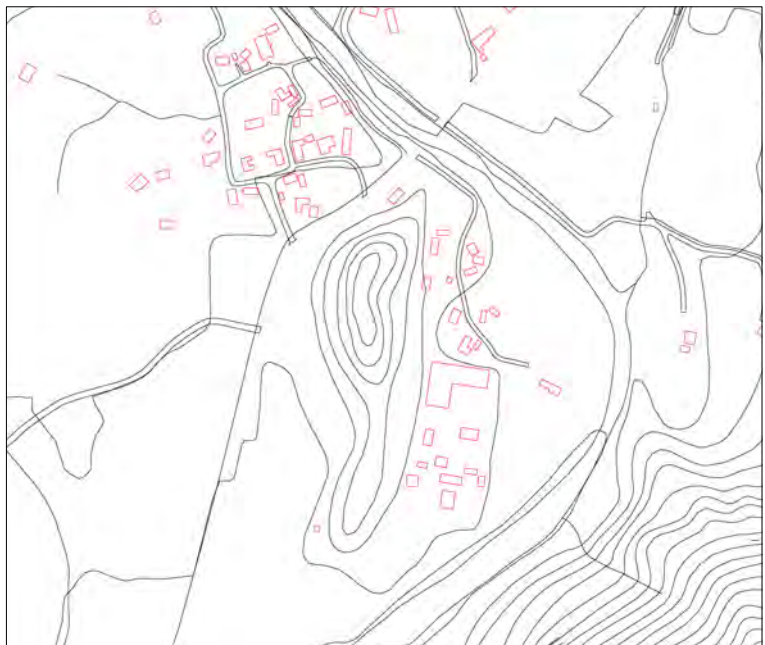
- 소수서원이 위치한 내죽리는 소수서원과 원촌(院村)으로 명기되어 원촌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 현재 공원이 위치한 지역이 민가가 표기되어 있다.
- 진입로는 영귀봉 남쪽, 죽계천을 건너 천을 따라 북쪽으로 소로가 표기되어 있다.



1918년 지형도에 나타나는 원촌

■ 1986년 제방공사 이전의 수치지형도

- 1986년 6월 죽계천에 제방 축조 이전의 지형도로 공사 이전 소수서원과 죽계천 사이는 경사지로 형성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도각에 표시된 붉은 테두리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다수의 건축물이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방공사 이전의 수치지형도

■ 과거 항공사진

1971년 항공사진	1988년 항공사진	1991년 항공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서원 북쪽(원촌)에서 9가구 정도가 식별 가능하며, 건물은 초가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서원 북쪽(원촌)에서 8가구 정도가 식별 가능하며 슬레이트지붕과 초가지붕이 혼용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서원 북쪽(원촌)에서 8가구 정도가 식별 가능하며 다양한 지붕이 혼용되어 있음

- 서원 관계자의 고증과 1971년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9가구를 기준으로 각 가구의 동수 및 추정 규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원촌 마을 가옥분포 (1971년 항공사진 추정)

연번	동수	추정규모 및 형태				비고
		채별 연번	칸수	평면형태	지붕형태	
1	2동	A	4칸	—자	우진각	
		B	3칸	—자	우진각	
2	2동	A	4칸	—자	우진각	
		B	2칸	—자	우진각	
3	1동	A	3칸	—자	우진각	
4	2동	A	4칸	ㄱ자	우진각	
		B	2칸	—자	우진각	
5	1동	A	3칸	—자	우진각	
6	1동	A	4칸	—자	우진각	
7	2동	A	3칸	—자	우진각	
		B	2칸	—자	우진각	
8	2동	A	3칸	—자	우진각	
		B	3칸	—자	우진각	
9	1동	A	3칸	—자	우진각	

3) 기본방향

- 여러 사료 및 지형도,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원촌경관을 재현한다.
- 서원 재정적 기반이 되던 곳으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계획을 마련한다.
- 조선시대 서원과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원촌을 재현함으로써 서원이 내포하고 있는 유형적, 무형적 자산을 포괄적으로 재현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건축적 복원보다는 서원을 구성하는 과거 경관복원에 목적이 있다.
- 이는 소수서원의 유·무형적 진정성과 완전성의 회복을 의미하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바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관람편의 시설을 마련하여 관람객들에게 소수서원 원촌에 대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 제방을 축조하면서 완경사면이었던 원촌지(현 공원부지)를 성토하였다. 원촌을 재현하기 위하여 과거 원형대로 환원할 경우 강수기시 죽개천의 범람으로 침수의 우려가 있다.
- 원촌경관 재현에는 건물지 재현, 농경지 재현 등의 다양한 재현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정비로 인하여 오히려 서원 전체 경관을 저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연대미상 - 소수서원 우측으로 초가지붕 및 슬레이트 지붕으로 보이는 군락이 형성되어 있음

< 자문의견 >

- 원촌은 옥산, 병산서원 같이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일 때 의미가 있으며, 이미 사라진 건물에 대한 단순한 건물재현은 지양하는 것이 옳음
- 건물 재현보다 농경지 등의 과거 경관 복원을 통해 원촌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함

4) 재현계획

- 본 정비계획에서는 이미 사라진 건물에 대한 단순한 건물재현은 지양하고, 관람객들에게 과거 서원에서의 원촌에 대한 의미 및 역할 등을 안내판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한다.
- 과거 원촌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재현도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과거 원촌이 존재했음을 알리는데 중점을 둔다.



3-2. 숙수사지 유물 보존계획

1) 현황

- 소수서원은 숙수사지 옛터에 건립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소수서원에는 숙수사지의 유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유물은 석조유물로 석탑, 기단, 초석, 등의 부재이다.
- 건축부재 26점, 석조유물 11점, 기타유물 3점은 소수서원에 산재하고 있다.⁵⁰⁾
- 숙수사의 유물은 1953년 소수고등공민학교 교정 확장사업 중 운동장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출토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당시 25점의 불상군과 다수의 석조물이 출토되었으며, 불상유물은 소수박물관에 보관(27점) 중이며 기타 석조유물은 충효교육관 전면에 전시되어있다.

■ 건축부재로 사용된 유물

건축부재로 사용된 유물

분 류	상 세	위 치	크기	수 량	비 고
기단석	신방석	문성공묘 일각문 하단	1090X336X259	1매	
	신방석	문성공묘 배면 기단	2,086X260X198	1매	
	신방석	담장축대 하부	1,650X209	2매	
			2,866X652X106		
계단석	귀틀석	문성공묘 기단 모서리돌	1,426X692X228	3매	
	계단지대석	소수서원 경내	795X262X300	1매	
	계단소맷돌	소수서원 경내	1,280X680X1,280	1매	
주좌초석	초석	문성공묘	570X570X71	5매	
			564X564X56		
			662X613X48		
			657X622X93		
			560X560X78		
	초석	전사청	560X560X86	1매	
	초석	지락재	470X170X40	2매	
			580X580X64		
	초석	학구재	570X570X130	2매	
			600X600X83		
	초석	일신재·직방재	605X605X57	4매	
			600X600X87		
			625X597X83		
			615X630X103		
기타부재	돌못	문성공묘 기단석 배면	1337X300	1매	
	좌대	문성공묘 일각문 하단	1,135X495X92	1매	

50) 震壇學報 券, 19호, 宿水寺址 出土 佛像에 대하여, 金載元, 1958. 06

- 소수서원에 사용되고 있는 기단석재로는 신방석, 귀틀석, 계단 소맷돌, 주좌초석, 돌못, 면석, 모접이를 한 기단갑석이 있다.
- 신방석은 총 4매가 남아 있다. 문성공묘 일각문 하단에 1매, 문성공묘 배면 기단에 1매, 담장축대 하부에 2매가 남아 있으며, 계단석은 총 2매로 소수서원 경내에 비치되어 있다. 또한 주좌초석은 다수의 소수서원 건축물에 사용 중이며, 총 12매가 사용되었다. 문성공묘에 4매가 사용되었으며, 전사청에 1매, 지락재 1매, 학구재 2매, 일신재·직방재에 4매가 사용되었다. 또한 경주 감은사지, 경주 불국사, 합천 영암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신라시대 사찰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돌못 1매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문성공묘 배면 기단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성공묘 앞 일각문 신방석



문성공묘 배면 신방석



문성공묘 담장 하단부 신방석-1



문성공묘 담장 하단부 신방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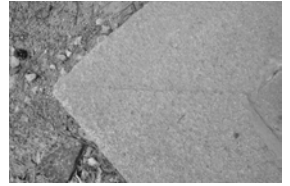
문성공묘 기단 귀틀석-1



문성공묘 기단 귀틀석-2



문성공묘 기단 귀틀석-3



귀틀석 우동선 세부



계단 지대석



계단 소맷돌



문성공묘 주좌초석-1



문성공묘 주좌초석-2



문성공묘 주좌초석-3



문성공묘 주좌초석-4



전사청 주좌초석



지락재 주좌초석



학구재 주좌초석-1



학구재 주좌초석-2



일신재·직방재 주좌초석-1



일신재·직방재 주좌초석-2



일신재·직방재 주좌초석-3



일신재·직방재 주좌초석-4



돌못

■ 석조유물

분 류	상 세	위 치	수 량	비 고
당간지주	당간지주	서원 입구	1기	
	지대석	서원 입구	2매	
석등	간주석	관리사무소 앞마당	1매	
	옥개석	관리사무소 앞마당	1매	
광배편	보주형 광배	관리사무실 내부	1매	
불상대좌	지대석	지락재 초석으로 사용중	1매	
	하대하단석	지락재초석, 문성공묘 앞 디딤돌	1매(분할)	
	하대상단석	관리사무실 내부	1매	
	상대석	관리사무실 내부	1매	

- 소수서원에 남아있는 숙수사지의 유물 중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소수서원 진입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숙수사지 당간지주(宿水寺址 幢竿支柱)이다. 숙수사지 당간지주는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59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유지·관리되고 있다.
- 당간지주 이외에도 석등, 광배편, 불상대좌 등 소수서원 건축물에 사용하고 있는 하대하단석 1매와 지락재 초석으로 사용 중인 1매, 그리고 당간지주를 제외한 5매의 부재는 충효교육관 전면 화단과 충효교육관 내부에 분할 전시되어 있다.



1910년대 당간지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숙수사지 석등



석등 하대석



숙수사지 광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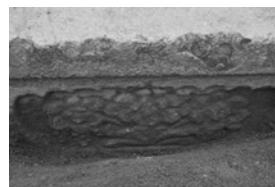
숙수사지 광배편 화불



하대하단석(분할1, 초석사용)



하대하단석(분할2, 디딤돌사용)



하대하단석 안상문양



불상대좌 지대석



하대상단석 및 상대석(과거)



하대상단석 및 상대석(현재)



하대상단석 상세



상대석 상세

■ 불상유물

유 형	여래상	보살상	신장상	공양자상	합계
수 량	16점	7점	2점	2점	2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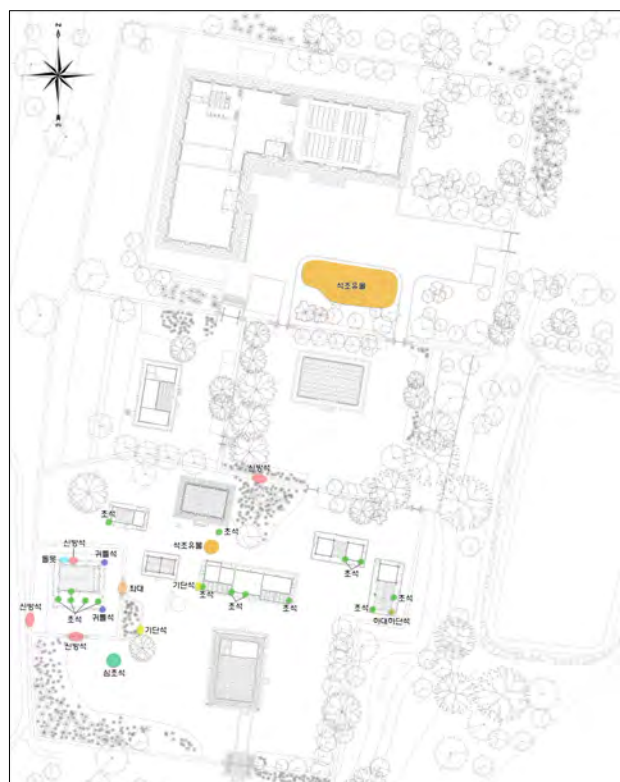
■ 기타유물

- 숙수사 주변 부석사, 초암사, 비로사, 성혈사 등 사찰을 비롯하여 석교리 석조여래입상, 읍내리 석불입상 등 9세기 대의 불교유적이 다수 남아 있는 것과 숙수사에도 이 시기에 조성된 당간지주, 석등, 불상대좌 등 다수의 석조물이 남아 있는 것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 지역의 불교미술은 양식적으로도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분 류	상 세	위 치	수 량	비 고
석등 하대석	연화문 석재편	관리사무소 앞마당	1매	
	석탑 옥개석	관리사무소 앞마당	1매	
석재	심조석 추정	관리사무소 앞마당	1매	

■ 석조유물 종합검토

- 숙수사와 관련된 석조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당간지주, 석등, 광배편 불상대좌 등이다. 숙수사의 연혁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지만 여러 석조물과 유물들이 발굴된 상황이며, 불상유물 등은 소수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 현재 소수서원 건축물에 초석 등의 부재로 사용되고 있는 석조물은 건축물 유지를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현재 충효교육관 전면에 전시되고 있는 석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전체적인 유물에 대한 위치 및 사용처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



소수서원 내부의 숙수사지 유물 분포도

■ 문제점

- 현재 충효교육관 전면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과 안내판은 가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숙수사유물에 대한 정보전달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정비하도록 한다.
- 이러한 숙수사 석조유물을 유지·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전시 및 보관목적의 장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숙수사지 당간지주



충효교육관 전면 유물전시



충효교육관 전면 유물전시 안내판



담장에 사용된 석부재

2) 기본방향

- 산재되어 있는 유물들에 대한 멸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정영역으로 집합시킬 필요가 있으며, 훼손 가능성이 있는 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 이러한 숙수사의 유물은 소수서원과 함께 유·불문화가 혼재된 형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유교문화 유적으로서의 소수서원에 대한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수서원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정비예시 - 나열석(경주읍성)

3) 정비계획

- 정비위치는 과거 숙수사의 권역내에 위치하면서도 서원의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로 선정하여 전시공간을 마련한다.
- 고증을 통하여 각 사찰조성 부재의 명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내용과, 관람객들이 유물을 인지하기 수월하도록 종합안내판을 설치하고, 유물의 위치 및 본래의 용도,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과 소수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명기하여 설치한다.
- 현재 소수서원 건축물 및 담장에 사용되어진 부재의 경우 종합안내판에 사진, 위치 및 용도를 기입하도록 하며, 현재 충효관 전면에 전시되어 있는 조형물 5점, 건축부재 4점, 불상유물 3점⁵¹⁾을 계획 대상지에 전시하도록 한다.
- 각각 개별안내판을 설치하여 용도, 위치 등을 표기하도록 하며 전시공간은 115㎡의 규모로 유물의 성격별로 구분하고 내부에는 탐방로를 조성하여 동선에 따라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원 북쪽공원 1안과 숙수사지 당간지주 인근의 2안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한다.

■ 1안

- 소수공민학교 운동자 공사 당시 숙수사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므로, 대상지를 과거 소수공민학교가 위치하고 있던 영역으로 설정하여 숙수사의 옛터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관람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선비촌으로 연결되는 진행로에 설치한다.
- 장점
 - 서원이 가지는 고유성을 지키기 위하여 서원영역과 숙수사지의 유물을 이격한다. 따라서 현재 소수서원이 가지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 단점
 - 서원 전체 영역과 이격되어 있어 인지성이 떨어질 수 있다.

■ 2안

- 숙수사지 유물을 보물로 지정된 숙수사지 당간지주 인근에 설치한다.
- 장점
 - 소수서원과 숙수사가 가지는 유·불 복합문화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숙수사지 유물인 당간지주 인근에 설치한다. 숙수사지 유물을 군집화 함으로써 인지성이 높아진다.
- 단점
 - 서원 진입부에 위치하여 소수서원이 가지는 서원 고유의 정체성을 저해할 수 있다.

51) 본 계획에서 불상유물이란 광배편, 대좌 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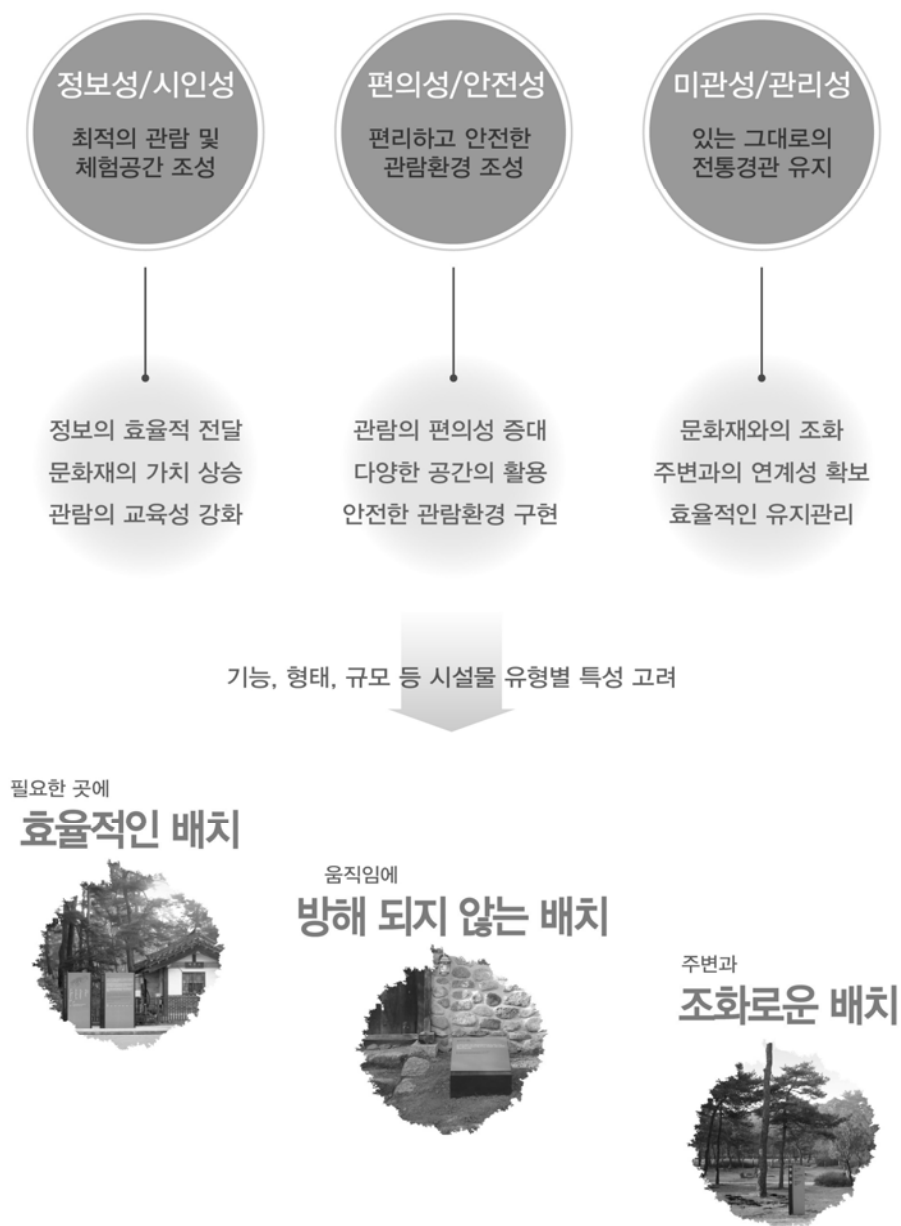


숙수사지 유물 보존계획 및 전시장 계획도

3-3. 편의시설 정비

- 서원 전면 특산물 판매소와 북동쪽 공원에 휴게영역 조성되어 있으며, 두 영역에 관람·편의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 서원 건축물의 개별안내판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며 권역 안내판과 유물 안내판만이 설치되어 있다.
- 각 편의 시설은 각종 디자인예시는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_문화재청, 2012」을 참고하여 정비한다.

■ 디자인 가이드라인



• 개방의 원칙 _ 배치

- 중정에서 자연환경으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 배치
- 주요 조망점에서 문화재로 시각적 차폐를 경감하는 열린 배치



• 최소의 원칙 _ 규모

- 수평적 면적을 최소화하여 배후 문화재로의 조망성 확보
- 수직적 높이를 문화재의 높이보다 낮추어 문화재 이미지 보전



• 기능의 원칙 _ 형태

- 서원의 혼을 형상화하여 단출하고 절제된 간결함을 연출
- 기능에 따른 형태의 차별화로 문화재와의 이미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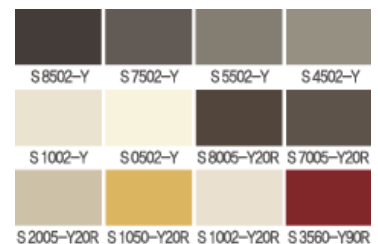
• 조화의 원칙 _ 재료

- 주변 자연환경과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자연재료의 도입
- 서원 건축물의 재료를 반영한 일체감 있는 재료의 선정



• 위계의 원칙 _ 색채

- 시설물 설치위치의 위계에 따른 색의 선정 및 적용
- 저채도의 일관성 있는 기준적용으로 통일감 구현



• 통합의 원칙 _ 기타

- 남녀노소 모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
- 새로운 변화에 유연한 스마트 디자인 시스템 구현



1) 안내판

■ 현황

- 서원 전면 종합안내판 1개소, 서원 내부 권역안내판 3개소와 개별안내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이정표와 관람료 안내판, 정보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유물안내판



관람안내판



정보안내판



이정표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정비계획을 통하여 안내판을 추가한다.
- 신설되는 안내판 역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설치한다.

■ 정비계획

-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은 현 상태를 유지한다.
- 추후 실시되는 계획에 맞추어 안내판을 정비한다.
 - 원촌지 관련 계획: 서원 북쪽 공원 영역에 원촌지를 알리는 종합안내판을 설치한다.
 - 숙수사지 관련 계획: 숙수사지 유물의 분포, 사용처 등을 기입한 종합안내판 및 전시장에 전시되는 유물들의 개별안내판을 설치한다.



개별 안내판 정비예시

		현 황	정비후	비고
종합안내판	경내	-	-	
	경외	1	2	숙수사지 유물 종합안내판 설치
권역안내판	경내	3	-	현 상태유지
	경외	-	-	
개별안내판	경내	3	-	
	경외	-	12	숙수사지 유물 개별안내판 설치



안내판 및 이정표 정비계획

2) 휴게시설

■ 현황

- 현재 서원 북쪽 공원영역 43개소와 특산물공판장 전면 16개소, 총 4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 북쪽공원영역의 벤치의 경우 부식과 파손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 특산물공판장 전면의 퍼걸러 및 벤치의 상태는 양호하다.
- 훼손된 벤치를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비를 실시한다.



북쪽공원영역 벤치 -1



북쪽공원영역 벤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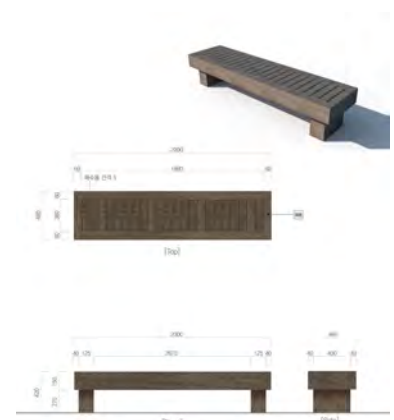
북쪽공원영역 벤치 -3



특산물공판장 전면 퍼걸러

■ 정비계획

- 서원 내부에서는 담장 인근, 단차가 발생하는 공간의 하단부, 건축물 옆 공지, 나무 아래 등에 배치할 수 있으며, 서원 외부에서는 관리시설물 옆 공지, 휴식공간 등에 배치가 가능하다. 단, 주관람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서원 북쪽 공원영역의 벤치는 총 43개소 중 27개소를 정비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철거한다.
- 특산물공판장 전면의 벤치 15개소와 7동의 퍼걸러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
- 특산물공판장 전면과 주차장 영역에 휴지통 5개소를 설치한다.



벤치 정비예시

		현 황	정비후	비고
벤치	경내	-	-	
	경외	특산물 공판장	15	현 상태유지
	북쪽 공원	43	27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교체
파고라	경내	-	-	
	경외	7	-	현 상태유지



휴게시설 정비계획

3) 조명시설

■ 현황

- 현재 서원 경내에 벽부등 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서원 경외에 매립등 5개소, 기타 조명시설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 현재 조명시설은 주변경관과 이질적이므로, 조명시설 전체를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여 외관정비를 실시한다.



서원 경내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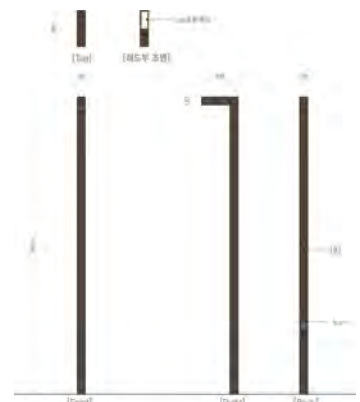
매립등



조명등

■ 정비계획

-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정비한다.
- 서원 경내는 최소한의 수량으로 정비하며, 전선의 지중화 및 매립을 실시한다.
- 서원 경외는 관람객의 동선에 따라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가로등 정비예시

		현 황	정비후	비고
조명시설	경내	9	5	일부 축소 및 외관정비
	경외	14	24	서원 북쪽 공원 및 서쪽쉼터를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



조명시설 정비

4) 기타 편의시설 정비

■ 현황

- 이외의 기타 편의시설로는 휴지통, 자동판매기가 있다. 휴지통과 자동판매기는 특산물공판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지통 3개소와 자동판매기 4기가 있다.



휴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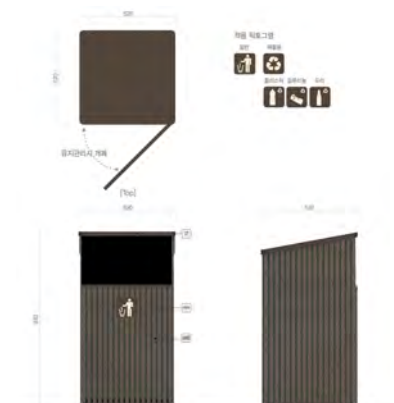
자동판매기

■ 정비계획

- 휴지통은 서원 내부영역 배치를 지양하며, 관광안내소, 자동판매기함 등의 휴게공간에 배치한다.
- 휴지통은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구분하며, 2개 이상 설치 시 각각의 휴지통은 밀착하여 배치한다.
- 자동판매기는 이질적인 외관을 정비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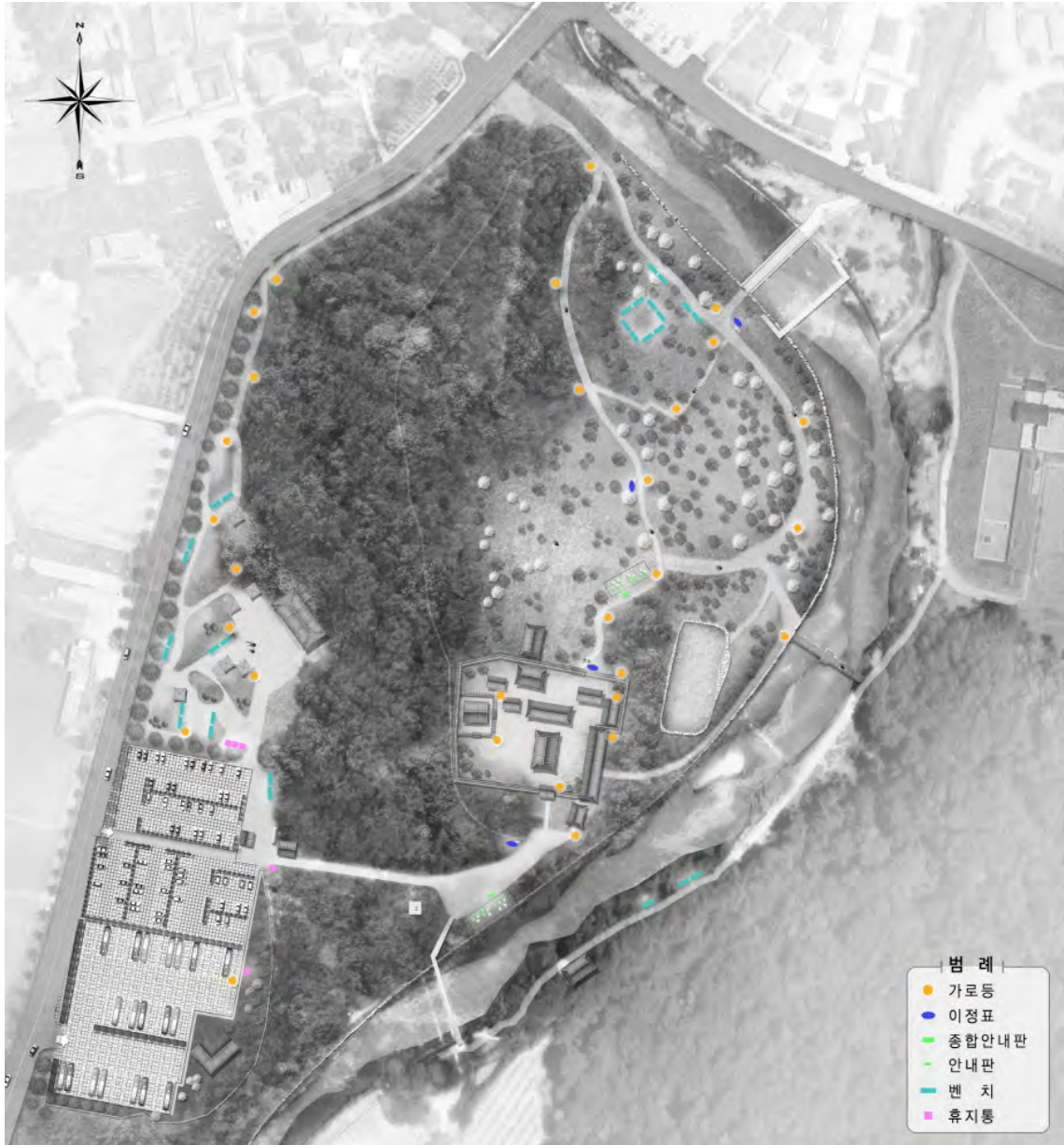


자동판매기 정비예시



휴지통 정비예시

		현 황	정비후	비고
휴지통	경내	-	-	
	경외	3	5	특산물 공판장 전면 3개소 관광안내소 인근 1개소 주차장 화장실 인근 1개소
자동판매기	경내	-	-	
	경외	4	4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외관정비



전체 편의시설 정비계획도

3-4. 소방방재시설 정비

1) 현황 분석

현재 소방시설은 서원 내에 옥외소화전, 방수총, 소화기, 피뢰침, CCTV,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불꽃감지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 소화기 현황

건물별로 4.5kg 분말소화기와 3.3kg하론소화기를 각 1개소씩 비치하였으며, 강학당의 경우 각 모서리마다 1개소씩 총 4개소와 20kg이동식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문성공묘는 하론소화기 1개와 20kg이동식 분말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서원 전체에 총 11개소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 11개소의 소화기 중 분말소화기 6개소, 하론소화기 3개소가 비치되어 있고 20kg분말소화기는 2개소가 비치되어 있으며 각 소화기의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 11개소를 제외하고 22개의 소화기와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등짐펌프 10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분말소화기



하론소화기



20kg 이동식 분말소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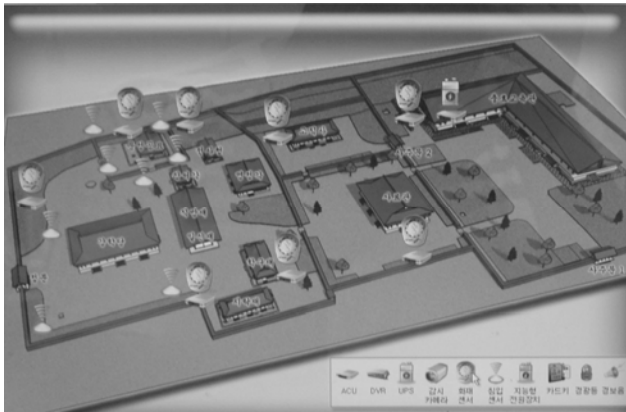


소화기 현황

■ 화재감지시설 현황

화재 방지 및 감지시설은 서원경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나의 구조체에 CCTV, 화재경보기, 불꽃 감지기, 피뢰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원내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CCTV는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화소는 41만화소이다. 현재 설치된 CCTV의 내구연한,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나, 41만 화소의 CCTV로는 사람이나 사물의 정확한 형태를 인지, 식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로 교체한다.



화재방재시설 및 도난경보시스템 위치도



관리사무실 모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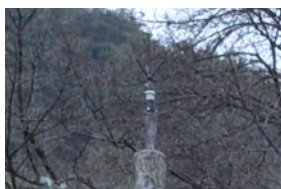
소방시설



CCTV



화재감지시설



피뢰침



화재감지시설 현황

■ 방수총 및 소화전 현황

옥외소화전 4개소와 방수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용수탱크는 영귀봉 중턱에 위치하고 용량은 100Ton이다.

방수총은 화재 진압이 용이 하도록 서원경내에 분포되어 있으며 설치된 개소는 5개소이다. 소화총은 360° 회전이 가능하며 살수범위는 40~50m내로 살수가 가능하다. 소화총의 고가수조는 영귀봉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량은 100Ton이 저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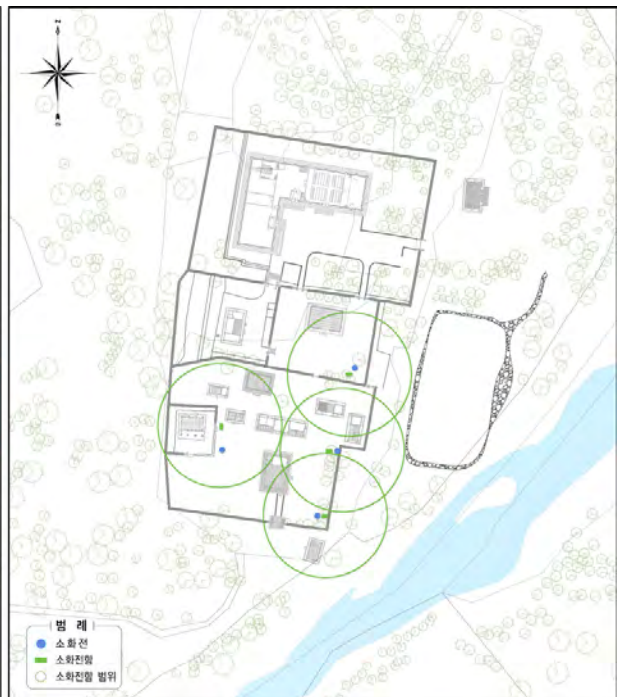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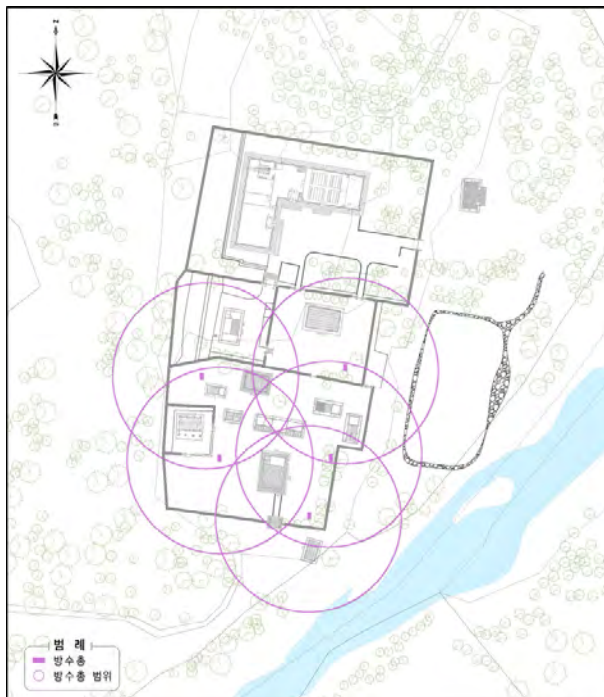
또한 최단거리 소방서는 순흥면 읍내리 306-6에 위치하고 있는 순흥 119지역대가 있으며, 거리는 약 1km이다. 소수서원까지 도달시간은 3분 내외로 화재발생 시 진압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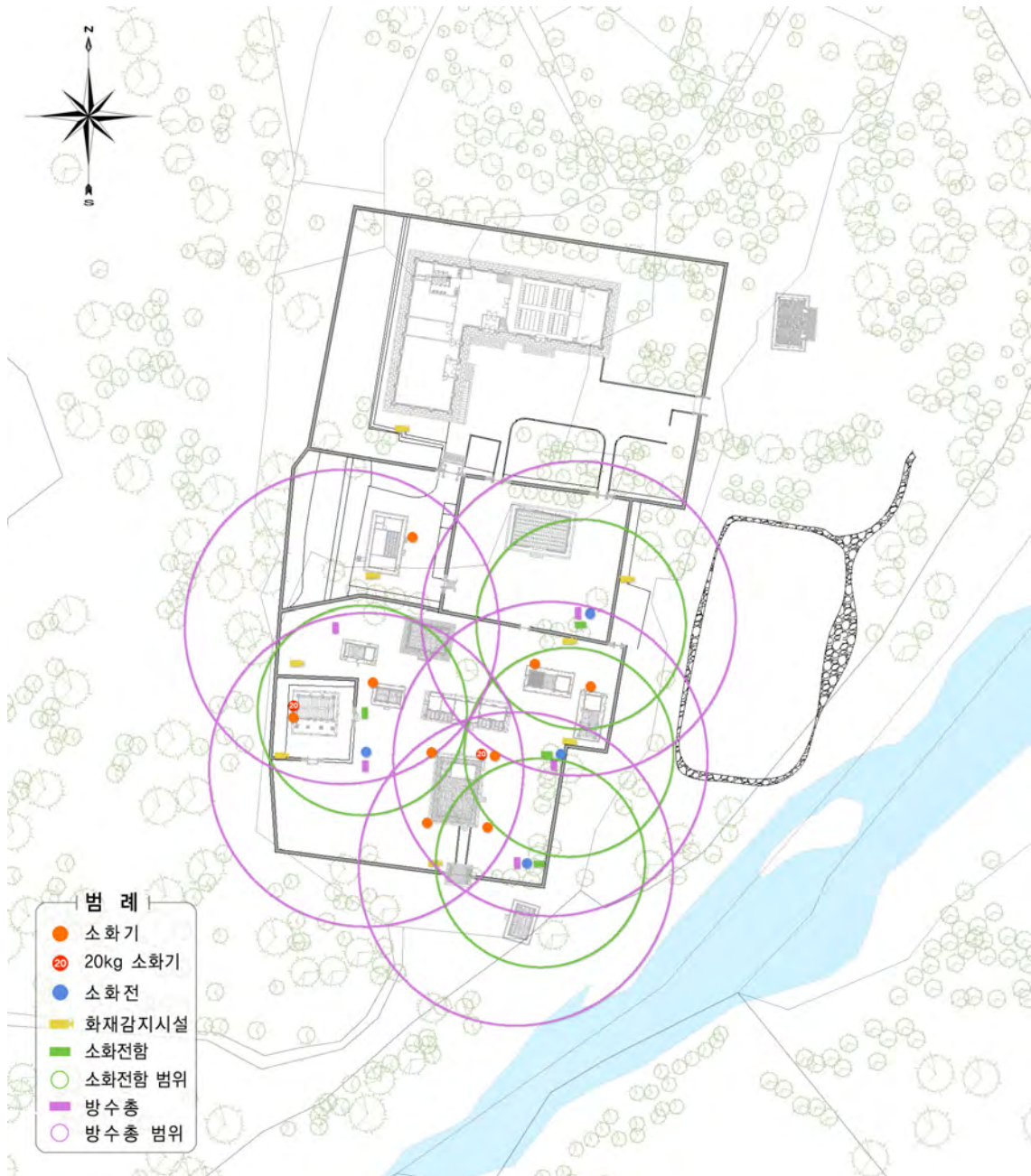
소화용수 탱크



방수총



방수총 및 소화전 현황



소방방재시설 전체 현황

■ 소수서원 자치 방재 시스템

소수서원 관리사무소에서는 문화재 지정구역 내부의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관리사무소에서 당직근무자 2인이 상주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 및 시험가동은 월 2회 이상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2) 정비계획

- 소수서원의 소방·방재시설은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설비 및 장비 등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주기적으로 진압훈련을 통하여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CCTV와 불꽃감지기 및 화재감지기 등으로 24시간 감시를 통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41만 화소의 CCTV는 사물의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 하므로, CCTV를 교체하여 소방 및 방재활동에 기틀을 마련한다.

■ 방재 시설 강화에 대한 법적 검토

- 문화재에 대한 방재법규 강화로 소수서원의 소방용 설비, 화재감지기, 도난방지장치와 같은 시설 강화와 피난경로 확보, 정기적 건물 유지관리, 출화방지 대책마련, 방재·안전 교육과 같은 방재 기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법적 검토 안	법적 검토 적용 안	
	방재 시설 부분	방재 교육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 안 수립 •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 지정문화재 도난방지장치 설치 • 문화재 안전점검, 방재훈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방재의 날(2월 10일) 활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 설비 보완 • 화재감지기 설치 • 출화방지 대책 마련 • 도난방지장치 설치 • 피난경로 확보 • 정기적 건물 유지관리 • 방염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교육 실시 • 관광객 화재안전교육 • 방재 매뉴얼 구축

방재시설 법규 검토

■ 방재용 첨단 설비 도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이 다른 건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막설비, 협소한 탐방로나 소화전의 분사범위를 초과할 때 사용하는 이동식 소방장비 등의 시설물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월정사 적광전 수막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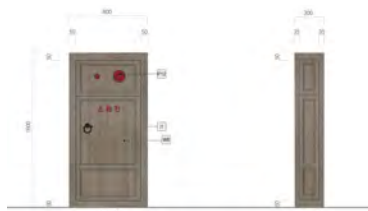
이동식 소방장비

■ 정기적 안전점검·교육 필요

-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의 특성상 아궁이, 연통, 전기배선의 사용상의 부주의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후 설비는 교체하고 방재에 취약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수한다.
-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방훈련을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진압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한다.

■ 소화전함 및 방수총함 외관정비

- 현재 소수서원의 방재시설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나 소화전함과 방수총함의 외관이 전통서원 경관과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외관을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부합될 수 있게 정비한다.
 - 소화전 4개소, 방수총 5개소
- 또한 소화전 및 방수총함 내부에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 화재초기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하며, 동계시 동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소화전함 정비예시



방수총함 정비예시

■ CCTV교체

- CCTV시설은 가급적 보안등(대형등)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별도의 지주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지주의 색은 보안등의 색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건축물에 직접 부착되는 경우 밝은 색은 지양하고 어두운 색을 적용하여 시각적 노출을 줄인다. 연결전선은 부착되는 건축물의 색을 반영하여 유사한 색으로 처리한다.⁵²⁾
- 현재 경내의 41만화소의 CCTV와 녹화기 등을 교체하여 소수서원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방문객 신원이 식별 가능한 HD급의 CCTV(130만화소 이상)을 설치한다. CCTV교체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화재 발생, 훼손, 방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경내의 CCTV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시설에 카메라를 교체하여 시공하며, 충효관 및 사료관이 철거 후 경내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철거된 건물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2개소는 철거한다.
- 경외의 CCTV는 주차장, 진입로 등의 각 지점마다 CCTV와 가로등을 함께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방범, 시설물의 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CCTV 정비예시

52) 서원 및 향교의 경관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_문화재청, 2012



소방방재시설 정비계획도

		현 황	정비후	비고
소화전 외관정비	경내	4	4	소화전함 외관정비
방수청 외관정비	경내	5	5	방수총함 외관정비
CCTV	경내	7	5	경내 영역 5개소 교체, 2개소 철거
	경외	-	9	서원의 주차장, 진입로 등의 관람객의 주동선에 설치

3-5. 배수로정비

1) 현황

- 소수서원의 대지 특성은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우수나 기타 낙수물이 경사면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서원 동쪽의 탁청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다.
- 소수서원의 배수방식은 바닥의 물매로 해결해왔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매를 이루고 있던 흙들이 우수에 쓸려내려 가거나 관람객들의 동선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 현재 강학당 동쪽의 마당과 지락재 배면, 그리고 일부영역에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이 고여 상당기간 습기를 머금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는 강학당 동쪽 담장 인근 1개소와 충효교육관 서쪽과 남쪽 1개소로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 서원내부에는 강학당 동측마당, 지락재 우측배면, 장서각 배면 등 6개소의 배수구와 지락재 북측담장, 사료관 우측담장 등 담장하부 배수구가 3개소 총9개소의 배수구가 있다.



강학당 동측 마당 -1



강학당 동측 마당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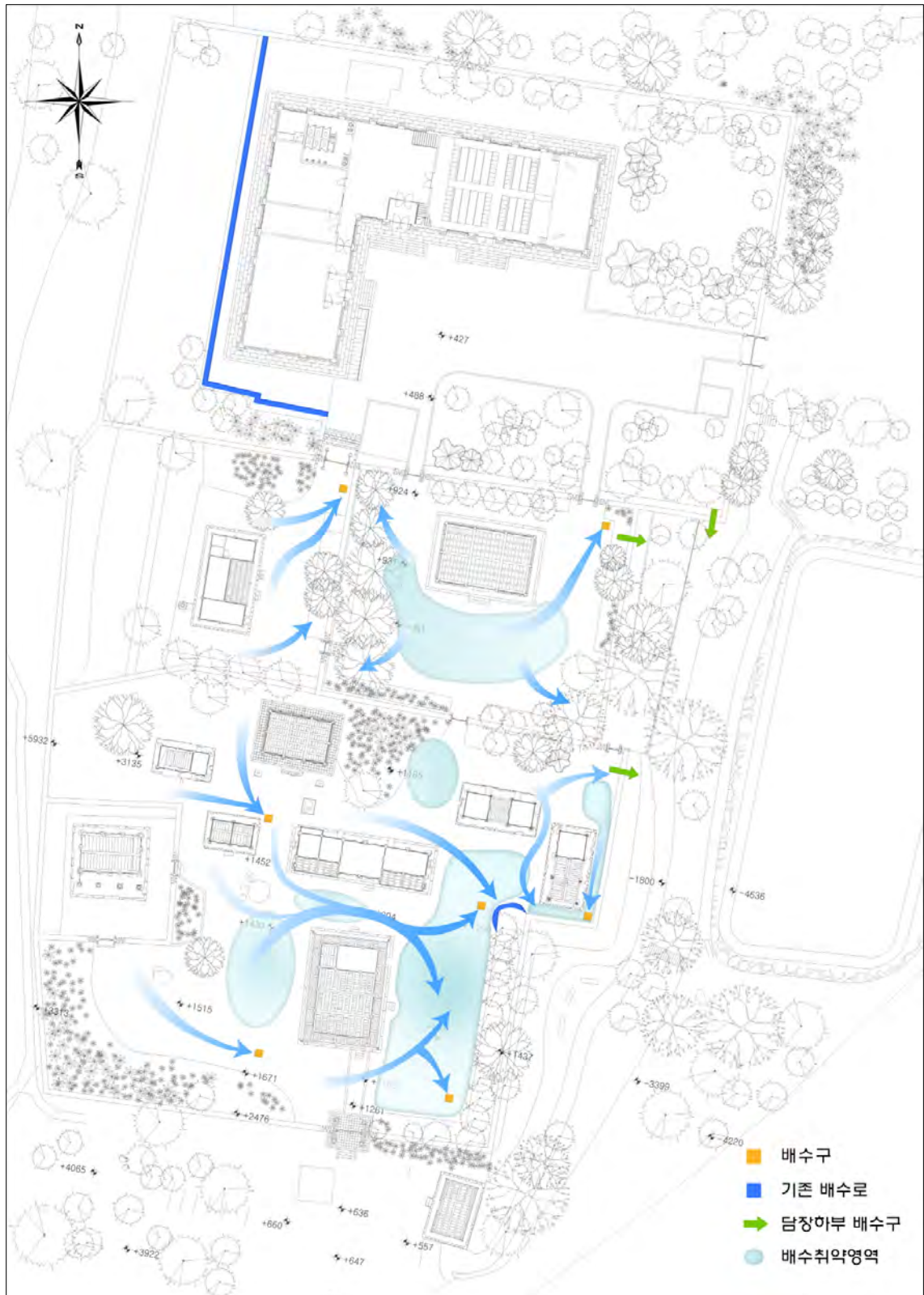


지락재 배면



지락재 전면 배수로

- 또한 강학당 동측마당에서 지락재 전면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배수에 어려움이 있다.



배수현황

2) 정비방안

■ 강학당 동측 마당 배수정비

- 소수서원 배수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우수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닥에 간헐적으로 웅덩이가 생기기도 하고 우천 후 일정기간동안 습기를 머금고 있는 상황이다.
- 강학당 동측마당의 남측과 북측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마당을 성토하여 물매를 잡은 후 물길을 유도해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정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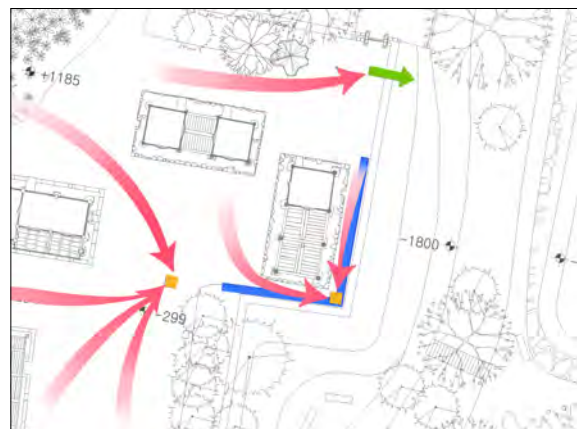
강학당 동측 마당 배수정비 전 물길방향



강학당 동측 마당 배수정비 후 물길방향



강학당 동측마당 배수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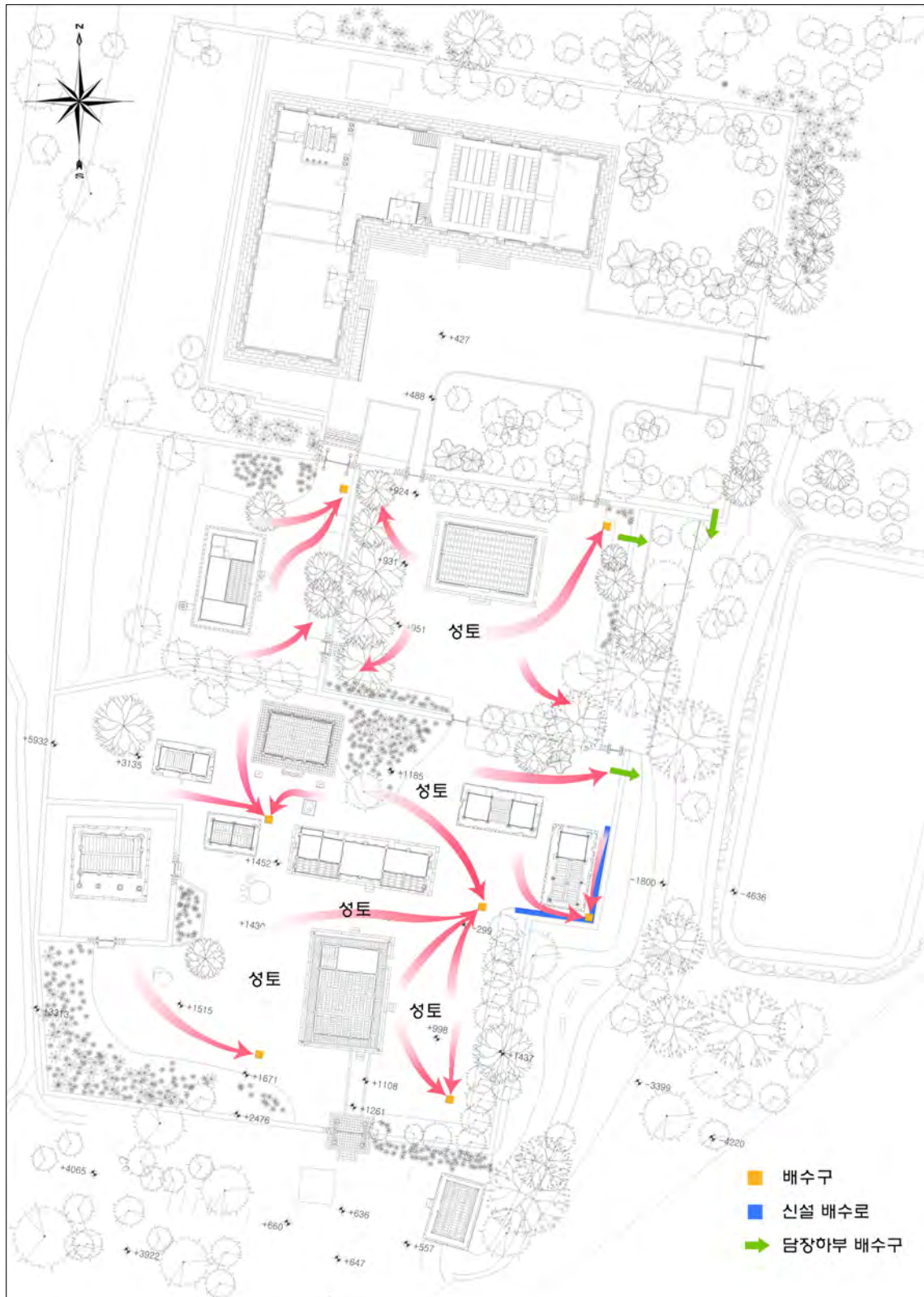
지락재 주변 배수정비

■ 지락재 배면 배수정비

- 지락재 배면 역시 배수취약영역으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습기를 머금고 있다.
- 우측배면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배수로를 배수구까지 연장 설치하고, 지락재 배면에 배수로를 신설하여 배수로를 통하여 물길을 유도한다.

■ 기타 배수정비

- 소수서원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토를 통하여 경사면을 형성한다. 경사면으로 물길을 유도해 각 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구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배수정비안

4. 건축물정비

- 현재 소수서원의 건축물들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로, 건물의 현상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위주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4-1. 강학당

1) 현황

- 강학당은 전면 4칸, 측면 3칸 익공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형태는 팔작지붕으로 형성되어 있다.
- 현재 강학당은 기단부 부재의 이완 및 오염이 관찰되며, 단청에 색바래미 나타나고 있다. 배면 중앙기둥 균열 및 좌측면 쪽마루 귀틀 이완 및 휨, 전체적인 단청바래미 관찰된다.



강학당 훼손부위도



기단부 이완 및 오염



배면 중앙기둥 균열



쪽마루 귀틀 이완 및 휨



단청 색바래

2) 정비방안

-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구조적 문제는 아닌 것으로, 경미한 경상보수가 요구되며 내부 단청에 대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문성공묘

1) 현황

- 전면 3칸, 측면 2칸의 문성공묘는 익공양식으로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형성되어 있다.
- 현재 기단 상부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측면 고막이가 탈락되어 있다. 그리고 전면 지붕하부의 치받이 흠이 탈락되어 있다.



문성공묘 훼손부위도



기단 경계석 이완



고막이 탈락



치받이흠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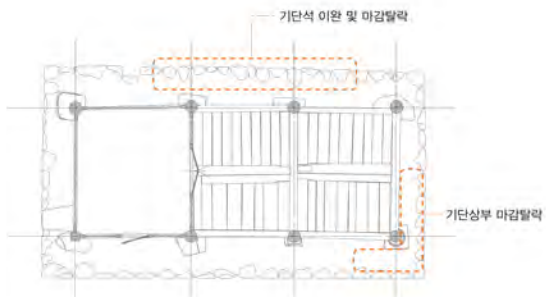
2) 정비방안

-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경미한 경상보수가 필요하다.

4-3. 지락재

1) 현황

- 지락재는 전면 3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는 민도리양식, 지붕부는 풍판이 없는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지락재는 기단상부 균열 및 탈락 이외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락재 훼손부위도



배면기단 상부 균열



배면기단 상부 마감탈락



우측면 기단 상부 마감탈락

2) 정비방안

- 전체적으로 경미한 문제로 경상보수가 필요하다.

4-4. 일신재·직방재

1) 현황

- 일신재와 직방재는 한 동의 건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면 6칸, 측면 1.5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양식은 소로수장집이며 지붕구조는 팔작지붕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재 전면 중앙 기둥에 크랙이 발생하였으며, 배면 굴뚝이 일부 파손되었다. 그리고 배면 반침기둥 하부가 부식되었다.



일신재 직방재 훼손부위도



기둥 균열



반침기둥 이탈



굴뚝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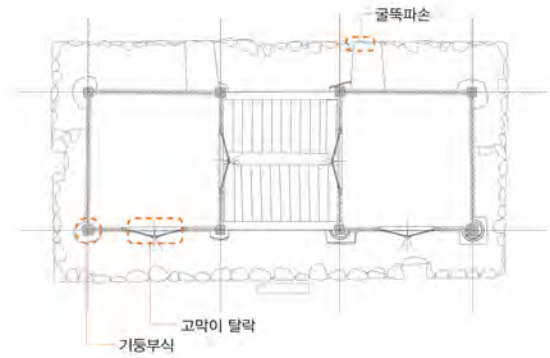
2) 정비방안

- 기둥의 갈람은 목재의 갈람현상으로 구조상 문제가 없으며, 반침기둥 이탈의 경우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굴뚝훼손은 경미한 문제로 경상보수가 필요하다.

4-5. 학구재

1) 현황

- 학구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양식, 풍판이 없는 맞배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학구재는 배면 굴뚝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전면 좌측 우주가 부식되었다. 그리고 전면 고막이가 일부 탈락 되었다.



학구재 훼손부위도



기둥 부식



전면 좌측칸 고막이 탈락



전면 정칸 고막이 탈락



배면 굴뚝 마감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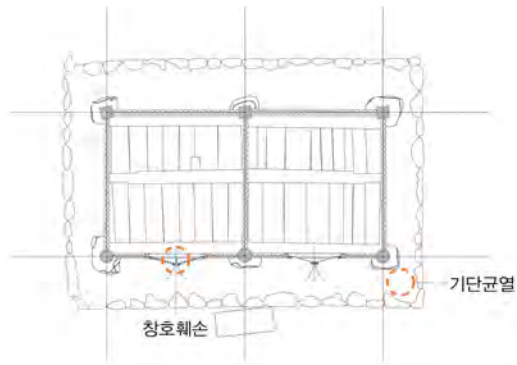
2) 정비방안

- 기둥의 부식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진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하며, 이외의 고막이 탈락, 굴뚝마감 탈락 등은 경미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6. 장서각

1) 현황

- 장서각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민도리양식으로 풍판이 없는 맞배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우측면 기단 상부에 균열이 발생했으며, 좌측칸 창호에 일부 균열이 관찰된다.



장서각 훼손부위도



기단 상부 균열



좌측칸 창호 훼손



분전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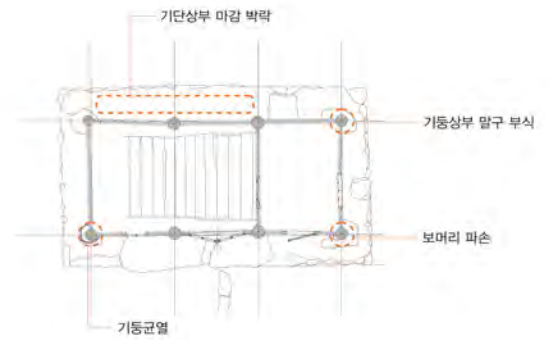
2) 정비방안

- 전체적으로 경미한 훼손으로 경상보수가 필요하며 분전함의 경우 디자인가이드라인에 따른 폐 혹은 외관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7. 전사청

1) 현황

- 전사청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 맞배 지붕 양식이며, 전면 좌측 우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배면 우측 우주의 말구에 부식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측 보머리가 파손되었으며, 배면 기단의 상부 마감이 탈락하였다.



전사청 훼손부위도



배면 기단 상부 박락



우측 배면 우주 상부 말구 부식



좌측 전면 기둥 균열



전면 우측 보머리 파손

2) 정비방안

- 기둥의 부식정도를 파악하여 기둥의 보수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보머리의 균열은 목재의 갈람현상으로 구조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외의 훼손부위는 경미한 훼손으로 경상보수가 필요하다.

4-8. 영정각

1) 현황

-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형성된 영정각은 익공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정각의 구조재의 균열이나 파손은 관찰되지 않으나, 단청색의 색바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청 색바램



단청 색바램

2) 정비방안

- 단청의 바램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므로 추후 별도의 보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동선정비

1) 현황

- 현재 소수서원으로 진입 가능한 동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주차장에서 소수서원으로 진입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선비촌에서 죽계교를 건너 공원을 거친 후 소수서원으로 진입하는 방법이다.
- 이외에도 백운교를 건너 경자바위, 취한대를 지나 징검다리로 숙수사지 당간지주가 있는 영역으로 진입이 가능하며, 그 길을 따라 소수박물관까지 이어진다.

2) 동선계획

- 동선계획은 향후 제월루가 재현됨에 따라 진입동선에 변화가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한다.
- 소수서원의 전체영역에 소수서원 주요 경관 조망점에 각 뷰포인트를 설정하고 각각의 지점을 경유 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한다.



경관 view point

- 동선계획은 크게 차량동선, 주동선, 보조동선으로 분할된다. 차량동선은 소수서원 주차장, 선비촌 주차장으로 이어지며 각 주차장별로 동선의 시작점이 달라진다.
- 주동선은 소수서원영역 외부를 탐방할 수 있는 동선으로 설정하였고 각 뷰포인트를 경유하여 탐방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향후 제월루가 재현된 후 이정표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소수서원 과거 동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한다. 소수서원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특산물 공판장 앞 공원을 지나 영귀봉 북쪽으로 연결된다. 그 후 북쪽 공원영역을 거쳐 탁청지를 지나 제월루 전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동선계획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이정표 및 안내판으로 유도한다.
- 정확한 소수서원의 동선 및 진입로에 대한 규명 및 재현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한다.



동선정비 계획안

6. Master Plan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1. 서원관리계획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3. 관리 현황종합
4. 활용계획
5. 홍보방안



VI.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1. 서원관리계획

1-1. 기본방향

1-1-1.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목적

- 관리 및 활용의 구체적 목표는 문화재청에서 2011년 발간된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서원을 품격 높은 문화재로 보존하면서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서원을 문화유산으로서 진정성⁵³⁾, 완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태적·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보존해 나가기 위함이다.
- 이와 같은 목표는 서원의 건축물 보존관리, 고문서(서적)과 자료의 보존관리, 경관 보전관리,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해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원의 활용과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대상		구체적 목표
서원의 관리 및 활용	건축물	· 서원의 보수 및 정비 활용 등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
	고문서(서적)	· 서원의 기초조사방법과 기록에 대한 사항
	자료	· 서원의 보존정비의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
	경관	· 서원의 수리와 보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에 대한 사항
	안전	· 서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일반적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

서원의 관리 및 활용의 목표

53) 진정성(authenticity)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문화재의 가치가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 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무형적 자산, 기풍과 저서 및 기타 내·외부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통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된 경우에 한한다. 특히 고고학적 유적이나 역사적 건축물, 시가지의 재건축은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재건축은 완벽하고 상세한 기록문건에 기초할 때만 허용 가능하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진정성은 예술적, 창조적 우수성에 관한 것이며 진실과 진짜를 강조하고 있다.(〈세계유산 협약을 위한 운영 지침(가이드라인)〉, 「베니스 헌장」, 「진정성에 관한 나라문서」 등 참조)

1-1-2. 계획의 범위

-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계획의 범위는 기존의 관계 법령 및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⁵⁴⁾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서원의 역사성, 사회적 역할, 기능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존·관리·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 관계법 분석 등 제도적, 재정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한다.
- 계획수립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의 자문, 검토 및 협조를 받아야 한다.

2. 보존관리의 실행체계

- 서원은 건축, 제향, 인물, 고문서, 의례 등 고유한 역사와 전통이 유지되고 있어 종합적 문화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인류의 귀중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서원 건축의 보존·관리는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⁵⁵⁾인 사찰이나 살림집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주형 문화유산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활용빈도가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편이나, 서원은 제향과 강학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서원의 보존이란 단순히 원형 그대로 문화적 상징성을 보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갖고 있던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에야 완전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라는 조화로운 보존관리실행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 현재 서원의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서원보전의 목적을 제시하고 보존 시행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원의 보존관리주체⁵⁶⁾는 법이 제시한 기본 목적과 시행의 틀을 적용하여 보존관리를 실행하는 주체로 서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크게 법에 의해 임명된 주체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주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4) 문화재청, 2011, 서원의 보존관리 메뉴얼,

55)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 :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서 발췌한 용어로 하회·양동 마을과 같이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정주형 문화유산(living heritage)라고 지칭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찰이나 살림집과 같이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유지 관리되고 있는 문화 유산을 정주형 문화유산이라고 지칭하도록 한다.

56) 현재 소수·병산서원은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주체를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다. [서원 운영·존현의례(운영위원회), 양사(선비문화수련원), 시설관리(관리사무소-영주시), 서책·목판보존(한국국학진흥원)]

3. 관리 현황종합

3-1. 관리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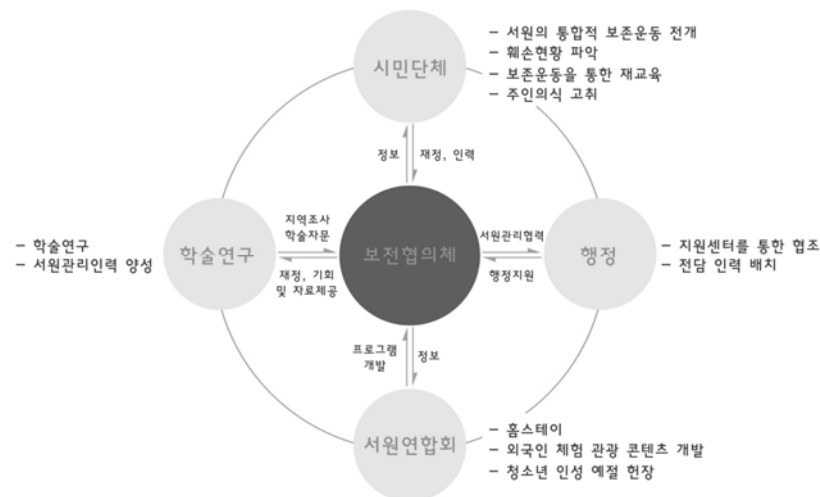
- 소수서원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서원관계자에 이르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문화재청은 국가차원의 관리주체로 서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적의 보존·관리에 관한 상위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
 - 경상북도는 문화유산 보전과 관광사업, 주민복지증진 등의 도정 업무를 통해 서원관리와 활용정책 및 지원에 관여하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비해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를 취한다.
 - 영주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소수서원의 보전관리를 위임 받은 대표적 관리주체로 서원의 유지보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준공공적 성격의 보전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주민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리업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주시는 조례에 따라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관리소를 두어 문화재 관리 및 관광객 관리를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다.
 - 서원에는 소수서원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외부 단체인 부설양사기구와 퇴계학 연구기관 및 단체, 퇴계사상 보급운동단체, 퇴계선생 유족지 유계 등과 연계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3-2. 서원관리체계의 보완점

-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된 소수서원의 보존관리는 사적으로서 개념적으로는 광역보존을 추구하지만 실제적인 보존 및 복원행위는 단위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점적 보수에 집중되고 있다.
 - 사적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주도하는 하향식 보존관리 및 점적·물리적 문화재 중심의 유지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에 위치한 서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참여의 폭이 제한된다.
 - 국가에서 서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문화재를 위주로 복원 및 보수를 위한 부분설계에 한정되어 서원 전체의 계획과 설계가 실행되기 어렵다.
 - 원형보존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어 서원 관리의 불편이 있고 전통경관의 부분적 변형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3-3. 준공공단체 수립의 제안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 영주시, 소수서원 운영위원회, 전문가 및 단체와 행정적으로 유기적인 연계 통로를 구상하여, 소수서원이 갖고 있는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지자체-서원 운영위원회>의 순환적 체계에서 소수서원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도록 재구성 한다. 이를 위하여 준공공단체인 소수서원 보존협의체를 수립하여 관련 집단의 협업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서원보존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보존협의체를 활용한 협업네트워크 구상

- **시 민 단 체** :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의 보존과 관리, 홍보에 대한 전국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자원 보존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자원봉사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원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학 술 연 구** : 소수서원의 학술연구 조직으로는 부설양사기구, 퇴계학 연구기관 및 단체, 퇴계사상 보급운동단체, 퇴계선생 유족지 유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학술연구 조직을 활용하여 소수서원 관리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한다. 역사보존, 관광, 홍보 등 서원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해 보전협의체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 **행 정** : 해당 지자체인 영주시청 내에 보전협의체 지원센터를 두고 서원 관리와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한다. 공무원과 보전협의체의 긴밀한 행정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원관리 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킨다.
- **서원연합회** : 선비문화를 체험하도록 홈스테이를 겸한 외국인들의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청소년들의 인성예절 현장기능, 가족단위의 새로운 여가문화 제공 등을 통하여 서원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담당한다.

3-4. 준공공단체 수립의 전제 조건⁵⁷⁾

- 서원의 보존·활용계획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협의체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을 주체, 대상, 주체와 대상이 구성하는 체계로 정의하고 그 기본 목표와 내용을 분석한다.

요소	기본 목표	내용
주체	활동의 모체가 되는 조직의 확보	역사유산의 이해 / 활동의욕
	행정의 협동체계	교육 / 주체 활동의 지원 / 계획의 수립
대상	정주환경의 지속성	생활환경 보전 및 향상 / 경제적 기여
	문화유산의 지속성	자원의 발굴 / 재인식 / 보존
	방문객 만족도의 지속성	한대의식 / 정보제공 / 쾌적한 환경
체계	정보공유와 협동체계 정비	정보 및 정책결정의 공유
	수익환원 체계 형성	관광 수익에 의한 자원 확보
	모니터링의 결과 반영	관광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계획 요소

3-4-1. 주체

- 소수서원의 보존 및 활용을 계획하고 실현시킬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이 조직한 운영위원회를 포함하는 보전협의체가 중심역할을 하며, 향후 필요한 실무인력과 공무원, 전문가의 참여 및 지원을 확보한다.
- 보존·활용에 관련된 서원의 조직은 서원의 역사유산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여 서원관광의 계획과 실무에 의욕적인 활동을 보일 것이며, 서원 외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협조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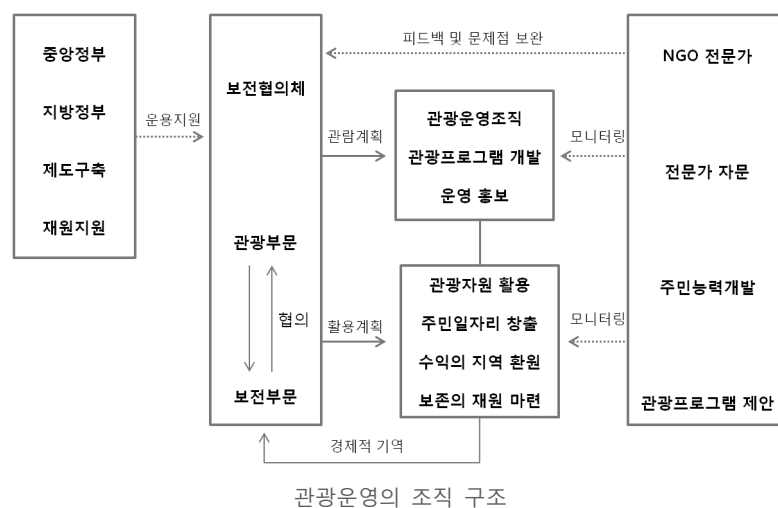
3-4-2. 대상

- 소수서원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의 기본적인 목표는 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하고, 고유의 문화적 지속성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서원 방문객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 현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여 쾌적한 환경과 한대 속에서 방문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

57)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Appendix2. 보전관리 계획), 문화재청, 2008년, 인용 및 활용

3-4-3. 체계

- 소수서원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원의 보전협의체에 주민 참여를 더욱 확장하고, 관람 자원을 관리할 운영조직을 갖춘다.
- 보존협의체 내에서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원에서 진행할 관광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서원의 보존·관리프로그램과 운영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할 예산을 뒷받침할 관람수익을 확보하는 경제 구조를 갖춘다.
- 정부는 보전협의체와 관람운영조직이 조직되어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보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초기 재원을 지원한다.



3-5. 준공공단체 조직 구성

3-5-1. 보전협의체

- 보전협의체는 소수서원 운영위원회가 보전·활용에 대한 초기 기획과 내용을 제안하고 향후 보전협의체 내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보전협의체는 참여하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결을 통하여 보존·관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행한다.

	주요 활동 내용
보전협의체	연간 관광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관광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주요 보직의 임명
	관광운영조직의 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관광 프로그램의 모니터 인력의 채용, 모니터링 결과의 승인
	관광객의 방문에 응대하는 방법과 태도, 권리 등에 대한 주임 교육
	관광 수익의 관리 및 서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

보전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

3-5-2. 관광운영조직

- 관광운영조직은 관광 실무의 실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소수서원은 운영위원회가 관광운영조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보전협의체가 운영위원장(Director), 학예사(Curator) 2~3인, 사무국장(Office Manager), 감사(Auditor)를 임명하며, 운영에 필요한 다른 인력은 학예사와 사무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고용하도록 한다.

	주요역할
관광운영조직	연간관광 계획의 작성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문화자원의 발굴과 개발
	관광 운영인력의 고용과 교육
	관광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
	방문객 서비스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이용 요금 등의 징수
	폐기물, 하수, 쓰레기 등의 처리
	방문객의 안전확보, 문화유산의 보안, 훼손 예방 및 관리
	관광 홍보

관광운영조직의 주요 역할

3-5-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보전협의체와 관광운영조직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주요내용	상세내용
문화재청	재원 지원	서원환경의 개선, 문화재의 복원 및 보수, 전시시설 설치
	교육 지원	직원들에 대한 문화재 관련 교육 실시
	제도 마련	관광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제도 마련
경상북도 영주시	인력 지원	문화재 담당공무원, 관광 담당공무원, 보전협의체와 연계
	행정 지원	관광운영조직 구성, 법적 자격 취득에 관한 행정적 지원
	교육 지원	서원보존·활용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능력개발에 대한 기회 및 교육 지원
	재원 지원	초기 운영 재원 지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역할

4. 활용계획⁵⁸⁾

4-1. 소수서원 활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사용

- 소수서원은 제향과 교육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지어진 건물로서 각각의 공간에는 거기에 맞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서원 건물을 사용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공간이 갖고 있는 내포적 의미를 고려하여 알맞은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문성공묘, 재실, 전사청의 활용 : 제향 인물에 대한 향사
- 강학당, 재실의 활용 : 서원과 집단학습을 목적으로 한 예절교육 등
- 일신재·직방재, 학구재, 지락재의 활용 : 서원 숙박체험

프로그램 유형		활용공간	활용내용
교육의례	제향	문성공묘, 재실, 전사청	제향인물에 대한 향사
전통교육	한자교실	강학당, 경험정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예절교실	강학당, 일신재·직방재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습
답사	동아리 학습	강학당, 학구재	취미나 학습 동아리 활동
	한옥 체험	재실, 지락재	전통 한옥 휴게 체험
	현장 답사	소수서원 주변 경관	소수서원의 역사·건축·경관 답사
관광 및 홍보	전시 공간	소수박물관 및 선비촌	소수서원의 역사·건축·경관 답사

서원의 프로그램 및 활용

- 또한 기형성된 소수박물관과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을 활용하여 소수서원내에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행사 등을 파악하여 알맞은 활용법을 강구해야 한다.

58)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1, 인용 및 발췌

4-2. 활용 방안⁵⁹⁾⁶⁰⁾

4-2-1. 개요

-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지역의 교육, 장서, 문화의 중심역할을 했던 소수서원이 개화기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 서원이 지니고 있던 일부 기능이 소멸되었으나 서원 주변의 경관과 함께 서원 내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건립 당시 혹은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원의 경우 변화에 대해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정받지 못한 서원은 주변경관 및 서원 내 경관이 크게 변형되고 있다. 소수서원의 경우 사적 제55호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보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 소수서원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한국을 넘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서원의 교육기능과 장서 기능은 소멸되고 향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원이 현대사회에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잘 보존하여 전승해야하며, 소수서원만의 전통적인 가치를 현대사회에도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발해야 한다.

4-2-2. 소수서원의 유교문화 활용 소재

1) 문화브랜드 가치 활용

- 수백년간 지속되어져온 서원의 전통문화유산은 긴 세월동안 서원에 전해지는 역사,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의 유·무형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적인 도서출판, 의례, 청치 등 복합적 문화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공간까지 잘 남아 있다. 서원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교육 기능을 되살리고,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을 현대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소수서원의 출신인물, 제향인물을 대상으로 문화제 또는 유교문화 종합축제를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한다. 소수서원만의 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적의 진정성을 이용하여 장소를 완벽하게 조선시대로 재구성화 할 수 있다.
-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유교문화를 체험 해 볼 수 있는 이벤트 효과가 있으며 정적인 서원문화의 이미지를 다소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원인 소수서원을 보고 듣기만 하는 간접적인 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과 주변 경관을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답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수서원으로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한다. 향후에는 소수서원이 기존부터 갖고 있던 교육적·체험적·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하고 현대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도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59) 서원보존정비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문화재청, 2010) 정리·인용 - 이해준, 김덕현, 이왕기

60) 서원·전통사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증진 연구 - 국가브랜드위원회

2) 지성사의 거점 기능

-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으로 서원을 대표하는 유교문화 유산이며, 성리학을 도입한 회헌 안향과 주세붕, 근재 안축, 안보라는 성리학자의 제향, 한국 서원 교육, 역사 변천의 증거물, 거점공간으로서 활용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제향 인물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역사, 철학, 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들 공간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한국, 더 나아가 동양의 역사와 사상 및 철학을 배우는 교육과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향의례의 전통

- 소수서원의 유교의 예(禮)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의례화 된 곳이다. 이들 의례는 예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밝히고 후대에 널리 전승하는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4) 지역 정체성 확립

- 소수서원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공동체를 확립하는데도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해는 곧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기시키는데 유용하다. 또한 서원의 강학례의 원래 목적 지역 사람들의 결집을 강화하는 의례였던 만큼, 그러한 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시행한다면 소수서원이 지역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통 교육 공간의 유산적 가치

- 소수서원의 대표적 기능인 전통교육(강학)문화의 체험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현재 서원이 전통문화의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서원 자체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활용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6) 활용가능 콘텐츠

- 긴 세월을 이어온 교육, 의례, 운영기록문서
 - 학칙규약의례 : 원규, 절목, 계(약)헌, 홀기, 의례
 - 교육, 성적기록 : 강안, 강회록, 고강록, 장서, 출판
 - 재정, 운영 전답안, 노비안, 명문
 - 창건, 연혁기록 : 상량문, 창건통문, 중수기, 중기, 수리기, 공적비
 - 학맥, 정치 : 통문, 소청, 시도기, 고왕록, 시회 등
- 소수서원의 문화적 재활용은 이러한 본연의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역사적 의미와 변천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으며, 서원의 다양한 역사문화원형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도입하여 박제화 된 문화재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재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4-2-3. 소수서원의 활용방안

1) 건물별 프로그램

- 소수서원은 과거 지성인들의 집회소로 선비문화의 공간이었으며, 제향을 비롯한 의례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수서원의 특성이 부각된 소재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 방문객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직접 체험해 보면서 소수서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① 경림정(景濂亭)



스크린 예시 -1



스크린 예시 -2

- 경림정은 원생이나 유생들이 자연을 벗 삼아 회합이나 시회를 열어 풍류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던 공간이었다. 이곳에 소수서원을 안내하는 영상·홍보시스템을 경림정에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날씨가 허용되는 날에는 죽계천이나 경자암에 영상을 비추어 소수서원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 한다.
- 영상물은 중심 주제를 건축물, 제향인물, 경관, 제향·교육의례, 정신과 사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초중등, 일반인, 전문가, 외국인용으로 나누어 다양한 콘텐츠를 방문객이 선택하여 영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문객은 상영되는 영상을 통해 소수서원의 개략적인 역사와 자신이 방문해야 할 건축물의 위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② 지도문(志道門)



지도문

- 소수서원의 교훈이자 학문의 목표인 '경이직내 의이방외(敬以直內 義以方外: 경으로써 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 글귀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이해한다.
- 지도문을 통과할 때 '경이직내 의이방외'를 나직이 외치도록 한다.

③ 강학당(講學堂)



강학당

- 월 : 자유 토론 (원탁토론)
- 화 : 자유 토론 (원탁토론)
- 수 : 유림 토론 (유림 자체 토론 방식)
- 목 : 자유 토론 (원탁토론)
- 금 : 시장·국회의원과의 대화 (공청회 방식)
- 토 : 초/중/고등 학생 토론(정책 결정 모형 방식)
- 일 : 일반인 토론(정책 결정 모형 방식)

요일별 토론 주제 예시

- 강학당은 소수서원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학문을 강론하던 장소이다. 이곳은 학구재, 지략재에서 배운 시조교육을 토대로 방문객이 창작한 시와 시조를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든다.
- 이와 함께 현재 정부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이곳에서 토론된 종합 내용은 소수서원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되고, 이는 소수서원 민중의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토론주제 예시

- 초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 지방상수도 개선문제와 지하수 오염
- 대기업 규제완화
- 연금 개혁의 정당성
- 인천공항 민영화
-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 18세 선거권에 대한 문제



※ 원 탁 토 론 : 제시된 주제를 여러 조로 나누어 의견을 모은 후, 패널을 선정하여 패널들로 하여금 패널 토의를 하게하는 방식

※ 정책 결정 모형 방식 : 경쟁적 대회 모형으로 만든 토론 방식찬성 1입론(8분) - 반대 2심문(3분) - 반대 1입론(8분) - 찬성 1심문(3분) - 찬성 2입론(8분) - 반대 1심문(3분) - 반대 2입론(8분) - 찬성 2심문(3분) - 반대 1반론(4분) - 찬성 1반론(4분) - 반대 2반론(4분) - 찬성 2반론(4분)

- 소수서원 홈페이지에 주 단위로 패널 예약을 받아 토론에 참여시키며, 예약하지 않은 일반관광객들은 관중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학구재(學求齋)·지락재(至樂齋)



학구재



지락재

- '학문을 구한다'는 뜻의 학구재와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의 공간'이라는 뜻의 지락재는 유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기숙사와 같은 곳이다. 유생들이 강의를 들던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시조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시조교육은 시조의 특징(문학성, 시대정신, 밝은 심성, 작가정신)과 형식(3장 6구 12음보, 기승전결), 율격(초장, 중장, 종장)에 대해 배운다. 방문객은 시조교육을 통해 조상들의 얼과 우리의 멋을 배우게 되고, 바른 인성 함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시조교육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어울리는 주제로 계획하여 계절별로 변화되는 소수서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

⑤ 일신재(日新齋)



일신재



목판체험 예시



붓글씨체험 예시

- 일신재는 교수와 유사들의 집무실 겸 숙소로 몸과 마음을 나날이 새롭게 함을 뜻하는 장소이다.
- 방문객은 소수서원 답사를 통해 알게 된 유명한 글이나 구절, 기억에 남는 구절을 현판(목각)에 새기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함께 공간의 의미를 담아 주말에는 일신재·직방재 앞마당에서 무료로 가훈과 좌우명 등 글귀를 써주는 재능기부 행사를 진행한다.

⑥ 직방재(直方齋)

- 직방재는 원장의 집무실 겸 숙소로 마음과 행실을 곧고 바르게 닦음을 뜻하는 장소이다.
- 이곳을 방문객이 안내영상과 답사를 통해 알게 된 소수서원의 정신과 사상, 건축물, 제향 교육의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퀴즈) 장소로 활용한다.



직방재

- 진행방식은 관리자(유림 또는 문화해설사)가 다양한 문제가 적혀있는 종이가 담긴 대나무 통을 제시하면, 참가자는 종이를 선택한 후 꺼내어 문제를 풀게 된다. 참가자가 3문제 이상 문제를 맞히게 되면, 향후 제월루(霽月樓: 유생들이 식사를 하던 곳)가 재현되면 제월루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식혜, 수정과 등)쿠폰을 지급한다.

⑦ 장서각(藏書閣)



장서각

- 장서각은 서원의 서적과 서원에서 출판한 판각들을 보관했던 곳이다. 실제로 운영되었던 모습을 재현하여 선인들의 학문정신을 이해하고, 목판인쇄체험·전통 옛 책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그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체험 프로그램		
1		[과거 서원의 도서관 재현] : 장서각의 옛 모습을 재현하여 방문객이 직접 관찰하면서 현장감과 생동감, 그리고 당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2		[목판인쇄 체험] : 붓에 먹물을 묻혀 목판에 바른 뒤, 한지에 찍어내는 목판인쇄 체험은 흥미로운 경험과 함께 선인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다.
3		[전통 옛 책 만들기 체험] : 전통기법을 이용한 전통 옛 책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색감과 이미지를 조합한 사진첩, 수첩, 그림책, 달력 등을 만들 수 있다.

⑧ 충효교육관(忠孝教育館)

- 충효교육관은 학술 세미나 및 연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 소수서원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통유교 제향 의례' 프로그램, 소수서원에 봉안되어 있는 선현들(회헌 안향, 안축, 안보, 주세붕)과 그들의 학풍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충효관은 추후 효문화진흥원 내부로 이전하지만 충효관 이전 후에도 연계방안을 마련한다.

⑨ 포토존 설치

- 소수서원 입구와 휴게영역 곳곳에 소수서원만의 차별화된 포토존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수서원 입구에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디지털 영상 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생복을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접 찍은 사진을 소수서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조회 건수에 따라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기념품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 포토존 설치에 방문객이 소수서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소수서원을 홍보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토존 예시

4-2-4. 문화 프로그램

1) 소수서원 선비길 걷기

- 소수서원 내부에는 관련 유적이 곳곳에 있으며 소수서원 선비길 걷기는 참가자가 유생복 차림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둘러보며 선비들의 발자취를 직접 걸으며 느껴볼 수 있다.
- 소수서원 선비길 걷기는 제향때 제관들이 손을 씻던 '관세대(冠洗臺)'와 관슬불을 켜 놓았던 돌기둥인 '정료대(庭燎臺)'를 시작으로, 유생들이 공부하며 머리를 식혔던 '소혼대(消魂臺)'를 거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던 터인 '성생단(省牲壇)', 맑은 연못으로 경내의 작은 죽계천인 '탁청지(濯淸池)', 퇴계 이황 선생이 명명했다는 '광풍정(光風亭)'과 '광풍대(光風臺)'를 지나 경(敬)과 백운동(白雲洞)이라는 글씨가 음각된 돌출된 바위 '경자(敬字)바위'로 이어지는 1시간 코스로 이어진다.



주요 경관요소



스탬프 예시



죽계천



백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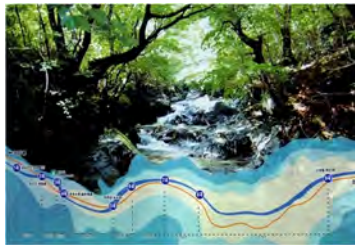


탁청지

- 참가자는 <소수서원 선비길 걷기 스탬프 노트>를 갖고 정해진 코스를 방문한다. 해당 코스에 도착하게 되면 관련 유적을 상징하거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탬프가 있고, 그것을 노트에 직접 찍으면서 코스를 완주하게 된다. 전체 코스를 완주하게 되면 기념품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 참가자는 소수서원 선비길 걷기에 참여하면서 옛 선비들의 열과 행적을 함께함과 동시에 방문했던 곳을 흥미롭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2) 죽계구곡(竹溪九谷) 이야기길

- 『죽계지』와 『흥주지』에는 상류의 백운동 취한대(1곡)부터 소백산 중봉합규(9곡)까지 죽계구곡(竹溪九谷)이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옛날 퇴계 이황 선생이 계곡의 절경에 심취하여 물 흐르는 소리가 노래 소리 같다하여 각 계곡마다 걸맞은 이름을 지어주며 죽계구곡이라 불렀다.
- 죽계구곡은 배점리에서 초암사에 이르는 계곡으로 영주시의 대표적인 구곡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생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문화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 기록에 나타나는 구곡에 이야기를 구성하여 탐방코스를 제공한다. 이는 옛 선현의 발자취와 역사의 향기를 느끼며 공간에 의미를 갖게 함과 동시에 영주시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가 탐방코스를 완주하게 되면 기념품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죽계구곡 예시

3) 각종 대회 개최

- 과거 서원은 지성들의 집회소로 젊은 인재들이 강론과 학문을 토론하던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성사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소수서원이 전국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대회를 개최한다.
- 예) 전국청소년 소수서원 토론대회, 시낭송경연대회, 백일장(글짓기)대회, 사생대회, 유림한문 경시대회, 서예대회, 선비선발대회, 사진촬영대회 등



대회 예시

4) 소수서원 유생 자격증

- '소수서원 유생 자격증'은 소수서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 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소수서원 유생 자격증			
1차	교육과정	① 현장답사교육	소수서원 및 관련 유적 답사
		② 유교문화교육	유학 및 충효사상, 소수서원 배향인물
		③ 선비문화교육	선비에절 및 전통생활문화 체험
		④ 문화예술교육	시조, 서예교육
2차	필기시험 (논의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필기시험 자격 부여 - 시험 성적은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의 4단계로 나누어지며, 약(略) 이상이면 3차 시험 자격이 주어짐 - 소수서원이 개최하는 각종대회입상자는 가산점이 부여됨 ※필기시험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논의가 필요 필기시험을 생략할 시 1차 교육과정에서 출석을 등으로 체크 	
3차	면접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면접시험 자격 부여 - 소수서원 유림과 대화 후 최종 합격발표 	

-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소수서원의 명예 유림으로 인정받게 되고, 의복지급과 함께 소수서원의 정기 의례에 유림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다.
- 특히 소수서원 유생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초·중·고교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되고, 상급학교 진학 및 대입 입시원서 작성 시 특별활동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자격증 제도는 참가자에게 소수서원의 이해와 시대정신의 계승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와 참의미를 되살릴 수 있으며, 유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결연학교 연계

- 유교문화 중 특히 선비정신의 전승을 위해 서원제례와 유학교육을 권장하며, 초·중·고·대학과 결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선비정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선비문화 체험을 통해 선비의 정신과 그 삶의 모습을 살피고, 그들의 가치 있는 정신세계의 유산을 오늘에 되살릴 수 있는 실천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전통예절 교육을 통하여 전통의례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수료생은 수료증 (전통예절교육원장)과 예절사자격증(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을 수여 받는다. 소수대학을 설립하여 소수서원 부설 교육원으로 정신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수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인간 본성 개발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각 대학연구소와 연계할 수 있으며 각종 학술행사 유치, 교육청과 연계하여 보다 넓은 계층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소수서원 부설 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소수서원 부설 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전통예절교육원	·의례와 생활(현대 일반 예절) ·생활인의 교양(기계와 보화 등) ·전통관·계례 및 성년례 의미와 이론 및 실습 ·전통 및 현대 혼례 의미와 이론 및 실습 ·다도 및 음식 예절 ·전통 예절과 생활 사례 ·전통 및 현대 제례 의미와 내용 및 실습 ·현대 생활 예절 및 언어 예절 ·전통 및 현대 상례 의미와 내용 및 절차와 실습 ·전통 유가 견학(전통 및 현대 예절과 생활 사례) ·미래의 예절(미래에 활용할 예절 사례)
소수대학	·성학십도의 강해·독송 ·안향 선생의 활인심방 실수 ·정좌거경 ·소요유 ·검기 명상

6) 성리학 외국어교실

- 소학 등을 외국어로 강의하여 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 과거 유학을 강연하던 서원을 현대사회의 흐름에 발 맞춰 외국어 강연을 주최한다. 우선 성리학의 이해를 위하여 한글, 한문으로 선행학습을 시행하고 성리학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뒤 외국어로 번역된 교재로 강연을 시행한다.
- 외국어의 경우 최근 부상하고 있고 성리학의 본고장인 중국, 해외 공용어로 다수 사용되고 있는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교재를 참고하여 성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외국어로 시행한다.

7) 문화행사 개최

- 서원은 유생들이 학문에 힘을 쓰며 수양을 하던 공간이면서도, 때로는 학문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아 회합이나 시회를 열어 풍류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던 공간이기도 했다. 이는 서원이 자체적으로 이미 적절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서원을 유식(遊息) 공간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 및 개최할 수 있다.

→ 예) 소수서원 정기음악회, 과거재현 행사, 제향 봉행 등



문화행사 예시

8) 교육·강연 프로그램

- 과거 서원은 민족교육의 산실이자 유교적 인재 배출의 요람으로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있는 곳이다.
- 이러한 소수서원의 본래적 가치가 새로운 시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강연 프로그램을 정기/비정기 형태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 이때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수서원의 특성이 부각된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여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
유교문화마당	유학, 충효사상, 전통생활문화, 선비예절, 인성교육, 제향 의례
문화예술교육	시조·가사·가곡 교육
현장답사	소수서원 및 유적지 답사, 소수서원 배향인물연구
전문 인력 양성교육	유학 지도자 양성과정,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정

4-2-5. 체험프로그램 활용범위 분석

- 소수서원 및 선비촌, 소수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향후 시행할 활용계획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활용계획			연령별									
활용과목	활용공간		0~10	11~15	16~20	21~25	26~30	31~40	41~50	51~60	61~70	70세 이상
소수서원	제향	문성공묘		○	○	○	○	○	○	○	○	○
	한자교실	강학당, 경림정	○	○	○	○	○	○	○			
	예절교실	강학당, 일신재·직방재	○	○	○	○	○	○				
	동아리 학습	강학당, 학구재		○	○	○	○	○	○	○	○	○
	한옥 체험	재실, 지락재	○	○	○	○	○	○	○	○	○	○
	현장 답사	소수서원 주변 경관	○	○	○	○	○	○	○	○	○	○
	전시 공간	소수박물관 및 선비촌	○	○	○	○	○	○	○	○	○	○
선비촌	붓글씨쓰기	김상진가옥	○	○	○	○	○	○	○	○	○	○
	서당체험, 과거시험	강학당	○	○	○	○	○	○	○	○	○	○
	전통수공예품	두암고택	○	○	○	○	○	○	○	○	○	○
	전통음식 만들기	인동장씨종가	○	○	○	○	○	○	○	○	○	○
	우리악기 연주하기	정사	○	○	○	○	○	○	○	○	○	○
	베를짜기	장휘덕가옥	○	○	○	○	○	○	○	○	○	○
	짚신 명석만들기	김규진가옥	○	○	○	○	○	○	○	○	○	○
	퀴즈선비촌	이후남가옥	○	○	○	○	○	○	○	○	○	○
	관례	김상진가옥	○	○	○	○	○	○	○	○	○	○
	혼례	해우당고택	○	○	○	○	○	○	○	○	○	○
	상여행렬	저잣거리	○	○	○	○	○	○	○	○	○	○
	제례	인동장씨 종가 사당	○	○	○	○	○	○	○	○	○	○
	선비문화 마당놀이	주말상설공연 선비촌 특설무대	○	○	○	○	○	○	○	○	○	○
소수박물관	기획전시	기획전시장	○	○	○	○	○	○	○	○	○	○
	탁본체험	상설전시장 일부	○	○	○	○	○	○	○	○	○	○

강의 프로그램별 분류		연령별									
		0~10	11~15	16~20	21~25	26~30	31~40	41~50	51~60	61~70	70세 이상
성리학 강연	천자문	○	○	○	○						
	소학	○	○	○	○						
	도덕, 윤리교육	○	○	○	○	○	○	○			
	인문교육		○	○	○	○	○	○	○	○	○
	성리학 외국어강의	○	○	○	○	○	○				
	시조교육		○	○	○	○	○	○	○	○	○
관혼상제	관례			○	○						
	혼례		○	○	○	○					
	상례	○	○	○	○	○	○	○	○	○	○
	제례	○	○	○	○	○	○	○	○	○	○
삼강오륜	군위신강						○	○	○		
	부위자강	○	○	○	○						
	부위부강				○	○	○	○	○	○	○
	부자유친	○	○	○	○	○	○	○	○	○	○
	군신유의					○	○	○	○	○	
	부부유별					○	○	○	○	○	○
	자유유서	○	○	○	○	○	○	○			
	붕우유신	○	○	○	○	○	○	○	○	○	○
토론	초·중·고 토론	○	○	○							
	일반인 토론				○	○	○	○	○	○	○

-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내에서 연령대별로 강연할 수 있는 주제별로 참여하는 연령대가 구분된다.
-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소학, 천자문 등의 성리학의 기초적인 분야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에 결여되고 있는 인문교육 및 윤리, 도덕교육의 경우 자아가 형성되는 초·중·고·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장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성리학 외국어 교육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강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연령, 수준별로 분류하여 눈높이에 맞는 강연에 참여토록 한다.
- 관혼상제, 삼강오륜의 경우 직장생활을 하는 연령대에서부터 영유아, 초·중·고·대학생, 사회 초년생,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강연을 시행한다.

4-2-6. 건물별 체험 분류

- 소수서원 및 선비촌, 소수박물관의 활용계획을 건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별 프로그램		연령별									
건물명	활용내용	0~10	11~15	16~20	21~25	26~30	31~40	41~50	51~60	61~70	70세 이상
경림정	영상상영	○	○	○	○	○	○	○	○	○	○
지도문		○	○	○	○	○	○	○	○	○	○
강학당	강의, 토론회 주최	○	○	○	○	○	○	○	○	○	○
학구재지락재	시조교육	○	○	○	○	○	○	○	○	○	○
일신재	목판체험	○	○	○	○	○	○	○	○	○	○
직방재	퀴즈대회	○	○	○	○	○	○	○	○	○	○
장서각	목판체험	○	○	○	○	○	○	○	○	○	○
교육관	강의	○	○	○	○	○	○	○	○	○	○

4-2-7. 프로그램별 분류

- 소수서원 및 선비촌, 소수박물관의 활용계획을 건물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프로그램	연령별									
	0~10	11~15	16~20	21~25	26~30	31~40	41~50	51~60	61~70	70세 이상
소수서원 선비길 걷기	○	○	○	○	○	○	○	○	○	○
죽계구곡 이야기길	○	○	○	○	○	○	○	○	○	○
각종대회개최	○	○	○	○	○	○	○	○	○	○
문화행사 개최	○	○	○	○	○	○	○	○	○	○
교육강연프로그램	○	○	○	○	○	○	○	○	○	○
소수서원 유생자격증	○	○	○	○	○	○	○	○	○	○
강의, 토론회 주최	○	○	○	○	○	○	○	○	○	○
시조교육	○	○	○	○	○	○	○	○	○	○
목판체험	○	○	○	○	○	○	○	○	○	○
퀴즈대회	○	○	○	○	○	○	○	○	○	○
목판체험	○	○	○	○	○	○	○	○	○	○
강의	○	○	○	○	○	○	○	○	○	○

- 이외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통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소수서원을 보다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가진 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4-2-8. 기대효과

- 소수서원의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서원 문화재를 지역 사회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자리매김 할 수 있다.
- 도덕과 지성, 교육의 장이었던 서원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정신문화와 도덕성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유치부,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 소수서원의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소수서원은 세계적인 문화자산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가 될 수 있다.
- 소수서원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시켜 서원에 관심 있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소수서원으로 결집시키고, 지역문화자원 즉 관광요소와 연계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향후 소수서원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경제의 활성화, 다양한 직업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5. 홍보방안

- 소수서원은 이미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으나 소수박물관과 통합하여 제작되어 있다.
- 리플렛(leaflet) 및 행사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5-1. 홈페이지 제작

- 현재 소수서원의 홈페이지는 소수서원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소수서원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으로 귀중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따라서 소수서원 공식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소수서원의 가치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다.
- 홈페이지는 소수서원의 기본 정보와 프로그램, 행사 안내, 방문객 후기 게시판 등으로 구성하며, 향후 홈페이지가 활발하게 이용된다면 더 많은 홍보효과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5-2. 소수서원 안내자료

- 소수서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와 도움을 주기 위해 소수서원의 역사와 소개, 자연경관을 수록한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소수서원 관람을 위한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이 책자는 방문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추천코스를 소수서원 안내도와 함께 수록하여, 방문객이 원하는 코스를 직접 선택하여 소수서원을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소수서원 추천코스	
A. 서원 둘러보기 코스	경렴정 → 지도문 → 강학당 → 문성공묘 → 관세대·정료대 → 장서각 → 전사청 → 영정각 → 직방재·일신재 → 학구재 → 지락재 → 사료관 → 고직사 → 충효교육관 → 소훈대 → 성생단 → 탁청지 → 광풍정·광풍대 → 경자바위
B. 가족 나들이 코스	경렴정 → 지도문 → 강학당 → 문성공묘 → 직방재·일신재 → 장서각 → 충효교육관 → 소훈대 → 성생단 → 탁청지
C. 체험이 있는 코스	경렴정 → 지도문 → 강학당 → 문성공묘 → 직방재·일신재 → 장서각 → 충효교육관 → 죽계구곡 이야기길
D. 선비길 걷기 코스	경렴정 → 지도문 → 강학당 → 문성공묘 → 학구재 → 지락재 → 소수서원 선비길 걷기

- 안내서에 수록된 내용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방문객을 위해서 대상에 맞는 책자를 발간하고 기념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소수서원 관련 서적
유아·초등학생	소수서원의 역사와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제작
청소년	소수서원 및 유학에 대한 교육용 해설서 제작
일반인	서원과 유교정신의 가치와 필요성이 공감 가능한 교양서 제작
전문가	서원에 대한 교육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전문서 제작

5-3. 음성안내시스템 도입

- 디지털 음성정보기·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음성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수서원의 다양한 이야기(서원의 입지 및 배치의 특징, 성리학적 가치관·세계관·자연관이 반영된 건축구도의 의미, 성리학자들의 천인합일 사상 등)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작하여 흥미롭고 수준 높은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외국 방문객에게 제공한다.
- 음성안내시스템은 방문객에게 혼잡한 관광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여유롭게 소수서원을 관광하면서 서원이 지닌 문화재적 가치와 참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음성안내는 소수서원의 입구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코스까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한 동선 설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험하며 전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는 방문객에게 이야기로 가득 찬 소수서원의 이미지를 획득하게 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관광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게 되어 재방문과 신규 관광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5-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 소수서원을 소개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소수서원의 기본 정보를 안내하고 자체 행사 안내 및 체험프로그램도 연계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그 뿐 아니라, 안내 사진 및 추가 관광 정보를 담고, GPS를 통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변 상권과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안내를 돕기 위해 영어·중국어·일어 등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각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각종 인쇄 매체 등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QR코드를 이벤트 등과 접목하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개발한다.
- QR코드로 접속하여 소수서원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링크할 수 있게 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소수서원 QR코드 예시

5-5. 소수서원 E-BOOK 제작

- 관람객들에게 서원에 대한 친숙함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선 서원을 관람하기 전에 사전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서원의 역사, 사건, 인물 등을 기록하여 E-BOOK으로 제작한다. 또한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재되어 있는 소수서원의 책판, 목판 등을 국역화 하여 E-BOOK으로 제작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소수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수서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교육, 체험 등에 대한 사항을 월간지로 발행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개인 소셜 미디어나 SNS, 블로그 등에 탐방 수기를 올린 사람에게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BOOK 예시

Ⅶ.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2. 사업투자계획



V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방향

1-1. 기본방향

- 사학기관으로서 건립 당시로부터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정신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영향과 현대적 변용을 고려한 종합정비계획이 되도록 한다.
- 소수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해당 사적을 포함한 주변 자연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소수서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사업시행시기의 조정을 통하여 특정기간에 개발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문화재청과 영주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함은 물론 장래 관광여건의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세부사업추진에 있어서 문화재청 및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 종합정비계획의 실행을 위해 현재 토지이용 현황과 장래 관광수요, 시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수립한다. 공사비는 단계별, 공정별로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시설의 집약적 구성과 공간별 사업시행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소수서원 주변에서 이루어질 일부 개별사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필연적으로 현상변경을 초래하게 되며, 현상변경이 초래하더라도 무분별하지 않고 기본계획안에서 유적과 조화로우며, 최대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1-2. 단계별 추진방향

- 전체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업의 추진은 정비의 우선순위 및 투자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단 계	사업 내용	
1단계	건축물정비	일부 훼손된 건축물에 대한 보수 정비
	주차장 정비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주차면적 확충
	편의시설정비	관람편의를 위한 제반시설의 정비
	소방방재시설 보완	소화시설 외관 정비, CCTV교체
	식생정비	기 조사된 소나무 이외의 식생조사 및 정비, 유지관리
	원촌지 재현도 정비	현재 철거되어 사라진 원촌에 대한 정보를 안내판에 기입하여 설치
	활용계획 개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서원활용프로그램 개발
2단계	제월루정비	소수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을 위한 정비, 발굴 및 학술조사 실시
	숙수사지 야외전시장	방치되어 있는 숙수사 유물을 보관, 전시하여 유물 보존
	충효교육관 및 사료관 철거	소수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을 위한 정비
	특산물공판장 리모델링	관리사무공간을 위한 리모델링
	고직사 이건	소수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을 위한 정비
3단계	제월루 실시설계	발굴조사 및 학술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제월루 재현을 위한 실시설계
	동선정비	제월루 재현으로 인한 과거 소수서원 진입로에 대한 규명 및 재현
	죽계천 정비계획 시행	죽계천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을 철거하고 원형으로 환원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를 수용하여 우수한 실행모델을 완성하고, 소수서원 외곽지역은 과거 소수서원 옛길 재현 등 유적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보다 경관 복원사업을 우선시하여 운영한다.
- 추가적인 사업은 제반여건 개선 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기간구분은 민전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에 따라 단계별 계획을 실시한다.

구분의 기준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식
사업소요시간
필수사업과 부차적인 사업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기준

1) 1단계 : 2016년~2017년

■ 정비 선정의 기준

- 재원마련이 용이하거나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분야
- 사업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초기 추진단계 부터 시작

■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건축물정비 : 기반정비, 지붕정비, 단청정비 및 기타(마당 및 굴뚝 등)
- 주변정비 : 주차장 정비, 관람편의시설 정비, 소방 방재시설 정비
 - 관람편의시설 : 벤치 설치, 탐방로 정비,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야간조명시설 등
- 식생정비 : 현재 소수서원 영역 소나무만 조사된 상황이므로 이외의 식생조사
- 원촌지 재현도 설치
- 서원활용계획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 본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설계 실시

2) 2단계 : 2018년~2019년

■ 정비 선정의 기준

- 1단계 연장선의 사업
- 유적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선행되어야 할 사업
- 재정조달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

■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제월루재현 : 소수서원의 진정성과 완전성 회복을 위한 정비, 발굴 및 학술조사 실시
- 숙수사지 유물전시장 정비
- 경관정비 : 충효교육관 철거 및 이건, 사료관 철거, 관리사무소 이용을 위한 특산물공판장 리모델링
- 고직사 해체, 사·발굴조사 및 이건

3) 3단계 : 2020년 이후

■ 정비 선정의 기준

- 서원 정비 및 보수가 이루어진 이후 필요한 사업
- 재정조달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업

■ 대상사업과 추진방안

- 제월루 재현 : 발굴조사 및 학술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제월루 재현을 위한 실시설계
- 죽계천 정비 : 죽계천 원형 회복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 동선정비 : 제월루 재현 이후 과거 소수서원 진입로에 대한 규명 및 재현

2. 사업투자계획

2-1. 사업내용별 투자계획

- 전체사업의 일괄 실행은 불가하므로 시기별·단계별 추진을 통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도록 한다.

단계	항목	사업내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1단계 (2016년 ~2017년)	건축물정비	건축물정비		1	식	225,000,000	225,000,000	별표1에 상세사항표기
	주변정비	주차장바닥 및 화단정비		1	식	625,700,000	625,700,000	별표2에 상세사항표기
		편의시설 정비		1	식	405,200,000	405,200,000	별표3에 상세사항표기
		소방방재시설 정비		1	식	132,000,000	132,000,000	별표4에 상세사항표기
	식생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		1	식	657,000,000	657,000,000	별표5에 상세사항표기
	원촌지 재현도	안내판 설치		1	식	12,000,000	12,000,000	원촌 관련 안내판 설치
	활용계획	활용계획 구역		1	식	90,000,000	90,000,000	
	소계						2,146,900,000	
2단계 (2018년 ~2019년)	유적 및 유구정비	제월루 재현	발굴조사, 440m ²	1	식	33,000,000	33,000,000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단가 적용(할증 1.3)
			학술연구	1	식	120,000,000	120,000,000	학술연구 및 동선계획
		숙수사지 유물 야외전시장		1	식	117,500,000	117,500,000	별표6에 상세사항표기
	경관정비	충효관 철거		583	m ²	300,000	174,900,000	
		관리사무소 이건		1	식	500,000,000	500,000,000	특산물 공판장 리모델링 - 사무공간
		사료관 철거		68	m ²	300,000	20,400,000	
		고직사	해체	80	m ²	300,000	24,000,000	
			사·발굴조사	100	m ²	7,500,000	7,500,000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단가 적용(할증 1.3)
			이건	1	식	300,000,000	300,000,000	고직사 이건 및 부지조성
	소계						1,297,300,000	
3단계 (2020년 이후)	제월루 재현	실시설계 및 건립비용		1	식	1,300,000,000	1,300,000,000	건축면적: 163m ²
	죽계천 정비	죽계천 정비		1	식	30,000,000	30,000,000	죽계천 정비계획 수립
	주변정비	소수서원 진입로		1	식	90,000,000	90,000,000	소수서원 진입로에 대한 규명 및 재현
	소계						1,420,000,000	
총계							4,864,200,000	

단계별정비계획 투자계획

	단계	항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별표 1	건축물정비	강학당	1	식	80,000,000	80,000,000	단청 보수
		장서각	1	식	25,000,000	25,000,000	균열로 인한 경상보수
		일신재 직방재	-	-	20,000,000	20,000,000	굴뚝 마감탈락 경상보수
		학구재	-	-	30,000,000	30,000,000	기둥 부식상태 점검 및 마감탈락 경상보수
		지락재	1	식	20,000,000	20,000,000	기단 마감탈락 경상보수
		문성공묘	1	식	10,000,000	10,000,000	경상보수
		전사청	1	식	40,000,000	40,000,000	사개이하의 부식정도를 파악하여 기둥 보수 방안 마련
		소계				225,000,000	
별표 2	주차장정비	실시설계비	1	식	40,000,000	40,000,000	
		잔디블럭	7120.4	m ²	50,000	356,020,000	운반비, 사공비 포함
		조경	1	식	50,000,000	50,000,000	1385.8m ²
		보행자도로	120	m	80,000	9,600,000	
		마운딩처리	1	식	20,000,000	20,000,000	
		기타	1	식	150,080,000	150,080,000	화단조성 진입로, 폐기물처리비 등
		소계				625,700,000	
별표 3	편의시설정비	탐방로 조성	1,700	m	30,000	51,000,000	
		내부 조명시설	5	개	7,000,000	35,000,000	전기공사, 설치비 포함
		외부 조명시설	24	개	7,000,000	168,000,000	전기공사, 설치비 포함
		이정표	4	개	300,000	1,200,000	
		종합안내판	3	개	20,000,000	60,000,000	
		개별안내판	12	개	4,000,000	48,000,000	
		벤치	27	개	1,500,000	40,500,000	
		휴지통	5	개	300,000	1,500,000	
		소계				405,200,000	
별표 4	소방방재시설정비	CCTV교체(경내)	5	개	7,000,000	35,000,000	폴대 제외, 공임비, 케이블 등의 자재값 포함
		CCTV교체(경외)	9	개	9,000,000	81,000,000	가로등 겸용, 공임비, 케이블 등의 자재값 포함
		CCTV녹화기	1	개	4,000,000	4,000,000	
		소방방재시설 외관정비	1	식	12,000,000	12,000,000	소화함 외관정비
		소계				132,000,000	
별표 5	식생정비	식생정비 기본계획	1	식	90,000,000	90,000,000	추후 사업비는 기본계획에 따름
		토양 개선	1	식	30,000,000	30,000,000	
		일상관리	3	년	99,000,000	297,000,000	병해충 방제 및 영양공급, 모니터링
		특별관리	1	식	125,000,000	125,000,000	응급조치, 영귀봉 밀도조절 및 식생정리
		후계림조성			115,000,000	115,000,000	후계목 식재 및 식재목 관리
		소계				657,000,000	
별표 6	숙수사지야외전시장	유물 운반비	1	식	500,000	500,000	
		울타리 설치	49	m	1,000,000	49,000,000	
		개별 안내판 설치	12	개	4,000,000	48,000,000	
		종합 안내판 설치	1	개	20,000,000	20,000,000	
		소계				117,500,000	면적 114m ²

< 별표 > 단계별정비계획 투자계획

부 록

1. 자문의견서
2. 보고회 회의록



1. 자문의견서

자 문 의 견 서

용역명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일시	2014년 06월 19일
장소	

자 문 요 지

-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검토
- 용역건에 대한 보완 및 지시사항

자 문 결 과

1. 숙수사에서 나온 석조 부재는 모두 수습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습된 석조 부재는 적절한 위치에 부재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시하도록 할 것.
2. 소수서원 원촌은 항공사진, 기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배치 계획을 하도록 하고, 각 건물의 평면 형식은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민가를 참조하도록 할 것이며, 원촌과 서원과의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3. 제월루 재건 계획은 심도 있는 검토와 자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제월루와 연결되는 동선을 고증하여야 할 것임.
4. 고직사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래 자리를 찾아 이건하도록 하고, 이건시에는 발굴 조사를 선행하도록 할 것.
5. 현재 복원된 탁청지의 규모와 형태가 과도하게 크게 복원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굴조사보고서를 보내로 탁청지의 형태와 규모를 추정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6. 주차장 바닥은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정비하도록 하며, 주차구역의 경계 지점에는 식재를 하여 최대한 많은 찰폐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것.
7. 충효 교육관 및 사료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이 건물에 수용된 공간을 수용할 건물의 신축 위치를 검토하도록 할 것.

상기와 같이 자문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 상 해

②

李相海

자 문 의 견 서

용역명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일시	2015년 8월 7일
장소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 영주 소수서원 종합정비계획 마련에 대한 검토 및 의견
- 소방방재시설 정비건에 대한 보완 및 지시사항

자 문 결 과

1. 옥내소화전 자동설명서 부족

2. 옥외소화전, 방수통등은 동계 등파에 대응할수 있는 구조로 할것

3. 기타 소방방재 계획은 보고서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

대구광역시 소방지선 상능위주 설계위원 김 제 원 

2. 보고서 회의록

■ 문화재청 중간보고회(2014년 6월 23일)

일시	2014년 6월 23일 14시	
장소	문화재청 2동 205호	
참석인원		
자문위원	이해준	공주대학교
	장헌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왕기	목원대학교
	최종희	배재대학교
영주시	장기진	문화예술과장
	송준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이유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안형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정춘호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호연 문화재연구원	이주형	
	이현정	
	권기환	
	남건우	

충효교육관	이유범	• 대체시설에 대한 대안 필요
	장헌덕	• 현재 충효관의 규모가 너무 크고 전체 MASS가 맞지 않으며, 서쪽 경사지를 절토함.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진행하며 충효관을 철거해야함
	이해준	• 충효관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왕기	• 충효관은 철거하는 것이 옳다. 특산물공판장 역시 철거하는 것이 옳다. 선비촌이나 소수박물관에 유림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는가? •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충효관이 있다면 검토사항이 되므로 철거가 옳다.
	송준태	• 유림대체시설 마련 후 충효교육관 철거, 진정성과 완성선도 좋지만 기건물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음. 공간적으로 검토해볼만 함
	장기진	• 충효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장단점을 파악
숙수사지 전시장	이해준	• 숙수사지에 포커싱을 하게 되면 컨셉에 혼선이 생김
	장헌덕	• 숙수사지에 대한 정비가 확대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왕기	• 정리만 잘해 놓으면 좋을 것으로 보임
	송준태	• 안향선생이 숙수사에서 공부했던 역사 등의 기록이 남아 있고, 어느 정도의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월루	이해준	• 경관복원의 의미가 있으며, 기록을 좀더 보완하기바람, 제월루가 복원될 경우 가장 부가가치가 큼, 고증 및 사·발굴조사를 철저히 해야 함
	장헌덕	• 제월루 복원은 의미가 있음
원촌재현	이해준	• 꼭 재현해야 하는가? 원촌에서 체험시설은 컨셉이 맞지 않다. 굳이 신축하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음. 1970년대 자료로 복원하는것은 무리가 있음. 옥산이나 병산 주변 원촌은 주민이 살고 있고, 현재 소수서원의 원촌은 신축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떨어짐 • 원촌터를 표시하는 것이 좋고, 죽계천이 회복되면 좋겠음 • 돈암서원과 같이 논, 밭이 있어야 원촌의 의미가 있음
	장헌덕	• 충효관 철거부지에 원촌을 재현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원촌의 논, 밭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이왕기	• 역사성이 중요하다면 건물터만 나타내는 정비. 이외의 활용은 선비촌 및 소수서원에서 진행
	이유범	• 원촌을 전시가옥형태로 놀이, 농사도구 등을 테마로 하여 관광형태로 하는 것은 어떨한가
주차장	장헌덕	• 주차장 정비는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고직사	장헌덕	• 고직사 정비는 의미가 있음

식재정비	최종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정비가 아니라 식생정비임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소, 실측보고서 참고 • 피렌체현장이나 이탈리아 현장에서 서원에 관련된 사항이 조정되는 부분을 짚어줘야함 • 수목별로 일련번호(바코드개념)로 실측하라. 식생구조도를 그려라. 각 식물의 고사, 삽입, 병충해, 복합되어있는가가 기준임 • 그 기준에 의해 존치, 대체, 보식 등이 나타나야함 • 어떻게 실측을하고, 분석을 하고, 조정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함 • 현재 식생구조를 단식, 열식, 군식, 개식, 홀식으로 분류가 필요함 • 1. 식생 실측도, 2. 식생 구조도, 3. 식생 훼손도 순으로 기재 • 낙엽수, 상록수, 소나무 1077주는 정비와 관련이 없음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 연구실, 6개서원 실측조사서에서 실측부분 참고
------	-----	---

■ 영주시청 중간보고회(2014년 7월 30일)

일시	2014년 7월 30일 14시 30분	
장소	영주시청 제1회의실	
참석인원	22명	
자문위원 (2)	백영흠	대구대학교, 문화재청 자문위원
	이수환	영남대학교, 자문위원
영주시 (8)	장욱현	시장
	서 원	부시장
	석용수	지역개발국장
	이화준	자치안전국장
	장기진	문화예술과장
	송준태	문화예술과
	서병규	도시디자인과장
	안상모	관광산업과장
소수서원 (9)	이갑선	소수서원 운영위원
	서승원	소수서원 운영위원
	송원태	소수서원 운영위원
	서석호	소수서원 운영위원
	안병우	소수서원 운영위원
	김선우	소수서원 운영위원
	안병식	소수서원 운영위원
	신현직	소수서원 운영위원
	류준희	소수서원 운영위원
(사)호연 문화재연구원	이주형	실장
	권기환	연구원
	남건우	연구원



장기진 문화예술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서승원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서원 공판장의 소유주는 어떻게 되나? 충효관이 적은예산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하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하여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오는 교수님들 마다 하던 이야기다. •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해 유림에서 할 수 있는 일 등을 설명해 줬으면 한다.
백영흠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반영할 기회는 있으니 의견을 말해달라. • 소수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충효관이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다. 충효관을 그대로 두더라도 보고서에는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대상지, 예산문제는 추후의 문제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소수서원의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 선비촌에서 소수서원으로 배면진입을 제한하고 정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죽계천을 따라 소수서원 정문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계획을 수립하겠다. 유림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장육현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교수님 말씀은 충효관 철거문제가 유네스코에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철거하지 않고 계획상에만 있다면 상관없다는 말인가?
백영흠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관없다. 하지만 그 이전에 원형복원을 위해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수환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사가 있다. 원형보존의 문제는 소수서원만의 문제만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원형복원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장기진 문화예술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효관 철거문제가 유네스코에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놓는다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철거하여도 된다고 들었다.
서승원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때에 충효관이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는 것이 맞고 이견하게 된다면 근방으로 옮겨도 된다. 우리 유림도 협조를 해서 등재가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다음 정비계획에 하는것은 어떤가. • 이상해 교수님이 계획을 우선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철거해도 된다고 말했다. • 하지만 대책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고 예산이 문제다. 예산문제는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등재에 대해 최대한으로 행적적인 부분이나 예산문제를 지원하여 소수서원 때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오.
백영흠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이정도의 사업이라면(소수서원의 등재되는 것에 대해 걸림돌이 된다면) 예산이 충분히 나올것 같다.
서승원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면 제월루는 복원이 가능할 것 같은가?
백영흠 자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월루는 사료 및 근거자료가 충분히 있으므로 가능 할 것 같다. 하지만 우선 사발굴조사를 시행하여 주초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기진 문화예술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 말해달라.
이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100%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작업중에 있다.
류준희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죽단화를 제거한 후 대나무를 심어야한다. 소수서원 잡록에 보면 대나무에 대해 관리하는 부분이 자주 나타난다. 서원의 대나무를 캐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유사가 인수인계를 할 때 대나무가 몇 주가 있었는지까지 파악해서 넘겨줬다. 대나무를 캐가는 사람은 신분차등에 따라 벌칙까지 정하여 시행했다. 외래수종을 제거하는 것은 좋지만 서원기록을 참고하여 대체식재를 하는 것이 옳다.

서원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마지막단계이다. 소수서원이 등재되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적극반영하여 지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년마다 심사가 나올때 단계별 전략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으므로 구체적인 예산, 공사기간 등이 나타나야 한다. 등재추진단과 교류를 하여 적극 반영해 달라. 유림 어르신들 호기를 맞이하여 어떤일이 있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요구사항을 인내를 해야하며, 적극적인 동참, 협조를 해줘야한다. 2016년에 일정대로 등재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용역시행사는 많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충효관을 철거한다면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기입해야 한다. 심사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
이갑선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사항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렵다. 등재를 목표를 하여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다.
서병규 도시디자인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차량과 대형차량이 겹치는 구간에 혼잡이 예상된다.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편의시설의 벤치, CCTV 등의 경우 너무 현대적인것 같다.
이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디자인이다.
안상모 관광산업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효관의 철거계획을 세운다면, 행정실무적인 입장에서 용도가 유사한 선비촌, 한문화 테마파크에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바란다. 관리사무실의 섹터는 단일공간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송준태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성생단은 본래 후편에 있었고, 해시계의 경우 본래의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림어르신들의 고증을 기억을 되살려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갑선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시계는 모르겠지만 성생단은 현위치가 확실하다. 60여년전 창홀할 때 현 위치에서 했었다.
송원태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생단은 현위치가 확실하다.
류준희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생단은 현위치가 확실하다. 해시계에 대한 사항을 자료를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다.
장기진 문화예술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직사는 담장 밖으로 철거하는 것에 대한 자문의견이 있었는가?
이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의견이 있었다.
서석호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직사는 철거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는가? 고직사는 옛 건물이 아닌가? 고직사는 상량문이 있다.(문제공이 지은 것)
송준태 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직사 철거가 아니라 이건하는 것이다.
류준희 소수서원 운영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붕괴되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주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가능한 가장 오래된 사진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발굴 조사를 통하여 유구를 확인 후 이건하겠다.
장욱현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효문화파크 등의 사업을 시행했고, 예산은 충분히 조달 할 수 있을 것 같으므로 너무 예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관리사무소가 꼭 소수서원 인근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며, 소수서원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재청의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 문화재청 최종보고회(2014년 10월 10일)

일시	2014년 10월 10일 14시 00분	
장소	문화재청 2동 205호	
참석인원	12명	
자문위원	이상해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해준	공주대학교
	이왕기	목원대학교
	최종희	배재대학교
영주시	장기진	문화예술과장
	송준태	문화재관리팀장
	조풍래	문화재시설팀장
	정상훈	소수서원 시립박물관 관장
문화재청	정춘호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사)호연 문화재연구원	이주형	
	권기환	
	남건우	



	이상해	연령대별의 서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선비촌과 박물관의 연계 등이 필요 소수서원만의 콘텐츠를 개발해야함
	이해준	활용의 경우 정비, 예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1단계에서 활용계획에서 준비가 필요 소수서원만의 특별한 활용계획이 필요 계획의 연계가 필요하다. 세대별, 연령별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소수서원만의 특별한 활 용계획이 필요 목록을 나열하고 연령대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필요 단계별 정비와 예산에 반영이 필요 건물별 정비 역시 연령대별로 분류가 필요 대상 서원에 대한 수요층, 대상 유적의 특화소재를 기초로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
죽계천	이상해	홍수 등의 측면에서 힘들더라도 현 상황에서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음
	이왕기	죽계천의 경우 하천법에 의해 복원이 어렵다고 되어있지만 활용계획에서 죽계구곡 길이 있고 강보존구역 내에 보존이 있으므로, 치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 방안을 마련
CCTV	조풍래	CCTV장비 노후
제월루	정춘호	제월루 건립비용은 없는가?
	이상해	탁청지의 위치 또한 동선의 한 부분 이었다. 제월루가 복원되었을 때 파생되는 효과에 대하여 파악해야 한다. 제월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파생되는 부 분에 대하여는 언급 되어야함
충효교육관	조풍래	철거 후 사무시설은 어떻게 되는가
원촌정비	이상해	원촌정비의 경우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함. 선비촌과 소수서원의 중간지역이므로 중요한 지역임
	김철주	원촌 재현이나 제월루 복원의 경우 진입동선이 달라 지게 됨
사업비산정	이왕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 삭감예산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잡아야함
	이상해	예산항목 또한 우선 정비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 예산책정을 세분화하여 기 입해야 한다. 또한 년도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기입해야함 예산은 신중히 책정해야하고 현재의 예산은 부족
식생정비	이상해	식재정비라는 용어가 맞는 것인가? 중·장기 계획에서 식생의 관리방안(보식 등) 마련이 필요 주차장에 대한 경관, 조경의 개선방안은 없는가?
	최종희	전체적으로 바코드를 찍어가며 수목조사를 해야함 공간별로 교목·관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식, 재식 군식, 열식은 식재 패턴이 아니고 식재 구조임 해당수목 별로 자체고사, 병충해, 경쟁 등을 진단하고, 그 다음 존치, 대체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식생정비의 전·후 비교도가 필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식생정비를 잘해야 추후의 정비계획에서도 반영될 것이므로 면밀히 해야 함 유지관리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자체고사, 병충해, 경쟁에 의해 훼손된 수목을 존치, 제 거, 보식 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원형회복의 경우 사료에 대해 고증이라는 계획이 있지 만 뒷부분에는 사료가 없다고 나타남 단기·중기·장기 구분하여 시행해야 함
	김철주	제월루의 유·무에 따라 전면경관이 변하므로 전면 식생에 대한 구성이 필요
	이상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다른 장소에 다른 방식으로는 안되는가?
숙수사지 유물전시장	송준태	숙수사 유물의 경우에는 숙수사터 내에 둘 수 있으면 좋겠음 소수중학교 철거 당시 발굴된 유물을 볼 때 숙수사의 사역 이었을 것으로 추정함 충효교육관 철거 후 여유 공간에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김철주	원촌 재현이나 제월루 복원의 경우 진입동선이 달라짐
동선계획	이상해	소수서원은 본래 여타 서원과는 다르게 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진입했었음

